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Analysis on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 Comparison of Ante and Post Survey

유영성 외

연구책임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정원호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이관형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마주영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연구참여 이지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연구자문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연구 2019-7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 인 쇄 2019년 12월
- 발 행 2019년 12월
- 발 행 인 이한주
- 발 행 처 경기연구원
- 주 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 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19
I S B N 979-11-9058-616-0 933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자그마치 17만 5천 명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같이 석유 에서 나오는 수익에 근거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년에 대략 1,75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이 과연 정책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등등 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에서 이 사업의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정책수혜자 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이들을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정책효과가 있음을 연구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더 확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향후 경기도가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성공한 정책이 되어 경기도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실증적으로 제시해 준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을 비롯한 여러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19. 12.

경기연구원장 이현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경기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여 사용한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여 정책효과 유무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24세)는 약 17만 5천 명이다. 이 중 실제 1분기 신청자(2분기에 1분기 지급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포함)는 124,335명(약 71%)이었다.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바로 이들 신청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비교집단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친 만24세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이 비교집단도 2019년 4월 1일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취하였다.

양적 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외 지역의 비교집단(만24세)에게도 위와 동일하게 양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집단,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만24세)들은 총 63,300명이었다. 이들 사전조사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32,6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32,687명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는 1,300명의 표본을 구할 수 있었고, 이들 1,300명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900명이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의 경우 900명의 패널 자료가 구축되었다.

질적 조사는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직 경기도 청년(만24세)에 대해서만 하였다.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비교집단)을 상대로 질적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5명 내외의 인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집중집단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었으나, 진행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반(半)구조화 방식’을 택하였다.

FGI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은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뽑은 후 참여 승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 직장 유무, 학력 정도, 재학/졸업 여부, 그리고 공공부조 경험을 삼았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5개 권역, 즉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다.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한 6개의 FGI 그룹은 구체적으로 ① 고졸 이하 직장인(4명), ② 초대졸 이상 직장인(7명), ③ 고졸 이하 미취업자(5명), ④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6명), ⑤ 대학생(휴학포함)(6명), ⑥ 공공부조 경험자(6명)로 이루어졌다.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조사의 경우 분석의 범주를 다섯 가지, 즉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그리고 꿈-자본으로 삼고,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레빈 테스트후 등분산성 전제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들

을 몇 가지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 ②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③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④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 ⑤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었다.
- ⑥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 ⑦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질적 조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타의 네 부분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①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크게 개선할 점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② 불편사항으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③ 특히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다.
- ④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으로 보고 있다.
- 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수급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악화되거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4
1.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4
2.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특징	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1. 조사사업 개관	11
2. 조사 응답자 결과	14
제4절 연구의 수행 체계	17

■ 제2장 양적 조사 / 21

제1절 효과 측정 문항 구성	21
1. 행복	22
2. 건강과 식생활	24
3. 인식과 태도	25
4. 경제활동	27
5. 꿈-자본	30
제2절 분석결과 (통계적 검정 중심)	33
1. 행복	35
2. 건강과 식생활	42
3. 인식과 태도	54
4. 경제활동	80
5. 꿈-자본	89
제3절 소결	101

■ 제3장 질적 조사 / 107

제1절 질적 조사의 설계	107
1. 개요	107
2. 설문 구성	108
제2절 질적 조사의 집단별 결과 분석	108
1. <집단 1> 고졸 이하 직장인	108
2. <집단 2> 초대졸 이상 직장인	110
3. <집단 3> 고졸 이하 미취업자	112
4. <집단 4>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	114
5. <집단 5> 대학생	117
6. <집단 6> 공공부조 경험자	120
제3절 질적 조사 결과 종합	124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124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126
3.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127
제4절 소결	128

■ 제4장 분석 종합 및 결론 / 133

제1절 분석 종합	133
1. 양적 조사 분석 종합	133
2. 질적 조사 분석 종합	135
3.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 분석 종합 및 평가	136
제2절 요약 및 결론	136

■ 참고문헌 / 141

■ Abstract / 149

■ 부록 / 155

표차례

<표 1-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 대상자	5
<표 1-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6
<표 1-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8
<표 1-4> 조사 실시기간	14
<표 1-5> 패널의 특성 (I)	15
<표 1-6> 패널의 특성 (II)	16
<표 1-7> FGI 그룹 분류표	17
<표 2-1> 변수의 구성	33
<표 2-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36
<표 2-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37
<표 2-4>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37
<표 2-5>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38
<표 2-6>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43
<표 2-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43
<표 2-8>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44
<표 2-9>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45
<표 2-1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50
<표 2-1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50
<표 2-12>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51
<표 2-13>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51
<표 2-1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55
<표 2-15>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55
<표 2-16>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56
<표 2-17>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56
<표 2-18>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60
<표 2-19>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60
<표 2-20>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1
<표 2-21>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1

<표 2-2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63
<표 2-2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63
<표 2-24>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4
<표 2-25>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4
<표 2-26>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65
<표 2-2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66
<표 2-28>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6
<표 2-29>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66
<표 2-3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69
<표 2-3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70
<표 2-32>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70
<표 2-33>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71
<표 2-3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76
<표 2-35>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77
<표 2-36>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77
<표 2-37>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77
<표 2-38> 취업자/미취업자 구성	80
<표 2-39>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81
<표 2-4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81
<표 2-41>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2
<표 2-42>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2
<표 2-4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83
<표 2-4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84
<표 2-45>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4
<표 2-46>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5
<표 2-4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87
<표 2-48>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87
<표 2-49>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8
<표 2-50>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88
<표 2-5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89

<표 2-5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90
<표 2-53>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91
<표 2-54>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92

■ 그림차례

<그림 1-1>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원체계 및 흐름도	6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18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사전/사후조사	34
<그림 2-2> 경기도 시·군별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결과	39
<그림 2-3> 경기도 시·군별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결과	39
<그림 2-4> 경기도 시·군별 ‘어제 행복함 정도’ 결과	40
<그림 2-5> 경기도 시·군별 ‘어제 우울함 정도’ 결과	41
<그림 2-6> 경기도 시·군별 ‘어제 근심 걱정 정도’ 결과	41
<그림 2-7> 경기도 시·군별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 결과	46
<그림 2-8> 경기도 시·군별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 결과	47
<그림 2-9> 경기도 시·군별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 어려움 정도’ 결과	47
<그림 2-10> 경기도 시·군별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결과	48
<그림 2-11> 경기도 시·군별 ‘30분 이상 숨차 정도’의 운동빈도’ 결과	49
<그림 2-12> 경기도 시·군별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결과	52
<그림 2-13> 경기도 시·군별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결과	53
<그림 2-14> 경기도 시·군별 ‘과일 섭취 빈도’ 결과	53
<그림 2-15> 경기도 시·군별 ‘타인에 대한 신뢰’ 결과	57
<그림 2-16> 경기도 시·군별 ‘법·제도에 대한 신뢰’ 결과	58
<그림 2-17> 경기도 시·군별 ‘정치인에 대한 신뢰’ 결과	58
<그림 2-18> 경기도 시·군별 ‘언론에 대한 신뢰’ 결과	59
<그림 2-19>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정도’ 결과	62
<그림 2-20> 경기도 시·군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결과	62
<그림 2-21> 경기도 시·군·구별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결과	65
<그림 2-22> 경기도 시·군별 ‘의사결정과정에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결과	67

<그림 2-23> 경기도 시·군별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	71
<그림 2-24> 경기도 시·군별 ‘사회문제의 책임이 국가(사회)에 있다는 인식’ 결과	72
<그림 2-25> 경기도 시·군별 ‘보편복지 지지도’ 결과	73
<그림 2-26> 경기도 시·군별 ‘무상교육 지지도’ 결과	73
<그림 2-27> 경기도 시·군별 ‘무상의료 지지도’ 결과	74
<그림 2-28> 경기도 시·군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지지도’ 결과	75
<그림 2-29> 경기도 시·군별 ‘공유부 배당과 관련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결과	78
<그림 2-30> 경기도 시·군별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의견’ 결과	79
<그림 2-31> 경기도 시·군별 ‘기본소득의 소국민 확대에 대한 의견’ 결과	79
<그림 2-32> 경기도 시·군별 ‘주당 노동시간’ 결과	83
<그림 2-33> 경기도 시·군별 ‘주당 구직활동시간’ 결과	85
<그림 2-34> 경기도 시·군별 ‘주당 직업훈련시간’ 결과	86
<그림 2-35> 경기도 시·군별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결과	88
<그림 2-36>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결과	93
<그림 2-37> 경기도 시·군별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결과	94
<그림 2-38>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결과	94
<그림 2-39> 경기도 시·군별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결과	95
<그림 2-40>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결과	96
<그림 2-41> 경기도 시·군별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결과	96
<그림 2-42>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결과	97
<그림 2-43>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결과	97
<그림 2-44> 경기도 시·군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결과	98
<그림 2-45> 경기도 시·군별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결과	98
<그림 2-46> 경기도 시·군별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결과	99
<그림 2-47> 경기도 시·군별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99
<그림 2-48> 경기도 시·군별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결과	100
<그림 2-49> 경기도 시·군별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100
<그림 2-50> 경기도 시·군별 ‘나는 좌절경험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101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제 3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4 절 연구의 수행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4월 1일에 실시된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¹⁾을 거주한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법적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는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승계한 것인 만큼 성남시가 표방했던,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고, 만 24~25세 사이가 실질적 소득이 미발생하는 연령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하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8년 11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5967호)」 제10조(평가)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1)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은 사업 시행 초기에 없었으나, 2019년 1분기 지급을 실시하면서 잠시 이주할 필요에 의해 3년간 계속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경기도에 거주하였던 청년들의 민원과 이의 제기가 있어 1분기 지급사업 이후 2분기 지급부터 추가로 적용한 사항이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조례가 제정될 때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배당이라고 하여 청년기본소득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명칭과 내용 면에서 승계했기에 청년배당이란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9년 들어와 경기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조례의 명칭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조례에서는 청년배당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평가·조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직접적인 정책 수급자인 경기도 청년(만 24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고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정책평가 차원의 접근을 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최소한 1년간 지급받은 후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1년은 태어난 생일에 따라 1번에서 4번까지 지급받는 횟수가 다른 청년들이 생기기 마련인 만큼 모든 청년들이 골고루 4번 다 지급받는 시점이 지난 뒤에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직전과 직후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작으나마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여 사용한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정책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제2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1.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1) 청년기본소득의 설계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매 분기 지급하기 때문에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의 구간이 정해진다(<표 1-1> 참조). 이 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 지급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³⁾ 해당 분기에 신청을 안 하고 지나친 사람들의 경우 이후 분기 때에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

다.⁴⁾ 이 사업의 실제 시작이 2019년 4월부터이다 보니 2019년 1분기 신청대상자였던 사람들은 2분기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표 1-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한편 이 사업이 시작된 첫 해의 경우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 중 1분기 출생자들은 1회 25만 원만 지급받게 되고, 2분기 출생자들은 2회 총 50만 원, 3분기 출생자들은 3회 총 75만 원, 4분기 출생자들은 4회 총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업의 두 번째 해부터는 어느 분기에 출생하였는가와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으로서 지급신청을 한 자는 4회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시행하되, 31개 개별 시·군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화폐는 발행유형에서 각 시·군별로 자체 선호 방식과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지역화폐는 종이류, 카드, 모바일 중 시·군별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개별 혹은 중복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기간은 민선 7기에 시작한 만큼 일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은 약 17만 5천 명이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매해 인구 규모는 엇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의 경우 약 1,753억 원이며, 이후 3년간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요예산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70:30의 재정부담 비율로 서로 분담한다(〈표 1-2〉 참조).

3)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대상자 약 175,000명 중 실제 1분기 신청자 124,335명이었다.

4) 실제 1분기 지급 대상자인데 2분기에 신청한 청년들이 1만 명을 초과하였다.

〈표 1-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단위: 억원, 명)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계	6,866	1,753	1,746	1,698	1,669
	도비(70%)	4,806	1,227	1,222	1,189	1,168
	시·군비(30%)	2,060	526	524	509	501
사업량	(주민등록수)	686,550	175,281	174,557	169,812	16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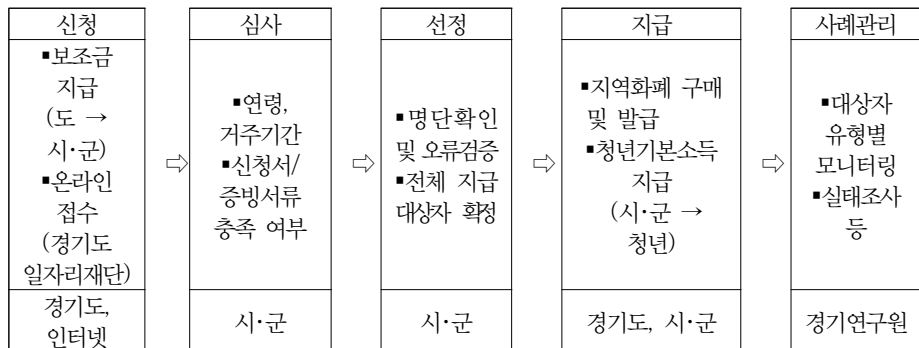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2)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체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내 기관별 역할이 주어졌다. 즉, 경기도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등을 하며, 시·군의 경우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지역화폐 발급,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을 한다. 여기에 추가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경기연구원은 대상자 모니터링(사전·사후평가) 및 실태조사(만족도 등)를 한다.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의 업무는 코나아이(주)라는 지역화폐플랫폼 사업체가 대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1〉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원체계 및 흐름도



자료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운영 지침(안)」.

2.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특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금전 지급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다. 만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적 금전 지급과는 다른, 경제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이유는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둘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적으로 경기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역화폐의 통용이 개별 31개 시·군의 경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군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는 것이 맞다. 즉, 기본소득 지급대상의 지역적 경계가 시·군인 만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연합 정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원래 청년배당이란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서 배당과 기본소득은 명칭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등가적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인 사회배당, 시민배당, 국민배당에서 ‘배당’을 차용한 것이고, 단지 그 대상을 청년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당은 사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배당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부에 대한 시민권으로서 지분 권리를 국가가 배당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당이 곧 기본소득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청년배당과 청년기본소득은 굳이 서로 차별화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

넷째, 과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란 이름에 걸맞게 기본소득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100% 완벽

한 기본소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나, 현실의 가능성을 고려한 변형(준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조건은 하자 없이 구비한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주보편성을 만족하고, 이들이 이를 받고 노동을 더 할지 등을 묻지 않고 지급하여 무조건성도 충족하며, 지급받는 대상이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가 아니라 청년 개인이므로 개별성도 충족한다. 이것들이 기본소득 구성요건 중 필수 항목인데 청년기본소득은 이들 세 가지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 1년 동안 지급하지만, 1회가 아니라 4회에 걸쳐 지급하므로 주기성도 충족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기성의 경우 1년만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기성은 원래 햇수로 긴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애초에 지급대상 범주를 만 24세로 한정하는 범주보편성을 충족하는 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1년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성을 지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준(準)현금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는 방대한 사용처를 가지고 있고, 지급형태로 종이류, 직불카드, 모바일 중 직불카드가 지역화폐 발행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거의 현금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표 1-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기본소득 구성요건	충족 여부	내용	특이사항
보편성	○	- 만24세 청년 전부를 대상으로 함 (도내 3년 연속 거주 또는 전제 10년 거주) - 재산, 소득 상태를 심사하지 않음	범주보편성
무조건성	○	- 취업 상태, 노동 의욕 등을 묻지 않음	
개별성	○	-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	
주기성	△	- 1년 동안만 지급 - 분기별(일정 주기)로 4회에 걸쳐 지급	준(準)주기성
현금성	△	-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특정 용도의 바우처나 상품권이 아님)	준(準)현금성
충분성	△	- 분기별 25만원 지급 - 생계급여 (2019년 1인 가구 기준 월 512,102원) 보다 적은 액수 지급	BIEN에서 불인정 요건

주: 1) 충족 여부(○ 충족, △ 부분 충족, × 불충족), 2)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기본소득의 필수 요건.

다만,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한정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수퍼마켓(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현금이 지나는 사용의 자유로움과 효용극대화 달성에는 못 미치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약점이나 한계는 사회 전체 차원의 득실을 따질 때 충분히 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다소 양보함으로써 지역화폐라는 도구적 수단을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다 균형된 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시장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섯째,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함께 결합되는 특성을 보인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시민의 권리로서 인식하며 접근하는 근본적 입장을 취하기보다 현실의 복지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도구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활동 유인, 생활유지 등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기본소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을 공유부(공유재산, 공유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칫 선택적 복지제도인 사회수당으로서 청년수당과 그 맥이 같다고 혼동을 할 여지가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배당으로 명칭을 지니고 이해될 경우 그렇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중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청년을 다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대상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다소의 결함이 따를 수 있다. 실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중 기초수급대상자 수는 2019년 현재 1,601명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생계급여 등을 못 받게 되어 차라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안 하던지 신청을 한 경우는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록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전체의 1% 미만에 해당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정신에 벗어나는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와 불협화음을 일으켜 생기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정책협의를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화폐 지급은 지역경제에서 청년(및 주변인들)의 소득(가처분소득)증가, 구매력 향상, 소비증가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더 나아가 매출 증가로 소득이 증가된 소상공인들의 소비증가 등을 연속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내 가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가 등 경제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정책임을 말해준다.

지역화폐가 일회성 사용으로 끝나지 않고 현금화폐로서 경제내에서 반복하여 순환사용이 가능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화폐의 순환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발생시키는 화폐금융 정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지역화폐의 순환사용은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는 보조금 성격을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지역금융 정책과 결합시킴으로써 경제정책으로 전환 혹은 융합, 더 나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정책 진화체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할 것이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전/사후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만큼 본 연구는 내용 대부분이 조사사업과 조사결과의 분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조사사업 방법이 지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 조사사업 개관

1) 조사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24세)는 약 17만 5천 명이다.⁵⁾ 이 중 실제 1분기 신청자는 124,335명(약 71%)이었다.⁶⁾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표적 집단은 바로 이들 신청자이다.⁷⁾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비교 집단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친 만 24세 청년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크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구분된다.

(1) 양적 조사

i) 경기도 청년(만 24세)들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⁸⁾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응답자에 한해 사후조사가 실시되도록 통제함으로써 사전조사 응답자 수에 비해 사후조사 응답자 수가 적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후조사 응답자들 집합은 사전조사 응답자들 집합에 대해 온전히 부분집합이 되므로 최종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24세) 약 17만 5천 명에 대한 기초통계(행정통계)는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패널 응답자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기초통계는 <표 1-5>와 <표 1-6>에 기술되어 있다.

6)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중 기초수급대상자 수는 2019년 현재 1,601명(전체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게 되어 차라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안 하던지 신청을 한 경우는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들을 전체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들 1,601명 중 1분기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표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의 구분을 통한 샘플링 방식은 통계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없다.

8) 구조화된 설문지는 <부록 I>에 제시되어 있다.

적인 분석패널 자료상의 대상자는 사후집단 응답자들이 된다.

사후조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고 지역화폐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 곧바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설문조사에서 이를 구분하는 질문을 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고 이들을 조사응답에서 제외시켰다.

ii) 경기도 이외 지역의 비교집단(만24세)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양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2) 질적 조사

질적 조사는 경기도 청년(만 24세)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비교집단)을 상대로 질적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5명 내외의 인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었으나 진행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반(半)구조화 방식’을 택하였다.

FGI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은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몇 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뽑은 후 참여 승낙을 하는 경우만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 노동시장 참여 유무, 학력 정도, 재학/졸업 여부, 그리고 빈곤 경험⁹⁾을 삼았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5개 권역, 즉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 6명이 조사 진행자 혹은 보조 진행자로 참여했다. 조사 진행자들은 최대한 자기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간섭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 본 조사에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들의 빈곤 여부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권자 등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은 설문 응답자들에게 낙인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배제하였다. 다만, 빈곤을 추론할 수 있는 문항은 사회보장 수급의 경험이 있느냐 질문에서 각 사회보장제도를 열거하고 경험 여부만을 응답하도록 했는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방식은 사회보장 제도의 경험여부를 묻는 것으로 낙인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설문 응답자가 빈곤충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문항이 된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전국민 하위 5%에 해당하는 빈곤을 경험했다는 의미이자 한국 사회에서 계층 사다리가 붕괴되었다고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은 여전히 극빈층이거나 차상위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되 발언권이 편중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3) 조사 실시

(1) 경기도 청년 조사(양적 조사)

사전조사(1분기)는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신청자들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되기 전까지 이들 신청자들에게 웹조사 방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이들 응답자를 구별해 내는 설문 문항을 제시하여 이들을 최종조사 응답자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자료에 1분기 신청대상자이면서 1분기에 신청하지 않고 2분기에 1분기 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는 2019년 6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사후조사는 1분기 신청자들에게 지역화폐 지급이 마감된 이후에 해당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2) 경기도 청년 조사(질적 조사)

경기도 청년(만 24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 FGI는 2019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주)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3일에 걸쳐 총 6차례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일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으며, 한 차례당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3) 비교집단 조사(양적 조사)

사전조사는 2019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신청자들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맞춰 비교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 웹조사 방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후조사는 경기도 1분기 신청자들에게 지역화폐 지급이 마감된 후부터 비교

집단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2019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1-4〉 참조).

〈표 1-4〉 조사 실시기간

조사대상	조사명		실시기간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만24세)	양적 조사	사전조사	2019년 04월 12일~05월 20일, 2019년 06월 27일~08월 05일	4.8~5.10 (1분기) 6.1~6.30 (2분기)
		사후조사	2019년 09월 16일~10월 21일	지역화폐 발급 시점
	질적 조사	사후조사	2019년 08월 28일~08월 30일	4.15 (1분기) 7.20 (2분기)
		사후조사	2019년 08월 28일~08월 30일	4.15 (1분기) 7.20 (2분기)
비교집단 청년 (만24세)	양적 조사	사전조사	2019년 05월 14일~05월 17일	심사 마감일
		사후조사	2019년 09월 16일~11월 04일	5.13 (1분기) 7.14 (2분기)

2. 조사 응답자 결과

1) 양적 조사 패널 구성

(1) 경기도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령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만 24세)들은 총 63,300명이었다. 이들은 1분기 신청자 57,540명과 1분기 때 신청하지 않고 2분기 때에 1분기 지급 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5,76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전조사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32,6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32,687명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 결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2) 비교집단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는 1,300명의 표본을 구할 수 있었고, 이들 1,300명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900명이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의 경우 900명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양적 조사 패널 특성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한 경기도 청년(만 24세) 32,687명과 비교집단 900명의 통계적 특성은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5> 패널의 특성 (I)

구분		경기도 청년(만 24세)		비교집단 청년(만 24세)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성별	남성	28,460	43.5	842	46.8
	여성	36,914	56.5	958	53.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3	0.5	88	4.9
	고졸	10,188	15.6	187	10.4
	대학재학	15,677	24.0	611	33.9
	대졸 이상	39,176	59.9	1,002	55.7
혼인상태	미혼	63,297	96.8	1,753	97.4
	기혼	1,891	2.9	47	2.6
	기타	186	0.3	-	-
가구형태	1인 단독가구	7,696	11.8	440	24.4
	부부가구	777	1.2	26	1.4
	자녀와 동거	859	1.3	19	1.1
	부모와 동거	51,466	78.7	1,192	66.2
	기타	4,576	7.0	123	6.8
주거형태	자가	35,502	54.3	863	47.9
	전세	11,330	17.3	328	18.2
	월세(보증금 有)	13,098	20.0	482	26.8
	월세(보증금 無)	1,957	3.0	68	3.8
	기타	3,487	5.3	59	3.3
부모 경제수준	상	3,608	5.5	111	6.2
	중	39,954	61.1	1,196	66.4
	하	21,812	33.4	493	27.4

〈표 1-6〉 패널의 특성 (Ⅱ)

구분		경기도 청년(만 24세)		비교집단 청년(만 24세)		
		사례수(명)	%	지역	사례수(명)	%
거주지역	수원시	6,988	10.7	수도권	676	37.6
	성남시	4,281	6.5	충청권	240	13.3
	부천시	4,735	7.2	호남권	214	11.9
	안양시	3,567	5.5	경북권	229	12.7
	안산시	4,442	6.8	경남권	353	19.6
	용인시	5,148	7.9	강원/제주권	88	4.9
	평택시	2,379	3.6			
	광명시	1,662	2.5			
	시흥시	2,681	4.1			
	군포시	1,664	2.5			
	화성시	2,943	4.5			
	이천시	743	1.1			
	김포시	1,544	2.4			
	광주시	1508	2.3			
	안성시	783	1.2			
	하남시	905	1.4			
	의왕시	915	1.4			
	오산시	994	1.5			
	과천시	341	0.5			
	여주시	440	0.7			
	양평군	344	0.5			
	고양시	5,546	8.5			
	의정부시	2,566	3.9			
	남양주시	3,047	4.7			
	파주시	1,747	2.7			
	구리시	1,116	1.7			
	포천시	636	1.0			
	양주시	920	1.4			
	동두천시	465	0.7			
	가평군	173	0.3			

3) 질적 조사 참여자 구성

경기도 청년(만 24세)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한 6개의 FGI 그룹은 ① 고졸이하 직장인, ② 초대졸이상 직장인, ③ 고졸이하 미취업자, ④ 초대졸이상 미취업자, ⑤ 대학생(휴학포함), ⑥ 공공부조 경험자로 하였다. FGI 그룹별 참여자의 수와 성별 구분은 <표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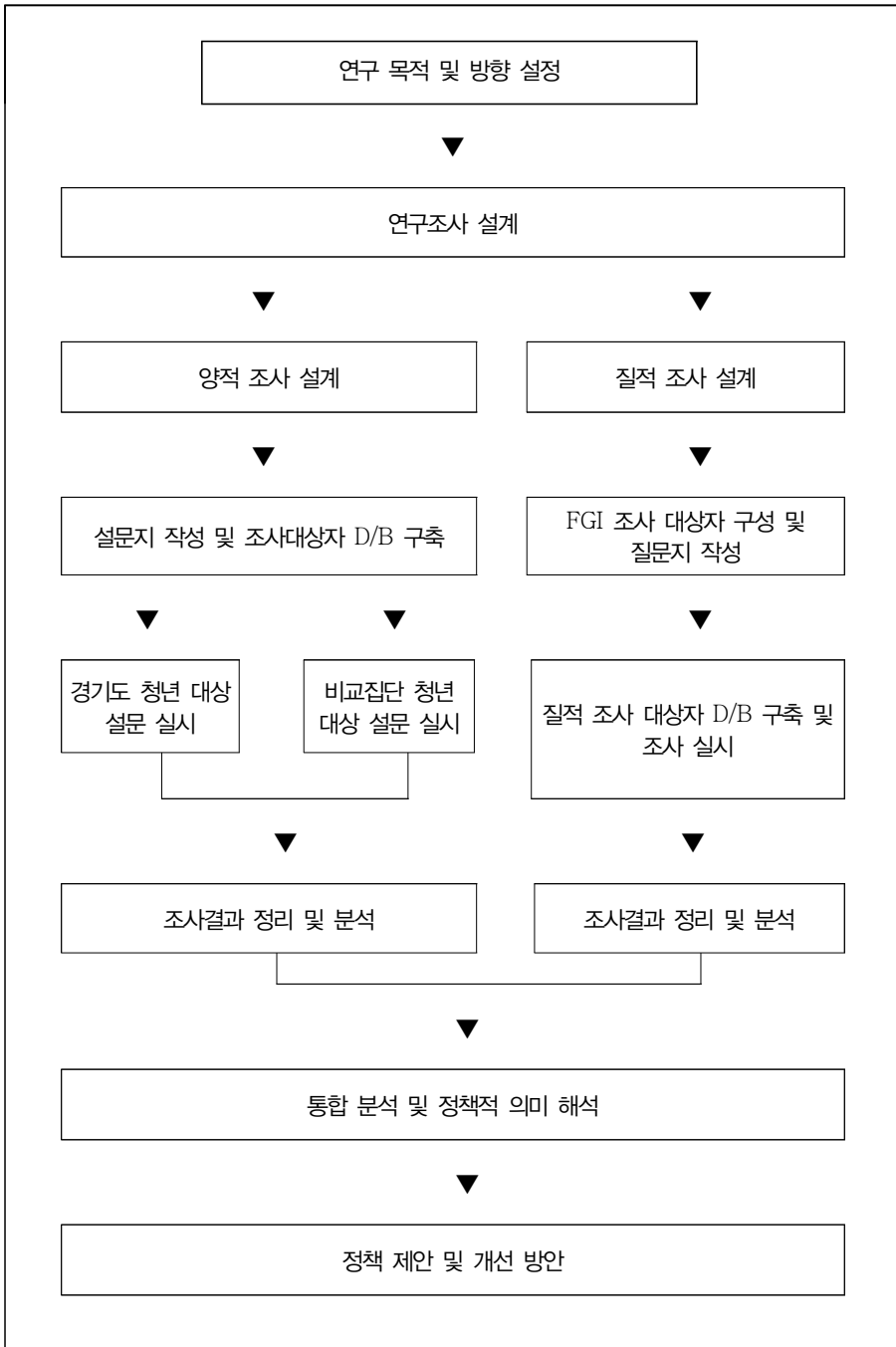
<표 1-7> FGI 그룹 분류표

그 룹	남	여	계
1. 고졸이하 직장인	2	2	4
2. 초대졸이상 직장인	3	4	7
3. 고졸이하 미취업자	3	2	5
4. 초대졸이상 미취업자	3	3	6
5. 대학생(휴학 포함)	4	2	6
6. 공공부조 경험자	3	3	6
총 계	18	15	33

제4절 연구의 수행 체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2>와 같은 절차에 따른 연구 진행으로 구성된다.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제 2 장

양적 조사

- 제 1 절 효과 측정 문항 구성
- 제 2 절 분석결과 (통계적 검정 중심)
- 제 3 절 소결

제2장

양적 조사

제1절 효과 측정 문항 구성¹⁰⁾

본 장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양적 조사에 기반하여 정책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규모는 각각 32,687명과 900명이다.¹¹⁾ 패널 구성의 방법과 과정, 특징 등은 제1장의 제2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정책효과 분석의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해당 범주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논의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의 효과와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시도하였거나 효과가 이미 검증된 항목들 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목표 및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기본소득 실험이나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어진 기본소득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본소득의 거시적인 효과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불평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노동유인에 대한 부(-)의 관계(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노동유인에 대한 정(+)의 관계(강남훈, 2019a; Van Parijs, 2013), 불평등 감소(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강남훈, 2019a; 2019b;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Stern and Kravitz, 2016),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Lewis et al., 2005; Wiseman, 1990), 임금과 노동조건 보호 강화(Standing, 2011; 2013; 2017; Offe, 2008), 지역사회의 공

10) 이 절의 일부 내용은 서정희(2019)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1) 보통 실험설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집단’이라 칭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 지역과 규모 차이를 고려하여 통제집단 대신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이라 부르기로 한다.

동체 효과(Standing, 2017; Davala et al., 2015), 경제성장(Nikiforos et al., 2017) 등이다(서정희, 2019).

둘째, 기본소득의 미시적인 효과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들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키고(Y Combinator, 2017; Kangas et al., 2016), 거절할 수 있는 자율성과 개인의 선택을 확대하며(Widerquist, 2013; Stern and Kravitz, 2016; Offe, 2008; Standing, 2017; Wright, 2005; 2006; Handler and Babcock, 2006), 시간 사용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키고 교육과 건강 등의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Segal, 2016; Akee et al., 2010; 2015; Hines, 2016; Forget, 2011; Y Combinator, 2017; Kangas et al., 2016)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들이 존재한다(서정희, 2019).

본 연구에서는 위 항목들 중 미시적 효과와 개인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포함하여 개별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분석에 포함된 개별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론적 근거와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행복

기본소득의 지급은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Y Combinator, 2017). 기본소득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근거는 최근 사회정책의 정책 목표의 변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불평등의 감소나 GDP의 증가 등의 거시지표로 측정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행복의 증대 혹은 유지가 주요 사회정책의 목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17: 3). 이러한 인식은 사회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지수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최근 UN,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하고, 타당성이 담보된 행복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행복을 얼마나 주요 정책지표로 고려하고 있는지는 UN과 OECD가 매년 혹은 격년으로 ‘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UN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7번째 보고서를 출간했다.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회원국의 행복 동향을 파악한 「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격년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과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 역시 이러한 사회정책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와이 콤비네이터 실험의 경우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8가지 연구문제를 제안하는데, 이 중 두 번째 항목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것이다(Y Combinator, 2017). 와이 콤비네이터가 제시한 행복 측정 항목은 해당 측정에 관한 OECD(2013) 지침에 의거하여 삶에 대한 평가로서의 행복, 감정적인 행복, 유데모니아 행복을 포괄한다(Y Combinator, 2017). 2019년 2월에 발표된 핀란드 실험 중간평가보고서(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Kela, 2019) 역시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결과로 개인의 행복을 다루고 있다.

행복의 측정 방식은 주관적 웰빙과 객관적 웰빙의 통합방식을 기반으로 3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 방식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조동훈, 2017). 첫째, 삶에 대한 평가로서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인지적 평가 혹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 혹은 정서로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감정 혹은 느낌으로서의 행복이다. 셋째, 유데모니아(eudaimonia)적 웰빙으로서 이 용어는 삶의 목적과 의미 혹은 심리적으로 좋은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관적 웰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Huppert et al.(2009)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행복은 기존 연구들과 핀란드 실험의 행복에 관한 척도, OECD(2013), UN(2017), 그리고 Helliwell et al.(2017)에 의거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건강과 식생활

건강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전제조건이자 사회적 생산성 및 삶의 수준과 직결된다(Kangas et al., 2019).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이미 몇몇 실험에서 검증되기도 하였다(Forget, 2011; Forget et al., 2016).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생활에 관한 것이다. 식량 혹은 영양소의 부족은 체력 저하 및 질병을 발생시키고, 이는 개인적 측면에서 노동력 생산성 저하, 삶의 만족도 저하 등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 비용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지역사회 삶의 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Segal et al., 2016). 기본소득의 지급은 식량 비보장(food insecurity; 절대량의 부족 및 질적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Segal et al., 2016).

한시적이기는 하나, 2008년 1월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급여(Basic Income Grants)를 지급하는 실험을 한 나미비아는 기본소득제도 실시 1년 만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였고, 5세 미만 과소체중 아동이 42%에서 17%로 줄어들었다. 또한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한 달에 12회에서 6회로 50%나 감소하였다(Haarmann et al., 2008). 기본소득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이 건강과 교육 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 것이다.

식량 비보장의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의 상품 생산량은 식량 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데도 여전히 선진국에서조차 식량 비보장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실험이다. 해당 실험설계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빈곤의 다차원성으로 분석하면서 관대한 기본소득이 더 좋은 건강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Segal, 2016: 5). 특히 식량 비보장 문제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결국 소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데, 기본소득 지급이 개인 혹은 가구의 식단을 양질의 식단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

고 그러한 변화가 질병, 생산성, 교육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한다(Segal, 2016).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8년 캐나다 지방선거에서 온타리오주 정부의 집권당이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실험이 중단되어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60년대도 아니고 2017년에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존재해서 봉사활동의 대가로 받은 식권을 같은 대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십시일반’이라는 대학 내 봉사단체에 자존심 강한 대학생들이 식권을 신청한 수요가 1,900명에 달한다(변진경, 2018). 청년 세대들이 연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빚을 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1순위로 줄이는 것이 밥이다(변진경, 2018). 청년 세대들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은 이제 흙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건강과 식생활은 「한국 영양지수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 측정 문항을 채택하였다. 핵심 문항에 해당하는 건강(정신건강 상태, 육체적 건강 상태, 기능적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항목, 운동 항목 및 식생활 관련 핵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핀란드 실험의 경우 건강(정신건강 상태, 육체적 건강 상태, 기능적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영양지수 조사 중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와 일치한다.

3. 인식과 태도

인식과 태도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영역별 신뢰 및 한국 사회와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과 건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신뢰가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한다(Kangas et al., 2019). 이를 토대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험국)는 신뢰에 대한 항목을 타인에 대한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제시하였

다(Kangas et al., 2019: 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본 조사에서는 핀란드 실험의 항목을 바탕으로 3가지 신뢰 항목을 선택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를 추가하였다.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자기 결정권과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대한 교섭력을 키울 수 있고(Wright, 2006: 146~147), 기본소득은 고용관계에서 개인적인 영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집합적 힘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노동계급의 파업자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Van Parijs, 2006; Wright, 2005: 5~6; Vanderborght, 2006).

기본소득이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게 되면 사람들은 착취적인 수준의 임금을 거부할 힘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협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다(Standing, 2017: ch 6; Offe, 2008).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일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용자는 지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보수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와의 협상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Offe, 2008: 10~11).

이러한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의 강화는 고용관계에서만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주 소득자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가 틀어지거나 모욕적인 상태가 되거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통해 이 관계를 떠날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Standing, 2017; Jordan, 1992: 172; Standing, 1992: 59; Van Parijs, 2001: 20). 또한 관료제의 간섭, 염탐, 강제 등을 막을 자유를 부여하고(Standing, 2017), 부조리함과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exit option)를 제공한다(Handler and Babcock, 2006).

핀란드 실험은 개인의 협상력 증가와 자기 결정권 강화를 기본소득의 해방적 속성(emancipatory nature)으로 구성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평가를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핀란드 실험의 문항을 기반으로 의사결

정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항목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의 정도를 추가하였다.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 문항은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s Survey)(2010-2014)에서 채택하고 있는 55번 문항(귀하는 자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을 선정하여 차용하였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젠더 인식과 복지 인식,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젠더인식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 조사 분석연구」(최유진 외, 2016) 중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관한 문항과 2018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중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문항을 채택하였다.

복지인식에 관한 설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하고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해당 조사의 항목에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을 삭제하고 무상의료에 대한 생각으로 대신하였다. 선별주의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은 보편주의로 수정하여 긍정적 표현으로 전환하였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항목은 당위론적 주장보다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로 변경하여 논조를 부드럽게 수정하였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사회문제의 책임 소재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구성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기본소득을 인지한 시기,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정도, 청년기본소득의 전국 확산에 대한 동의 정도, 기본소득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기본소득의 적절한 금액 수준으로 세분화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와 확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4. 경제활동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노동동기에 대한 것이다. 기

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급여가 개인의 노동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노동동기 약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근본적인 노동윤리(work ethic)와 유급노동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Watts, 2002).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용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고, 이는 결국 임금과 노동조건의 침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Wiseman, 1990; Vanderborght, 2006).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현재의 공공부조 정책에 비해 노동유인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 정책은 수급자가 노동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만큼 급여를 삭감하거나 할인하여 축소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00%가 되어 노동 비유인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득보장 정책과 노동시간 간의 대체효과는 공공부조에서 매우 크고, 기본소득에서 매우 낮다(강남훈, 2019a).

기본소득 지급이 유의미한 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의 의미와 관계없이 유급노동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만 지니는 노동은 인간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일과 삶의 분열을 야기하여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Häni and Kovce, 2015).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 강도가 높은 노동은 생산성을 낮추고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다(Standing, 2017: 191~192). 그러므로 노동동기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유급노동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창의로운 사고와 활동,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Forget et al., 2016; Standing, 2017).

기본소득과 노동유인에 대한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반론도 제기되는데, 이전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 (i) 노동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ii) 줄더라도 일반적인 노동 비유인이 작동하는 방식보다는 노동시간이 줄거나, (iii) 돌봄 노동이나 학업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민컴(Mincome)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 중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집단에서의 노동시간 축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산모와 십대 청소년들에게 한정되어 나타났다(Kennedy, 2016; Forget, 2011). 또한 노동의 증가도 상당 부분 보고되는데,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의 경우 기본소득이 시작된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늘어났고(Haarmann, et al., 2008),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에서 있었던 실험에서는 성인의 일과 노동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노동이 준 인구집단은 학령기 아동이었다(Davala et al., 2015).

노동유인과 관련된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노동을 줄일 것이라는 측의 주장은 직관적이고 도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의 주장은 실증적인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노동유인에 대한 문제를 실험의 제1 목표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시필레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점검하고, 관료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Kangas et al., 2016).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동시장지원금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고, 기본소득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지 아닌지로 규정하였다(Kangas et al., 2016). 핀란드 이외에도 기본소득 실험의 대부분은 검증 효과로 노동유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캐나다 실험(Segal, 2016), 네덜란드, 미국(Y Combinator, 2017), 나미비아(Haarmann, et al., 2008), 인도(Davala et al., 2015) 등의 실험에 노동유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활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경제활동 시간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 취업자에게는 주당 노동시간을 응답하게 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주당 구직활동시간과 주당 직업훈련시간을 설문하였다.

5. 꿈-자본

꿈-자본은 전통적인 기본소득 논의에서 추출한 항목이 아니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년 세대에 한정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출한 주제이다.

현 시기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3포 세대’부터 시작하여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4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을 거쳐,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7포 세대로, 그리고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N포 세대’라고 자조한다(서정희 외, 2019).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러한 좌절을 극복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의 삶은 졸업-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으로 변화되어 생애과정이 탈표준화(destandardized) 되고 있다(Bruckner and Mayer, 2005; 김홍중, 2015: 189~190에서 재인용).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를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고, 청년의 인력 유희화율이 55세 이상의 장년 및 노년보다 높으며(오재호 외, 2019), 청년층에서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박세정·김안정, 2016; 이승윤 외, 2017: 492에서 재인용). 청년 중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도 되지 않은 니트(NEET) 비중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OECD, 2016). 높은 대학진학률로 학력이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성을 잃게 됨으로써 청년들은 또 다른 차별적 요소인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활동 등 ‘스펙 쌓기’로 지칭되는 취업준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스펙’조차 상향 평준화되어 차별성을 잃고, 스펙이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청년들의 대학졸업 소요기간은 평균 51개월(남성이 61개월, 여성이 42개월)이 소요된다(윤윤규 외, 2017: 16). 청년이 청년기에 겪게 되는 취업의 실패 경험은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scare effect)로 이어진다(김수정·김영, 2013; 한승현 외, 2017: 95). 문제는 취업이 되더라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18년 청년 임금노동자의 첫 일자리의 노동형태는 37%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시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시적 일자리에 종사한다(통계청, 2018).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은 우울과 불안, 불면증, 알코올과 약물 남용,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이훈구 외, 2000; 장재윤 외, 2004; 정나라 외, 2010; Axelsson & Ejlertsson, 2002; Hammarstrom et al., 2002; 한승헌 외, 2017: 95에서 재인용).

우리 사회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시장이 가열되어 왔고, 부동산은 주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왔다. 부동산시장의 가열로 인한 수혜와 폐해가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았는데, 연평균 가계소득(30대일 때의 가계소득)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세대별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보면(가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은 경우를 전제함), 1965년생은 10.1년, 1975년생은 15.8년, 1985년생은 16.0년이 걸린다(김정훈 외, 2019).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청년 세대는 자가뿐만 아니라 전세 마련도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문제로 미혼 남녀들이 이성교제를 희망하지만, 실제 이성교제조차 하지 못한다(조성호, 2014; 2018). 결국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사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문제로만 단순히 끝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다 마사히로(2010)가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양적 격차(경제적 격차)에서 시작하여 질적 격차(직종이나 생활스타일 격차, 신분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심리적 격차(희망 격차)로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의 방증이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제 꿈과 희망을 포기한 N포 세대로 자조한다. 꿈이란 “(i)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교섭·변형되며, (ii)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iii) 미래의 소망 표상”이다(김홍중, 2018: 28). 한국의 청년 세대가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적 행위자가 희망을 구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꿈은 자본이 된다. 부르디외가 주장한 자본은 “사회 공간에 불균등하게 산포되어 공간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사회적 에너지”(Bourdieu, 1979: 127)이자 사회에서 경쟁하는 행위자들의 “무기이자 투쟁의 효능이 있는 것”(부르디외·바캉, 2015: 176)으로서 행위자들이 그것을 소

유하고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모든 재화들”(Bourdieu, 1977: 178)을 말한다(김석호 외, 2017: 295). 이제 꿈은 청년 세대의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꿈꾸는 능력이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꿈꾸는 능력 자체가 상속되고, 교육되고, 분배되고, 축적되고, 육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포섭되어 중요한 자원으로 인지되고 취급되기 때문이다(김석호 외, 2017: 296).

본 조사에서 무조건적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N포 세대로서의 청년들의 꿈-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꿈-자본 측정을 위한 척도는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지표들을 토대로 꿈-자본 척도를 만든 김석호 연구팀의 ‘꿈-자본 척도’(김석호 외, 2017)를 사용한다.¹²⁾ 이 척도는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이라는 4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중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문항 4개를 제외하고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 2-1>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세부적인 범주와 개별 변수의 내용 및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2) 김석호 연구팀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효과분석을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표 2-1〉 변수의 구성

구분	내용	유형
행복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어제 행복함 정도 -어제 우울함 정도 * -어제 근심걱정 정도 *	11점 척도 (0~10점)
건강과 식생활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 -지난 한달 동안 느꼈던 정신적 어려움 정도 *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 -30분 이상 운동한 빈도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과일 섭취 빈도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5점 척도 (1~5점) 4점 척도
인식과 태도	-타인, 법/제도, 정치인, 언론에 대한 신뢰 *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의견 * -성차별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평등한 사회,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 보편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 -공유부와 권리로써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전국민 확대에 대한 의견 *	5점 척도 (1~5점)
경제 활동	-취업여부	명목
	-경제활동참여상태	범주/연속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	5점 척도 (1~5점)
꿈-자본	15개 문항 *	7점 척도 (1~7점)

주 : * 설문척도가 긍정적 내용에서 부정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문항의 경우,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순으로 코딩하여 분석함. 예를 들어 꿈-자본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으로 설문하였지만,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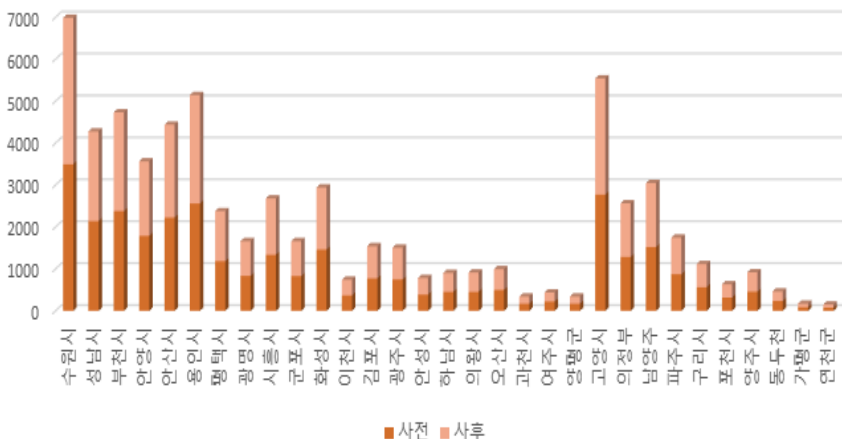
제2절 분석결과 (통계적 검정 중심)¹³⁾

본 연구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일

13)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중심의 분석결과는 <부록 II>에 제시되어 있다.

반적으로 실험설계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은 특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간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속의 정책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i)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조사 점수의 차이와 (ii)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점수 차이에 주목하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사전조사 점수의 차이를 제시할 것이며,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각 시점과 개별 집단 간 점수 차이는 ‘대응표본(paired) t 검증’과 ‘독립표본(independent) t 검증’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별 변수에 대한 검증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기술할 것이며, 개별 시·군별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사의 점수를 참고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사전/사후조사



1. 행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변수들은 청년의 기본적인 ‘복지’(well-being)와 관련이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때문이다. 이는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한다’는 해당 정책의 취지 및 목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복지 관련 변수에는 개인이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행복’, ‘우울’과 ‘걱정’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가져다주며,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과 걱정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변수의 구성은 핀란드 정부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Kangas et al., 2019). 인간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가 개인의 복지, 삶의 만족도, 행복, 건강 수준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를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과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비교집단 간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2-2>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개별 변수별로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비교집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5.95)와 근심 걱정 수준(5.53)은 실험집단(5.88, 5.5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이전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와 근심 걱정 수준은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다. 다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과 행복 수준, 그리고 우울 정도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일부 관찰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이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일에 대한 가치(6.16)와 행복 수준(5.96)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우울 수준(4.23)은 비교집단(4.47)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88	2.15	5.95	2.01	-1.09	.278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6.16	2.23	5.91	2.21	3.30	.001**
어제 행복함 정도	5.96	2.29	5.73	2.13	3.27	.001**
어제 우울함 정도	4.23	2.39	4.47	2.23	3.10	.002**
어제 근심 걱정 정도	5.48	2.44	5.53	2.30	0.65	.514

*p<.05, **p<.01, ***p<.001

아래의 〈표 2-3〉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종속 변수를 비교한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41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비교집단의 만족도는 5.87에 불과하다. 두 집단의 점수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다른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실험집단에 포함된 경기도 청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6.47)를 비교집단(5.93)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며, 상대적으로 더 행복(실험집단 6.35, 비교집단 5.90)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우울과 근심 걱정 수준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의 우울(4.07)과 근심 걱정 수준(5.21)이 비교집단(4.50, 5.51)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들의 부정적 정신건강 수준이 그렇지 못한 타 지역 청년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전반적인 복지 관련 변수에 대한 정책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이 대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결과이다.

〈표 2-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6.41	2.26	5.87	2.03	7.79	.000***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6.47	2.26	5.93	2.22	7.25	.000***
어제 행복함 정도	6.35	2.29	5.90	2.05	6.54	.000***
어제 우울함 정도	5.93	2.43	5.50	2.24	5.68	.000***
어제 근심 걱정 정도	4.78	2.47	4.48	2.27	3.92	.000***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표 2-4〉 참조).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행복 수준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전(5.88, 6.16, 5.96)에 비해 지급받은 후(6.41, 6.47, 6.35)에 크게 상승하였다. 동시에 우울과 근심 걱정 정도 역시 사후조사의 점수(4.07, 5.21)가 사전조사(4.23, 5.48)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모든 비교의 과정에서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전반적인 복지와 행복 수준,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88	2.15	6.41	2.26	-43.21	.000***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6.16	2.23	6.47	2.26	-25.52	.000***
어제 행복함 정도	5.96	2.29	6.35	2.29	-28.16	.000***
어제 우울함 정도	4.23	2.39	4.07	2.43	-11.09	.000***
어제 근심 걱정 정도	5.48	2.44	5.21	2.47	-17.69	.000***

*p<.05, **p<.01, ***p<.001

아래의 <표 2-5>는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변수에서 점수의 증감이 관찰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행복 수준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승(5.73→5.90)하였지만, 그 수준은 실험집단(6.3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2-5>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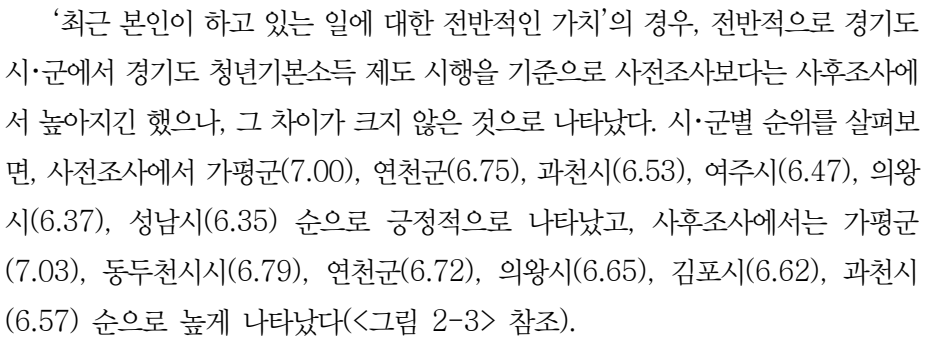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95	2.01	5.87	2.03	1.34	.181
최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5.91	2.21	5.93	2.22	-0.24	.811
어제 행복함 정도	5.73	2.13	5.90	2.05	-2.26	.024*
어제 우울함 정도	4.47	2.23	4.50	2.24	0.36	.716
어제 근심 걱정 정도	5.53	2.30	5.51	2.27	-0.19	.84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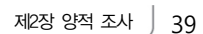
정리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증진시키고, 우울과 근심 걱정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별 사전 및 사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20% 이내에 포함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먼저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예외 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연천군(6.36), 과천시(6.29), 가평군(6.27), 여주시(6.13), 의왕시(6.12), 성남시(6.10), 용인시(6.0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후조사에서는 연천군(6.64), 의왕시(6.59), 동두천시(6.59), 가평군(6.56), 용인시(6.53), 김포시(6.52)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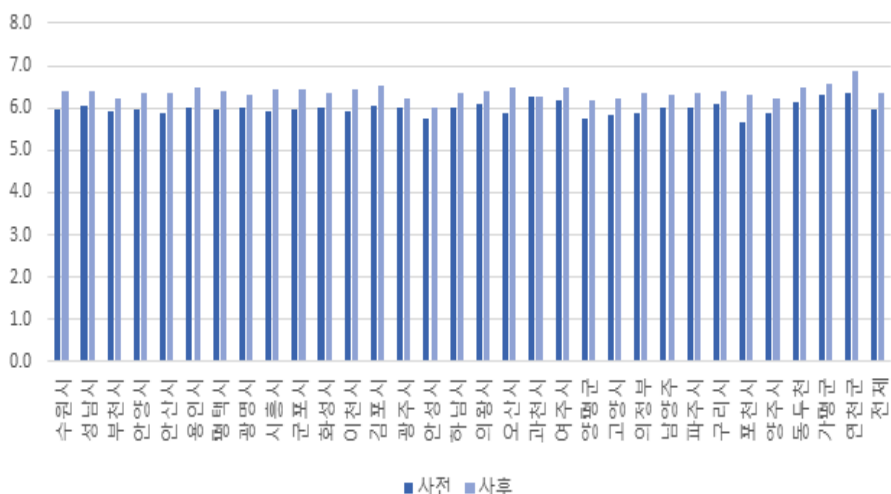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어제 행복함 정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행복감을 높게 느낀 순서로는 연천군(6.35), 가평군(6.33), 과천시(6.25), 여주시(6.20), 동두천시(6.14), 의왕시(6.09)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연천군(6.87), 가평군(6.56), 김포시(6.53), 동두천시(6.49), 오산시(6.49), 여주시(6.4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경기도 시·군별 ‘어제 행복함 정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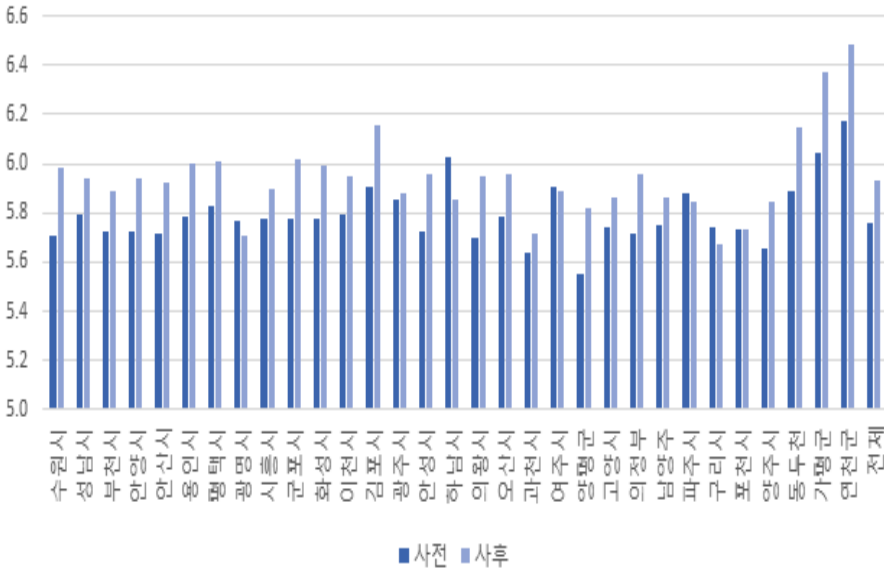


반면, ‘어제 우울함 정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이전 조사에서는 연천군(6.17), 가평군(6.05), 하남시(6.03), 여주시(5.91), 김포시(5.90), 동두천시(5.89) 순으로 우울함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후 사후조사 결과 연천군(6.49), 가평군(6.38), 김포시(6.16), 동두천시(6.14), 군포시(6.02), 평택시(6.01) 순으로 우울 정도가 낮았다(<그림 2-5> 참조).

마지막으로,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어제 근심 걱정 정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연천군(5.11), 여주시(4.79), 하남시(4.73), 동두천시시(4.64), 오산시(4.62), 김포시(4.6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설문조사 결과 연천군(5.30), 동두천시시(5.20), 가평군(5.19), 김포시(4.97), 군포시(4.93), 여주시(4.91) 순으로 근심 걱정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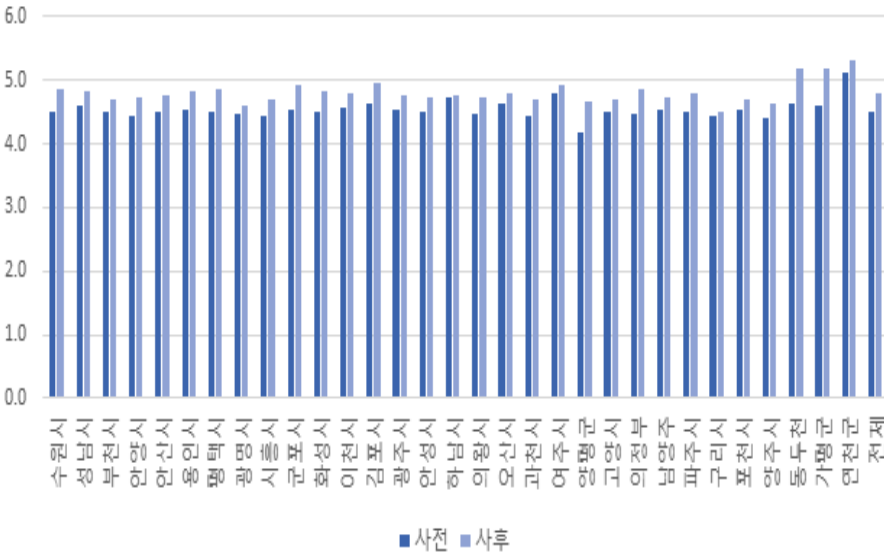
<그림 2-5> 경기도 시·군별 ‘어제 우울함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그림 2-6> 경기도 시·군별 ‘어제 근심 걱정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2. 건강과 식생활

건강과 기본적인 식습관은 개인의 복지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고용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이자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상대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식생활 관련 세 개의 문항으로 해당 영역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 주관적·상대적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질문했고, 정신적 건강상태의 대표적인 지표인 스트레스와 구체적인 운동 빈도에 관해 평가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식생활 관련 설문은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한 정도’, 그리고 ‘과일을 먹는 빈도’ 등에 대해 진행된다. 건강과 식생활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건강

먼저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 2-6>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상대적 인식 수준에 일부 차이가 발견된다. 실험집단에 포함된 경기도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비교집단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3.11) 혹은 상대적(3.07)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두 개 설문 항목과 운동 빈도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신적 어려움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는 비교집단에서, 운동 빈도는 실험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전조사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된 신체적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추후 분석결과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표 2-6〉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11	0.89	3.05	0.84	2.37	.018*
같은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07	0.92	2.98	0.90	2.88	.004**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인 어려움 정도	2.24	0.96	2.21	0.91	0.86	.391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2.09	0.87	2.06	0.82	0.89	.371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1.78	0.97	1.77	0.97	0.31	.756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분석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2-7〉 참조).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동안 경험한 정신적 어려움 정도(2.19)가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들(2.26)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실험집단의 운동 빈도(1.88) 역시 비교집단(1.7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2-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14	0.90	3.09	0.94	5.43	.000***
같은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2.99	0.82	2.94	0.88	4.75	.000***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인 어려움 정도	2.19	0.94	2.26	0.92	-2.15	.032*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2.08	0.86	2.06	0.84	0.56	.574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1.88	0.98	1.77	0.96	3.15	.002**

*p<.05, **<p.01, ***<p.001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는 실험집단(2.19)과 비교집단(2.26) 간 유의미한 차이가 부각되지 않아 사전조사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상대적 건강상태 역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실험집단의 평가 수준(3.14, 2.99)이 비교집단(3.09, 2.9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차이는 사전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개별 및 집단별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8>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3.11→3.14)와 상대적 건강상태(3.07→3.09), 운동 빈도(1.78→1.88)는 크게 증가하였고, 정신적 어려움 정도(2.24→2.19)는 일부 축소되었다.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된 수준이다.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하며, 정신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를 추동하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변수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표 2-8>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11	0.89	3.14	0.90	-5.79	.000***
같은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07	0.92	3.09	0.94	-4.37	.000***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인 어려움 정도	2.24	0.96	2.19	0.94	8.65	.000***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2.09	0.87	2.08	0.86	1.38	.168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1.78	0.97	1.88	0.98	-18.15	.00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표 2-9>은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이다. 다수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비교집단의 수치(3.05→3.09)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효과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정리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상대적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운동 빈도를 증가시키며, 정신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핀란드 중앙정부와 캐나다 민컴 등 다수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밝혀진 건강증진 효과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도 확인된 셈이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151~153).

<표 2-9>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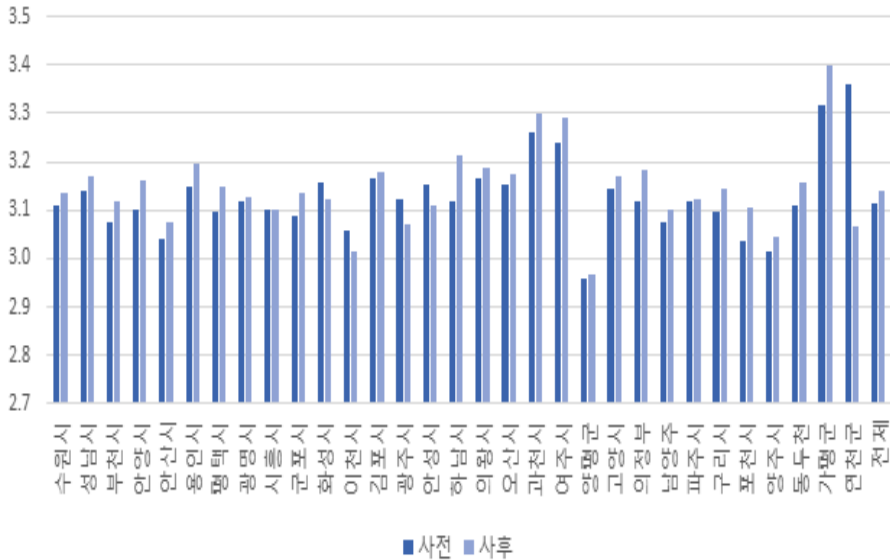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05	0.84	3.09	0.82	2.31	.021*
같은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2.98	0.90	2.94	0.88	1.26	.209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인 어려움 정도	2.21	0.91	2.26	0.92	-1.51	.132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2.06	0.82	2.06	0.84	-0.04	.972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1.77	0.97	1.77	0.96	-0.17	.863

*p<.05, **p<.01, ***p<.001

다음으로 건강상태에 관한 경기도 시·군별 사전 및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연천군(3.36), 가평군(3.32), 과천시(3.26), 여주시(3.24), 김포시(3.17), 의왕시(3.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40), 과천시(3.30), 여주시(3.29), 하남시(3.21), 용인시(3.20), 의왕시(3.19) 순으로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림 2-7> 참조). 그런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항목의 경우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평가가 낮아진 시·군이 존재한다.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지역의 청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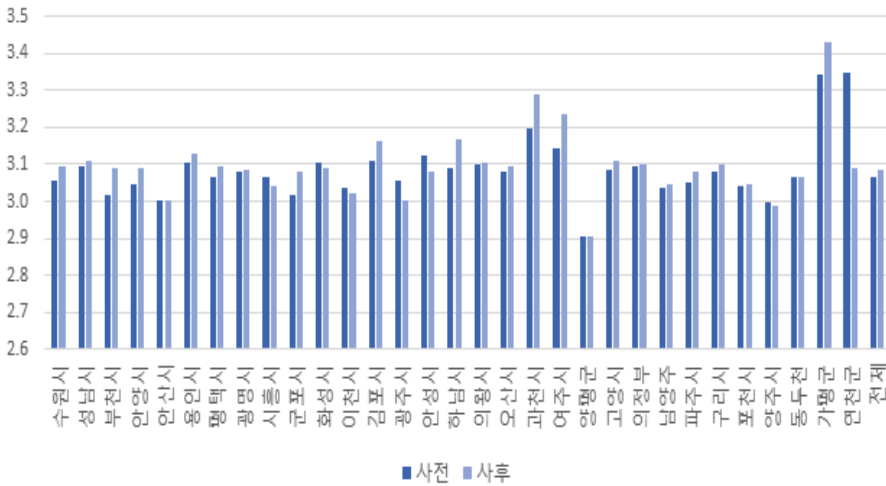
〈그림 2-7〉 경기도 시·군별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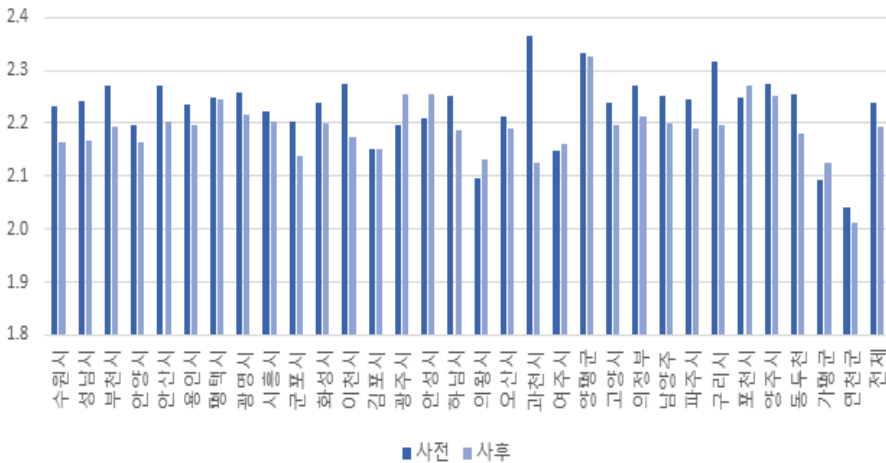
둘째, ‘또래와 비교하여 평가한 본인의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사전조사 결과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대부분 높아졌으나, 몇 개의 시·군에서 낮아지는 지역이 눈에 띈다. 시흥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연천군이 그 경우인데, 이 지역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또래와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 순위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연천군(3.35), 가평군(3.34), 과천시(3.20), 여주시(3.14), 안성시(3.12), 김포시(3.1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43), 과천시(3.29), 여주시(3.24), 하남시(3.17), 김포시(3.16), 용인시(3.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경기도 시·군별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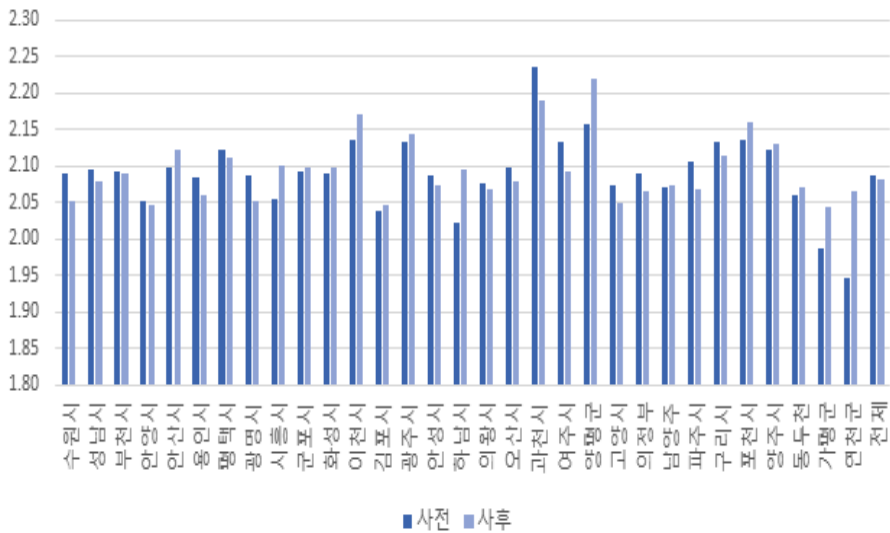
셋째,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정신적 어려움 정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과천시(2.36), 양평군(2.33), 구리시(2.32), 양주시(2.28), 이천시(2.27), 부천시(2.27)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조사에서는 양평군(2.33), 포천시(2.27), 광주시(2.26), 안성시, 양주시, 평택시(2.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경기도 시·군별 ‘지난 한달 동안 느낀 정신적 어려움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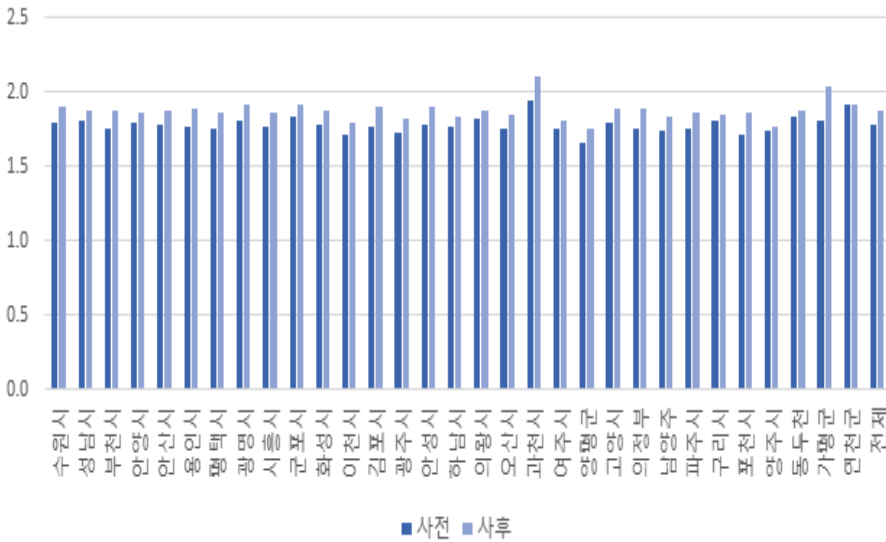
넷째, ‘지난 한 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에 관해 사전조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는 과천시(2.24), 양평군(2.16), 이천시와 포천시(2.14), 여주시와 구리시(2.13)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양평군(2.22), 과천시(2.19), 이천시(2.17), 포천시(2.16), 광주시(2.15), 양주시(2.1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0> 참조).

〈그림 2-10〉 경기도 시·군별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다섯째,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30분 이상 숨차 정도’의 운동빈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이전 조사에서는 과천시(1.95), 연천군(1.92), 군포시(1.84), 동두천시시(1.83), 의왕시(1.82), 성남시(1.81)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후 사후조사 결과, 과천시(2.11), 가평군(2.03), 연천군, 군포시, 광명시(1.92), 안성시(1.91)로 운동빈도가 높았다.

〈그림 2-11〉 경기도 시·군별 ‘30분 이상 숨참 정도의 운동빈도’ 결과
(단위: 평균(점))



2) 식생활

다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식생활 관련 정책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사전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을 제외한 두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2-10〉 참조). 경기도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력과 과일 섭취 빈도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다만, 전반적인 식생활 형편과 관련하여 비교집단(3.30)의 수준이 실험집단(3.24)에 비해 높게 나타나, 경기도 청년들의 식생활 형편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점에 유의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3.24	0.70	3.30	0.67	-2.67	.008*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3.12	0.96	3.12	0.94	-0.18	.855
과일을 먹는 빈도	2.10	1.02	2.14	1.01	-1.29	.197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동일 변수의 증감 현황을 관찰한 결과, 경기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좋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표 2-11〉 참조). 사전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던 해당 변수가 실험집단(3.21)과 비교집단(3.09) 간 격차 확대로 인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식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과일을 섭취하는 빈도 역시 실험집단(2.11)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수치가 한계수준(marginal)에 걸쳐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의 식생활 형편(3.26)은 받기 전(3.24)에 비해, 일부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 다만, 비교집단의 형편이 오히려 감소(3.30→3.28)하여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어서 해당 변수의 효과와 관련된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3.26	0.68	3.28	0.65	-0.80	.425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3.21	0.93	3.29	0.97	3.52	.000***
과일을 먹는 빈도	2.11	1.00	2.05	0.97	1.81	.071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 2-12>에 따르면, 식생활 관련 모든 변수의 변화가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전조사에서 3.24에 불과하던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이 3.26으로 개선되었고,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역시 3.12에서 3.21로 증가하였다. 과일을 먹는 빈도도 2.10에서 2.11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생계나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정책효과가 크게 부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2>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3.24	0.70	3.26	0.68	-7.29	.000***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3.12	0.96	3.21	0.93	-16.82	.000***
과일을 먹는 빈도	2.10	1.02	2.11	1.00	-2.31	.02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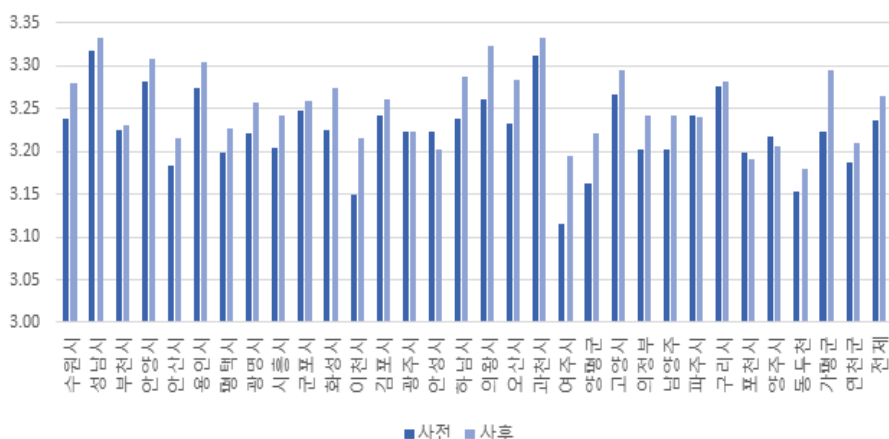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도 일정한 함의를 담고 있다. 아래의 <표 2-13>을 보면, 세 지표 모두에서 사후조사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2-10>에서 실험집단보다 높게 관찰된 비교집단의 식생활 형편이 3.30에서 3.28로 낮아지고 있다. 과일을 먹는 빈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청년의 식생활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외 일반지역 청년의 해당 지표 역시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3>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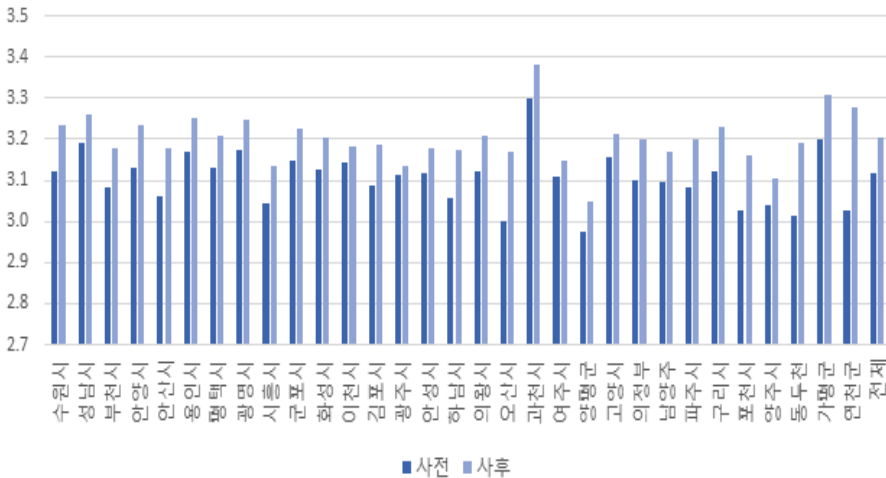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3.30	0.67	3.28	0.66	0.74	.462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3.12	0.94	3.09	0.97	0.90	.368
과일을 먹는 빈도	2.14	1.01	2.05	0.97	3.05	.002**

*p<.05, **p<.01, ***p<.001

식생활과 관련된 경기도 시·군별 사전 및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의 식생활 형편’에 대해 사전조사에서는 성남시(3.32), 과천시(3.31), 안양시와 구리시(3.28), 용인시와 고양시(3.27) 순으로 형편이 나은 편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3.33), 의왕시(3.32), 안양시(3.31), 용인시와 가평군, 고양시(3.3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2> 참조). 순위로만 살펴보면, 사전조사의 순위와 사후조사에서의 순위의 변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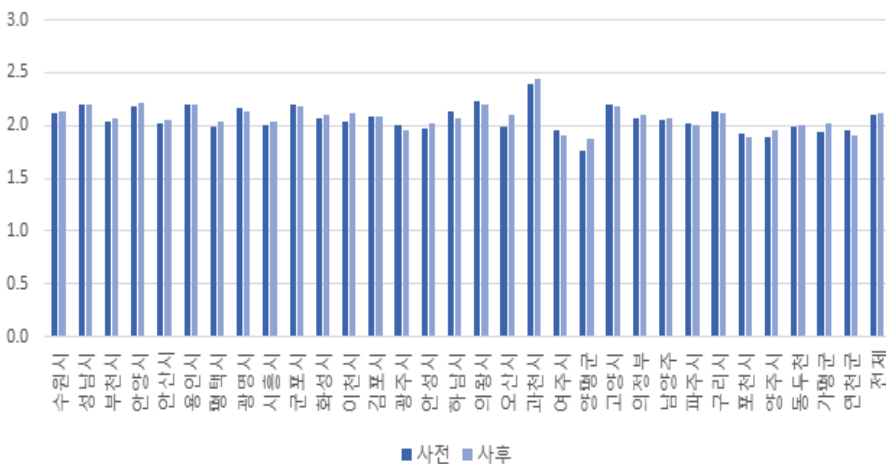


〈그림 2-13〉 경기도 시·군별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마지막으로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듯이, ‘과일 섭취 빈도’에 대해, 사전조사에서는 과천시(2.39), 의왕시(2.24), 용인시와 고양시, 군포시(2.20), 성남시와 안양시(2.19)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설문조사 결과 과천시(2.43), 안양시(2.21), 용인시와 의왕시(2.20), 성남시와 군포시(2.19) 순으로 과일 섭취 빈도가 높았다.

〈그림 2-14〉 경기도 시·군별 ‘과일 섭취 빈도’ 결과
(단위: 평균(점))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청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인다. 다만, 시·군별 순위를 살펴보면, 지역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후조사의 결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식과 태도

1)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인간이 가지는 복지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Kangas, et al., 2019: 18). 대체로 인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보장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복지)국가에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에 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복지급여 지급의 경험은 국가와 정치, 법 체계는 물론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신뢰수준 향상 가능성에 주목하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신뢰에 관한 설문은 크게 네 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법·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아래의 <표 2-14>은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실험집단 청년과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교집단에 포함된 청년의 사회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에 속한 청년의 타인(3.32)과 법·제도(3.05), 정치인(1.96)과 언론(2.18) 등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에 포함된 청년의 그것(3.22, 2.98, 1.81, 2.1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두 집단의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조사의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는 유일한 항목은 언론에 대한 신뢰 변수뿐이다. 개인이 인식 혹은 평가하는 신뢰수준은 사회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참고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응답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타인과 법·제도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표 2-1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타인에 대한 신뢰	3.32	0.86	3.22	0.85	3.34	.001**
법·제도에 대한 신뢰	3.05	0.94	2.98	0.93	2.08	.037*
정치인에 대한 신뢰	1.96	0.83	1.81	0.80	5.22	.000***
언론에 대한 신뢰	2.18	0.84	2.13	0.81	1.66	.097

*p<.05, **p<.01, ***p<.001

그렇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집단 간 신뢰수준의 차이는 어떻게 변화할까? 〈표 2-15〉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실험집단에 포함된 청년의 신뢰수준(3.30, 3.07, 1.99, 2.17)이 비교집단(3.17, 2.93, 1.85, 2.0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의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타인, 법·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확인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결과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표 2-15〉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타인에 대한 신뢰	3.33	0.86	3.17	0.83	4.61	.000***
법·제도에 대한 신뢰	3.07	0.94	2.93	0.90	4.17	.000***
정치인에 대한 신뢰	1.99	0.86	1.85	0.77	5.10	.000***
언론에 대한 신뢰	2.17	0.87	2.09	0.79	3.05	.002**

*p<.05, **p<.01, ***p<.001

아래의 〈표 2-16〉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에 포함돼 있는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후 평가한 타인(3.32)과 법·제도(3.05), 정치인(1.96)에 대한 신뢰수준이 받기 이전(3.33; 3.07, 1.99)에 비해 일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보장된 결과이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이 다소 감소

(2.18→2.17)하고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는 타인과 법·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표 2-16〉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타인에 대한 신뢰	3.32	0.86	3.33	0.863	4.47	.000***
법·제도에 대한 신뢰	3.05	0.94	3.07	0.94	-4.07	.000***
정치인에 대한 신뢰	1.96	0.83	1.99	0.86	-8.49	.000***
언론에 대한 신뢰	2.18	0.84	2.17	0.87	0.74	.459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아래의 〈표 2-17〉는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약간 감소했을 뿐(3.22→3.17), 다른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표 2-17〉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타인에 대한 신뢰	3.22	0.85	3.17	0.83	2.07	.039*
법·제도에 대한 신뢰	2.98	0.93	2.93	0.90	1.56	.118
정치인에 대한 신뢰	1.81	0.80	1.85	0.77	-1.46	.144
언론에 대한 신뢰	2.13	0.81	2.09	0.79	1.5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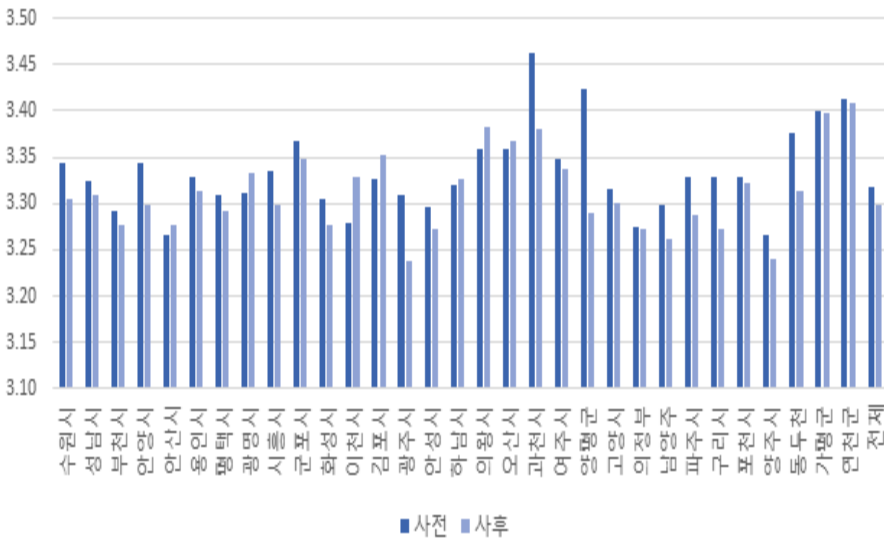
*p<.05, **<p.01, ***<p.001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제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부각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는 집단 간, 시점 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뢰에 관한 경기도 시·군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견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과천시(3.46), 양평군(3.42), 연천군(3.41), 가평군(3.40), 동두천시(3.38), 군포시(3.37)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설문조사 결과 연천군(3.41), 가평군(3.40), 의왕시와 과천시(3.38), 오산시(3.37), 김포시(3.35)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5> 경기도 시·군별 ‘타인에 대한 신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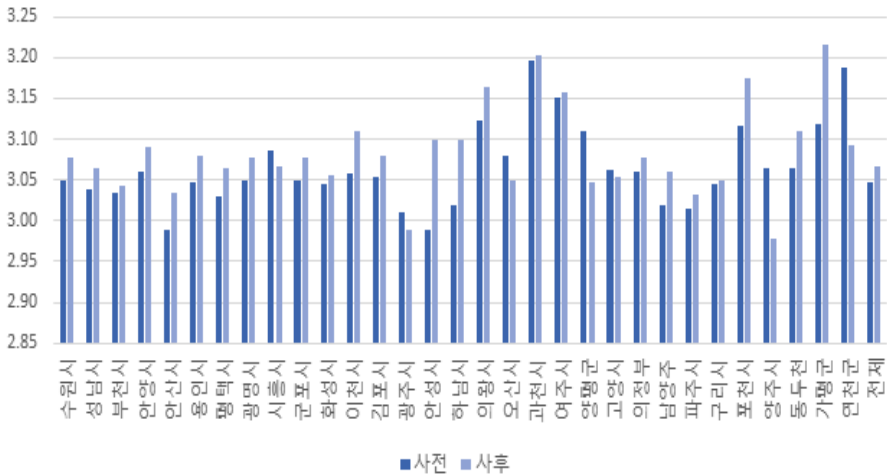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과천시(3.20), 연천군(3.19), 여주시(3.15), 의왕시, 가평군, 포천시(각 3.12)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22), 과천시(3.20), 포천시(3.18), 의왕시와 여주시(3.16), 이천시와 동두천시(3.11)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그림 2-16> 참조).

<그림 2-16> 경기도 시·군별 ‘법·제도에 대한 신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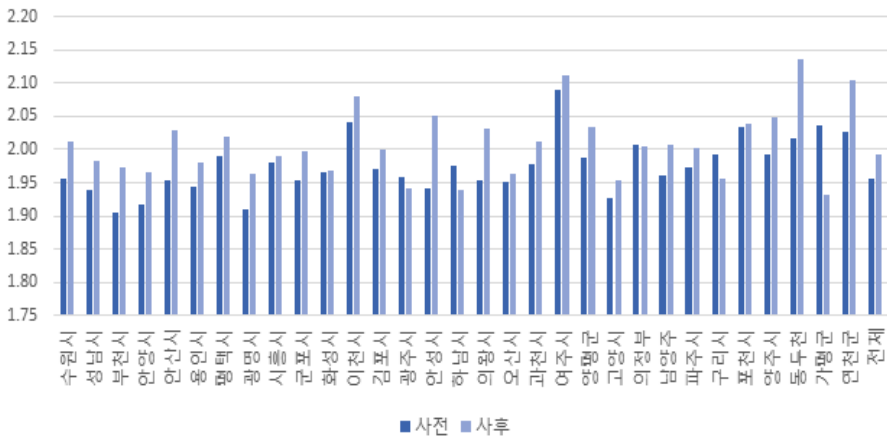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로는 여주시(2.09), 이천시와 가평군(2.04), 포천시와 연천군(2.03), 동두천시(2.02) 순이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조사결과에서는 동두천시(2.14), 여주시와 연천군(2.11), 이천시(2.08), 안성시와 양주시(2.05)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2-17> 참조).

<그림 2-17> 경기도 시·군별 ‘정치인에 대한 신뢰’ 결과

(단위: 평균(점))



마지막으로, <그림 2-18>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에 대한 신뢰’에 대해, 사전

조사에서는 여주시(2.30), 포천시(2.27), 하남시(2.25), 양주시와 가평군(2.24), 구리시와 연천군(2.23) 순으로 신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연천군(2.28), 여주시(2.27), 동두천시(2.26), 의왕시(2.25), 김포시와 포천시(2.24) 순으로 높았다.

구분	사전 (Before)	사후 (After)
서울	2.17	2.17
경기	2.14	2.15
인천	2.14	2.15
충청	2.16	2.17
강원	2.16	2.17
충남	2.16	2.17
충북	2.20	2.20
전남	2.16	2.09
전북	2.19	2.17
경남	2.21	2.19
경북	2.19	2.16
대전	2.19	2.19
전주	2.17	2.24
광주	2.18	2.12
대구	2.19	2.20
세종	2.24	2.13
충청	2.25	2.25
대전	2.17	2.19
전주	2.14	2.15
광주	2.29	2.27
대구	2.18	2.22
세종	2.15	2.16
충청	2.17	2.17
대전	2.19	2.20
전주	2.20	2.20
광주	2.22	2.13
대구	2.27	2.23
세종	2.23	2.21
충청	2.25	2.26
대전	2.23	2.15
전주	2.22	2.27
광주	2.17	2.17

다음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성차별에 대한 관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두 항목은 젠더 정의와 젠더 평등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채택하였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과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조사 분석결과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실험집단에 포함된 청년들의 성평등 인식(2.49)이 경기도 외 비교집단(2.4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반대로 비교집단(3.48)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실험집단(3.4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표 2-18> 참조).

〈표 2-18〉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49	1.02	2.43	1.05	1.70	.089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3.47	0.96	3.48	0.95	-0.36	.716

*p<.05, **<p.01, ***<p.001

아래의 〈표 2-19〉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조사의 결과와 달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정도’는 비교집단(2.43)에 비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0.11점 정도 높게 관찰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또한 비교집단(3.45)에 비해 실험집단의 수치(3.47)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2-19〉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54	1.03	2.43	1.00	3.05	.002**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3.47	0.94	3.45	0.96	0.80	.421

*p<.05, **<p.01, ***<p.001

좀 더 의미있는 결과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2-20〉 참조). 성평등 인식 측면에서 사전조사(2.49)에 비해 높아진 사후조사(2.54)의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은 사전·사후조사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표 2-20〉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49	1.02	2.54	1.03	-9.92	.000***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3.47	0.96	3.47	0.94	-0.16	.871

*p<.05, **<p.01, ***<p.001

한편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조사 결과 성평등 인식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성차별에 대한 관심 수준은 일부 상승(3.45→3.48)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표 2-21〉 참조).

〈표 2-21〉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43	1.05	2.43	1.00	-0.07	.941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3.48	0.95	3.45	0.96	1.3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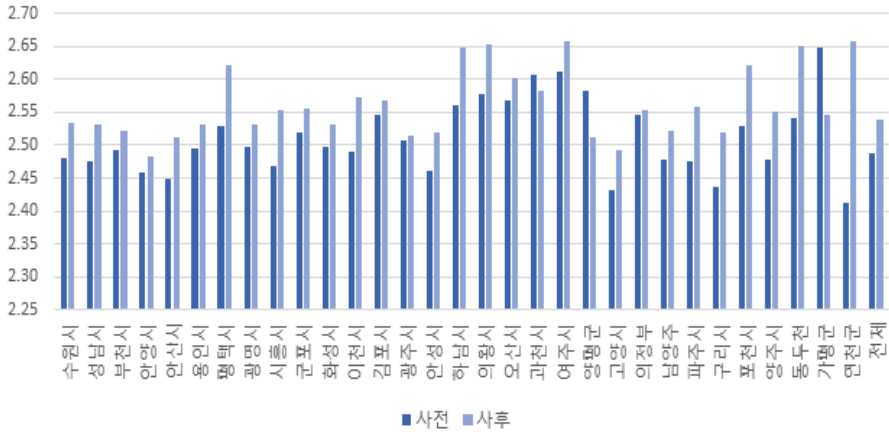
*p<.05, **<p.01, ***<p.001

정리하면, 젠더평등과 관련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성평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성차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별 젠더 인식에 관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에 대한 의견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가평군(2.65), 여주시와 과천시(2.61), 양평군과 의왕시(2.58), 오산시(2.57)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연천군과 여주시(2.66), 의왕시, 동두천시, 하남시(각 2.65) 순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그림 2-19〉 참조). 시·군별 순위에서만 보면, 다른 항목과 달리 이 항목은 사전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보인 기초 지자체와 사후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보인 기초 지자체에서 변동이 나타난다.

〈그림 2-19〉 경기도 시·군별 ‘성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정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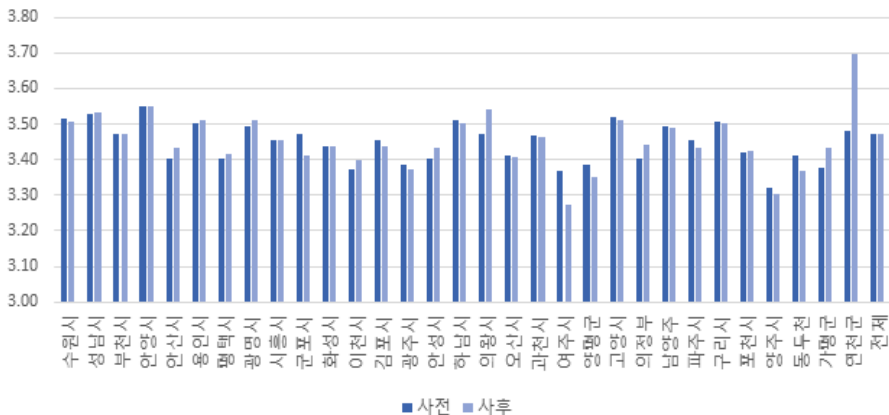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에도 사전조사에서의 순위와 사후조사에서의 지자체 순위에서 변동이 나타난다. 사전조사에서 안양시(3.55), 성남시(3.53), 고양시와 수원시(3.52), 하남시와 구리시(3.51) 순으로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연천군(3.70), 안양시(3.55), 의왕시(3.54), 성남시(3.53),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각 3.51)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다(〈그림 2-20〉 참조). 이후 시·군별 젠더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사회적 이슈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20〉 경기도 시·군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결과

(단위: 평균(점))



3) 자기결정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킴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문항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이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

먼저 아래의 <표 2-22>와 <표 2-23>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사후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전조사의 경우, 실험집단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4.22)이 비교집단(4.2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사후조사의 경우 반대로 비교집단의 인식수준(4.24)이 실험집단(4.2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시점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사전조사의 집단 간 동질성은 확보되었지만, 사후조사의 정책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의미이다.

<표 2-2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4.22	0.89	4.20	0.86	0.75	.453

*p<.05, **<p.01, ***<p.001

<표 2-2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4.23	0.88	4.24	0.88	-0.39	.694

*p<.05, **<p.01, ***<p.001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 청년들의 인식수준(4.23)이 사전조사(4.22)에 비해 일부 상승했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되어 있다(<표 2-24> 참조). 다시 말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수급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 인식이 다소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 어떠한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이 향상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교집단 청년들의 자기결정권 인식 수준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4.20→4.24)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표 2-25> 참조). 정리하면, 청년기본소득의 수급을 통해 경기도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2-24>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4.22	0.89	4.23	0.88	-2.14	.03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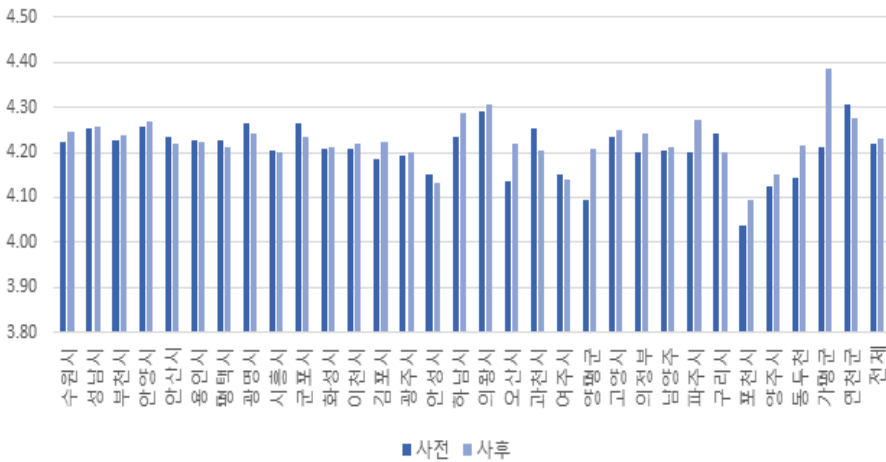
<표 2-25>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4.20	0.86	4.24	0.88	-1.62	.105

*p<.05, **<p.01, ***<p.001

자기결정권 문항(‘자기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 시·군별 결과는 사전조사에서는 연천군(4.31), 의왕시(4.29),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각 4.26), 과천시와 성남시(4.2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4.39), 의왕시(4.31), 하남시(4.29), 연천군(4.28), 파주시와 안양시(4.27) 순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그림 2-21> 참조).

(단위:평균(점))



4)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다음으로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넘어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의 <표 2-26>과 <표 2-27>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사후조사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실험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수준(3.55, 3.56)이 비교집단(3.49, 3.5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앞서 설명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결과이다.

〈표 2-26〉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의사결정결과정에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3.55	0.85	3.49	0.80	1.93	.054

*p<.05, **<p.01, ***<p.001

<표 2-2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3.56	0.85	3.52	0.81	1.73	.084

*p<.05, **<p.01, ***<p.001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조사(3.55)에 비해 사후조사(3.56)의 인식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표 2-28> 참조). 비교집단의 사후조사(3.52) 점수도 사전조사(3.49)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표 2-29> 참조). 정리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과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¹⁴⁾

<표 2-28>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3.55	0.85	3.56	0.85	-3.40	.001**

*p<.05, **<p.01, ***<p.001

<표 2-29>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3.49	0.80	3.52	0.81	-0.79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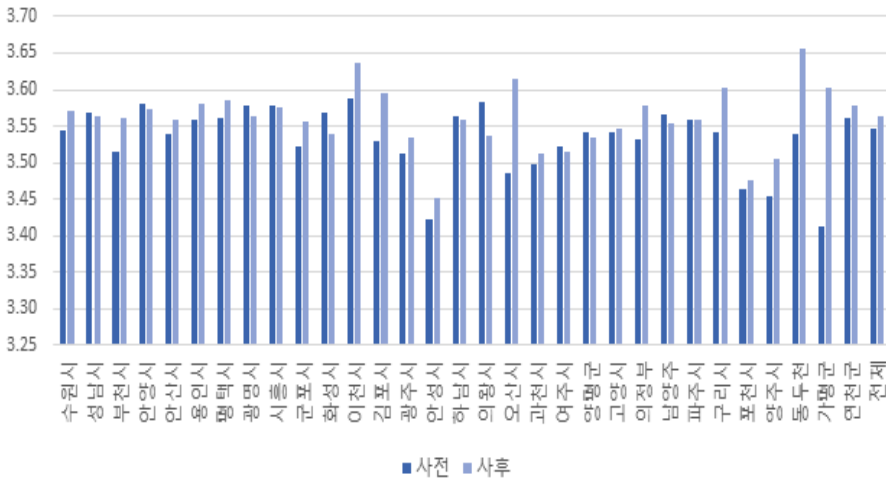
*p<.05, **<p.01, ***<p.001

경기도 시·군별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문항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에서는 이천시(3.59),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각 3.58),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각 3.5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

14) 그러나 실제 변화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비교집단의 변화정도가 실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 간 규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득을 받은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동두천시(3.66), 이천시(3.64), 오산시(3.61), 가평군, 구리시, 김포시(각 3.6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참조).

<그림 2-22> 경기도 시·군별 ‘의사결정과정에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결과
(단위: 평균(점))



5) 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 설문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② 사회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는가, ③ 보편복지에 대한 지향 정도, ④ 무상교육과 ⑤ 무상의료에 대한 인식, ⑥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평등한지에 대한 평가(①), 보편복지의 지향과 방식에 대한 인식(②,③,④,⑤), 그리고 복지 확대를 위해 필연적인 증세에 대한 태도(⑥)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차례대로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먼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는 명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평가를 위한 동질성은 확보되어 있다(<표 2-30> 참조). 그러나 <표 2-3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조사에서 실험집단의 점수는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의 점수는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실험집단의 평등에 대한 사전·사후조사의 인식 정도(2.51→2.5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표 2-32> 참조).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사후조사 결과에서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2-33> 참조). 정리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들의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지향과 수준에 대한 설문(②~④문항)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사전·사후조사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인식 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30>과 <표 2-31> 참조).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에 비해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복지는 seluruh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의료는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매우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권리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의 <표 2-32>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상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사후조사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있다.¹⁵⁾ 비교집단의 경우도 사후조사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 복지 지급에 대한 견해 항목(3.79→3.68)뿐이다(<표 2-33> 참조).

결과적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지향과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사후조사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면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이 보편복지 확대 지향으로 단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보편복지에 대한 지향과 지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 필연적인 요소인 ‘증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5) 다만, 아직도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조사의 점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다(<표 2-30> 참조).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실시한 사후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각된다. 실험집단의 ‘증세를 위한 용의 혹은 지지’ 수준(3.20)이 비교집단(3.1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표 2-31> 참조).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표 2-32>를 보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전(3.15)에 비해 받은 후(3.20)의 증세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비교집단에서도 유사한 경향(3.09→3.12)이 관찰되나,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정리하면,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이 청년들로 하여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추동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3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51	0.95	2.51	0.96	0.04	.966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	3.43	0.89	3.25	0.96	5.68	.000***
복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3.91	0.91	3.79	0.92	3.90	.000***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89	1.22	2.74	1.15	3.62	.000***
의료는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47	1.09	3.26	1.09	5.79	.000***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15	1.08	3.07	1.02	1.70	.090

*p<.05, **p<.01, ***p<.001

〈표 2-3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54	0.95	2.48	0.93	2.05	.040*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	3.42	0.88	3.30	0.89	4.00	.000***
복지는全国人民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3.82	0.92	3.68	0.93	4.46	.000***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88	1.22	2.70	1.16	4.47	.000***
의료는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43	1.10	3.23	1.10	5.62	.000***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20	1.07	3.12	0.99	2.44	.015*

*p<.05, **<p.01, ***<p.001

〈표 2-32〉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51	0.95	2.54	0.95	-6.75	.000***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	3.43	0.89	3.42	0.88	2.19	.028*
복지는全国人民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3.91	0.91	3.82	0.92	18.33	.000***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89	1.22	2.88	1.22	0.32	.747
의료는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47	1.09	3.43	1.10	6.03	.000***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15	1.08	3.20	1.07	-9.83	.000***

*p<.05, **<p.01, ***<p.001

<표 2-33>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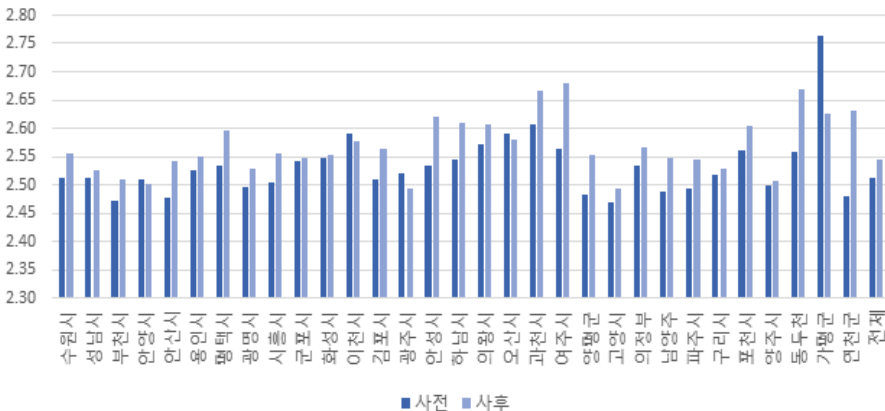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51	0.96	2.48	0.93	1.03	.304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	3.25	0.96	3.30	0.89	-1.64	.101
복지는全国人民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3.79	0.92	3.68	0.93	3.60	.000***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74	1.15	2.70	1.16	1.24	.214
의료는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26	1.09	3.23	1.10	0.88	.380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09	1.02	3.12	0.99	-1.00	.31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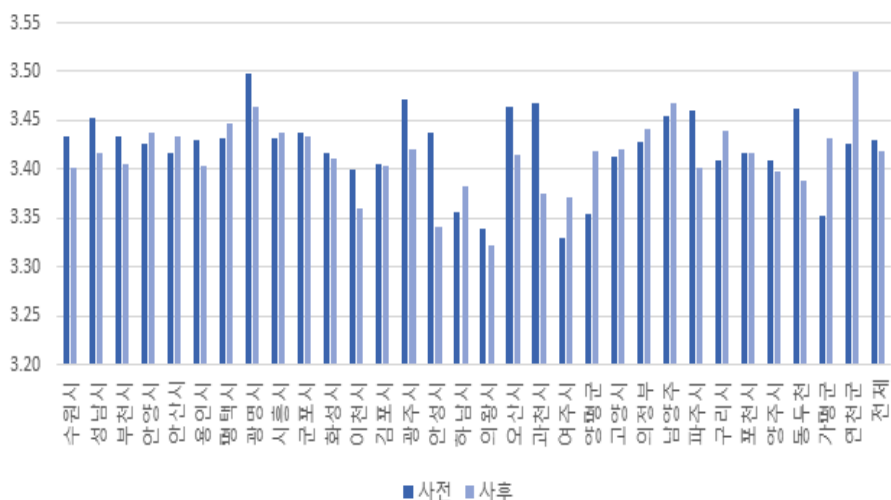
복지 전반의 인식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경기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사전조사에서는 가평군(2.76), 과천시(2.61), 오산시와 이천시(2.59), 의왕시(2.57),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각 2.56)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여주시(2.68), 동두천시와 과천시(2.67), 연천군과 가평군(2.63), 안성시(2.62)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그림 2-23> 참조).

<그림 2-23> 경기도 시·군별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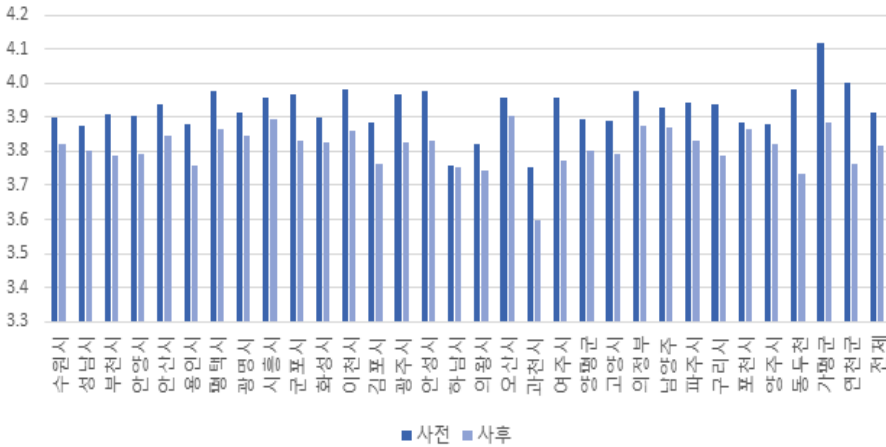


둘째,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동의 수준은 광명시(3.50), 광주시와 과천시(3.47), 오산시, 동두천시, 파주시(각 3.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연천군(3.50), 남양주시(3.47), 광명시(3.46), 평택시(3.45), 의정부,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각 3.44) 순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그림 2-24> 참조).



<그림 2-25> 경기도 시·군별 ‘보편복지 지지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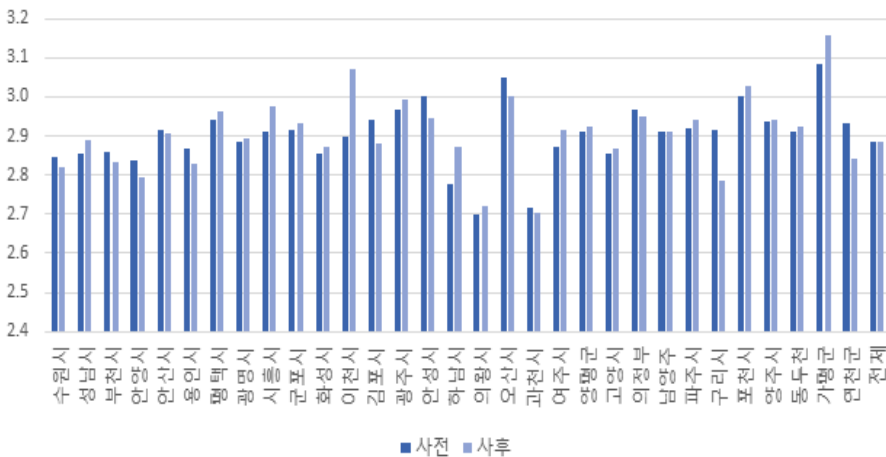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넷째, <그림 2-26>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교육에 대한 지지도’ 관련 사전조사에서는 가평군(3.08), 오산시(3.05), 포천시와 안성시(3.00), 의정부시와 광주시(2.94)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3.16), 이천시(3.07), 포천시(3.03), 오산시(3.00), 광주시(2.99), 시흥시(2.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경기도 시·군별 ‘무상교육 지지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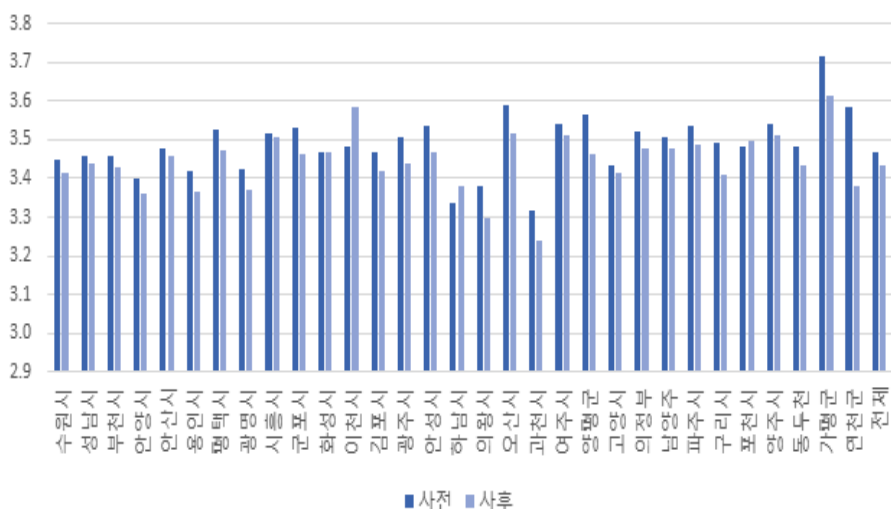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다섯째, ‘무상의료에 대한 지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지수준은 가평군(3.72), 오산시와 연천군(3.59), 양평군(3.56), 여주시, 양주시, 안성시, 파주시(각 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61), 이천시(3.58), 오산시(3.52), 양주시와 여주시(3.51), 시흥시와 포천시(3.50)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그림 2-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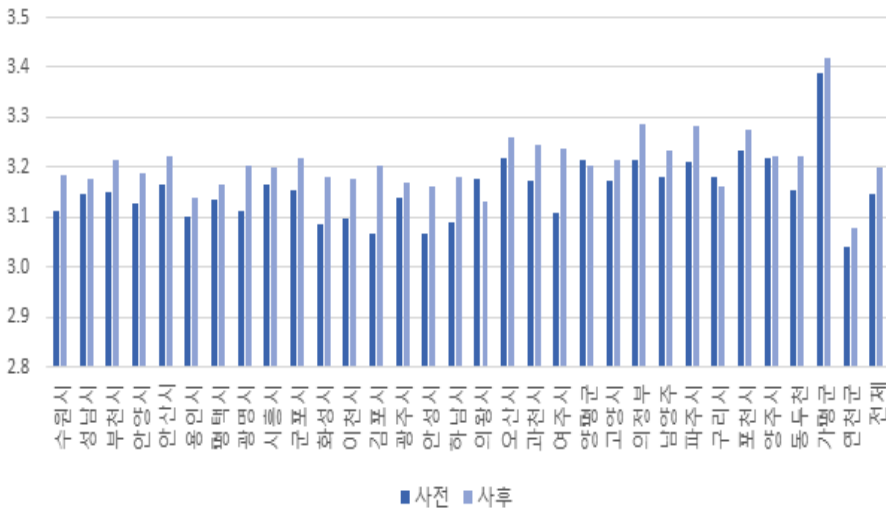
<그림 2-27> 경기도 시·군별 ‘무상의료 지지도’ 결과

(단위: 평균(점))



여섯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가평군(3.39), 포천시(3.23), 양주시, 오산시, 양평군(각 3.22), 의정부시와 파주시(3.21)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42), 의정부시(3.29), 파주시와 포천시(3.28), 오산시(3.26), 과천시와 여주시(3.2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8> 참조).

(단위: 평균(점))



6)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세부적인 항목은 ①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인지, ② 청년기본소득의 전국단위 확대에 대한 의견, ③ 기본소득의 전국민 단위 확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이며, 권리로서의 급부라는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4>와 <표 2-35>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평균 점수(3.42, 3.45)가 비교집단(3.09, 3.24)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청년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이후에도 해당 추세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표 2-36>과 <표 2-37>을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후조사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두 집단 모두에서 ‘공유부 배당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 없으나, 청년기본소득이 해당 변화를 추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살펴본

다. 이 항목 역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점수(3.57, 3.54)가 비교집단(3.12, 3.1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34>와 <표 2-35> 참조). 그러나 <표 2-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사후조사 점수(3.54)가 사전조사(3.57)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아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이 해당 정책의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한 견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연구가 기대한 효과와 반대되는 결과로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¹⁶⁾ 한편 비교집단의 사후조사 점수(3.18)는 사전조사(3.12)에 비해 일부 상승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표 2-37> 참조).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본다. 이 역시 실험집단의 점수(3.25, 3.26)가 비교집단(3.26, 3.03)에 비해 사전·사후조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34>와 <표 2-35> 참조). 동시에 실험집단(3.25→3.26)과 비교집단(2.98→3.03) 모두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조사의 점수가 일부 상승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표 2-36>, <표 2-37> 참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의 견해가 다른 지역의 청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인식 수준과 태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험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단선적으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표 2-3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3.42	0.83	3.09	0.90	11.94	.000***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57	1.00	3.12	1.09	12.11	.000***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3.25	1.10	2.98	1.08	7.52	.000***

*p<.05, **<p.01, ***<p.001

16)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경기도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에 기반한 응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2-35〉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3.45	0.90	3.24	0.89	7.09	.000***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54	1.07	3.18	1.07	9.87	.000***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3.26	1.16	3.03	1.03	6.39	.000***

*p<.05, **<p.01, ***<p.001

〈표 2-36〉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3.42	0.83	3.45	0.90	-6.09	.000***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57	1.00	3.54	1.07	5.64	.000***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3.25	1.10	3.26	1.16	-0.27	.79

*p<.05, **<p.01, ***<p.001

〈표 2-37〉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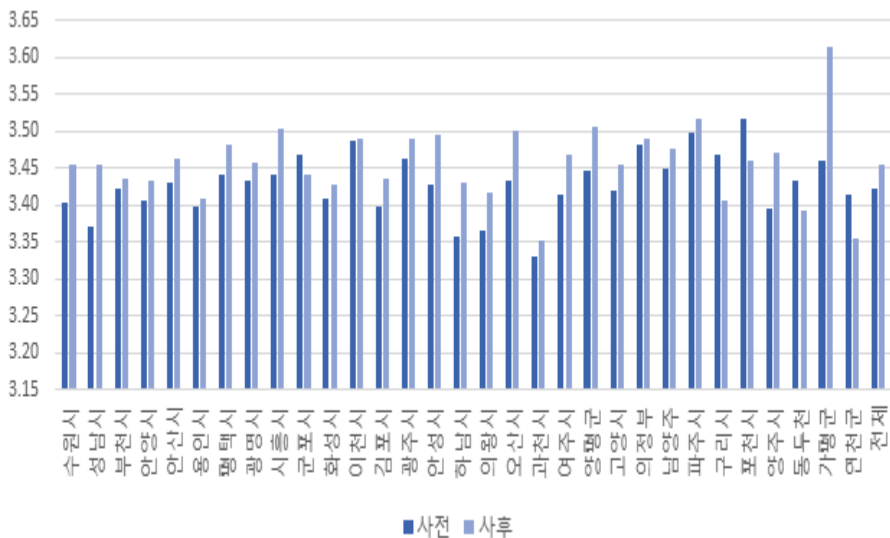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3.09	0.90	3.24	0.89	-4.59	.000***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12	1.09	3.18	1.07	-1.60	.111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2.98	1.08	3.03	1.03	-1.48	.140

*p<.05, **<p.01, ***<p.001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관련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경기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유부 배당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포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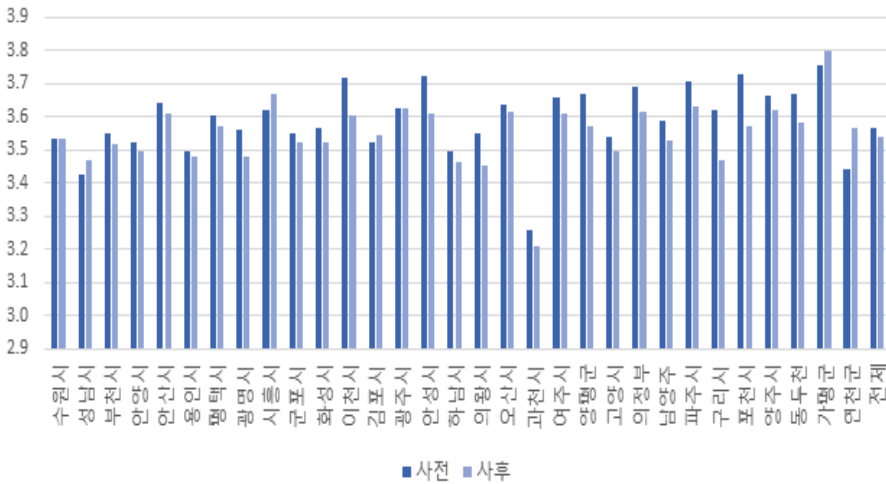
(3.52), 파주시(3.50), 이천시(3.49), 의정부시(3.48), 군포시와 구리시(3.47) 순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3.61), 파주시(3.52), 양평군(3.51), 시흥시와 오산시(3.50), 안성시, 의정부시, 이천시, 광주시(각 3.49)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그림 2-29> 참조).

〈그림 2-29〉 경기도 시·군별 ‘공유부 배당과 권리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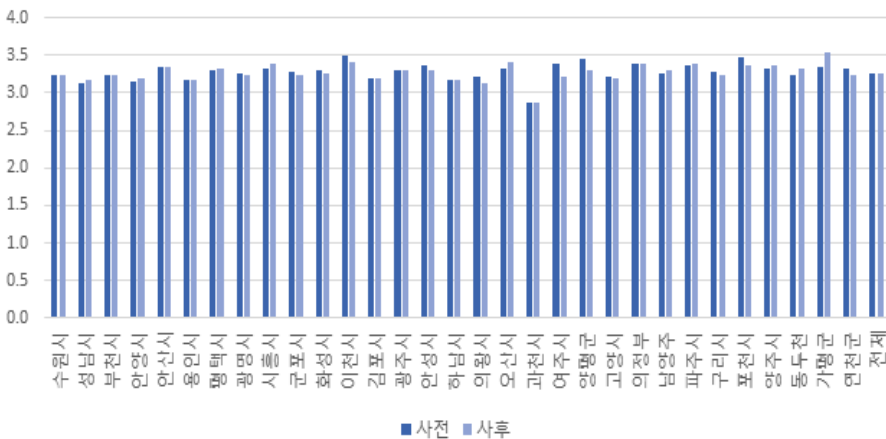
두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 실시’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지도는 가평군(3.75), 포천시(3.73), 안성시(3.72), 이천시와 파주시(3.71), 의정부시(3.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3.80), 시흥시(3.67), 파주시(3.63), 광주시와 양주시(3.62), 오산시(3.61) 순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2-30> 참조).

〈그림 2-30〉 경기도 시·군별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의견’ 결과
(단위: 평균(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전국민 확대’에 대한 의견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이천시(3.51), 포천시(3.48), 양평군(3.44), 의정부시(3.39), 여주시(3.38), 안성시(3.36)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3.53), 오산시와 이천시(3.41), 시흥시(3.40),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각 3.3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1〉 참조).

〈그림 2-31〉 경기도 시·군별 ‘기본소득의 전국민 확대에 대한 의견’ 결과
(단위: 평균(점))



4. 경제활동

본 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기간 동안 경기도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동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¹⁷⁾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동기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업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으로, 미취업자의 경우 ‘주당 구직활동시간’과 ‘주당 직업훈련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구성은 <표 2-38>과 같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청년 총 65,374명 중 취업자의 비중은 69.1%(45,180명)이며, 미취업자는 30.9%(20,194명)이다. 다른 지역 청년의 경우도 전체 1,800명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66.5%(1,197명)와 33.5%(603명)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두 집단 모두에서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취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표 2-38> 취업자/미취업자 구성

(단위: 명, %)

구분	n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사전	사후	전체	사전	사후
경기도 청년	65,374 (100)	45,180 (69.1)	22,139 (49.0)	23,041 (51.0)	20,194 (30.9)	10,548 (52.2)	9,646 (47.8)
경기도 외 청년	1,800 (100)	1,197 (66.5)	580 (48.5)	617 (51.5)	603 (33.5)	320 (53.1)	283 (46.9)

1) 취업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실험집단과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교집단에서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 비교해 본다. 사전조사 결과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고 있다. <표 2-39>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조사 분석결과를 보

17) 취업과 미취업은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여부’로 구분하였다. 취업자에는 무급가족 종사자(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음),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연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시휴직한 자를 포함하였다.

면, 실험집단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5.19시간인 반면, 비교집단의 주당 노동시간은 34.27시간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두 집단 간 주당 노동시간이 유사한 수준으로 밝혀진 것이다.

〈표 2-39〉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n=22,040)		경기도 외 (n=580)		t	p
	m	sd	m	sd		
주당 노동시간	35.19	18.01	34.27	16.18	1.34	.180

*p<.05, **p<.01, ***p<.001

아래의 〈표 2-40〉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주당 노동시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집단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6.12시간으로 비교집단의 주당 평균노동시간(34.2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노동동기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40〉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n=23,005)		경기도 외 (n=617)		t	p
	m	sd	m	sd		
주당 노동시간	36.12	17.34	32.79	16.93	4.70	.000***

*p<.05, **p<.01, ***p<.001

〈표 2-41〉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집단의 주당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표 2-38〉의 취업자 구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실험집단의 취업자 수는 정책 실행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¹⁸⁾ 본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전·후 취업상태를 지속한 18,84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전(36.04시간)보다 지급 후(37.32시

18) 경기도 청년집단의 취업이행 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전체 조사 집단 32,687명 중 제도 시행 전·후 취업을 지속한 사람은 18,934(57.9%)명,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한 사람은 3,205명(9.8%),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사람은 4,107명(12.6%), 미취업을 지속한 사람은 6,441명(19.7%)으로 나타났다.

간)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지역 취업자 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시행 전·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2-42> 참조). 결과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전보다 지급 후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본소득이 수급대상의 노동동기를 저해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호혜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표 2-41>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사전 (n=18,840)		사후 (n=18,840)		t	p
	m	sd	m	sd		
주당 노동시간	36.04	17.57	37.32	16.89	-10.69	.000***

*p<.05, **<p.01, ***<p.001

<표 2-42>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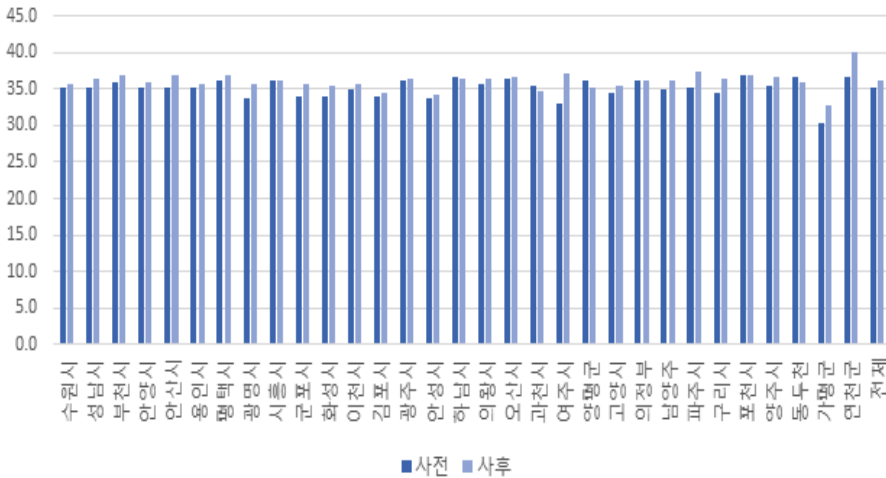
(단위: 명, 시간)

변수	사전 (n=496)		사후 (n=496)		t	p
	m	sd	m	sd		
주당 노동시간	35.48	15.49	34.43	16.53	1.47	.143

*p<.05, **<p.01, ***<p.001

경기도 시·군별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는 포천시 36.96시간, 하남시 36.62시간, 연천군 36.59시간, 동두천시 36.55시간, 오산시 36.41시간, 시흥시와 평택시 36.28시간 순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의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연천군 40.02시간, 파주시 37.35시간, 여주시 37.20시간, 안산시 36.99시간, 평택시 36.97시간, 부천시 36.8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2> 참조).

(단위: 평균, 시간)



2) 미취업자

청년기본소득이 정책 대상자(취업자 집단)의 노동동기를 저해하지 않은 결과는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미취업자의 ‘주당 구직활동 시간’과 ‘주당 직업훈련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집단과 타 지역 청년집단의 종속변수를 비교한 결과 주당 구직활동시간과 주당 직업훈련시간 모두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전 경기도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시간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표 2-43> 참조).

〈표 2-43〉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n=10,548)		경기도 외 (n=320)		t	p
	m	sd	m	sd		
주당 구직활동시간	2.37	8.64	1.13	5.09	4.16	.000***
주당 직업훈련시간	1.81	8.20	0.88	5.57	2.89	.004**

*p<.05, **<p.01, ***<p.001

제도 시행 후 두 집단의 사후조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주당 구직활동 시간’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표 2-44> 참조). 그러나 ‘주당 평균 직업훈련시간’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구직활동 측면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표 2-44>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경기도 외 (n=283)		t	p
	n	m	sd	m	sd		
주당 구직활동시간	9,631	3.75	10.51	2.13	7.93	3.33	.001**
주당 직업훈련시간	9,633	1.86	7.86	1.86	8.05	.009	.993

*p<.05, **p<.01, ***p<.001

보다 의미있는 결과는 제도 시행 전·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미취업자 집단(6,430명)의 구직활동시간 및 직업훈련시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 2-45> 참조). 미취업상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주당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시간이 제도 시행 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활동시간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주당 평균 1.83시간에서 제도 시행 후 3.54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직업훈련시간도 제도 시행 전 주당 평균 1.59시간에서 제도 시행 후 2.0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두 변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이다.

<표 2-45>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사전 (n=6,430)		사후 (n=6,430)		t	p
	m	sd	m	sd		
주당 구직활동시간	1.83	7.67	3.54	10.42	-13.12	.000***
주당 직업훈련시간	1.59	7.89	2.01	8.45	-3.48	.001**

*p<.05, **p<.01, ***p<.001

이와 반대로, 다른 지역의 미취업자 청년들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전·후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2-46> 참조). 결과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전보다 지급 후의 평균 주당 구직활동시간 및 직업훈련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집단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집단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동기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표 2-46>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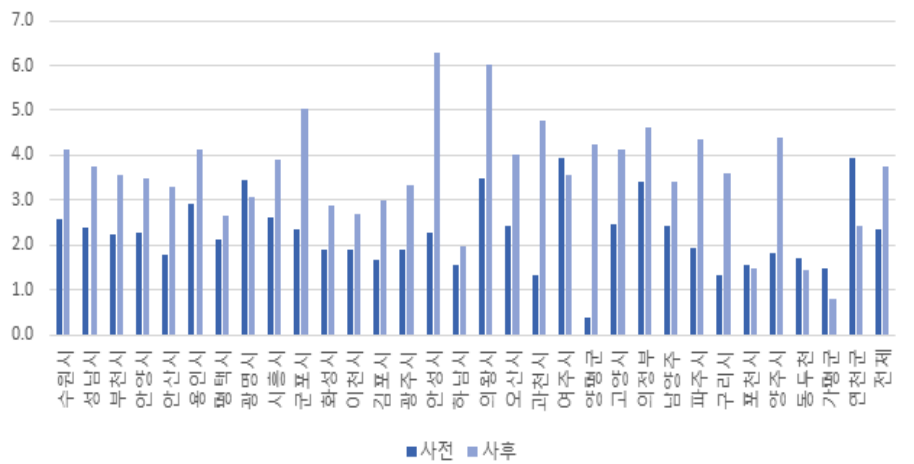
변수	사전 (n=199)		사후 (n=199)		t	p
	m	sd	m	sd		
주당 구직활동시간	0.90	4.58	1.49	6.89	-1.02	.307
주당 직업훈련시간	0.80	4.89	1.56	7.46	-1.41	.159

*p<.05, **<p.01, ***<p.001

경기도 시·군별 ‘미취업자의 주당 평균 구직활동시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조사에서는 여주시 3.93시간, 연천군 3.92시간, 의왕시 3.48시간, 광명시 3.43시간, 의정부시 3.40시간, 용인시 2.91시간 순으로 평균 구직활동 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안성시 6.28시간, 의왕시 6.01시간, 군포시 5.04시간, 과천시 4.75시간, 의정부시 4.60시간, 양주시 4.4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3> 참조).

<그림 2-33> 경기도 시·군별 ‘주당 구직활동시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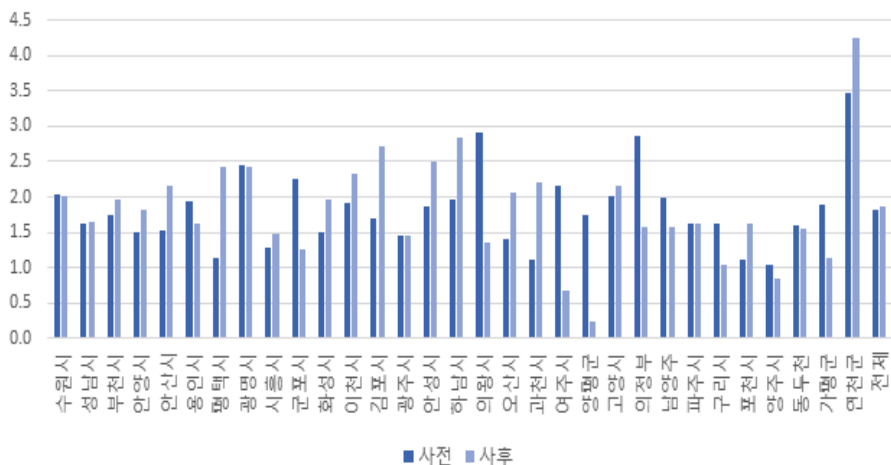
(단위: 평균(시))



다음으로 미취업자의 주당 평균 직업훈련시간을 살펴보면, 사전조사 결과에서는 연천군 3.46시간, 의왕시 2.92시간, 의정부시 2.86시간, 광명시 2.46시간, 군포시 2.27시간, 여주시 2.1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조사결과에서는 연천군 4.26시간, 하남시 2.83시간, 김포시 2.72시간, 안성시 2.50시간, 광명시와 평택시 2.4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4> 참조).

<그림 2-34> 경기도 시·군별 '주당 직업훈련시간' 결과

(단위: 평균(시))



3)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동안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사전·사후조사 및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현재 본인의 경제상황이 '불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시대의 청년문제가 거주하는 지역과 시간을 넘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경기도 청년집단과 다른 지역 청년집단의 종속변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2.44)에 포함된 청년들이 비교집단(2.55)의 청년에 비해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19) 이 항목의 경우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전개하기 위해 점수를 역순으로 전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을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미한 수준이며, 사전조사의 동질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다(<표 2-47> 참조).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의 사후조사 결과를 보면,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실험집단의 점수는 일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점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표 2-48> 참조).

<표 2-47>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2.44	1.00	2.55	0.99	-3.28	.001**

*p<.05, **<p.01, ***<p.001

<표 2-48>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단위: 명, 시간)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2.50	1.01	2.54	0.99	-1.18	.239

*p<.05, **<p.01, ***<p.001

<표 2-49>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시행 전(2.40)보다 시행 이후(2.50) 경제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로서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는 결과이다. 한편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2.55, 2.54)에서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표 2-50> 참조).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에서 공히 본인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정책 시행 전보다 후에 자신의 경제활동이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49〉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2.44	1.00	2.50	1.01	-11.14	.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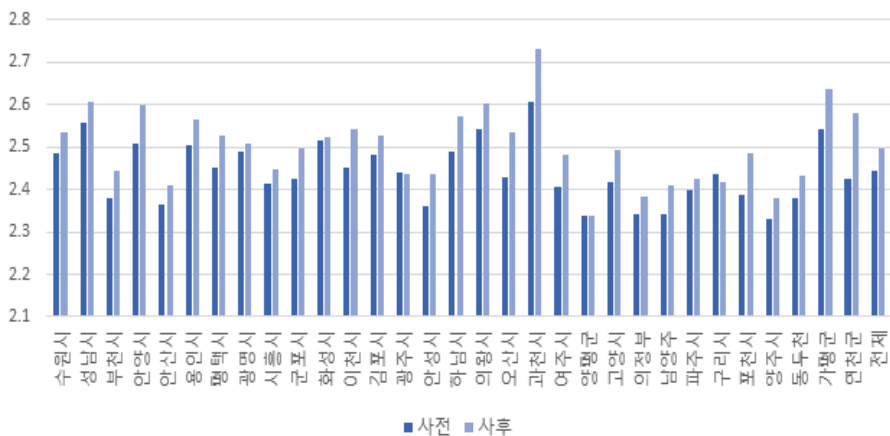
〈표 2-50〉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2.55	0.99	2.54	0.99	0.53	.593

*p<.05, **<p.01, ***<p.001

경기도 시·군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과천시(2.61), 성남시(2.56), 의왕시와 가평군(2.54), 화성시(2.52), 안양시와 용인시(2.51) 순으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3.53), 오산시와 이천시(3.41), 시흥시(3.40),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각 3.3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5〉 참조).

〈그림 2-35〉 경기도 시·군별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결과
(단위: 평균(점))



5. 꿈-자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세대의 꿈-자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설문지의 척도는 ‘매우 그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7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항목의 측정치를 모두 역코딩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상상력에 해당하는 두 문항과 회복 탄력성에 해당하는 한 문항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2-51> 참조).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의 꿈-자본은 일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동질하고(‘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51>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4.28	1.65	4.24	1.54	0.78	.437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4.75	1.67	4.64	1.58	1.96	.051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3.00	1.58	3.13	1.50	-2.49	.013*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5.50	1.37	5.20	1.41	6.52	.000***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4.61	1.58	4.44	1.49	3.54	.000***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4.52	1.48	4.26	1.40	5.40	.000***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3.38	1.64	3.56	1.56	-3.31	.001**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4.01	1.72	4.13	1.59	-2.23	.026*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4.56	1.47	4.34	1.36	4.69	.000***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5.08	1.44	4.86	1.40	4.52	.000***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4.64	1.44	4.40	1.31	5.37	.000***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4.15	1.65	4.06	1.54	1.67	.096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4.59	1.46	4.42	1.33	3.91	.000***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5.13	1.57	4.79	1.52	6.35	.000***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3.40	1.57	3.61	1.45	-4.43	.000***

*p<.05, **p<.01, ***p<.001

경기도와 다른 지역 청년들의 꿈-자본에 관한 사전조사에 의하면, 모든 문항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15개의 문항

중 12개의 문항에서 경기도 청년과 경기도 외 지역의 청년들의 꿈-자본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두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 청년들과 받지 않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의 사전·사후조사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표 2-52> 참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이렇게 세 항목에서 모두 경기도 청년들이 비교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꿈-자본 수준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거나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후에는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성공한 미래를 더 자주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잘 회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표 2-52> 실험집단/비교집단 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경기도 (n=32,687)		경기도 외 (n=900)		t	p
	m	sd	m	sd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4.51	1.59	4.18	1.54	6.34	.000***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4.83	1.61	4.56	1.55	5.04	.000***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3.01	1.54	3.24	1.47	-4.28	.000***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5.47	1.36	5.16	1.41	6.72	.000***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4.72	1.55	4.37	1.45	7.19	.000***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4.60	1.46	4.22	1.35	8.45	.000***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3.34	1.61	3.53	1.48	-3.87	.000***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3.91	1.69	4.09	1.55	-3.54	.000***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4.62	1.45	4.23	1.37	8.44	.000***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5.09	1.43	4.77	1.40	6.60	.000***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4.69	1.43	4.29	1.34	8.91	.000***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4.21	1.62	3.94	1.50	5.46	.000***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4.65	1.44	4.37	1.34	6.09	.000***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사람이 있다	5.12	1.55	4.77	1.54	6.81	.000***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3.40	1.56	3.61	1.43	-4.32	.000***

*p<.05, **p<.01, ***p<.001

특히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2-53> 참조), 이 항목에서 모두 경기도 청년들은 기본소득 지급 이전과 지급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 반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2-54> 참조), 경기도 이외의 지역의 청년들은 이 문항에서 사전·사후조사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53> 실험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32,687)		사후 (n=32,687)		t	p
	m	sd	m	sd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4.28	1.65	4.51	1.59	-28.06	.000***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4.75	1.67	4.83	1.61	-9.98	.000***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3.00	1.58	3.01	1.54	-1.79	.073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5.50	1.37	5.47	1.36	5.12	.000***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4.61	1.58	4.72	1.55	-13.59	.000***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4.52	1.48	4.60	1.46	-10.90	.000***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3.38	1.64	3.34	1.61	5.16	.000***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4.01	1.72	3.91	1.69	11.11	.000***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존감이 있다	4.56	1.47	4.62	1.45	-8.58	.000***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5.08	1.44	5.09	1.43	-1.15	.252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4.64	1.44	4.69	1.43	-6.81	.000***
나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4.15	1.65	4.21	1.62	-8.06	.000***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4.59	1.46	4.65	1.44	-7.14	.000***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5.13	1.57	5.12	1.55	1.21	.228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3.40	1.57	3.40	1.56	-0.36	.717

*p<.05, **p<.01, ***p<.001

꿈-자본 측정의 하위 항목인 ‘희망’ 카테고리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희망 카테고리의 측정 문항은 문항 4(‘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에서부터 문항 8(‘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까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희망 범주의 분석결과를 사전조사에서 이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2-51> 참조). 모든 문항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희망의 정도가 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2-51> 참조). 또한 사후 결과에서도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과 무관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이전과 이후에 경기도 청년들은 희망 범주의 모든 문항에서 지급 후에 그 수준이 높게 변화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로 나타난다(<표 2-53> 참조). 반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는 이 항목에서 모두 수준이 높아졌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표 2-54> 참조). 정리하면, 무조건적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경기도 청년들의 희망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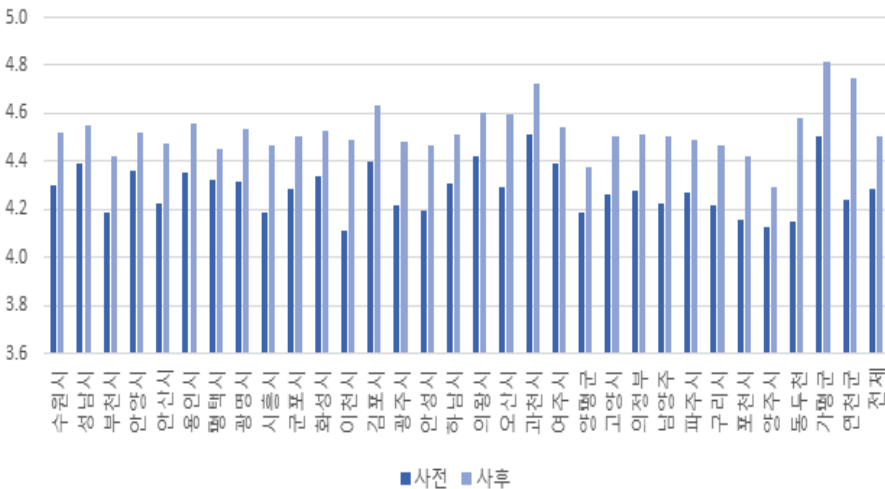
<표 2-54> 비교집단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변수	사전 (n=900)		사후 (n=900)		t	p
	m	sd	m	sd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4.24	1.54	4.18	1.54	1.36	.175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4.64	1.58	4.56	1.55	1.76	.079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3.13	1.50	3.24	1.47	-2.01	.045*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5.20	1.41	5.16	1.41	0.96	.338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4.44	1.49	4.37	1.45	1.45	.148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4.26	1.40	4.22	1.35	0.99	.323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3.56	1.56	3.53	1.48	0.51	.611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4.13	1.59	4.09	1.55	0.74	.461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4.34	1.36	4.23	1.37	2.67	.008**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4.86	1.40	4.77	1.40	1.99	.047*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4.40	1.31	4.29	1.34	2.67	.008**
나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4.06	1.54	3.94	1.50	2.63	.009**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4.42	1.33	4.37	1.34	0.99	.320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4.79	1.52	4.77	1.54	0.58	.560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3.61	1.45	3.61	1.43	0.11	.9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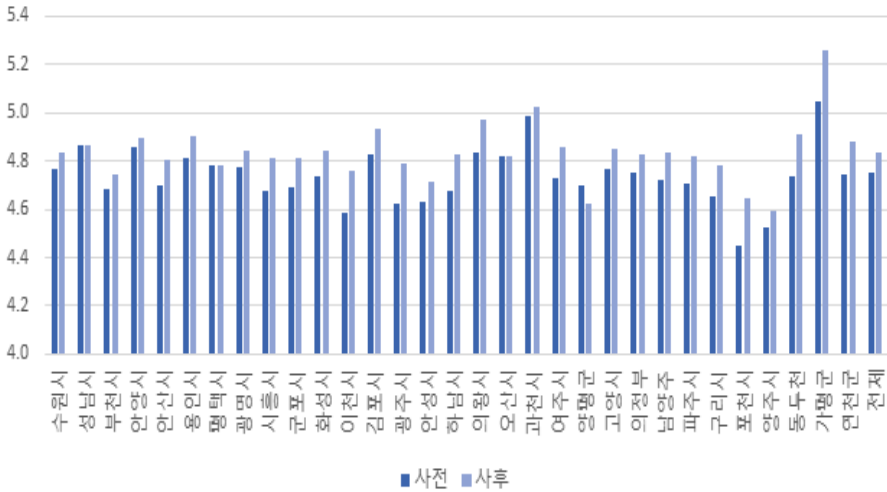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시·군별 ‘꿈-자본 15개 문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조사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는 과천시와 가평군(4.51), 의왕시(4.42), 김포시(4.40), 여주시와 성남시(4.39)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가평군(4.82), 연천군(4.75), 과천시(4.72), 김포시(4.63), 의왕시와 오산시(4.60)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그림 2-36> 참조).

〈그림 2-36〉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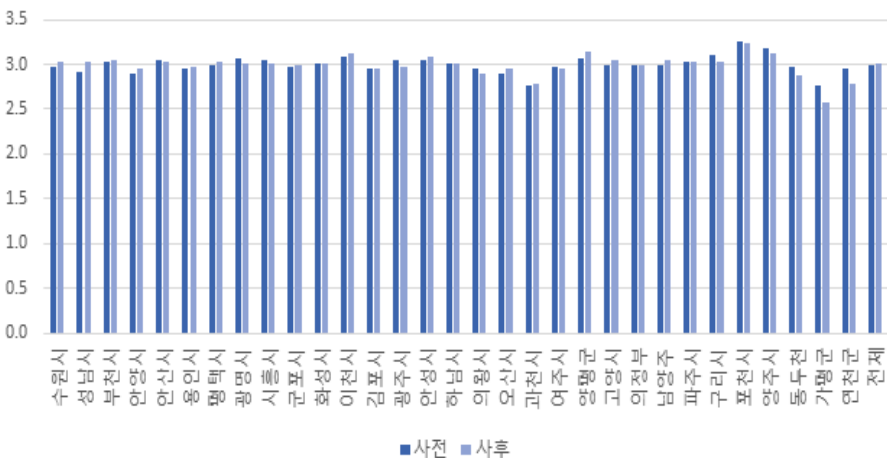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의 경우 사전조사 결과에서 가평군(5.05), 과천시(4.98), 성남시(4.87), 안양시(4.85), 의왕시(4.84), 김포시(4.83)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평군(5.26), 과천시(5.02), 의왕시(4.97), 김포시(4.94), 동두천시(4.91), 용인시(4.9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7> 참조).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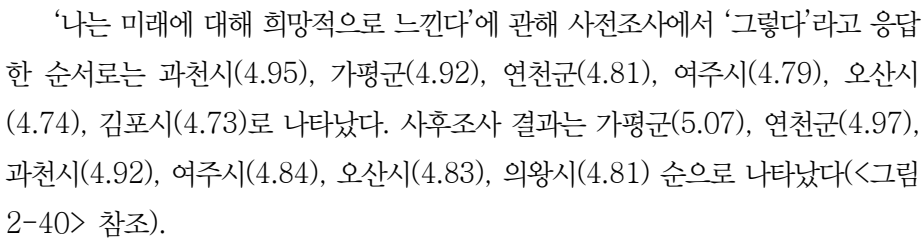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에 관해 사전조사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순서는 포천시(3.25), 양주시(3.18), 구리시(3.11), 이천시(3.08), 광명시(3.07), 양평군(3.06)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포천시(3.24), 양평군과 양주시(3.13), 이천시(3.12), 안성시(3.08), 고양시(3.0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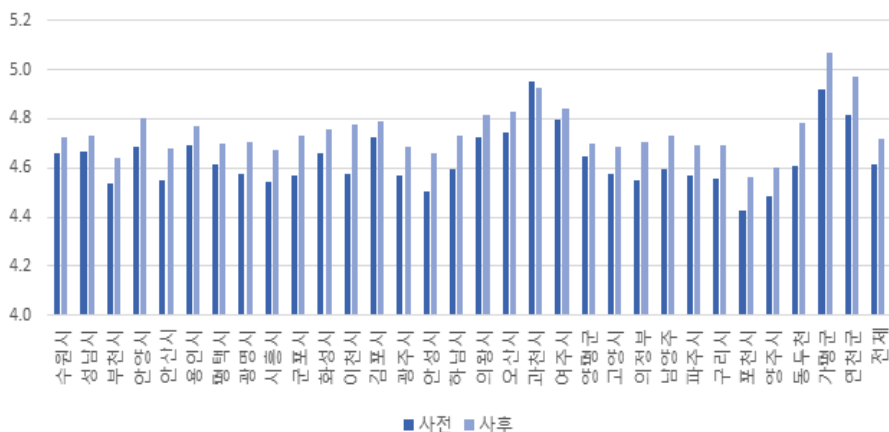
(단위: 평균(점))



〈그림 2-39〉 경기도 시·군별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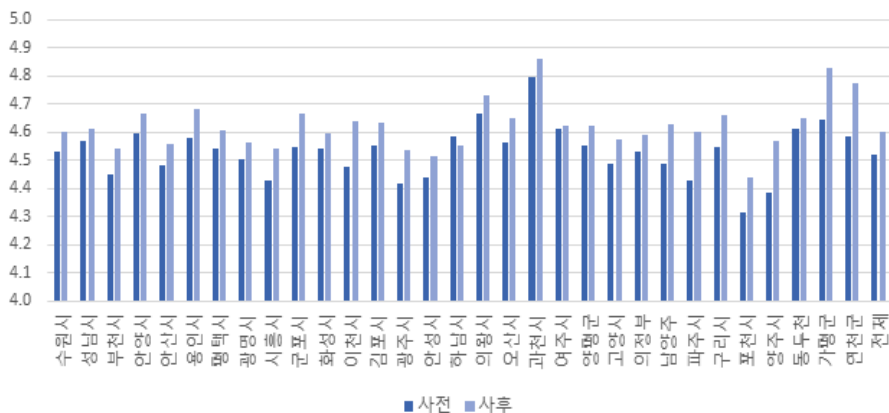


〈그림 2-40〉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결과
(단위: 평균(점))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에서는 과천시(4.80), 의왕시(4.67), 가평군(4.65), 동두천시시와 여주시(4.61), 안양시(4.60)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천시(4.86), 가평군(4.83), 연천군(4.78), 의왕시(4.73), 용인시(4.68), 군포시(4.6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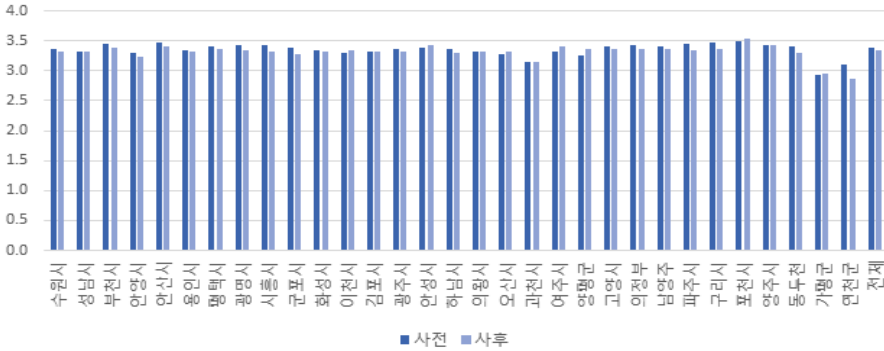
〈그림 2-41〉 경기도 시·군별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결과
(단위: 평균(점))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포천시(3.50), 구리시와 안산시(3.48), 부천시와 파주시(3.44), 의정부시(3.43)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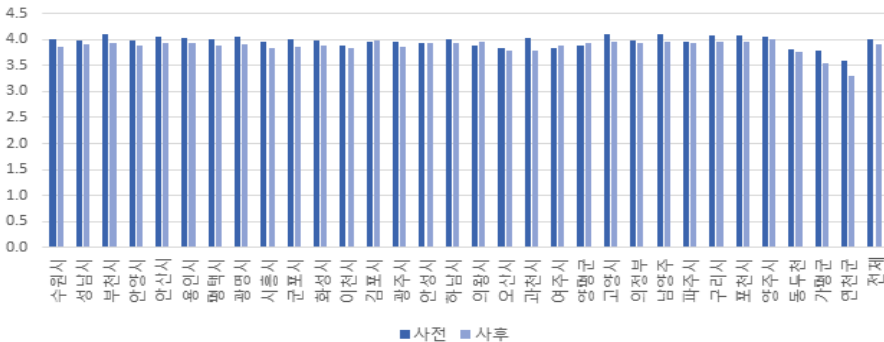
응답하였다.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포천시(3.53), 안성시와 양주시(3.43), 안산시와 여주시(3.40), 부천시(3.4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2> 참조).

<그림 2-42>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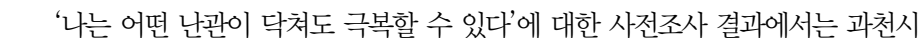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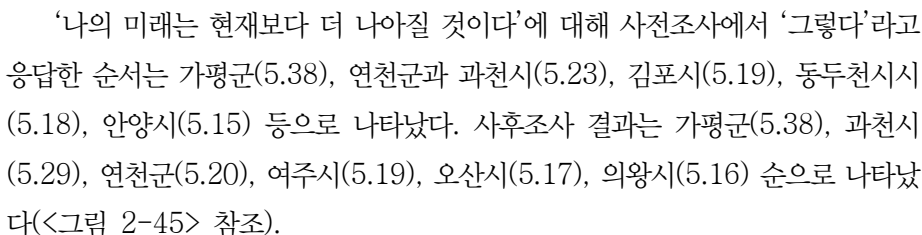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순서는 부천시와 고양시(4.10), 남양주시(4.09), 구리시(4.08), 포천시(4.07), 양주시와 안산시(4.06) 등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로는 양주시(4.01), 김포시(3.99), 의왕시, 고양시, 구리시(각 3.97), 포천시(3.9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3> 참조).

<그림 2-43> 경기도 시·군별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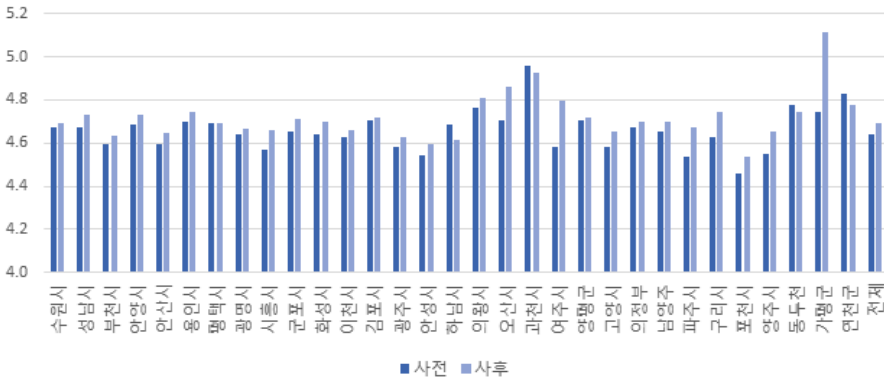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과천시(4.84), 가평군(4.72), 의왕시와 연천군(4.67), 오산시(4.65), 안양시(4.63) 순으로

〈그림 2-44〉 경기도 시·군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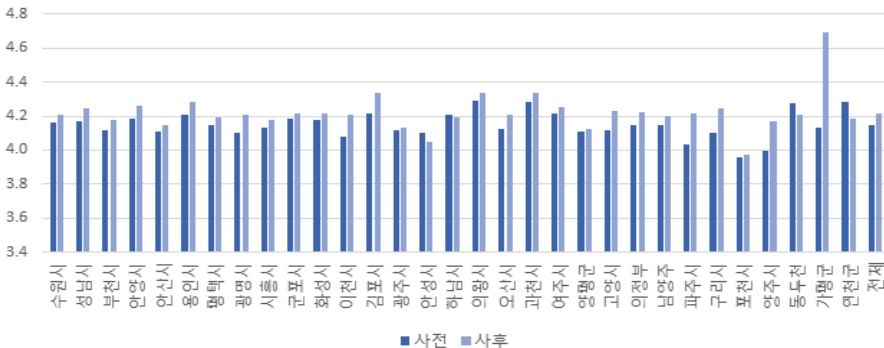
(4.96), 연천군(4.83), 동두천시(4.78), 의왕시(4.76), 가평군(4.74), 김포시(4.71)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평군(5.11), 과천시(4.92), 오산시(4.86), 의왕시(4.81), 여주시(4.80), 연천군(4.7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6> 참조).

<그림 2-46> 경기도 시·군별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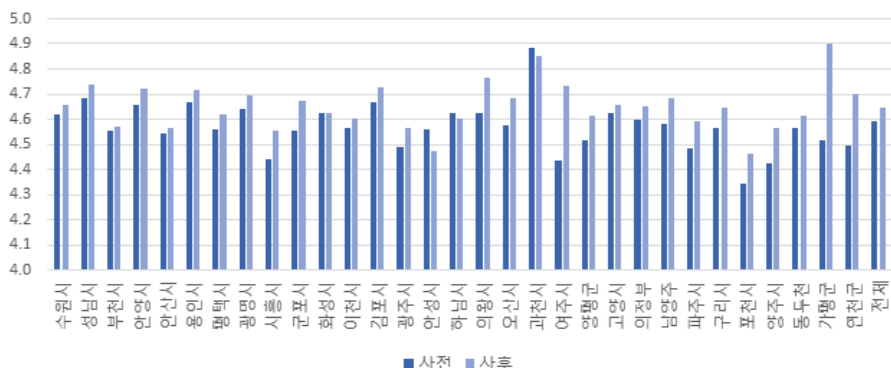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문항에 관해 사전조사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순서는 의왕시(4.29), 연천군, 과천시, 동두천시(각 4.28), 여주시, 김포시, 하남시, 용인시(각 4.21)로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4.69), 과천시, 의왕시, 김포시(각 4.34), 용인시(4.28), 안양시(4.2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7> 참조).

<그림 2-47> 경기도 시·군별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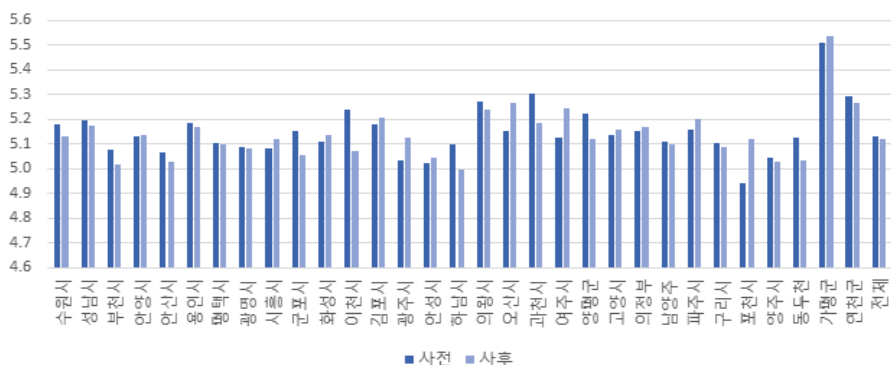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에 대해 사전조사에서는 과천시(4.88), 성남시(4.68), 김포시와 용인시(4.67), 안양시(4.66), 광명시(4.6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4.90), 과천시(4.85), 의왕시(4.76), 성남시(4.74), 여주시와 김포시(4.7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8> 참조).

<그림 2-48> 경기도 시·군별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결과
(단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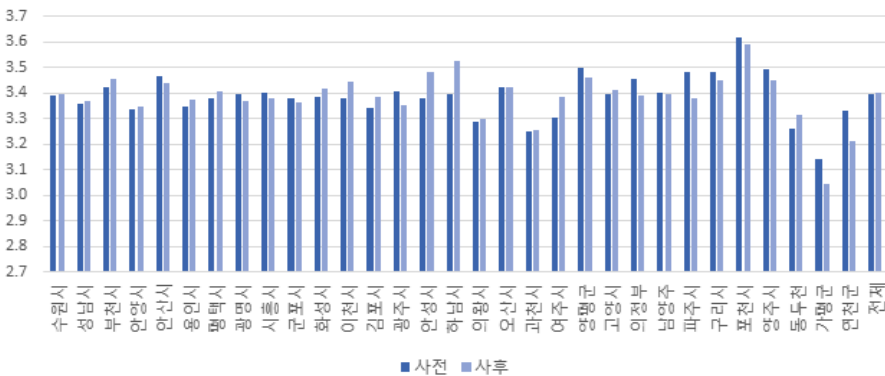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에서는 가평군(5.51), 과천시(5.30), 연천군(5.29), 의왕시(5.27), 이천시(5.24), 양평군(5.22)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평군(5.53), 오산시(5.27), 연천군(5.26), 여주시(5.25), 의왕시(5.24), 김포시(5.2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9> 참조).

<그림 2-49> 경기도 시·군별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단위: 평균(점))



마지막으로, <그림 2-50>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에 대한 문항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포천시(3.62), 양평군(3.50), 양주시(3.49), 구리시와 파주시(3.48), 안산시(3.47)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후 설문조사 결과 포천시(3.59), 하남시(3.53), 안성시(3.48), 양평군과 부천시(3.46), 양주시(3.45)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50> 경기도 시·군별 ‘나는 좌절경험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단위: 평균(점))



제3절 소결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제 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전·후 조사 모두에 응답한 32,687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 중 9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핵심 지표는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서 이미 활용된 항목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분석의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기본

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신체적 건강상태와 상대적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과 근심·걱정을 적게 하며,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를 추동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핀란드 중앙정부와 캐나다 민컴 실험에서 밝혀진 행복 및 건강증진 효과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는 식생활 형편과 개선 노력 측면에서도 부각된다. 청년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형편은 개선되었고, 청년들이 더 많은 과일을 먹는 등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차원의 신뢰수준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사후조사에서 밝혀진 실험집단의 ‘타인’과 ‘법·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사전조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다만,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포함된 젠더 인식 범주는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수준’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조사 시점과 대상 간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젠더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인식수준의 향상에는 기여하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확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기결정권’과 ‘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소폭 향상시켜 실질적 자유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자기결정권 차이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의 결과는 분명한 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변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향과 관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이 보편복지의 확대 지향으로 단순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비교집단에 비해 보편복지 지급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의 점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은

변화 수준은 제도 시행 후에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후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실험집단의 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수준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취업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받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의 노동동기를 크게 저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동시간을 축소할 만큼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양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의 주당 구직활동시간과 주당 직업훈련시간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동기를 저해하지 않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의 수급 전·후 인식수준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청년에게 관찰되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꿈-자본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거나,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후에는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성공한 미래를 더 자주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잘 회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소득 지급 이전과 이후의 관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꿈-자본 측정

의 하위 항목인 ‘희망’ 범주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우 제한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대표적인 범주형(categorical) 기본소득이다. 개혁적인 정치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해당 정책을 실험의 방식이 아닌 실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 가능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상을 표적화하여 무조건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갖는 함의는 일국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험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인구집단별 우선적 배정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형식적인 수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수당의 형태를 지닌 영구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레임을 넘어 완전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전 단계의 디딤돌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범주형 기본소득에 빈곤 완화와 같은 사회정책의 목표를 넘어 해방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완전기본소득 성취를 위한 낮지만 점증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설계 방식의 과학적 조사와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 외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집단도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이론적 논의와 각종 실험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지표들을 포괄하였다. 다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규모와 구성 차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험집단 구성원의 수급 경험의 두 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추후 총 4분기의 기본소득이 모두 지급된 이후 청년들의 삶과 인식, 태도의 변화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과의 비교를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할 필요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꾸준히 실행되고,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종단적인 자료의 구축과 분석이 지속되어 완전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이 풍부하게 마련되고 축적되길 기대해 본다.

제 3 장

질적 조사

- 제 1 절 질적 조사의 설계
- 제 2 절 질적 조사의 집단별 결과 분석
- 제 3 절 질적 조사 결과 종합
- 제 4 절 소결

제3장

질적 조사

제1절 질적 조사의 설계

1. 개요²⁰⁾

이 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만족도, 입장, 불편 및 개선사항 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N포 세대로 불리는 요즘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향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데 이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조사는 진행자와 빅마우스(말을 잘하여 토론의 분위기를 좌우하거나 그룹 참여자의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혹은 말을 많이 하여 그룹 전체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아 편향으로 흐르게 하는 사람)에 의한 편향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사의 진행자들은 최대한 자기 의견 진술과 간섭을 자제했다. 빅마우스가 일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향을 피하고자 했다.

FGI(Focusing Group Interview;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총 6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5개 그룹은 직장 유무, 학력 정도, 재학/졸업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여기에 공공부조 경험 그룹 1개를 추가했다. 그룹당 4~7명, 총 33명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 중 여자는 15명, 남자는 18명이었다. 그룹당 인원은 6명, 남녀 비율은 50:50으로 계획하였으나, 불참자 등이 생겼다.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으나, 지역 배분도 가능한 맞추고자 노력했다.

20) 제1장 서론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보충적인 내용만 기술한다.

2. 설문 구성

설문은 i)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ii)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iii)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iv) 기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i)에서는 수급정보 취득 경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느낌, 사용처, 수급 전과 후의 삶의 변화, 불편 및 개선 요망사항, 평가 등이, ii)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주변인의 의식,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에 대한 의견, 전체 연령으로의 확대에 대한 입장, 희망 지급수준이나 희망 사용처, 재원 조달에 관한 생각, 지급방식 등이 논의됐다.

iii)에서는 청년들의 자기 정체성, 공동체 의식, 공적지원제도에 대한 생각, 기본소득 이외에 도입되기를 바라는 청년정책, 복지와 증세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iv)에서는 “기본소득은 [?] 이다”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을 표현하도록 했다.

제2절 질적 조사의 집단별 결과 분석

1. <집단 1> 고졸 이하 직장인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남	경의권	김포	직장인 - 정규직
2	여	동부권	광주	직장인 - 정규직
3	남	동부권	광주	직장인 - 정규직
4	여	서해안권	부천	직장인 - 정규직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참가자들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G버스, 친구, 인터넷, 가족 등으로 다양하였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느낌은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이 생겨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기에 모두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은 주로 편의점에서 김밥 등의 간식을 구입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등 식사에 많이 사용하였으며, 기타 안경렌즈 구입, 헬스장 이용, 부모님 신발 선물 등에도 사용되었다.

수급 전후 삶의 변화로는 문화생활의 증가나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제도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사용 가능지역이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에게도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근거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아동이나 노인들에게는 이미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좋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 방식이 좋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전연령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예컨대 연간 50만 원씩 2개년에 걸쳐 지급)이 좋다는 의견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교차하였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기별 지급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월별로 지급한다면 월 25만 원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운동, 여행 등 취미생활에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3)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청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응답하였는데, 위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있다는 느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팍팍

함 등을 토로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쟁이 없도록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해줄 것과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참가자 네 명 모두 세금을 통한 복지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점이었다.

4) 기타 : 기본소득이란 [?] 이다.

- 기본소득은 ‘한 줄기 빛’이다.
- 기본소득은 ‘용돈’이다.
- 기본소득은 ‘뜻하지 않은 선물’이다.
- 기본소득은 (용돈을 주는) ‘제2의 부모님’이다.

2. <집단 2> 초대줄 이상 직장인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여	경부권	성남	직장인-30시간 이상
2	여	경의권	김포	직장인-30시간 이상
3	여	서해안권	부천	직장인-30시간 이상
4	여	서해안권	화성	직장인-30시간 이상
5	남	동부권	남양주	직장인-30시간 이상
6	남	경부권	수원	직장인-30시간 이상
7	남	경부권	수원	직장인-30시간 이상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참가자들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친구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G버스, 인터넷, 우편물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수급에 대해서는 여윳돈을 받는 느낌이라고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을 식비(가족 외식비 포함)로 사용하였고, 기타 편의점(담배), 카페, 강아지 용품, 화장품, 헬스장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에는 이전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였고, 친구나 동료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서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이 많았으며, 모바일 가맹점이 적었고, 대형서점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주지와 주생 활권(직장)이 달라서 사용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좋다는 것, 돈 버는 사람 에게 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 소득기준을 정하면 좋겠다는 것, 부양가족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것 등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을 선호하는 것이었 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으로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만,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잘 안 가기 때문에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집단 2>의 참가자들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예산낭비 라든가 세금 안 내고 안 받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왜 24세 전체인지 모르겠 고, 차라리 일하는 청년보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이 전하는 주변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는데, 30~40세대는 자신들은 받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낸다고 불평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소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는데, 취약계 층이나 위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희망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 는데, 현재와 같이 분기별 25만 원에 대한 선호가 많기는 했지만, 한 번에 100 만 원, 반기에 50만 원, 월 10만 원, 월 15~20만 원을 선호하기도 하였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차이를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3)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현재 청년의 삶에 대해서는 모두 힘들다고 토로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해) 부 양인구가 많아진다는 점, 새로운 도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취업준비생은 불 안 붙인 빨감, 직장인은 불 붙이는 빨감”이라는 표현으로 힘든 처지를 자조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는 교통비, 월세 및 중소기업 노동자 전세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였고, 다소 특이하게 부모세대의 은퇴 후 지원이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요구하였다.

4) 기타

청년기본소득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았는데, 청년기본소득을 “있어도 없어도 그만”, “계륵”, “생고기”, “서툴다”, “돈 낭비”, “갈 길이 멀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3. <집단 3> 고졸 이하 미취업자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여	서해안권	광명	비경제활동
2	여	경부권	성남	비경제활동
3	남	동부권	광주	비경제활동
4	남	서해안권	안산	비경제활동
5	남	경의권	고양	비경제활동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집단 3> 참가자 다섯 명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모두 달랐다. 각각 G버스, 인터넷, 우편물, 인터넷, 가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수급에 대한 느낌은 모두 긍정적이었다. 친구나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었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도우려고 애써주는 게 느껴져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나타났다.

사용처는 가족 식사나 간식 등 식사 외에 독서실 이용과 약국에서의 사용도 있었으며, 부모님께 양도한 경우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할인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불편사항으로는 시·군 이내로의 지역제한과 분기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거론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이 타당하다는 반론과 이사 여부 확인을 위해 분기별 신청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아울러 초반에 가맹점주의 거부도 있었고, 대형마트, 인터넷 구매, 문화생활(운동경기장, 대형서점)이 불가능하다는 불편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주된 용도가 식사와 화장품 등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는데,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조건이 없어서 좋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면 반대한다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용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주변의 반응으로는 유사한 나이의 또래들은 찬성한다는 반응밖에 없었다.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24세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 찬성하고, 무조건성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간단한 응답만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세금부담과 물가인상 우려가 그 이유였다.

희망하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분기별 지급과 월별 지급으로 의견이 반분되었으며, 희망 금액에 대해서는 월 9~10만 원, 10만 원, 20~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3)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현재 청년들은 계속되는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으며,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매우 심각한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기술교육 강화,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학만 가려고 하는 사회제도 개선, 깨끗한 사회 조성, 대학 축소 등에 힘써주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추어 웹툰 업계 지원

과 병원 관련 복지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²¹⁾

4. <집단 4>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여	경의권	고양	취업준비중
2	여	서해안권	시흥	프리랜서, 구직중
3	여	경부권	용인	취업준비중
4	남	서해안권	부천	일하다 그만둠
5	남	경부권	수원	퇴사후 실업상태
6	남	동부권	남양주	취업준비중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청년기본소득 수급 관련 정보는 가족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휴대폰 문자, 시·군 자치단체의 고지서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급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되었다고 평가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느낌과 관련해서는 “기분이 좋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경기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라에서 돈을 받기는 처음이라 의외였고 신기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용처로는 외식과 카페 이용이 다수였으며, 책 구입, 편의점, 식료품 구입, 술값에 썼다는 응답과 함께 네일아트, 미용실, 모텔 이용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수급 전후 삶의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음을 열어놓는 여유를 얻었다”고 답했다. “사소한 것을 살 때 과거 같으면 사지 않거나 망설였을 텐데 편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안 써도 될 때 쓰기도 한다”는 자기반성도 있었다.

불편 및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있으나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불편사항으로는 가맹점 여부 확인이 쉽지 않았고, 사용처와 지역의 제한을 꼽았다. 또한 매분기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돈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불편은 감수할 만하다는 입장이었다.

21) 이 그룹의 경우 “4) 기타 : 기본소득은 [?]이다”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급했으므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찬성의 이유로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해 모든 참여자가 찬성했으며,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찬성률보다 높았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 밖에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할증제도(6~10% 가산)를 들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세금을 왜 그런데 쓰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답변과 “너희들은 돈을 받아서 좋겠다”는 공감의 답변을 보였다는 긍정적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전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주변 반응이 부정적 시각이 많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자의 경우는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다른 지역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면서 부정적 시각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찬반이 교차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력한 반대는 없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왜 24세에게 준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나타내면서도 “취준생은 돈이 없으므로 이 시기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또한 “20세와 같이 어린 나이에 주면 자기 통제가 안 될 것이므로 (24세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응답도 나왔다.

지급수준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은 분기당 25만 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도 현행과 같은 분기당 지급을 선호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월별 지급을 선호하는 경우도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자체(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해서도 답변은 엇갈렸으나,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그룹의 특성 때문인지 다수가 “취준생에 대한 타겟 지원”을 요청했다. “취준생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나 “부모 소득과 내 소득은 다른 것인데, 부모 소득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상을 취준생으로 줄이고 금액을 높이기를 바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전 연령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찬성 의견도 나왔다. 특히 주부, 아동, 노인에 대한 지원에는 모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출산율이

낮아졌으니 아동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수당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섰다. 전자는 남성, 후자는 여성이 주장했으나 후자의 주장에 남성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3) 청년의 삶

역시 취업 걱정을 최고로 꼽았다. 요즘 청년사이에서 유행하는 “올로(YOLO)”²²⁾를 예로 들어,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취직도 미래도 불안하고 어차피 집도 못살 것이므로 당장이라도 즐거워야겠다는, 반쯤 자포자기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좀 나아져서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타났다.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복잡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증세가 아니라 쓸데 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해야 한다는 입장,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며 효율적 사용이 전제되면 찬성한다는 입장 등으로 엇갈렸다.

4) 기타 : 기본소득이란 [?] 이다.

- “땡큐”다.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으나 여유가 생겼다.
- “보너스”다. 월급은 아니고 좀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삶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소나기는 아니지만 “단비”다.
- “공자와 백종원”이다. 여기서 “공자”는 책 구입을, “백종원”은 요리 레시피를 구입하여 요리를 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 “특권”이다. 이것을 받고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나.
- “영양제”다. 집에만 있었는데, 돌아다니며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어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 “반긴 받았는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

22)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올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5. <집단 5> 대학생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여	경부권	안양	졸업*
2	여	경의권	고양	휴학
3	남	경부권	용인	4학년 2학기
4	남	서해안권	화성	휴학
5	남	동부권	남양주	3학년
6	남	경의권	김포	4학년 1학기

주) *섭외당시 4학년 2학기 재학생이었으나 토론 시점에는 졸업생이 됨.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청년기본소득 수급 관련 정보 취득 경로는 G버스, 도서관 게시판, 인터넷 광고, 동네 플래카드, 친구 등 다양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느낌으로는 미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세금에서 받는 것이라서 안 받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것이다.

사용처는 외식(식당), 카페, 편의점, 주점, 식음료 구입, 책 구입, 독서실 비용,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부모님께 드렸다는 응답도 나왔다. 수급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 여유가 생겨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조그만 사치를 부릴 수 있었다”, “자금 여유가 생겼다”, “통장 잔고가 덜 줄어드니 불안이 덜 하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부모님께 용돈을 안 받고 지급받은 기본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불편 및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와 지역의 제한을 꼽았다. 카드가 아니라 QR코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학생은 카드로 배달하는 주문을 했으며, 체크카드 만들기 싫으니 지역화폐(‘지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로 달라는 학생도 있었다. 사용처제한은 이해하지만, 지역제한은 풀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특히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은 불편이 없으나, 농촌지역은 크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기본소득제도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하고 의아하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선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로 돈이 몰리면 안 좋으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사라지므로 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라면 지역화폐를 선호하지만, 청년복지가 주목적이라면 현금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주는 것으로서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청년의 투표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비창출효과(‘유효수요 창출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우려가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식에 관해서는 “크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가 대세라고 보았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국가에서 돈을 줘서 “신기했지만 좋기는 좋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만약 “안 주면(제도 중단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 전연령으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소 열띤 찬반 의견이 오갔으나,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우세했다. 부정적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 “세금인데 다 줘도 되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청년 말고 임신부에게 줘라”, “굳이 청년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노인, 아동에게 줘라”, “노인·아동은 취약계층이지만 청년은 아니다. 청년에게 주려면 취준생에 한정해라” 등.

반면 “좋은 복지정책이다. 찬성한다”, “지급 액수를 낮춰서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의미가 없는 액수를 준다면 전국민 지급에 찬성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가 좋다”, “구직지원금보다 좋은 제도다. 구직지원금은 관리계획서를 내야 해서 싫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부자들도 세금 내는 맛이 있을 것이므로 좋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찬반 여부와 관련 없이 “1년 먼저 태어났다고 못 받는 것은 불공정하

다”, “국세 비중이 높는데 경기도만 해서는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도 있었다.

전연령으로의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증세를 전제로 한 확대에는 반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선호했다. 그 이유로는 제한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희망지급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의 확대와 지속을 위해서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기할 것은 지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좋고, 늘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지역화폐의 경우는 사용처가 제한되므로 지금이 적당하지만, 현금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도 현행과 같은 분기별 지급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 청년의 삶

이 그룹도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 관련하여 취업 불안을 최고로 꼽았다. “어른이지만 돈은 없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미안하다”, “불확실한 일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잠시 잊고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친구랑 얘기하면 혼자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다”, “공대인데도 취업 안돼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공대는 나은 것 아니냐, 문과는 정말 막막하다”, “나라에서 창업 지원한다는 데, 취업이 안 되니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냐”, “대학등록금을 100% 부모님께 의지했다. 부모의 기대, 부모님이 들인 인풋(input)대비 아웃풋(output)을 내야 하는데, 부담감 크다”, “부모님 기대 때문에 중소기업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1년만 2년만 더 준비해서 좋은 데 가자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취준생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한다”,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경우는 나이 무시 못해서 불안감이 가중된다”.

기본소득 이외에 정부에 바라는 정책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와 바람이 교차했다. 정부 차원의 취업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 그렇지만 교육·직업훈련 관련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학교교육과 취업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인턴십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는 좋으나 착취적인 방식을 벗어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

했다. 너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으니 정책실행에 어려움은 알지만, 중소·중견기업 진흥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취직이든 뭐든 될 것이 아니냐는 심경을 밝혔다. 기본소득도 좋지만, 밥줄을 마련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와 증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기본소득 확대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청년기본소득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복지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맞는 실질적 복지 혜택이 있으면 찬성하겠지만, 그런 꿈같은 일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증세가 실질적 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가 청년들에게조차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기타 : 기본소득이란 [?] 이다.

-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청년기본소득은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테스트 단계이다.
- “국가가 주는 용돈”이다. 부모님이 아닌 국가가 주는 용돈이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권리.
- “계류”이다. 받아서 좋긴 한데, 굳이 청년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
- “과정, 결과는 모르겠고, 받아서 좋다”
- “도둑놈 심보”이다. 받아서 좋으나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 “효시”이다. 다른 복지 정책들과는 맥을 달리하는 국가 단위 복지정책의 첫 시작이다.

6. <집단 6> 공공부조 경험자

	성별	지역권역	거주지	현황
1	여	서해안권	부천	대졸
2	여	경부권	성남	대졸
3	여	경의권	고양	대졸
4	남	서해안권	광명	대재
5	남	동부권	하남	대재
6	남	경부권	성남	대재

1) 청년 기본소득 수급 경험

이 그룹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그룹이다. 청년기본소득 수급과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 우편 배달된 고지서, SNS, TV 뉴스 등이었으며, 친구에게 전해 들은 경우도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많았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기하다”, “받게 돼서 너무 좋다”,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여가와 여유가 늘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사용처는 다른 그룹과 대동소이했다. 식료품 구입, 쇼핑, 부모님 선물, 독서실, 식비, 시장, 학원, 미용실, 헬스장 등에서 사용했으며, 의료비로 썼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급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홍대 앞이 아니라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게 됐다”, “생활비 지출이 줄어 좋았다”, “공부 시간이 좀 더 생겼다”고 답했다.

불편 및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와 지역의 제한을 꼽았다. 가맹점 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 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동일했다. 그렇지만 상품권이 아니라 카드라서 편리했으며, 신청서류도 많지가 않아서 좋았다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사용하려는 곳(상점 등)에서 카드(지역화폐)가 안 된다고 할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답변도 나왔다.

청년기본소득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매우 긍정적이다. 너무 좋아서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답변에 동의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과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취업준비기라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끼어있는 세대라서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유효수요 창출효과를 위해서다”, “청년에 대한 투자니까 나중에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주는 거다”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식에 관해서는 “왜 공짜로 주느냐고 부모님이 싫어하셨다”, “내(부모님세대)가 낸 돈 너네가 받는 거다. 왜 세금을 퍼주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 반응과 더불어 “못 받아서 억울해 한다”,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부럽다는 반응이 훨씬 많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팽팽했다.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적어도 내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청년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잘 사는 친구, 어려운 친구 골고루 받아서 다른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소득분위 나누는 것 애매하고 제한 많아서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카드였으면 쓰기 꺼려했을 텐데 눈치를 안 보고 써서 좋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자체, 즉 전 연령으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우세했다. 즉, 현행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전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있으니 중복수급이 되므로 세금낭비인 것 같다”, “재정부담 크고 물가만 올릴 것이다”, “전체 지급은 어려울 것 같으니 세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희망 지급수준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월별로 지급할 경우는 매월 1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월별 지급과 일시금 지급이 50:50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급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소비충동의 역제가 가능하고 월 단위로 생활이 이어지므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목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었다.

3) 청년의 삶

이 그룹도 현재의 삶에서 최고의 불안요인으로 “취업”을 들었다. “취업 빙하기다”, “IMF 세대보다 불우한 세대다”, “윗세대의 똑똑한 분들이 정책을 세우시는데, 정책의 현실성이 우리 세대와 안 맞아서 박탈감을 느낀다”, “미취업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한 게 가장 힘들다”, “IMF때 태어난 세대라서 외롭고 힘든 세대다”, “우리 바로 앞 세대는 3포 세대(라 세 가지만 포기하면 됐)고, 우리 세대는 (무엇이든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다”, “85%가 대학 가서 학력에 비해 연봉이 낮은 세대다”와 같은, 자기 삶에 대한 자조적인 반응이 토론 분위기를 지배했다.

기본소득 이외에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악덕기업, 주택과 그로 인한 차별, 취업에서의 학력 차별, 최저시급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기됐다.

악덕기업과 관련해서는 “일 시키고 돈 잘 안 주는 블랙기업 없애 달라”, “열정페이 요구하는 회사 진짜 많으니 단속해 달라”, “(임금을 안 줘서) 노동부 신고했더니 한 달 전에 폐업했다더라”와 같은 반응이 나왔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보급 자체와 그로 인한 차별에 대한 울분, 혹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집 구하기 어려우니 대책 세워 달라”, “임대주택 확대 자체는 좋은 것 같으나, 거주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물리적 펜스와 더불어 아이들 사이에 심리적 펜스가 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문이과 취업 차별 없애는 방법 좀 모색해주세요”, “차라리 공무원 숫자 줄여주세요. 왜 서연고 나온 학생들이 공무원 하나”,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차별 없더니 최종 면접까지 가보니 아니더라”, “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니까 회사에서 나가라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나 공적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식이 없다”, “개인시간이 좀 많아지면, 사람 더 만날 수 있을 텐데”와 같은 이야기부터 “노동시간 줄이거나 자율근무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일본식 코어타임제도는 좋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와 증세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모두가 “내가 받았으니 당연히 낼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른들이(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세대갈등처럼 되는 것 싫다”, “다음 세대도 꾸준히 받을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 비해 떨어지지만, 최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대학무상교육을 하는 프랑스가 부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서 좋은 것으로는 건강보험제도를 꼽았다.

4) 기타 : 기본소득이란 [?] 이다.

- “선물”이다. 딱 필요할 때 받은 선물이다.
- “한 줄기 빛”이다. 2% 부족한 생활을 메꿔주는 한 줄기 빛이다.
- “청년에 대한 투자”다. 받아서 좋긴 한데, 굳이 청년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
- “윤희유”다. 생활이 윤택하게 굴러갈 수 있게 해준다.
- “나라가 주는 용돈”이다.

제3절 질적 조사 결과 종합

1.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1) 정보취득 경로

이 FGI 참가자들이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인터넷, G버스, TV 뉴스, 우편 고지서, 마을 플래카드, SNS, 공공기관(도서관, 주민센터) 게시판, 친구, 가족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를 볼 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느낌

참가자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집단별 특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좋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유는 다소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점, 정부가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정부(경기도)가 자신에게 뭔가 해주어서 감사하고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점 등이었다. 다만, 대학생 집단에서는 세금으로 자신들만 받아서 미수급자에게 미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3) 사용처

참가자들의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식음료, 도서, 미용실, 화장품, 여행,

학원·독서실, 애완견용품, 부모님 선물, 헬스장 등 소소한 일상적 소비영역에 다양하게 걸쳐 있는데, 집단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년배로서 소비 생활의 유사성에도 기인하겠지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지역(시·군)·가맹점 규모 제한으로 사용처가 한정되는 것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4) 수급 전후 삶의 변화

수급 전후 삶의 변화도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소비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일부 불필요한 과소비도 있었고, 문화생활이 늘어났으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서 주변 인간관계가 개선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줄여 공부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삶의 만족도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불편·개선 사항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의 사용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가맹점 찾기가 어렵다거나 제도 시행을 모르는 가맹점주가 거부한다는 등의 초기 혼란과 시·군별로 모바일 화폐의 사용 여부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사용처의 규모제한과 지역제한이 거론되었으며, 많지는 않았지만, 매 분기 신청의 번거로움도 거론되었다. 물론 이들 불편사항을 불가피하다고 이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사항은 제도의 기본원칙과 설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에 대한 홍보의 강화를 통해 수급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6) 전반적 평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느낌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전반적 평가 또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초대줄 이상 직장인 집단(집단 2)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는데, 반대의 요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더 좋다는 것과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부정적 평가자들은 선별적 복지의 단점들(복지합정, 낙인효과, 행정비용 등)과 비교한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관(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긍정적 평가자들도 기본소득의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기본소득 관념에 대한 사회적 확산의 필요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1)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과 근거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이 받았을 때의 느낌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찬성 의견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취업준비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관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관점은 고졸 이하 미취업자 집단 중의 한 명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는 초대졸 이상 직장인 집단(집단 2)과 고졸 이하 미취업자 집단(집단 3)에서, 특히 전자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는 모두(직장인)에게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기본소득을 위해 세금을 (더)내기 싫다는 것이었다.

2) 주변의 인식

주변의 인식도 찬반이 교차하였다. 주로 주변의 청년층이나 일부 부모님들은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데 반해, 일반인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3) 보편성과 무조건성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질의·응답은 많지는 않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교차하였다. 즉, 고졸 이하 직장인 집단(집단 1)과 공공부조 수혜자 집단(집단 6)은 대부분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였고, 초대졸 이상 직장인 집단(집단 2)과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 집단(집단 4)은 대부분 선별적 지급을 선호하였다. 대학생 집단(집단 5)은 집단 내에서 찬반이 교차하였다(고졸 이하 미취업자 집단(집단 3)에서는 이에 관한 응답이 없음).

대부분의 집단에서 무조건성에 대한 응답은 없었는데, 고졸 이하 미취업자 집단(집단 3)에서만 무조건적 지급이 좋다는 응답이 있었다.

4) 전연령 확대 여부

전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주된 이유는 예산 부족을 들고 있으며, 증세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부 등 일부 대상 확대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 지급방식과 희망 지급수준

지급방식과 희망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현행의 분기별 25만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월별 지급으로 변경한다면 월 10만 원이 좋겠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한 번에 100만 원을 희망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3.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1) 청년의 정체성

현재 청년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매우 힘든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부담이었으며,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태였다. 미래를 포기한 세대로서(n포세대) 현재의 생활만 즐기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2) 대정부 요구

정부에 대한 요구는 집단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직업훈련이나 인턴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창업지원, 중소기업 여

건 개선, 교통비지원, 주거지원 등이 거론되었다.

3) 공동체의식 및 공적지원

공동체의식에 관해서는 공공부조 경험자 집단(집단 6)에서만 우리 사회에 공동체의식이 없다는 간단한 응답이 있었다.

4) 기존의 복지 및 증세에 대한 견해

기존의 복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공부조 경험자 집단(집단 6)이 복지혜택 경험자인 만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일부 증세에 찬성하는 참가자들도 조세의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제4절 소결

이상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의 FGI 결과들을 볼 때,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있어 크게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경로로 정책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대상자들이 정보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 않고, 청년기본소득 수급에 대한 만족도(느낌)도 높으며, 수급 후 긍정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등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분기별 지급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서 변경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은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은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는데, 3분기 선정자 중에서 4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4분기에 별도 신

청이 필요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초 신청/선정 후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매 분기 신청하는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연령으로, 즉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수의 FGI 참가자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반대의견이 아니더라도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24세 한 연령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조차 전사회적으로 볼 때는 매우 실험적인 성격을 갖는 상황에서 전도민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고, 재원 마련 또한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축적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전도민 또는 전국민 확대는 장기과제로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복지 확대에 더욱 유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²³⁾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수급자인 청년들에게 보편복지의 의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장차 국가 전체의 복지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스웨덴의 코르피(Korpi)와 팔메(Palme)가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조사하여 발견한 현상이다. 저소득층에 복지를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복지확대가 지체되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일수록 복지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제 4 장

분석 종합 및 결론

- 제 1 절 분석 종합
- 제 2 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분석 종합 및 결론

제1절 분석 종합

1. 양적 조사 분석 종합

1) 개요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험집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전·후(1분기·3분기) 조사 모두에 응답한 32,687명이며, 비교집단은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 중 900명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각각에 대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표는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서 이미 활용된 항목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분석의 범주는 크게 다섯 가지, 즉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그리고 꿈-자본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의 주요 특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 i) 신체적 건강상태와 상대적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과 근심·걱정을 적게 하며,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를 추동한다.
 - ii) 청년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형편은 개선되었고, 청년들이 더 많은 과일을 먹는 등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 ②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i) 다양한 차원의 신뢰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 ii) ‘타인’과 ‘법·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승하였다.
 - iii) 경기도 청년들의 ‘자기결정권’과 ‘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소폭 향상시켜 실질적 자유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③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 i) 청년들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ii)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은 변화 수준은 제도 시행 후에 훨씬 높게 나타난다.
- ④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⑤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면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 ⑥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이다.
- i)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취업 청년의 주당 노동시간이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급받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⑦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i)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성공한 미래를 더 자주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잘 회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2. 질적 조사 분석 종합

1) 개요

이 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만족도, 입장,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FGI 방식을 취하는 소위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FGI는 총 6개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다. 5개 그룹은 직장 유무, 학력정도, 재학/졸업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여기에 공공부조 경험 그룹 1개를 추가하고 있다. 그룹당 4~7명, 총 33명을 토론에 참여시켰다.

설문은 i) 청년기본소득 수급 경험, ii)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iii)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 iv) 기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2) 분석결과의 주요 특징

- ① 대표적인 특징으로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크게 개선할 점은 많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반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다양한 경로로 정책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대상자들이 정보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 않다.
 - ii) 청년기본소득 수급에 대한 만족도(느낌)도 높다.
 - iii) 수급 후 긍정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났다.
 - iv) 분기별 지급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서 변경이 필요 없다.
- ② 불편사항으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③ 특히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다. 3분기 선정자 중에서 4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4분기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 ④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

조로 보고 있다.

- 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 분석 종합 및 평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수급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입각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악화되거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비록 사전(1분기)과 사후(3분기)를 비교하는 선에서 실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정책효과 분석이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개선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인 만큼 크게 문제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2절 요약 및 결론

경기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8년 11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5967호)」 제10조(평가)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여 사용한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약 17만 5천 명이다. 이 중 실제 1분기 신청자는 124,335명(약 71%)이었다.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표적 집단은 바로 이들 신청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효과 분석은 비교집단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집단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모두 취하였다.

양적 조사의 경우, 경기도 청년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외 지역의 비교집단에게도 위와 동일하게 양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양적 조사의 경우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은 총 63,300명이었다. 이들은 1분기 신청자 57,540명과 1분기 때 신청하지 않고 2분기 때에 1분기 지급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5,76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전조사 응답자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총 32,6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32,687명의 청년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는 1,300명의 표본을 구할 수 있었고, 이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900명이었다. 따라서 비교집단은 900명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게 되었다.

질적 조사는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직 경기도 청년에 대해서만 하였다.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비교집단)을 상대로 질적 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는 총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5명 내외의 인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FGI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었으나, 진행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반(半)구조화 방식’을 택하였다.

FGI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선발은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몇 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뽑은 후 참여를 승낙하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 직장 유무, 학력정도, 재학/졸업 여부, 그리고 공공부조 경험을 삼았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5개 권역, 즉 정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 별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였다.

질적 조사의 경우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6개의 FGI 그룹은 ① 고졸 이하 직장인(4명), ② 초대졸 이상 직장인(7명), ③ 고졸 이하 미취업자(5명), ④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6명), ⑤ 대학생(휴학포함)(6명), ⑥ 공공부조 경험자(6명)로 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조사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는 대체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악화되거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결과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기도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 ② 경기도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 ④ 청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⑤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 ⑥ 청년기본소득의 노동동기와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이다.

⑦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질적 조사의 경우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크게 개선할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② 불편사항으로 지역제한과 가맹점 규모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③ 특히 매분기 신청의 번거로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4분기 신청 시부터 개선되었다.
- ④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 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년 수급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개선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책 자체에 결함이 될 만한 것은 아닌 만큼, 이는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2019a).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 (2019b). “노동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노동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58, 1-27.
- 김교성(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 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 김정훈·심나리·김항기(2019). 『386 세대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를 묻다』, 웅진 지식하우스
- 김혜연(2014). “기본소득 제안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1(1), 33-63.
-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홍중(2018). “꿈의 사회학 서설”. 박명규 외. 『꿈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백승호(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 백승호·이승윤(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37~71.
- 변진경(2018). 『청년 흡입 보고서』. 들녘.
- 서정희(2019).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심포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제63호, 101~146.

- 서정희(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7, 7~45.
- 서정희(2018),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45(4), 171~206.
- 서정희·조미정·박경하·김병조·서두산(2019).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 심광현(2014). “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 강남훈 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 출판사.
- 야마다 마사히로(2010). 『희망 격차사회: 패자그룹의 절망감이 사회를 분열시킨다』, 최기성 역(2010). 아침.
- 오재호, 이상훈, 천영석, 박누리, 김강호, 이하은(2019). 『경기도 청년 비전형(非典型)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경기도의회.
- 윤윤규·김유빈·오선정·강동우·김세움(2017).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호, 487~521.
- 조남경(2017),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253~269.
- 조성호(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7), 14~23.
- 조성호(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 최유진 외(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 한승헌·임다혜·강민아(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홍석한(2017).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8(3), 173-198.

Akee, R., Simeonova, E., Costello, E. J. and Copeland, W.(2015). *How does household income affect child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 NBER Working Paper 21562.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kee, Randall, William E. Copeland, Gordan Keeler, Adrian Angold, and E. Jane Costello(2010). "Parents' Incomes and Children's Outcomes: A Quasi Experiment Using Transfer Payments from Casino Profit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1), 86-115.

Alvaredo, F., Chancel, L., Piketty, T., Saez, E., and Zucman, G.(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Rapport sur les inégalités mondiales)』, 장경덕 역, 글항아리.

BIG Coalition(2008). *Towards a basic income grant for all!*: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September.

BIG Coalition(2009).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in Otjivero-Omitara.

Bowman, D., Mallett, S. and Cooney-O'Donoghue, D.(2017). *Basic Income: Trade-offs and Bottom Lines*, Brotherhood of St Laurence, Fitzroy, Vic.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정선욱·김진숙 공역, 학지사.

Davala, S., Renana J., Soumya M., and Standing, G.(2015).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London and New Delhi*: Bloomsbury Academic.

Eggleton, S. A., Corak, M., Forget, E., Lewchuk, W. and Raphael, D.(2018). *The Poverty, Inequality, and Job Challenge: The case for Basic Income in Canada*, Fireside Publishing House.

Evans, D. K. and Popova, A.(2014). *Cash Transfers and Temptation Goods: A Review of the Global Evid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 Paper WPS6886. Washington, DC: World Bank.
- Forget, E.(2011).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Canadian Public Policy*, 37(3), 283-305.
- Forget, E., Marando, D., Surman, T., and Urban, M. C.(2016). Pilot Lessons: How to Design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Mowat Centre: Ontario's Voice on Public Policy in University of Toronto.
- Haarmann, C., Haarmann, D., Jauch, H., Shindondola-Mote, H., Nattrass, N., Samson, M., and Standing, G.(2008). Towards a Basic Income Grant for All,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NANGOF (Namibia NGO Forum).
- Handler, J. F. and Babcock, A. S.(2006). "The Failure of Workfare: Another Reason for a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Studies*, 1(1), Article 3, 1~22.
- Häni, D. and Kovce, P.(2016).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Was Fehlt, Wenn Alles Da Ist?)*, 원성철 역, 오롯.
- Helliwell, J. F., Huang, H., and Wang, S.(2017). "The Social Foundations of World Happiness", In Helliwell, J. F., Layard, R., and Sachs J.(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7*, the United Nations.
- Helliwell, J. F., Layard, R., and Sachs J.(2017). "Overview", In Helliwell, J. F., Layard, R., and Sachs J.(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7*, the United Nations.
- Hines, N.(2016). "Robots could make universal basic income a necessity", *Inverse*, 11 August.
- Holt-Lunstad, J., Smith, T. B. and Layton, J.B.(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mortality risk: a meta-analytic review", *PLoS Medicine*, 7(7): e1000316.
- Kangas, O., Honkanen, P., Härmäläinen, K., Kanerva, M., Kanninen, O., Laamanen, J., Pulkka, V., Räsänen, T., Simanainen, M., Tuovinen, A. and

- Verho, J.(2016). *From idea to experiment: Report on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Kela Working papers 106/2016.
-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and Minna Ylikännö(eds.), (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9.02.08.
- Kela(2019). Preliminary resul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self-perceived wellbeing improved, during the first year no effects on employment, 2019.02.08, at
https://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IN08GY2nIrZo/content/preliminary-results-of-the-basic-income-experiment-self-perceived-wellbeing-improved-during-the-first-year-no-effects-on-employment
- Kennedy, S.(2016). *Are basic income proposals craz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8 September.
<http://inequality.org/basic-income-proposals-crazy/>.
- Lewis, M., Pressman, S. and Widerquist, K.(2005). “The basic income guarantee and social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63(4), 587-593.
- McFarland, K.(2017). “*Overview of Current Basic Income Related Experiments (October 2017)*”, Basic Income News. (19 October)
- Miguel, Edward, Paul Niehaus and Michael Walker(2014).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ash Transfers in Kenya*”, AEA RCT Registry. November 03.
- Mullainathan, S, and Shafir, E.(2014). 『결핍의 경제학: 왜 부족할수록 마음은 더 끌리는가(Scarcity: Why Having Too Little Means So Much)』, 이경식 역, 알에이치코리아.
- Nikiforos, M., Steinbaum, M. and Zezza, G.(2017). *Modeling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Roosevelt Institute.
-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ffe, C.(1997). “*Toward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OECD(ed), *The Globalising Economy*, OECD Publishers.
- Offe, C.(2008).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3(1), Article 4, 1~30.
- Powdthavee, N.(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o-Economics*, 37(4), 1459–80.
- Productivity Commission(2016). *Digital disruption: what do governments need to do*, Productivity Commission, Canberra.
- Raphael, D.(2018).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Eggleton, S. A., Corak, M., Forget, E., Lewchuk, W. and Raphael, D.. *The Poverty, Inequality, and Job Challenge: The Case for Basic Income in Canada*. Fireside Publishing House.
- Segal, H. D.(2016). *Finding a Better Wa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accessible at <https://www.ontario.ca/page/finding-better-way-basic-income-pilot-project-ontario> (최종접속일: 2017.03.25.)
- Standing, G.(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New York.
- Standing, G.(2013). “*Why a basic income is necessary for a right to work*”, *Basic Income Studies*, 7(2), 19–40.
- Standing, G.(2018).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Basic Income: A Guide for the Open-minded*), 안효상 역, 창비.
- Stern, A. and Kravitz, L.(2019).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Raising the Floor: How a Universal Basic Income Can Renew Our Economy and Rebuild the American Dream*), 박영준 역, 갈마바람.

- Tcherneva, P. R.(2013). “*The job guarantee: delivering the benefits that basic income only promises – a response to Guy Standing*”, Basic Income Studies, 7(2), 66–87.
- Van Parijs, P. and Vanderborght, Y.(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21st Century*”, In Ackerman, B., Alstott, A., van Parijs, P, 2010, 『분배의 재구성(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너른복지연구회 역, 나눔의 집.
- Van Parijs, P.(2013). “The universal basic income: why utopian thinking matters, and how sociologists can contribute to it”, *Politics & Society*, 41(2), 171–182.
- Van Parijs, P.(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조현진 역, 후마니타스.
- Vanderborght, Y.(2006). “*Why Trade Unions Oppose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1(1), 1~20.
- Widerquist, K.(2013). *Independence, Propertylessness, and Basic Income: A Theory of Freedom as the Power to Say No*, Palgrave Macmillan.
- Wilkinson, R. and Pickett, K.(2019). 『불평등 트라우마: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심리적 영향력과 그 이유(The Inner Level: How More Equal Societies Reduce Stress, Restore Sanity and Improve Everyone's Well-Being)』, 이은경 옮김, 생각의음.
- Wiseman, J.(1990). *A Guaranteed Adequate Income Scheme for Australia in the 1990s: Proposals and issue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Sydney.
- Wright, E. O.(2005).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US-BIG Congress, March 4–6, 2005.

- Wright, E. O.(2006).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In Ackerman, B., Alstott, A., van Parijs, P, 2010, 『분배의 재구성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너른복지연구회 역, 나눔의
집.
- Y Combinator(2017). *Basic Income Project Proposal: Overview for Comments
and Feedback*, Y Combinator Research.



Abstract

Analysis on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implemented the youth basic income project on April 1, 2019.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refers to the project of paying 250,000 won per quarter and up to 1 million won per year in local currency to individuals aged 24 who have continued to live with resident registration for more than three years or have lived in total for more than 10 years in Gyeonggi Province.

About 175,000 people are eligible to pay basic income for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Among them, 124,335 people applied for the first quarter. The groups to which this study is to be investigated are these applicants. The analysis of policy effects on young people receiving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needs to be compared through the comparison group. Therefore, the group targeted young people aged 24 in Gyeonggi Province and 24 across the country excluding Gyeonggi Province.

The survey methods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or the quantitative survey, the method was to distribute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o the survey participants. The questionnaire was asked to ensure that pre- and post-survey were the same, except

for the adjustment parts according to the time difference, so that the panel data could be established. Moreover, comparative groups (24 years old) outside Gyeonggi-do were designed to be conducted in the same quantity as above. A total of 63,300 young people, aged 24, responded to the preliminary survey after applying for payment of basic income for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an experimental group. Of these pre-survey respondents, 32,687 responded to the post-survey. Thus, the panel data, consisting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2,687 young respondents, could be built. For a comparison group, the pre-survey was available for 1,300 samples, 900 of whom responded to the post-survey. Thus, the comparison group deployed 900 panel data.

The qualitative survey did not deal with the comparison group, but only for Gyeonggi Province youths (aged 24). This is because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need to conduct qualitative surveys on objects (the comparative group) that had not been experienced in practice. A total of six groups were divided into qualitative surveys and five or so persons per group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These were investigated in a Focus Group discussion (FGD). The format of the questions was defined, but the 'semi-structuralization' method was chosen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the moderator.

The selection of young people subject to the FGD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company, and only if the selec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be applied and randomly selected and accepted.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they used a job status,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whether they attended or graduated from school, and experience in public assistance. In view of regional survey, the system was also required to be evenly deployed in five areas of Gyeonggi-do, namely, Gyeongwon District, Gyeongui District, Dongbu District, and Seohae

Coastal District.

The six FGI groups, which were formed to conduct a qualitative survey on young people aged 24 in Gyeonggi Province, were composed of four high school graduates, seven high school graduates or more, five high school graduates or less, six unemployed workers or more, six college students or six public aid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quantitative research, five categories of analysis were used: happiness, health and diet, recognition and attitude, economic activity, and dream-capital, and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nd comparison groups of individual variables in that category were analyzed using response sample t-test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effect of the basic income of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is generally positive in a variety of ways. Here are some of the typical ones.

1. It greatly improves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life of young people in Gyeonggi-do, value awareness of what they are doing, and happiness level.
2.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are also having a positive effect.
3. It shows positive effects on overall welfare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basic income receiving targets.
4. Young people'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basic income are also changing positively.
5. As for the nationwide expansion of basic income, it is positive, but rather reserved about the need to expand basic income to the people.
6. The effect of youth basic income related to labor motivation is positive.

7. The dream-capital level of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is showing high overall.

Second, in the case of qualitative survey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conducting FGDs on the experiences of basic ifor young people, thinking about basic income, understanding of young people's lives and four other parts.

1. Youth basic income recipients do not see much improvement in the current youth basic income policy in Gyeonggi Province.
2. There were regional and merchant size restrictions due to inconvenience. However, this is derived from the original policy goal.
3. In particular, the hassle of applying for each quarter has been raised, which has improved since the fourth quarter.
4. It is still premature to expand the basic income to the entire provincial population, even within Gyeonggi Province.
5.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are either unfamiliar with the meaning of basic income or prefer selective welfare that is still prevalent in our society. As suc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y promotion on basic incom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youth basic income of Gyeonggi Province has a positive effect on young recipients. Young recipients are also showing a fairly positive response to local currency. Although in some areas, the post-survey may be worse than ante or have no positive effect on comparative groups, they have generally been les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in a small proportion.

Keyword

Basic Youth Income, Policy Evaluation,

부록



부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인 만 24세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주 관 :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조 사 시 행 :  **EMBRAIN**
a Macromill Group company



문의전화: 마크로밀엠브레인 강지환 차장 Tel. 02-3429-1758
마크로밀엠브레인 김소희 연구원 Tel. 02-3406-3841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이름, 성별, 연락처, 학력수준, 출생년월, 소득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1)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정책선호도 및 정책별 우선순위 요인들을 파악하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평가
- (2) 조사 완료 후 검증 및 사후조사를 위한 응답자 정보 DB 구축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설문종료)

일반사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요.

				년			월			일
--	--	--	--	---	--	--	---	--	--	---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시·군·구
--	---	-------

먼저, 귀하의 ‘행복’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의 의견에 대해 ‘0점에서 10점’ 사이에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최근,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완전히 만족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Q2] 최근,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 전혀 가치가 없다					완전히 가치가 있다 →					
0	1	2	3	4	5	6	7	8	9	10

[Q3] 어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다?

← 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행복했다 →					
0	1	2	3	4	5	6	7	8	9	10	

[Q4] 어제 얼마나 우울했습니다?

← 한 순간도 우울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우울했다 →					
0	1	2	3	4	5	6	7	8	9	10	

[Q5] 어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 한 순간도 근심 걱정이 없었다						하루종일 근심 걱정을 했다 →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귀하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①	②	③	④	⑤

[Q7] 귀하는 같은 또래와 비교하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①	②	③	④	⑤

[Q8]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있었다	거의 언제나 있었다	종종 여러번 있었다	간혹 있었다	전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Q9]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있었다	거의 언제나 있었다	종종 여러번 있었다	간혹 있었다	전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Q10] 귀하는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6번	매일
①	②	③	④	⑤

※ 수영, 달리기, 등산, 줄넘기, 배드민턴, 탁구 등의 체육활동이 해당합니다.

[Q11] 최근 1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는 못했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
①	②	③	④

※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제외합니다.

[Q12] 귀하는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노력하는 편이다	매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건강에 좋은 식생활이란 곡류, 육류, 어패류,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말합니다.

[Q13] 귀하는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2주일에 1번 이하	일주일에 1~3번	일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이상
①	②	③	④	⑤

※ 한 번에 해당하는 양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사과 1/2개, 귤(중) 1개, 참외 1/2개, 포도 1/3송이, 수박 1조각(10cm 길이 부채꼴 모양, 생과일주스 1/2컵)

[Q14] 귀하는 장애 혹은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장애	①	②
만성질환	①	②

다음은 귀하의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Q15]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타인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정치인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언론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Q16]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7] 귀하는 자기문제에 대해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중간 정도	약간 있음	충분히 있음
①	②	③	④	⑤

[Q18] 귀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중간 정도	약간 있음	충분히 있음
①	②	③	④	⑤

[Q19]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복지는 쏘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0] 귀하는 기본소득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	--	--	--

년도

[Q21]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Q22] 아래의 제도를 실시한다면 적절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기본소득	월		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월		만원
------------	---	---	----	-------------	---	---	----

[Q23]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다소 진보	중도	다소 보수	보수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평소 ‘시간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Q24] 귀하의 하루 생활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일평균 시간
수면		시간 분
유급노동	소득을 위한 활동(출퇴근 시간 포함), 구직활동	시간 분
가사	가정관리(빨래, 청소, 음식준비, 세탁, 장보기 등)	시간 분
가족 및 가구원 돌봄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을 돌보는 활동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돌보는 활동	시간 분
자기계발/학습	개인학습 및 자기계발, 학교 내/외 학습 자격증/취업 관련 활동(학습 관련 통 학시간 포함)	시간 분
운동(건강)	스포츠 및 레포츠 개인건강관리(의료서비스, 자기치료 등)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문화/여행/의례 활동	시간 분
	미디어(TV, 게임, SNS)를 통한 여가	시간 분
	휴식	시간 분
사회적 활동 및 봉사	시민사회활동, 정치참여, 자원봉사, 타인 돌봄	시간 분

[Q25] 귀하는 아래의 시간사용 영역에서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 함께한 시간이 없으시다면, 0분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운동(건강)	스포츠 및 레포츠, 개인건강관리	시간 분
가족 및 가구원 돌봄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혹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돌보는 활동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미디어를 통한 여가, 종교/문화/여행/의례/휴식 등	시간 분
사회적 활동 및 봉사	시민사회활동, 정치참여, 자원봉사, 타인 돌봄	시간 분

※ ‘함께한 시간’은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때, ‘가족’ 및 ‘타인’이란 돌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며 물리적으로 공간을 함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친구와 전화통화를 60분 한 경우, 전화통화는 물리적 공간을 함께한 것이 아니므로 함께한 시간에서 제외
 - 교제 및 여가활동 :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0분)

[Q26] 귀하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여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구분	항상 부족	가끔 부족	약간 여유	항상 여유
수면시간	①	②	③	④
식사시간	①	②	③	④
가사활동시간(빨래, 청소 등)	①	②	③	④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①	②	③	④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①	②	③	④
교제 및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사회적 활동 및 봉사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Q27]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Q28]로 이동 → [Q29, Q30]로 이동

※ 다음의 경우에는 ‘① 예’에 응답해 주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음
-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음 (무급가족 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연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시휴직한 자

[Q28]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다음 각 영역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종사상 지위	① 임금노동자	② 비임금노동자
고용형태	① 정규직 (상용노동자) ②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등)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⑥ 기타 (특수고용: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주당 노동시간	주 시간	

→ [Q31]로 이동

[Q29](현재 미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귀하의 현재 구직활동시간 및 직업훈련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구분	내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실업 ② 비경제활동상태 (학생, 주부 등)
주당 구직활동시간	주 시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적어주세요.)
주당 직업훈련시간	주 시간 (직업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적어주세요.)

※ '실업자'란 지난 한 주 동안 수입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Q30] 귀하는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구분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① 그런 기간이 없었다 (0일)	
② 1개월 미만	일 동안 지속되었다 (예: 15일)
③ 1개월 이상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예: 3개월)
④ 1년 이상	년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Q31] 귀하는 아래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내용	이용경험	
		있음	없음
사회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산재보험(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①	②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①	②
사회서비스 (중앙정부)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교육훈련지원, 체험 및 인턴지원, 공공일자리, 창업 등	①	②
사회서비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기일자리카페 지원사업,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등	①	②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①	②

[Q32] 귀하의 월평균 노동소득(알바 포함)과 용돈은 각각 얼마입니까?
없으면 0원으로 써 주십시오.

노동소득	월		만원	용돈	월		만원
------	---	---	----	----	---	---	----

[Q33] 귀하의 월평균 지출액은 각 항목별로 얼마입니까?
없으면 0원으로 써 주십시오.

식료품비	월		만원	주거비	월		만원
자기계발/ 교육비	월		만원	여가활동비	월		만원

[Q34] 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어떤 항목에 소비하였습니까?

- 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자기계발/교육비 ④ 여행비
 ⑤ 교제 및 여가활동비 ⑥ 가족 용돈·선물
 ⑦ 기타 (_____)

[Q35] 귀하의 본인 명의 저축액과 부채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없으면 0원으로 써 주십시오.

저축		만원	부채		만원
----	--	----	----	--	----

[Q36] 귀하는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정적	안정적	보통	불안정적	매우 불안정적
①	②	③	④	⑤

[Q37]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상	중	하
①	②	③

다음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상기준(만 2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적절하다
- ⑤ 매우 부적절하다

[Q2] 귀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준(분기당 2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적절하다
- ⑤ 매우 부적절하다

[Q3] 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적절하다
- ⑤ 매우 부적절하다

[Q4] 귀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하다 ③ 보통이다 ④ 편리하다
- ⑤ 매우 편리하다

[Q5] 다음 중 귀하가 선호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주기는 무엇입니까?

- ① 매월 지급 ② 격월(2개월 마다) 지급
- ③ 분기별(3개월 마다) 지급 ④ 반기별(6개월 마다) 지급

[Q6] 귀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Q7] 귀하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다음은 평소 ‘꿈-자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Q38]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떠합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휴학 포함) ④ 대졸이상

[DQ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DQ3]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1인 단독가구 ② 부부가구(아이 없음) ③ 자녀와 동거
④ 부모와 동거 ⑤ 기타()

[DQ4] 귀하(귀댁)의 주거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기타()

[DQ5] (4월 20일부터 문항이 보여지도록 프로그래밍 : 테스트 버전에서는 보임)

귀하는 현재(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지금) 지역화폐를 받으셨습니까?

- ① 신청 중이다(지역화폐를 받지 않았다)
② 지역화폐를 받았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③ 지역화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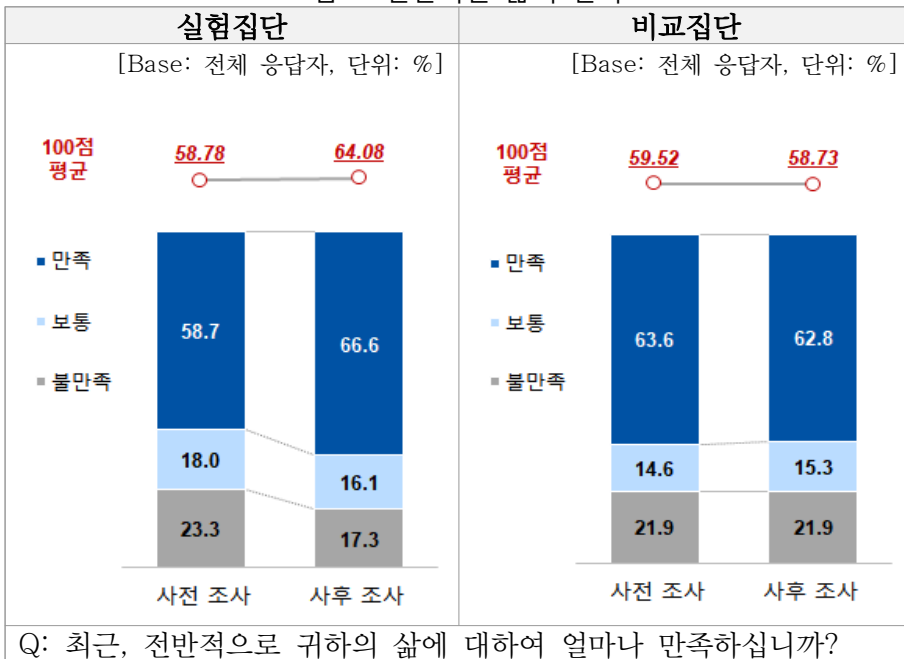
<부록 II> 분석결과(기술통계 중심)

I. 행복 수준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4.08점으로 ‘비교집단’(58.73점) 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8.78점 → 64.08점(+5.30점)
 - 비교집단 : 59.52점 → 58.73점(-1.0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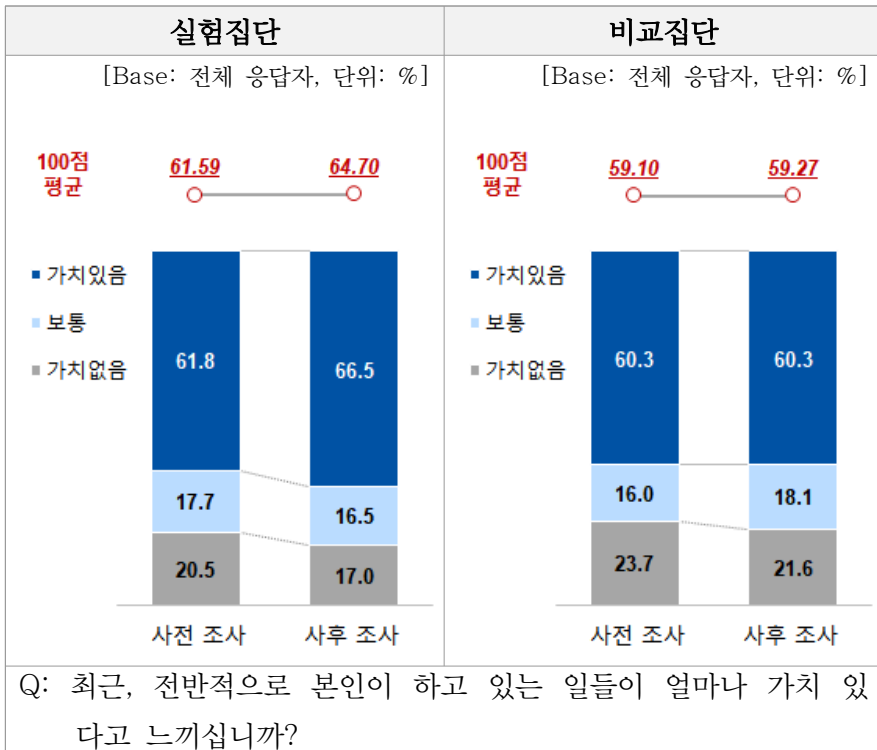
<그림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2.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4.70점으로 ‘비교집단’(59.27점) 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4.70점 → 61.59점(+3.11점)
 - 비교집단 : 59.27점 → 59.10점(+0.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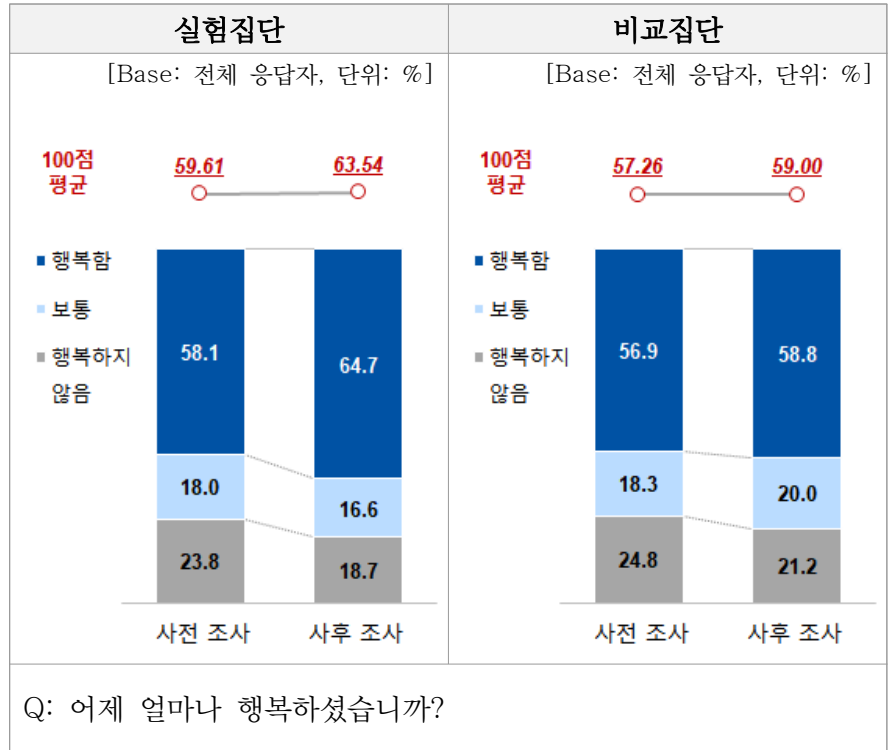
<그림2>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3. 행복함 정도

- 행복함 정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3.54점으로 ‘비교집단’(59.00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9.61점 → 63.54점(+3.93점)
 - 비교집단 : 57.26점 → 59.00점(+1.7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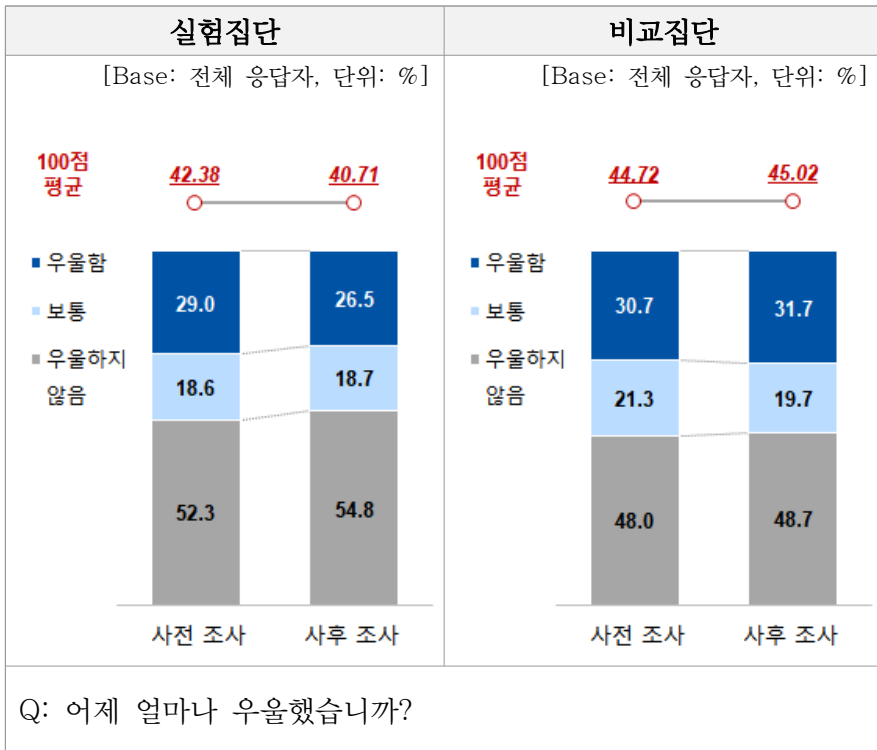
<그림3> 행복함 정도



4. 우울함 정도

- 우울함 정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40.71점으로 ‘비교집단’(45.02점)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우울함 정도는 하락한 반면, ‘비교집단’의 우울함 정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42.38점 → 40.71점(-1.67점)
 - 비교집단 : 44.72점 → 45.02점(+0.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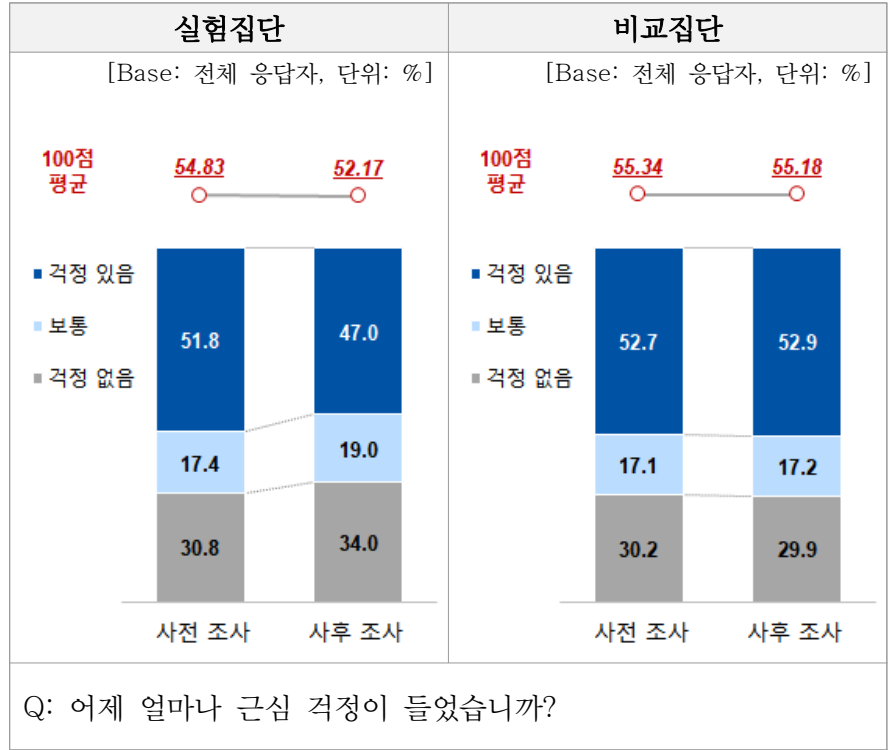
<그림4> 우울함 정도



5. 근심걱정 정도

- 근심걱정 정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2.17점으로 ‘비교집단’(55.18점)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4.83점 → 52.17점(-2.66점)
 - 비교집단 : 55.34점 → 55.18점(-0.16점)

<그림5> 근심걱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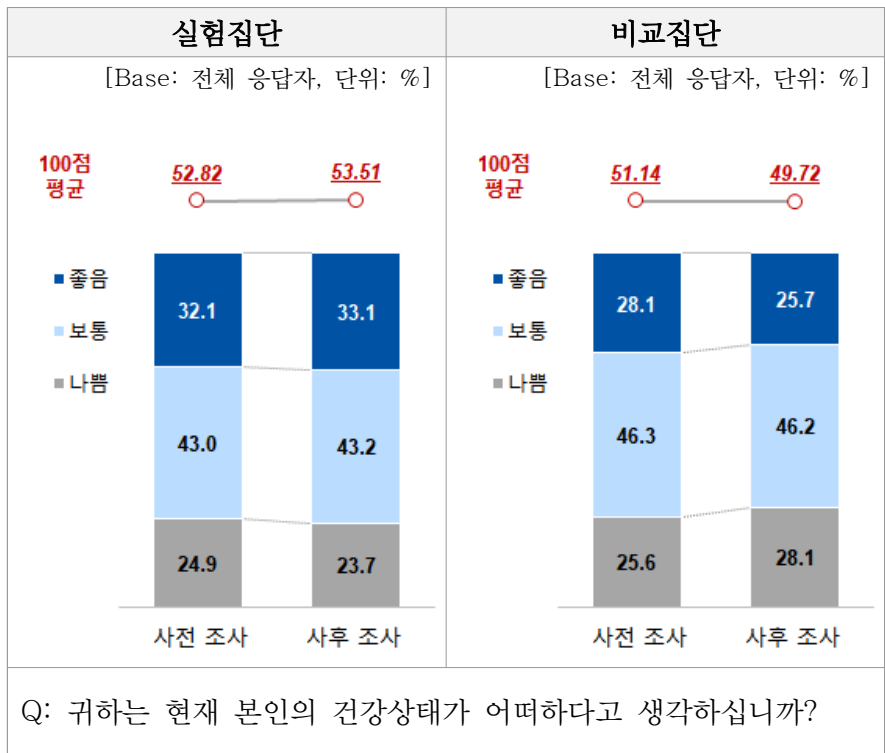


II. 건강과 식생활

1.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3.51점으로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건강상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2.82점 → 53.51점(+0.69점)
 - 비교집단 : 51.14점 → 49.72점(-1.4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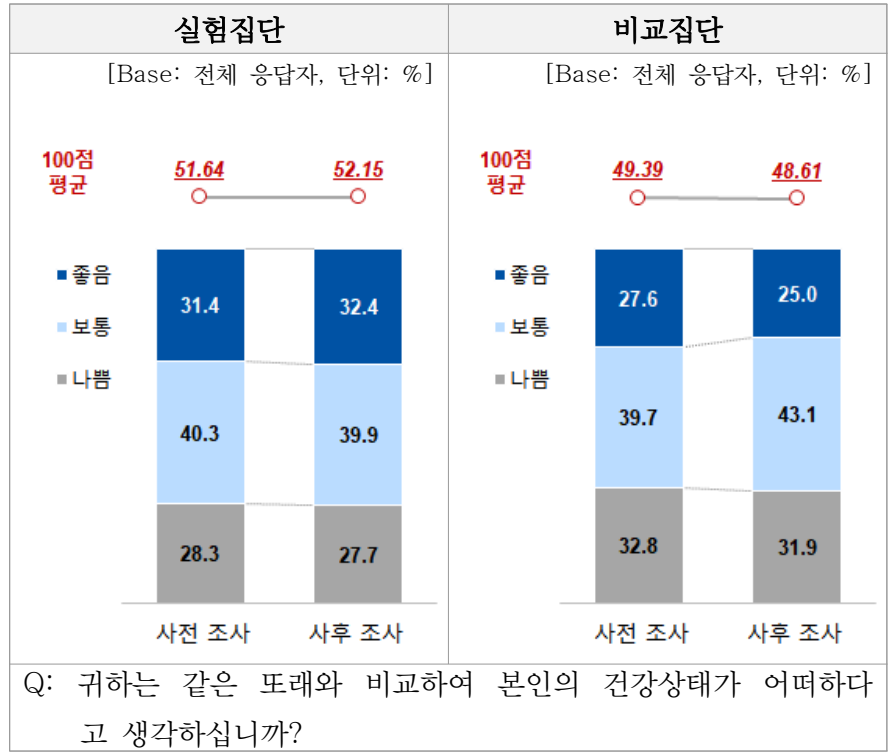
<그림6>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2. 또래와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

- 또래와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2.15점으로 ‘비교집단’(48.6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건강상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1.64점 → 52.15점(+0.51점)
 - 비교집단 : 49.39점 → 48.61점(-0.7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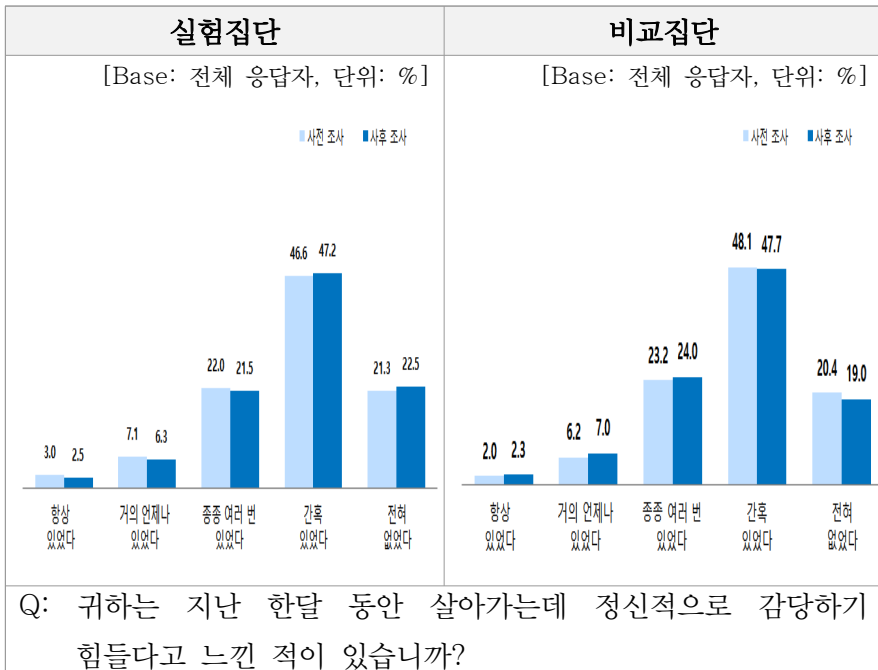
<그림7> 또래와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



3.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

-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간혹 있었다’(각각 47.2%, 47.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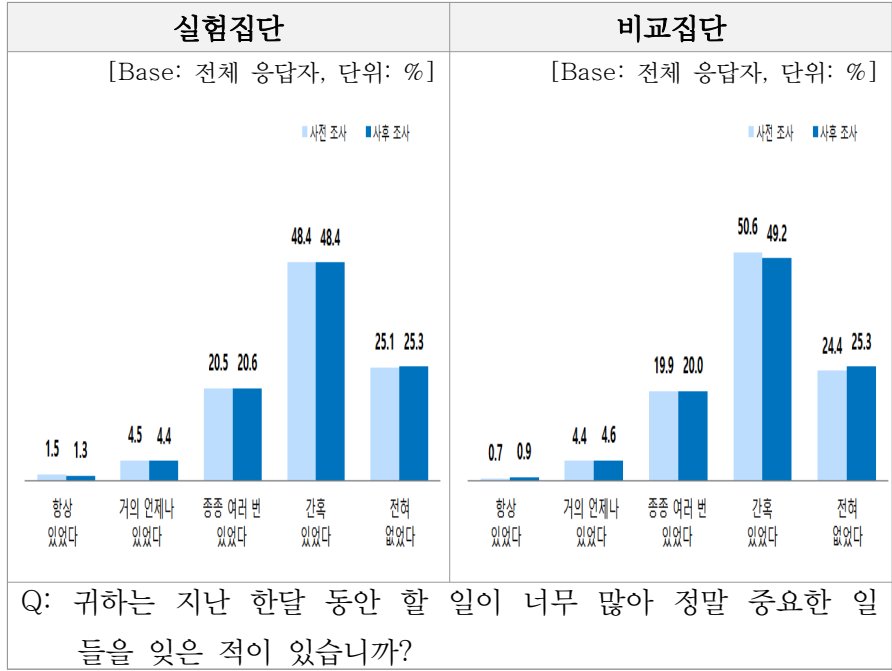
<그림8>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



4.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간혹 있었다’(각각 48.4%, 49.2%)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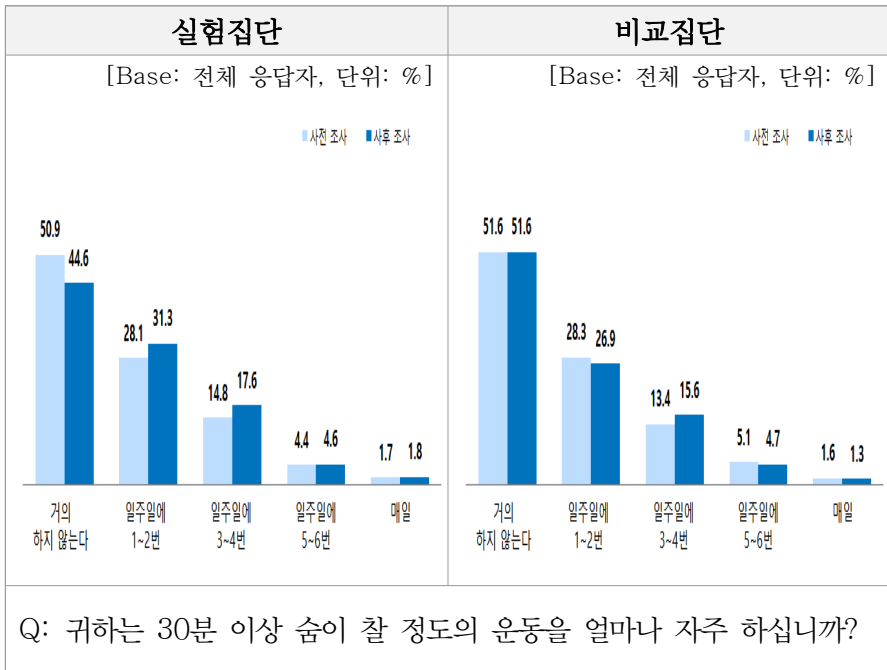
<그림9>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5.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여부

-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여부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거의 하지 않는다’(각각 44.6%, 51.6%)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거의 하지 않는다’(50.9% → 44.6%) 하락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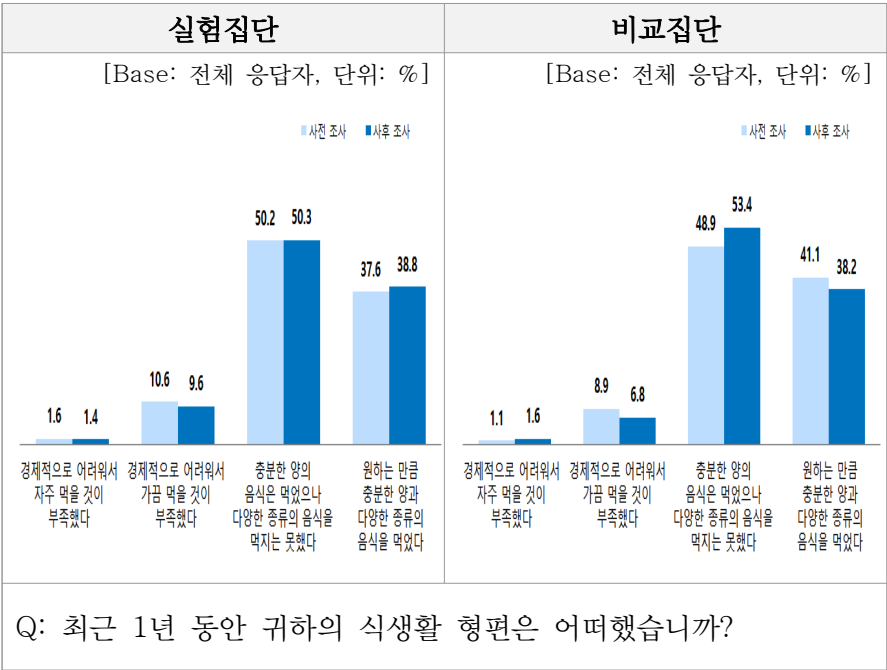
<그림10>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여부



6.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각각 50.3%, 53.4%)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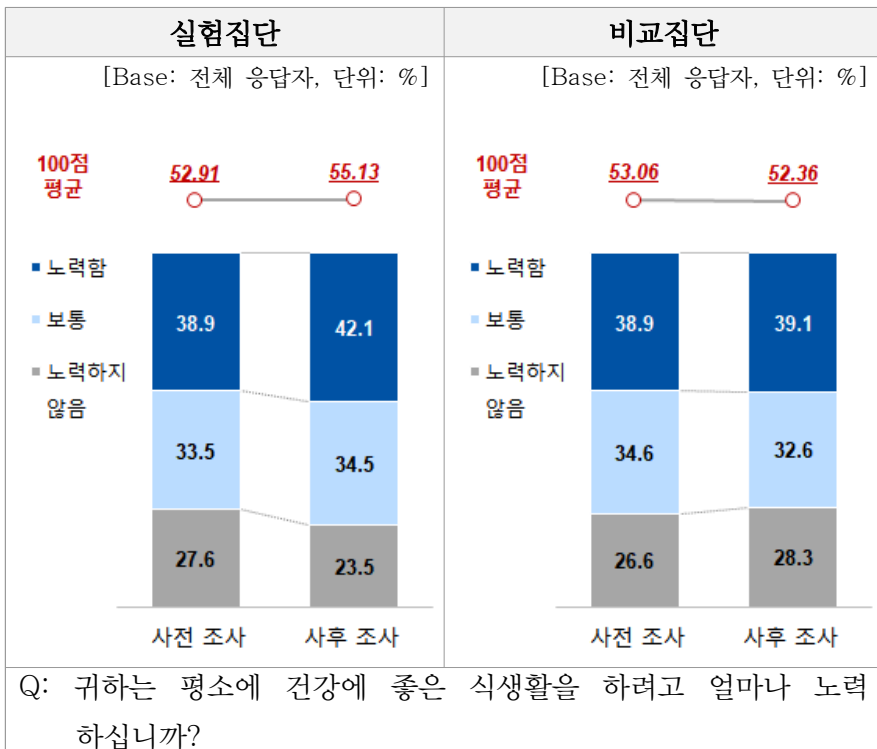
<그림11> 최근 1년 동안 식생활 형편



7. 평소 건강한 식생활 노력 여부

- 평소 건강한 식생활 노력 여부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5.13점으로 ‘비교집단’(52.36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평소 건강한 식생활 노력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건강한 식생활 노력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2.91점 → 55.13점(+2.22점)
 - 비교집단 : 53.06점 → 52.36점(-0.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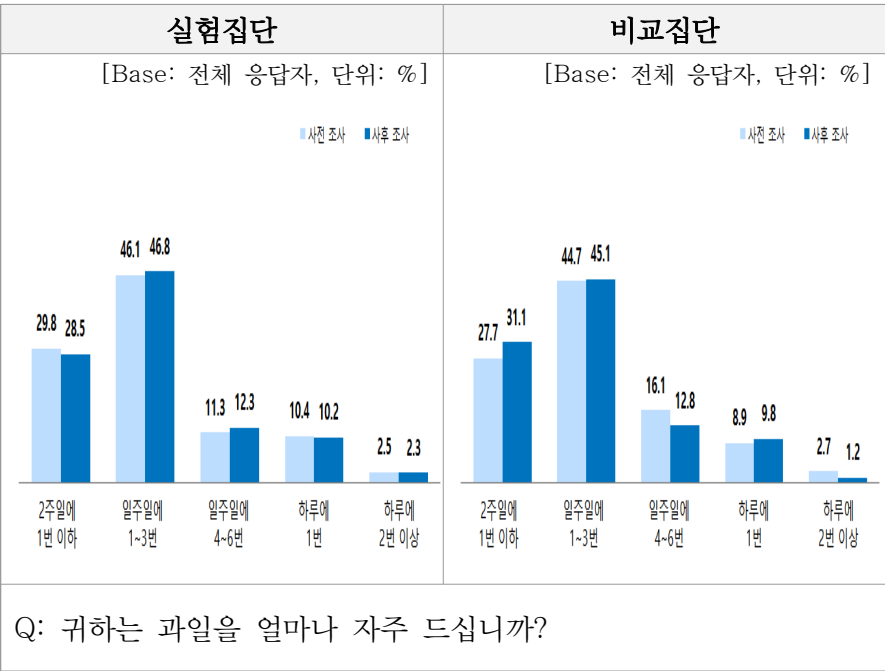
<그림12> 평소 건강한 식생활 노력 여부



8. 평소 과일 섭취 정도

- 평소 과일 섭취 정도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일주일에 1~3번’(각각 46.8%, 45.1%)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13> 평소 과일 섭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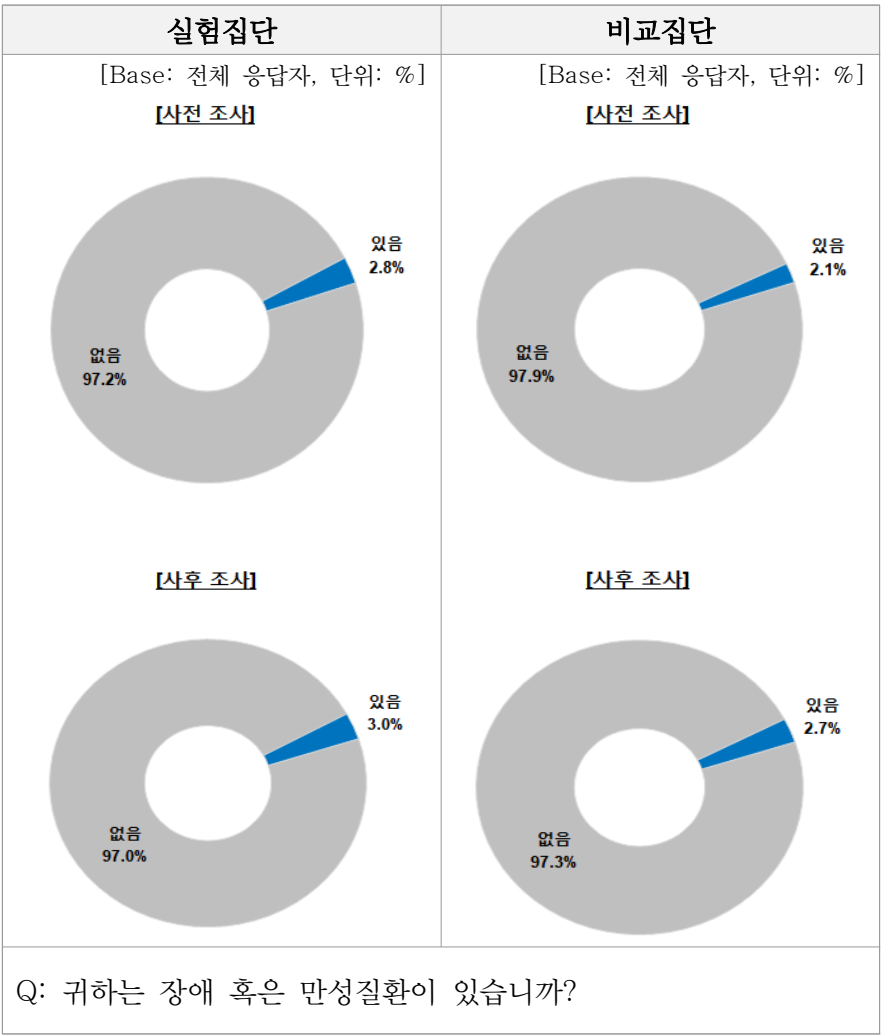


9. 장애 혹은 만성질환 여부

1) 장애 여부

○ 장애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 ‘있음’(3.0%), 비교집단 ‘있음’(2.7%)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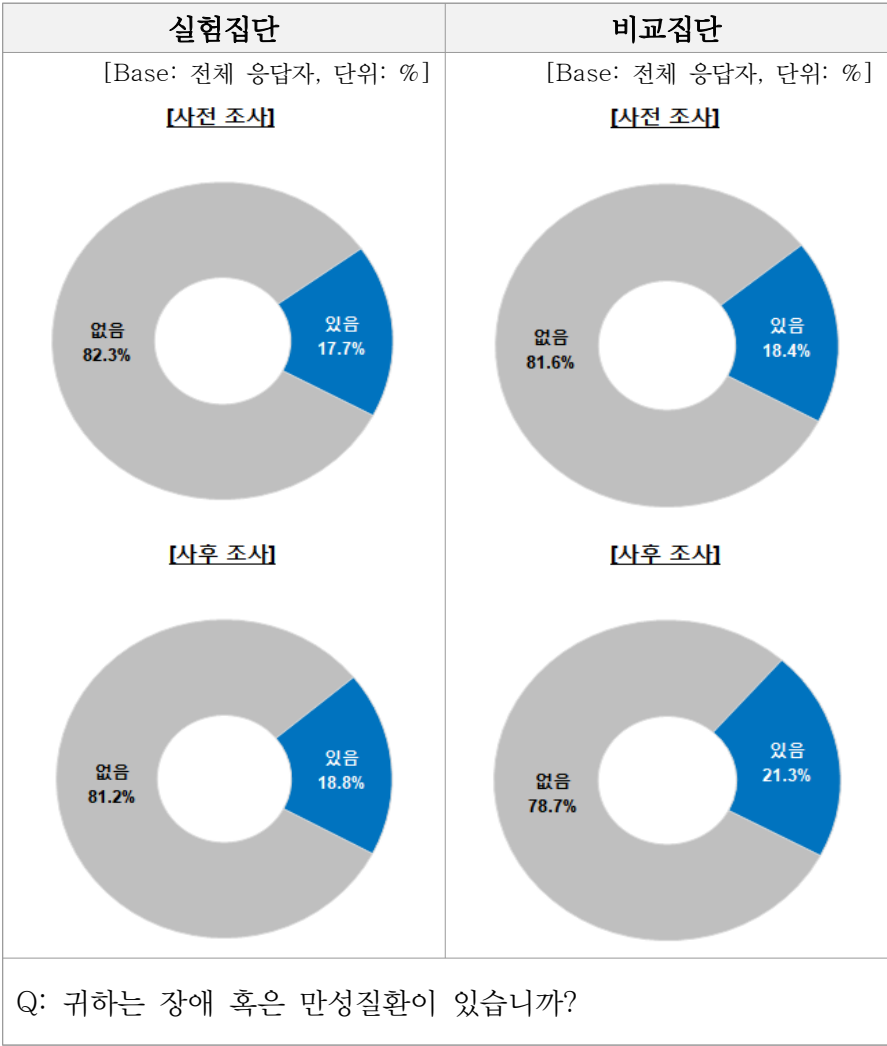
<그림14> 장애 여부



2) 만성질환 여부

○ 만성질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 ‘있음’ (18.8%), 비교집단 ‘있음’(21.3%)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15> 만성질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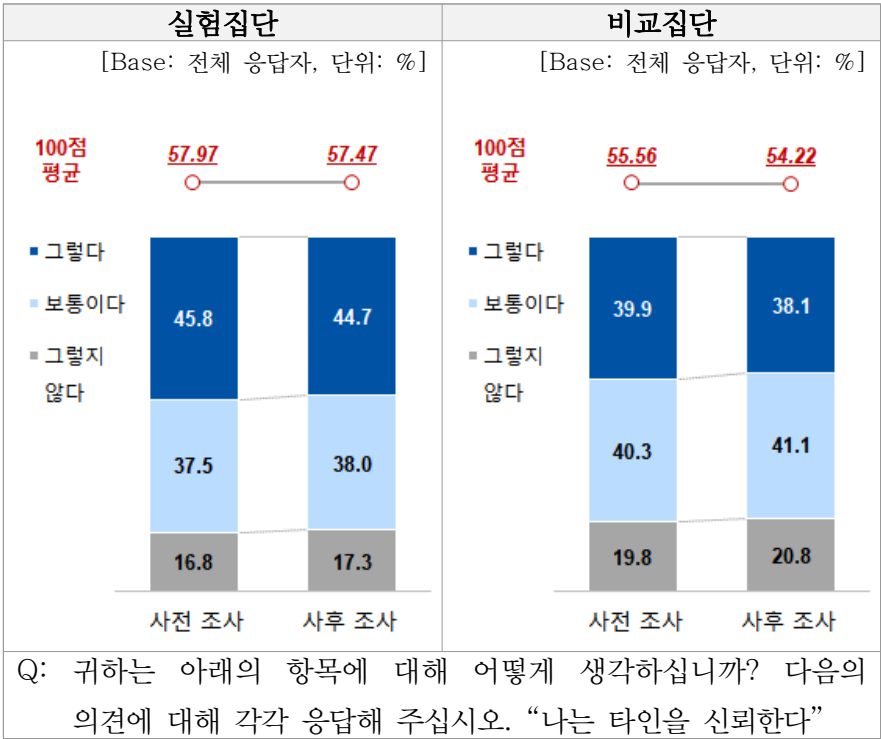


Ⅲ. 평소 인식과 태도

1-1. 나는 타인을 신뢰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타인을 신뢰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4.47점으로 ‘비교집단’(54.22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7.97점 → 57.47점(-0.50점)
 - 비교집단 : 55.56점 → 54.22점(-1.3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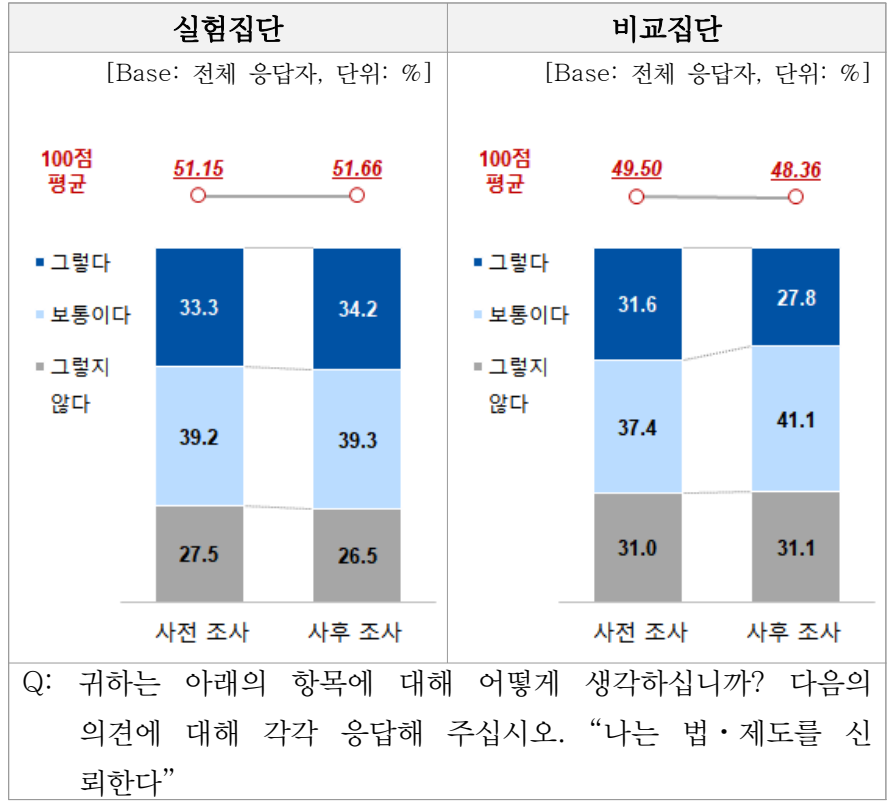
<그림16> 나는 타인을 신뢰한다



1-2.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1.66점으로 ‘비교집단’(51.15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1.15점 → 51.66점(+0.51점)
 - 비교집단 : 49.50점 → 48.36점(-1.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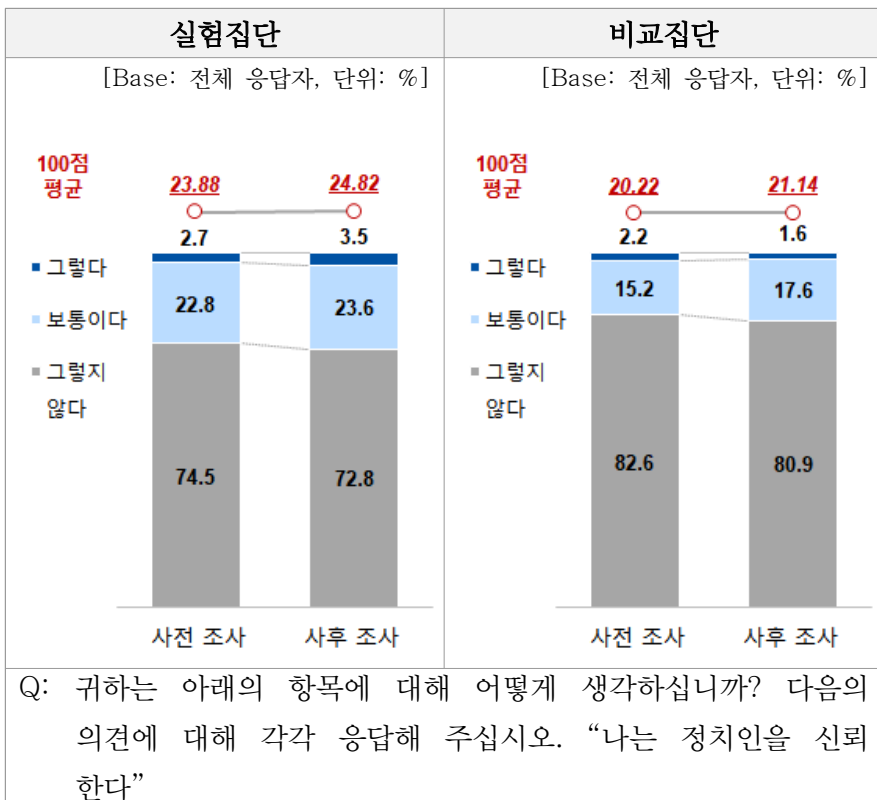
<그림17>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1-3. 나는 정치인을 신뢰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정치인을 신뢰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24.82점으로 ‘비교집단’(21.14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23.88점 → 24.82점(+0.94점)
 - 비교집단 : 20.22점 → 21.14점(+0.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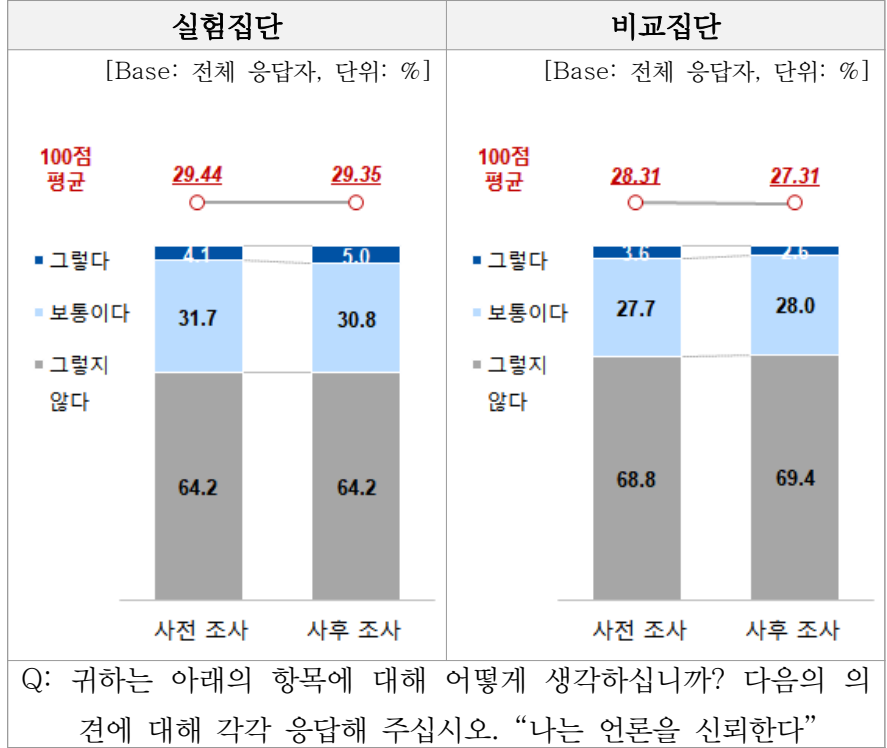
<그림18> 나는 정치인을 신뢰한다



1-4. 나는 언론을 신뢰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언론을 신뢰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29.35점으로 ‘비교집단’(27.3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29.44점 → 29.35점(-0.09점)
 - 비교집단 : 28.31점 → 27.31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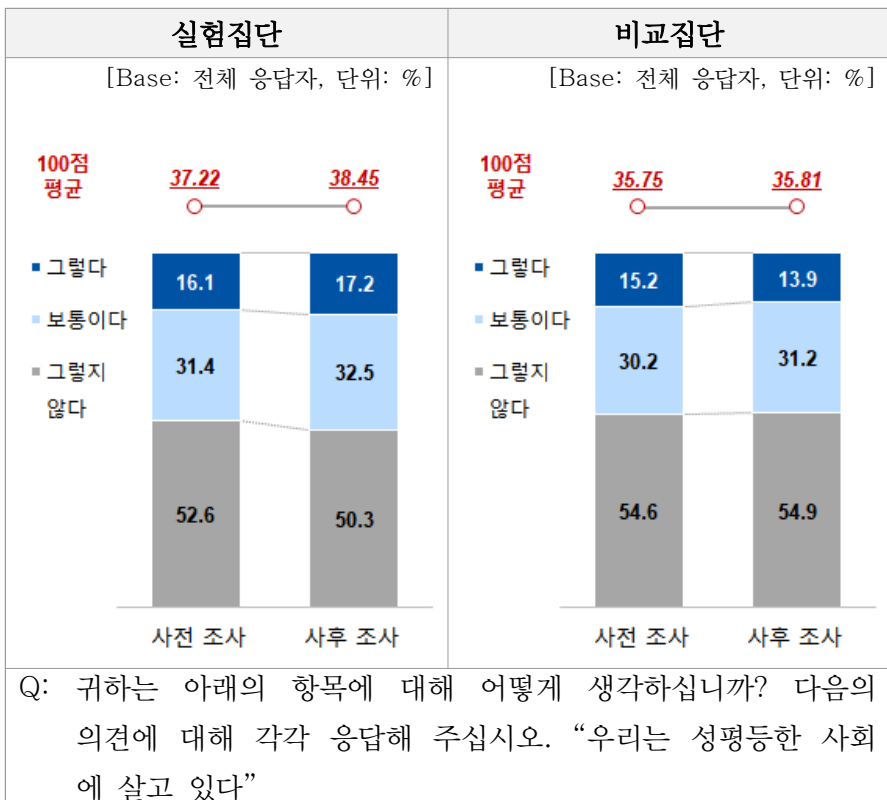
<그림19> 나는 언론을 신뢰한다



2-1.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8.45점으로 ‘비교집단’(35.8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7.22점 → 38.45점(+1.23점)
 - 비교집단 : 35.75점 → 35.81점(+0.0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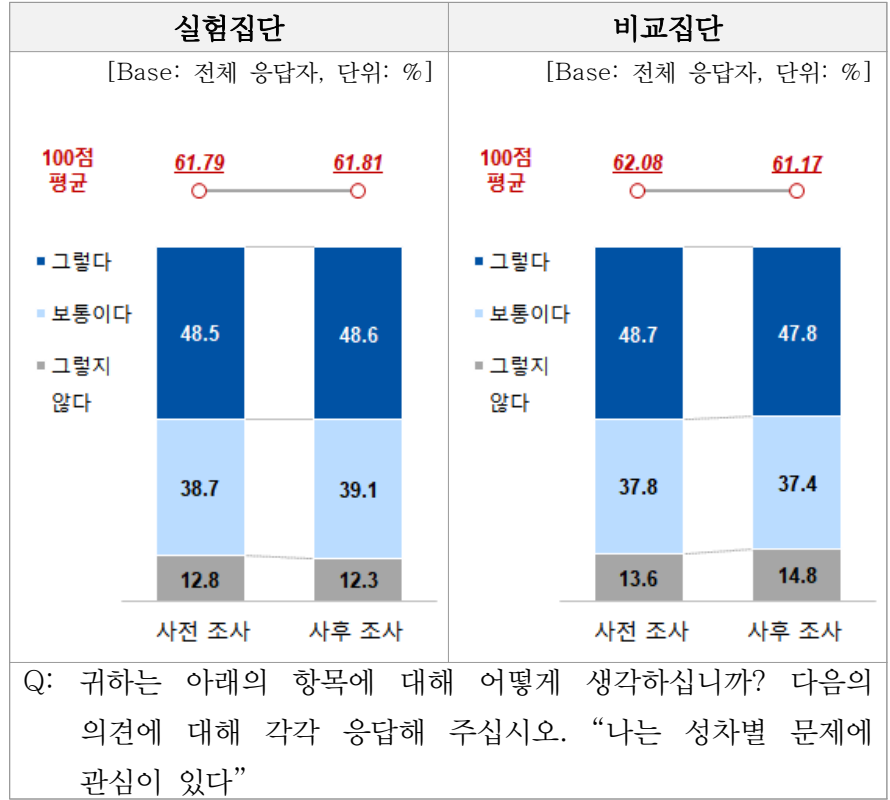
<그림20>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2-2.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1.81점으로 ‘비교집단’(61.17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현재 성차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1.79점 → 61.81점(+0.02점)
 - 비교집단 : 62.08점 → 61.17점(-0.9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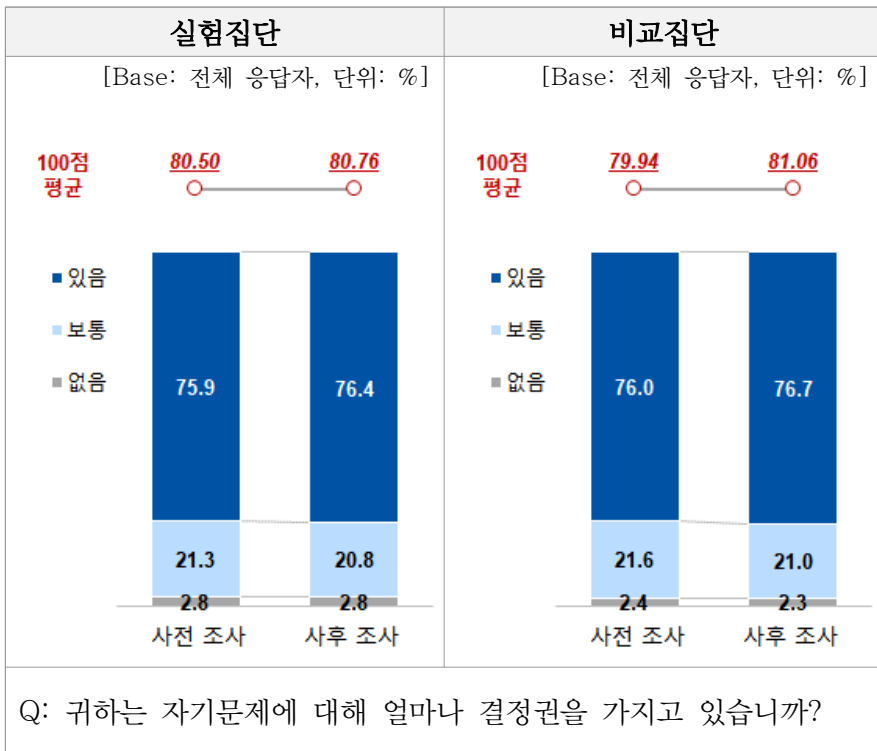
<그림21> 나는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3.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80.76점으로 ‘비교집단’(81.06점)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80.50점 → 80.76점(+0.26점)
 - 비교집단 : 79.94점 → 81.06점(+1.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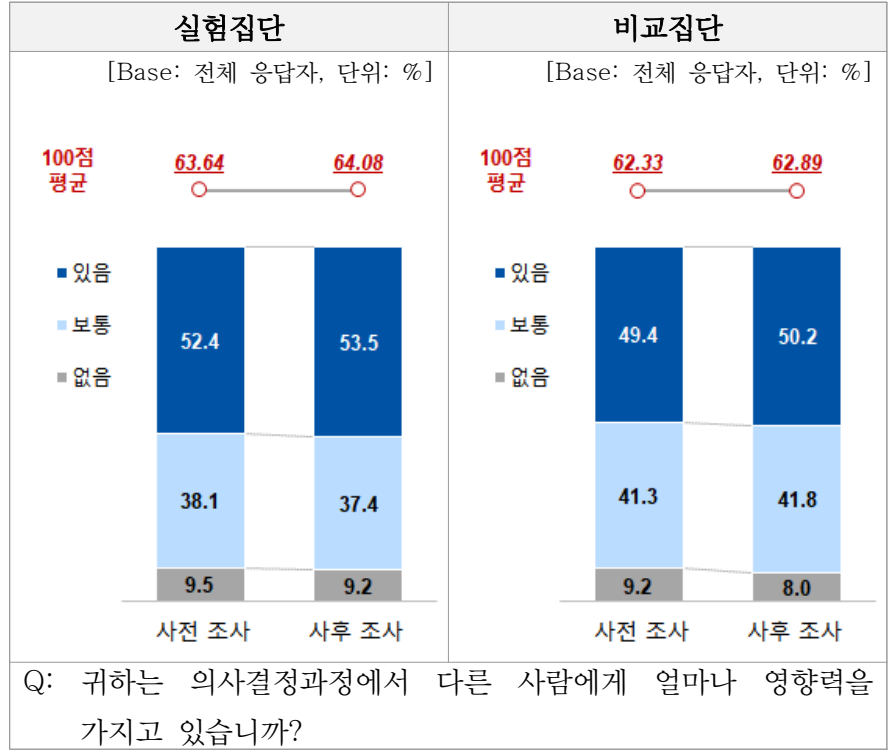
<그림22>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 정도



4.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4.08점으로 ‘비교집단’(62.89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3.64점 → 64.08점(+0.44점)
 - 비교집단 : 62.33점 → 62.89점(+0.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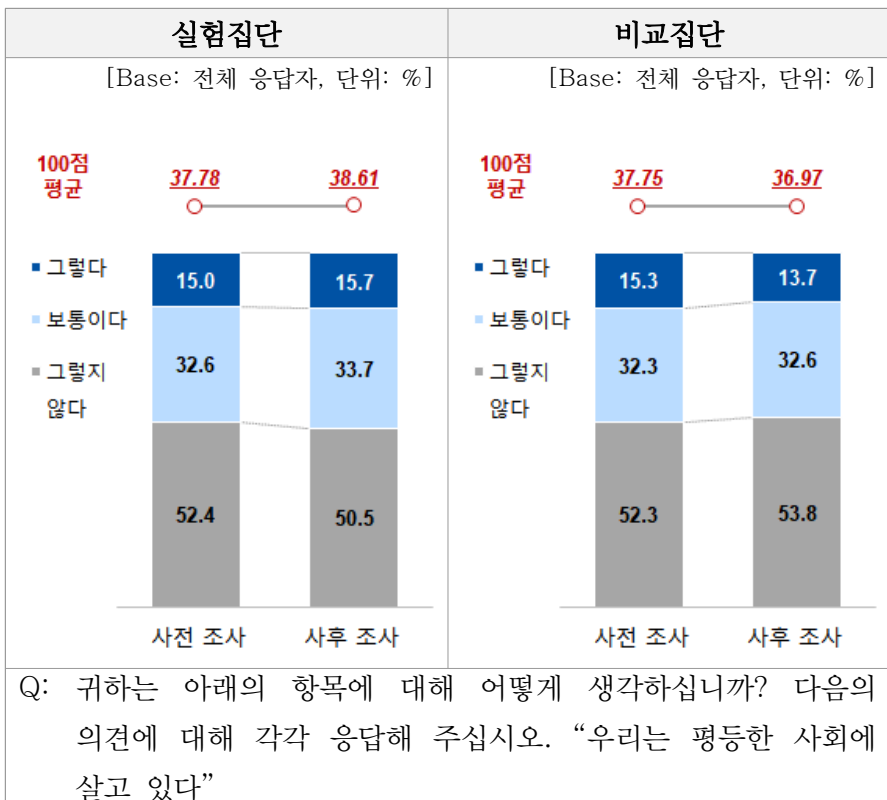
<그림23>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5-1.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8.61점으로 ‘비교집단’(36.97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는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7.78점 → 38.61점(+0.83점)
 - 비교집단 : 37.75점 → 36.97점(-0.7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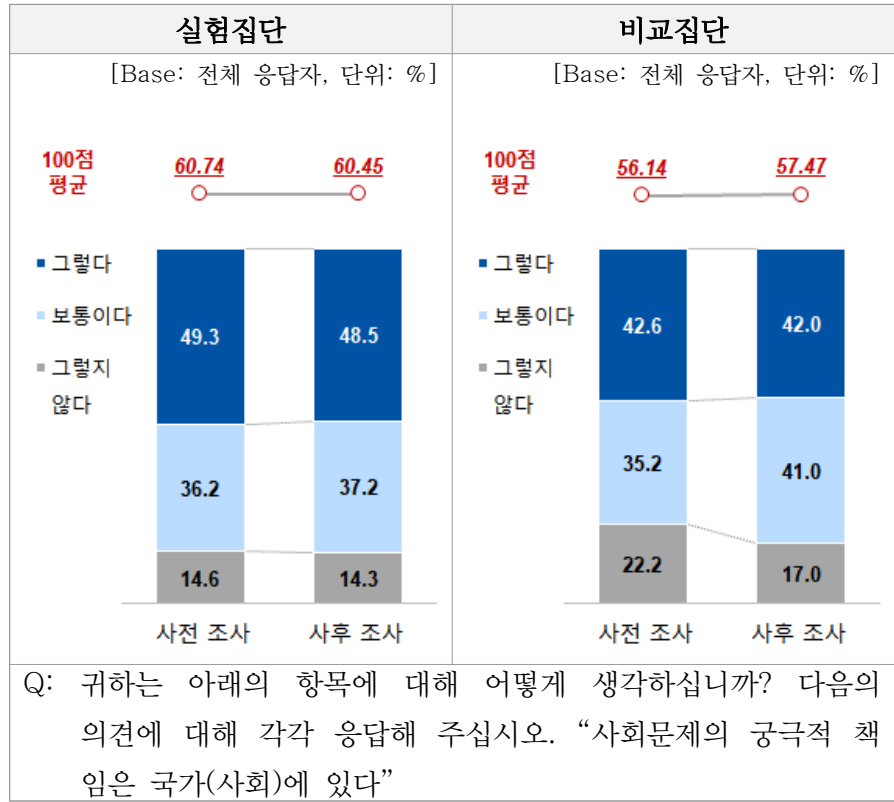
<그림24>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5-2.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0.45점으로 ‘비교집단’(57.47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하락한 반면, ‘비교집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0.74점 → 60.45점(-0.29점)
 - 비교집단 : 56.14점 → 57.47점(+2.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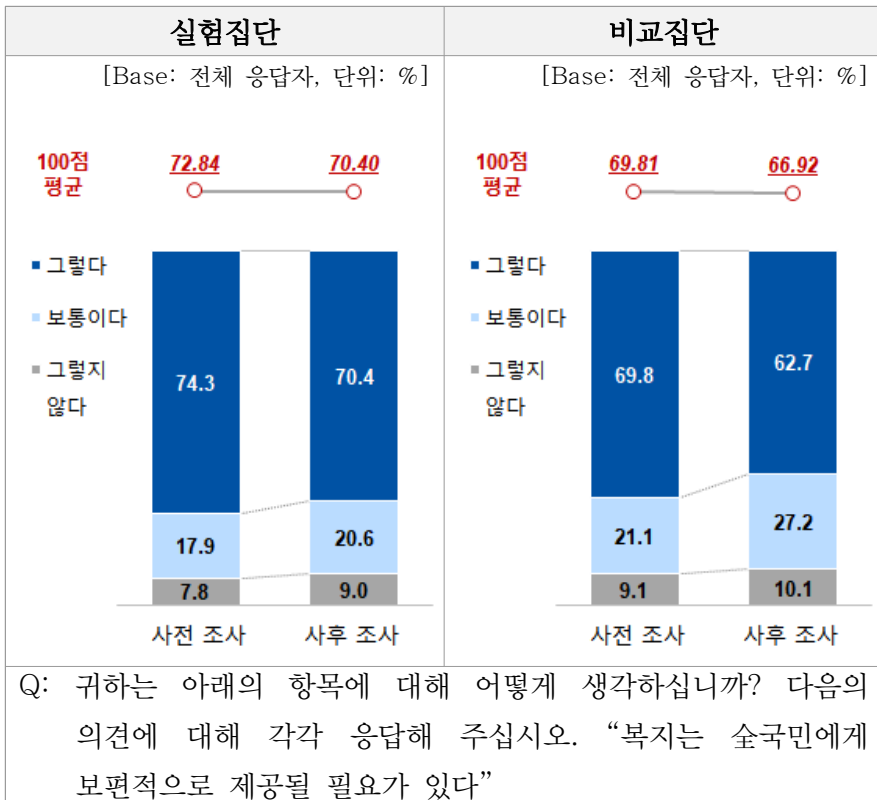
<그림25> 사회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5-3. 복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복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70.40점으로 ‘비교집단’ (66.92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72.84점 → 70.40점(-2.44점)
 - 비교집단 : 69.81점 → 66.92점(-2.8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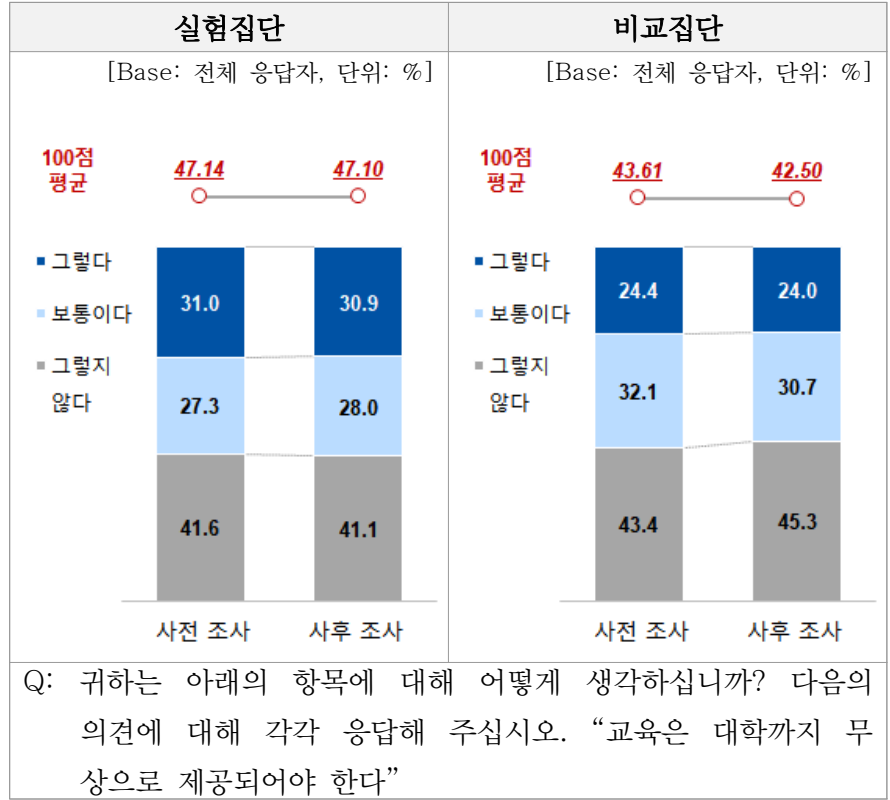
<그림26> 복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5-4.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47.10점으로 ‘비교집단’(42.50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47.14점 → 47.10점(-0.04점)
 - 비교집단 : 43.61점 → 42.50점(-1.1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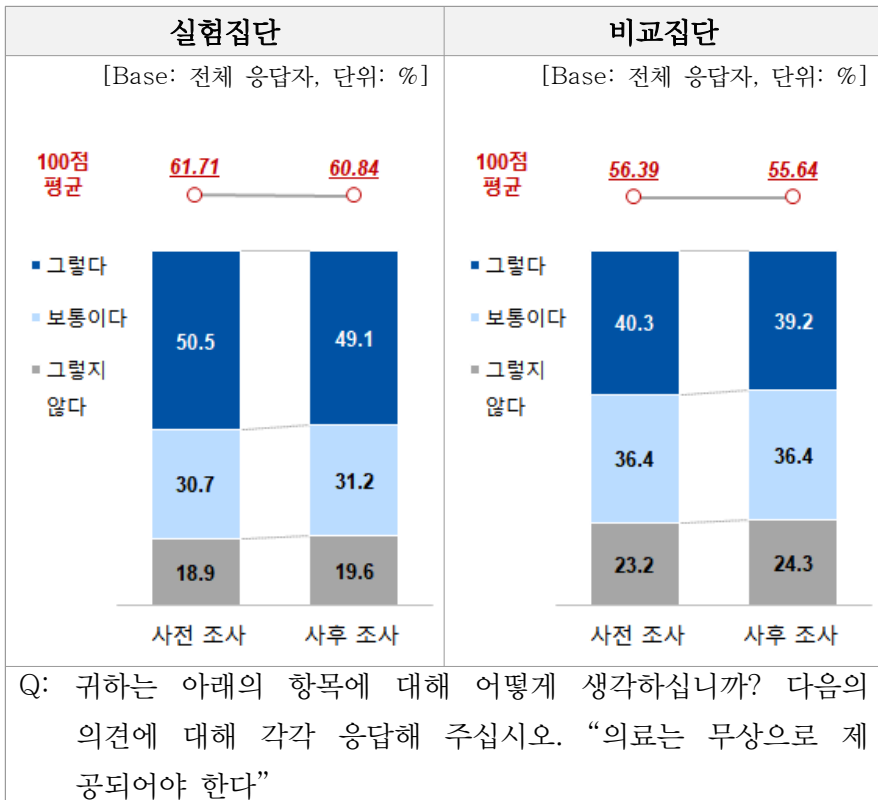
<그림27>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5.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0.84점으로 ‘비교집단’(55.64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1.71점 → 60.84점(-0.87점)
 - 비교집단 : 56.39점 → 55.64점(-0.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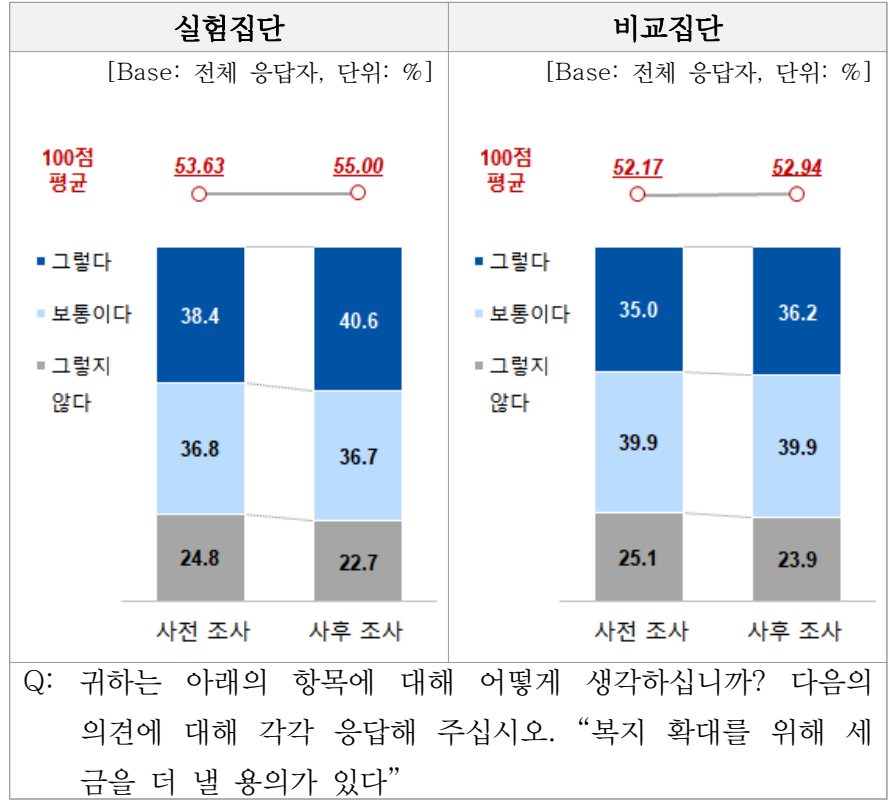
<그림28>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6.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5.00점으로 ‘비교집단’(52.94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3.63점 → 55.00점(+1.37점)
 - 비교집단 : 52.17점 → 52.94점(+0.7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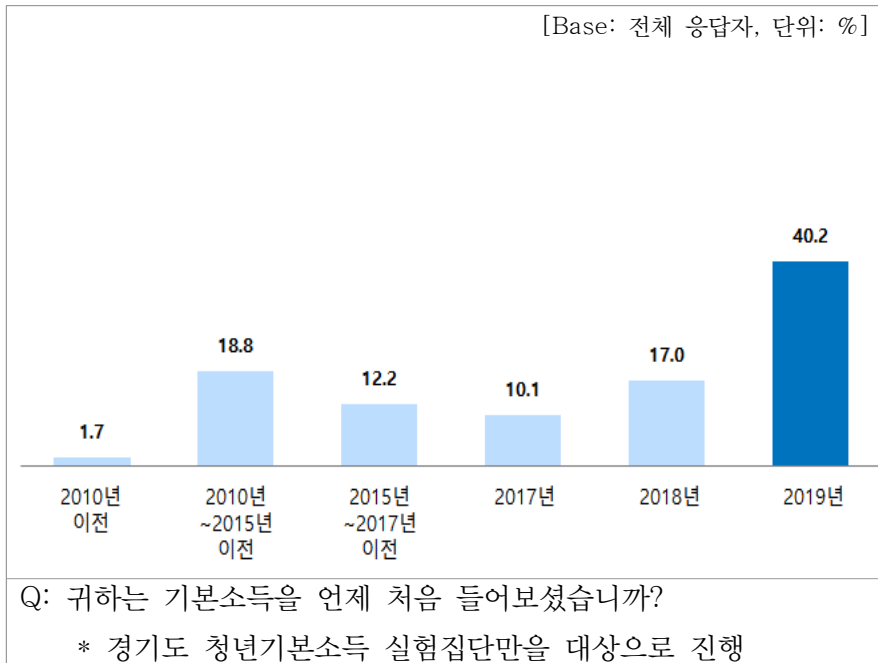
<그림29>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6. 기본소득 최초 인지 연도

- 기본소득 최초 인지 연도는 ‘2019년’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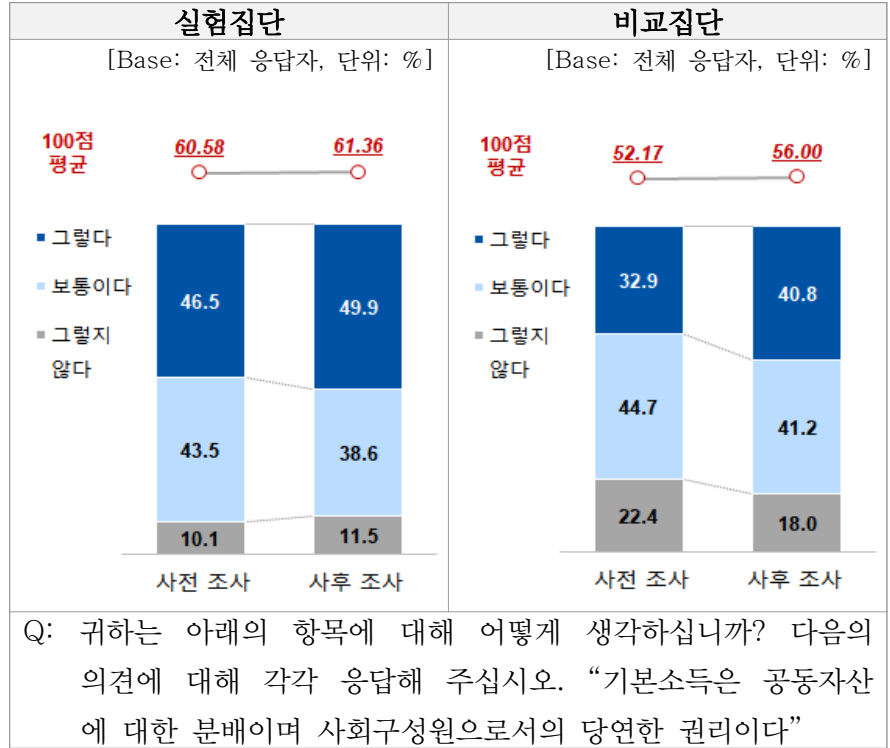
<그림30> 기본소득 최초 인지 연도



7-1.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1.36점으로 ‘비교집단’(56.00점) 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0.58점 → 61.36점(+0.78점)
 - 비교집단 : 52.17점 → 56.00점(+3.8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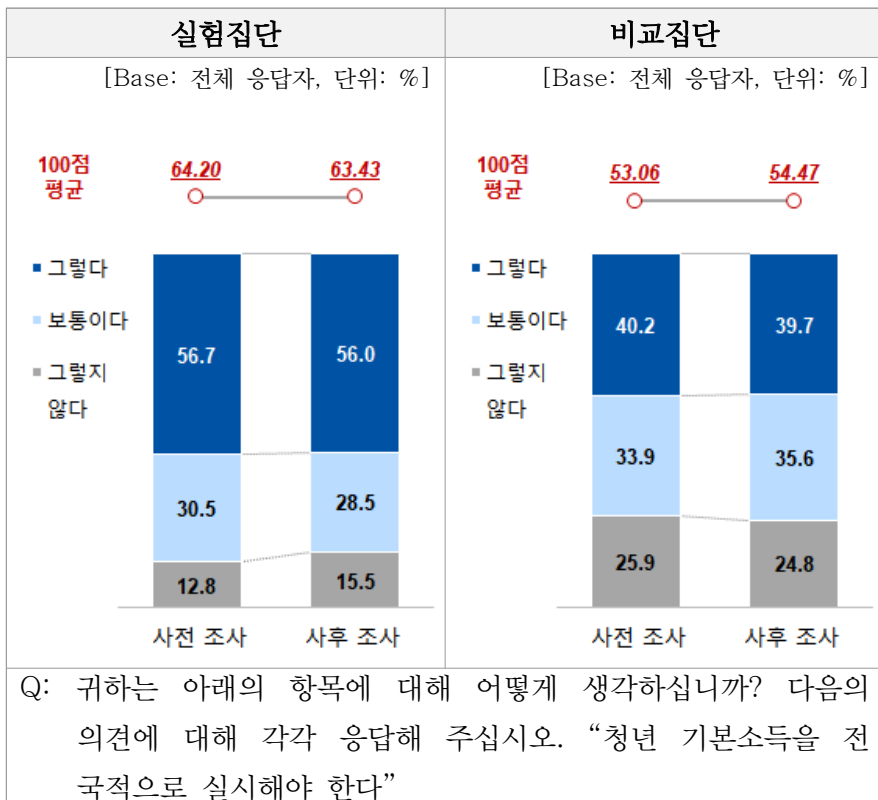
<그림31> 기본소득은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7-2.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3.43점으로 ‘비교집단’(54.47점) 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하락한 반면, ‘비교집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4.20점 → 63.43점(-0.77점)
 - 비교집단 : 53.06점 → 54.47점(+1.41점)

<그림32>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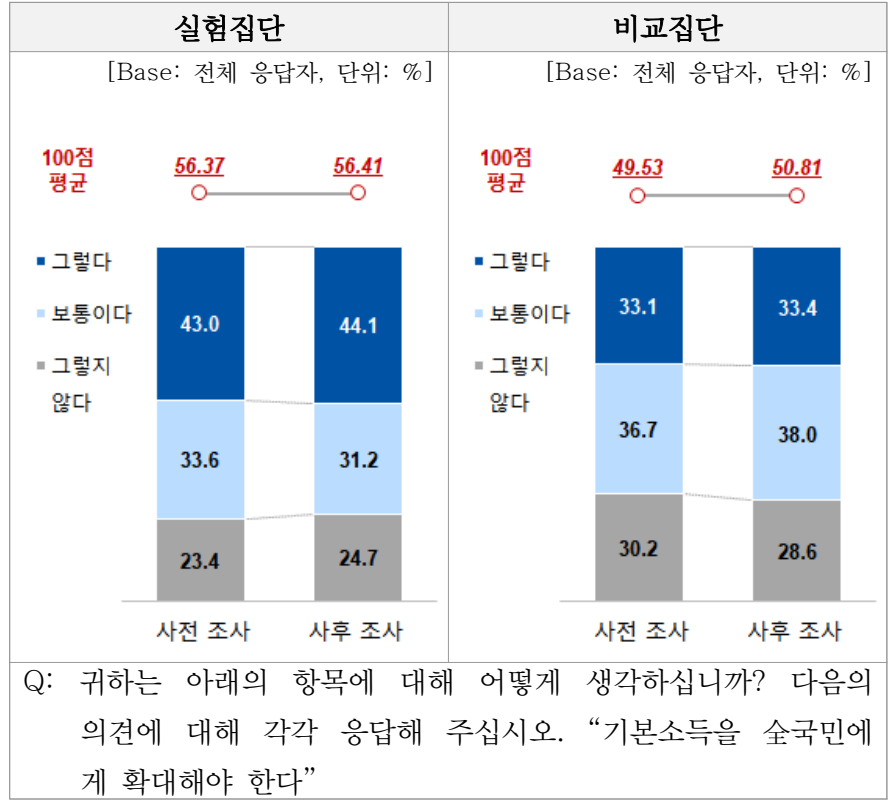
7-3.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렴한 ‘실험집단’이 56.41점으로 ‘비교집단’(50.8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6.37점 → 56.41점(+0.04점)
- 비교집단 : 49.53점 → 50.81점(+1.2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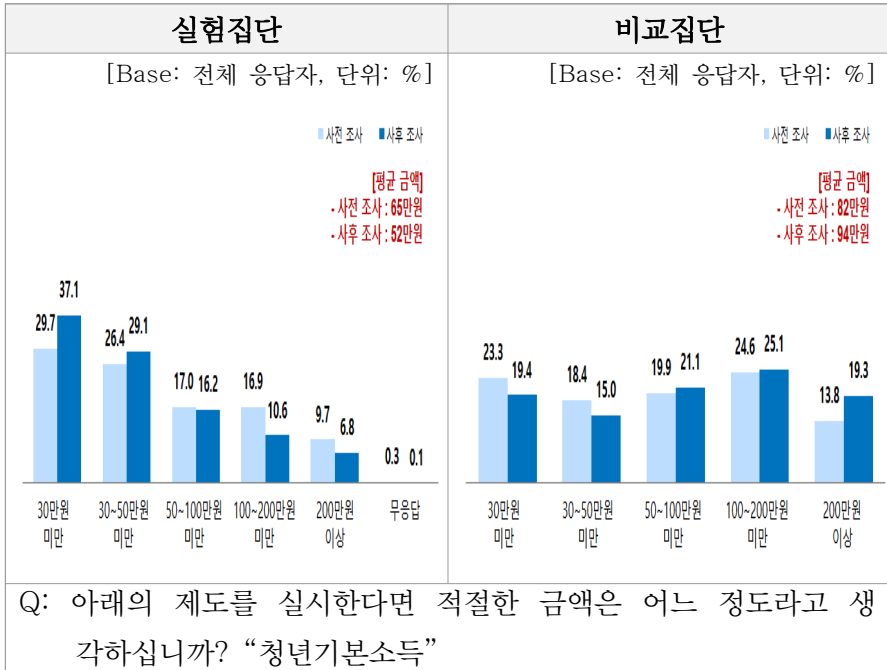
<그림33>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



8-1. 청년기본소득 실시 시 적절한 금액(단위: 월_만원)

- 청년기본소득 실시 시 적정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52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94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 금액은 감소한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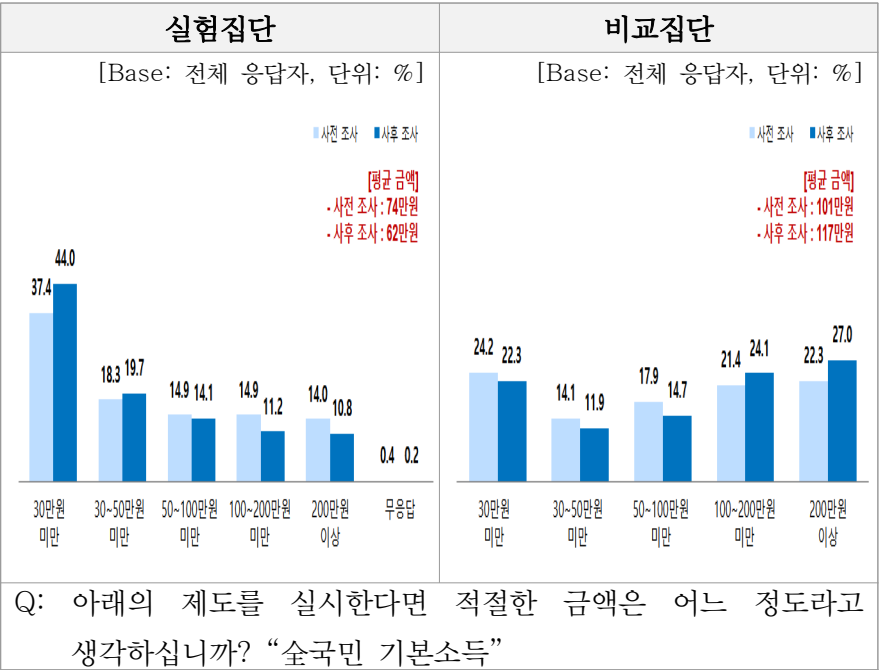
<그림34> 청년기본소득 실시 시 적절한 금액(단위: 월_만원)



8-2.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 시 적절한 금액(단위: 월_만원)

-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 시 적정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62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117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 금액은 감소한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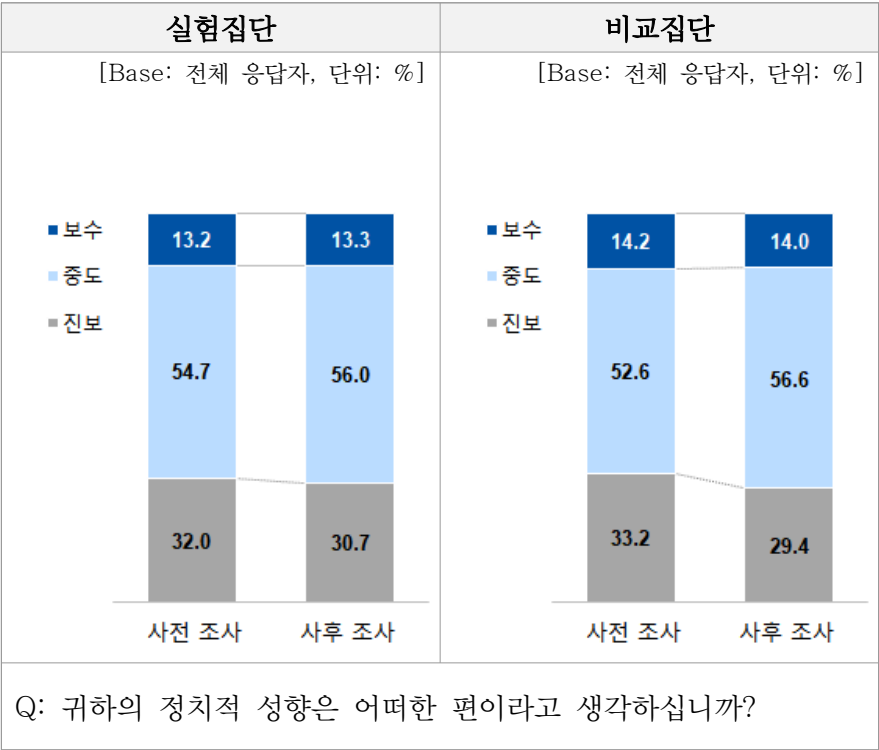
<그림35>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 시 적절한 금액(단위: 월_만원)



9. 정치적 성향

○ 정치적 성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36> 정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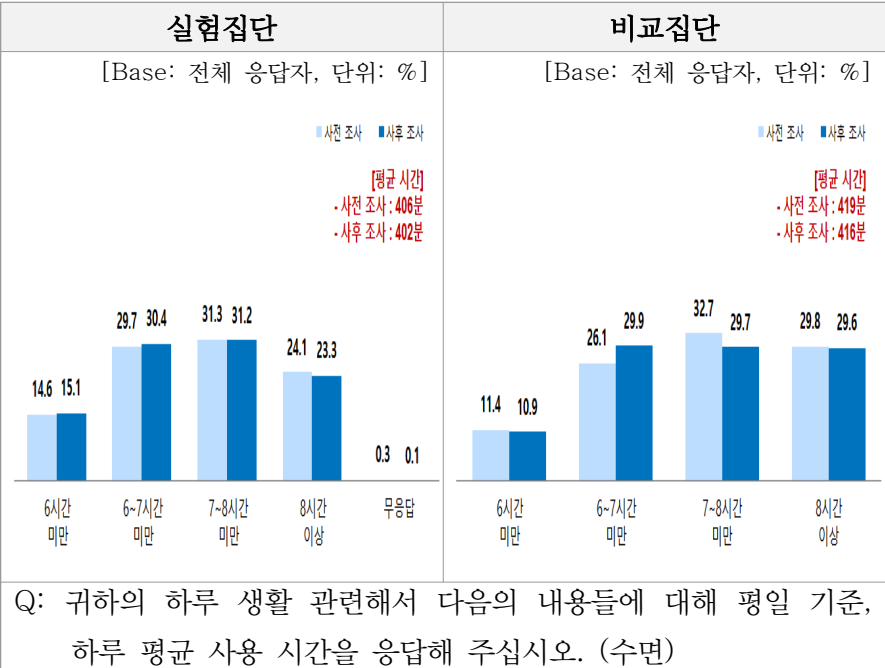
IV. 평소 시간 사용

1. 하루 평균 사용 시간

1) 수면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수면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402분, ‘비교집단’은 평균 416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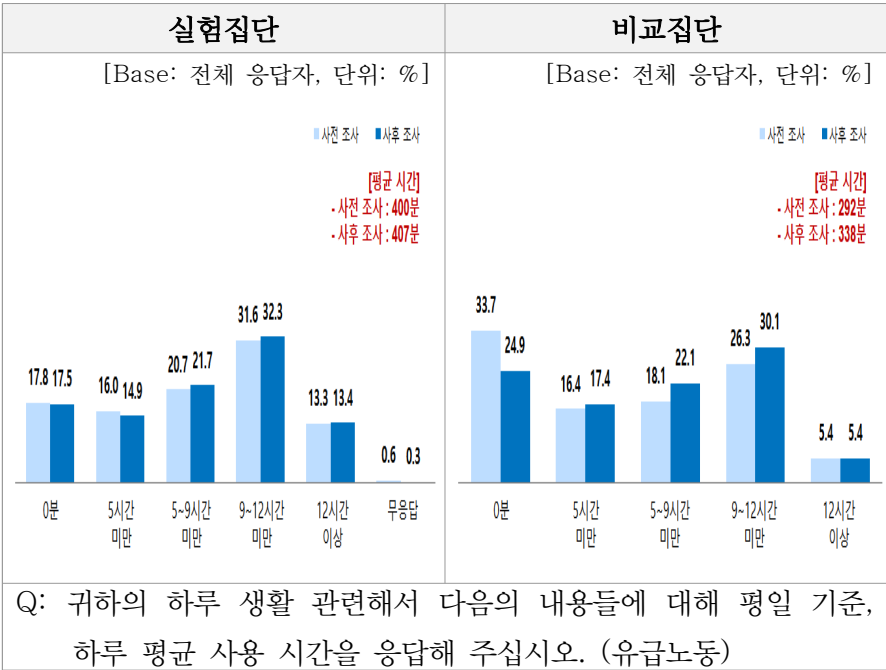
<그림37> 하루 평균 사용 시간_수면 시간



2) 유급노동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유급노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407분, ‘비교집단’은 평균 338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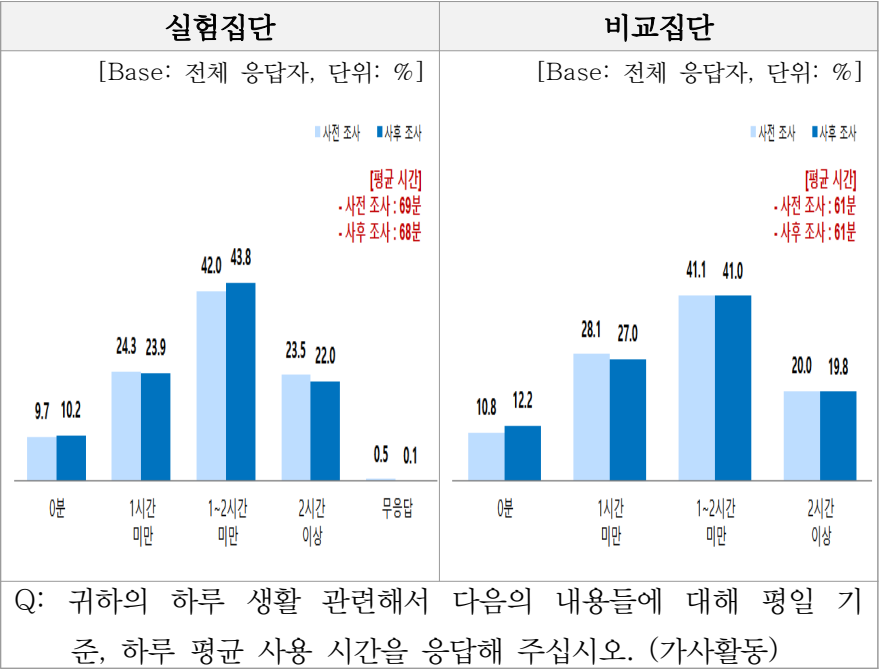
<그림38> 하루 평균 사용 시간_유급노동 시간



3) 가사활동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가사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68분, ‘비교집단’은 평균 61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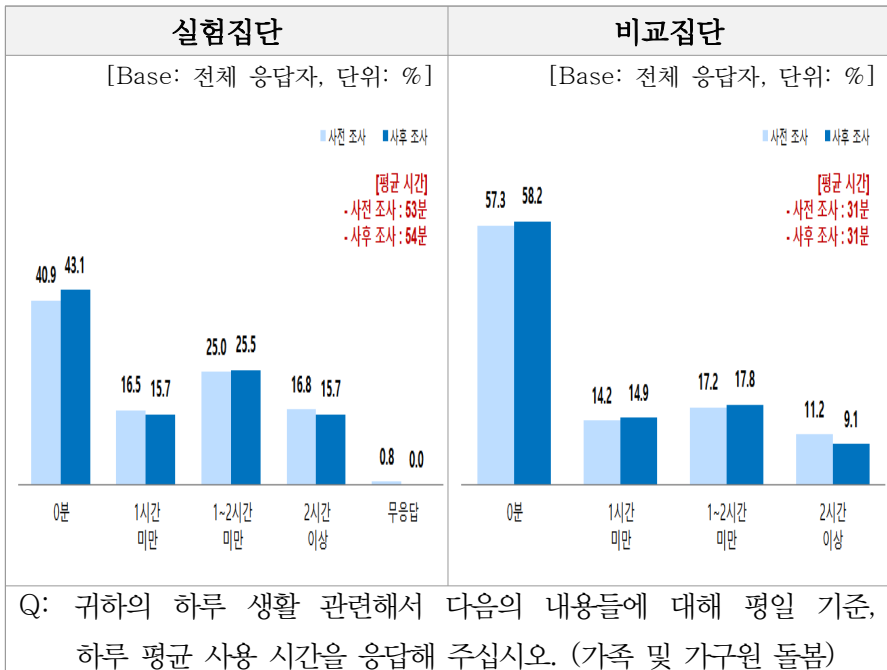
<그림39> 하루 평균 사용 시간_가사활동 시간



4)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54분, ‘비교집단’은 평균 31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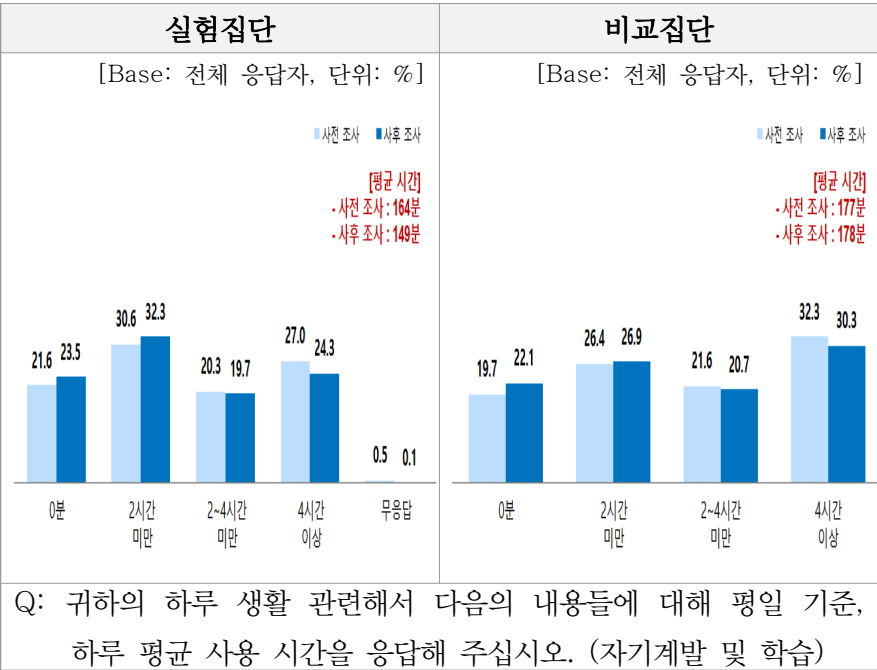
<그림40> 하루 평균 사용 시간_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



5) 자기계발 및 학습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자기계발 및 학습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49분, ‘비교집단’은 평균 178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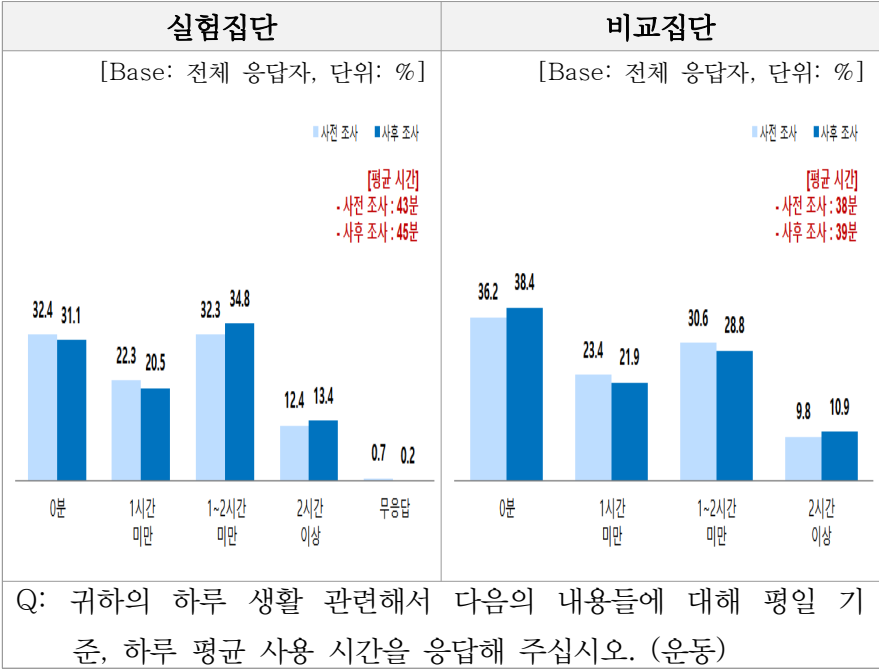
<그림41> 하루 평균 사용 시간_자기계발 및 학습 시간



6) 운동(건강)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운동(건강)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45분, ‘비교집단’은 평균 39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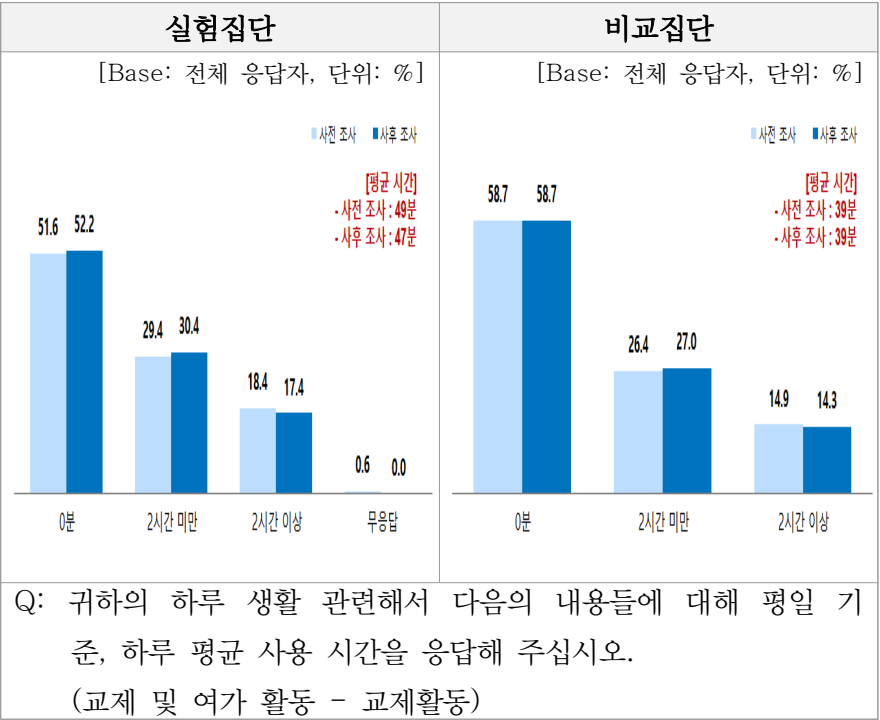
<그림42> 하루 평균 사용 시간_운동(건강) 시간



7) 교제 활동(교제활동, 종교/문화/여행/의례 활동)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교제활동(교제활동, 종교/문화/여행/의례 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47분, '비교집단'은 평균 39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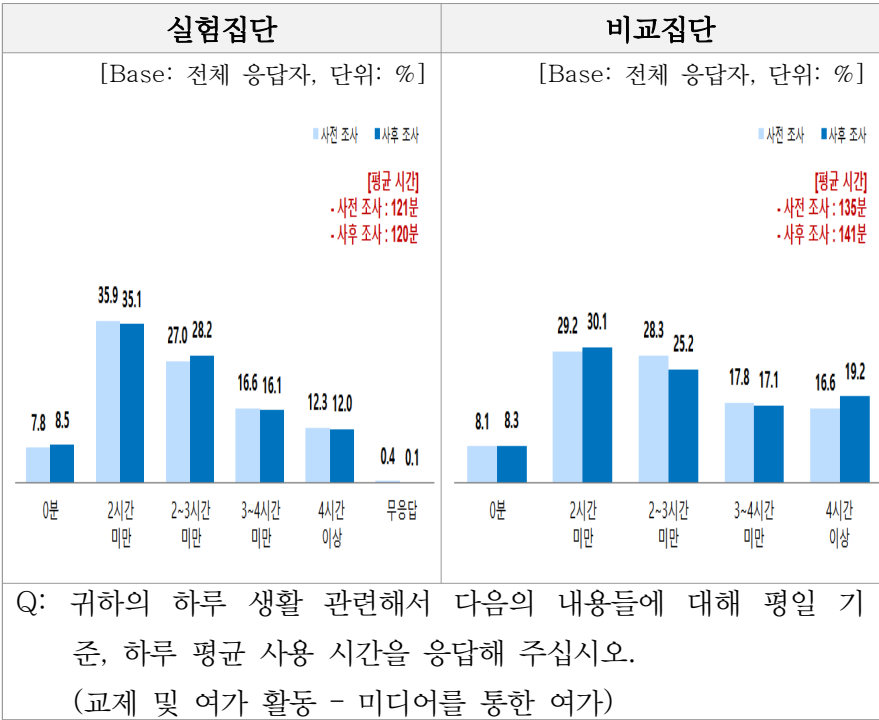
<그림43> 하루 평균 사용 시간_교제 활동 시간



8) 미디어를 통한 여가 활동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미디어를 통한 여가 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20분, ‘비교집단’은 평균 141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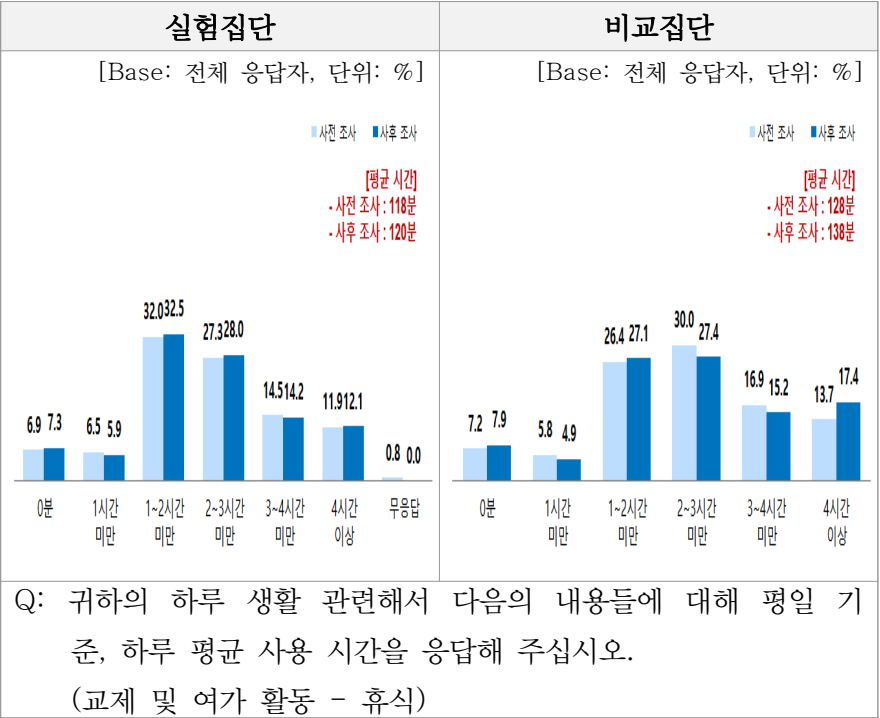
<그림44> 하루 평균 사용 시간_미디어를 통한 여가 활동 시간



9) 휴식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휴식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20분, ‘비교집단’은 평균 130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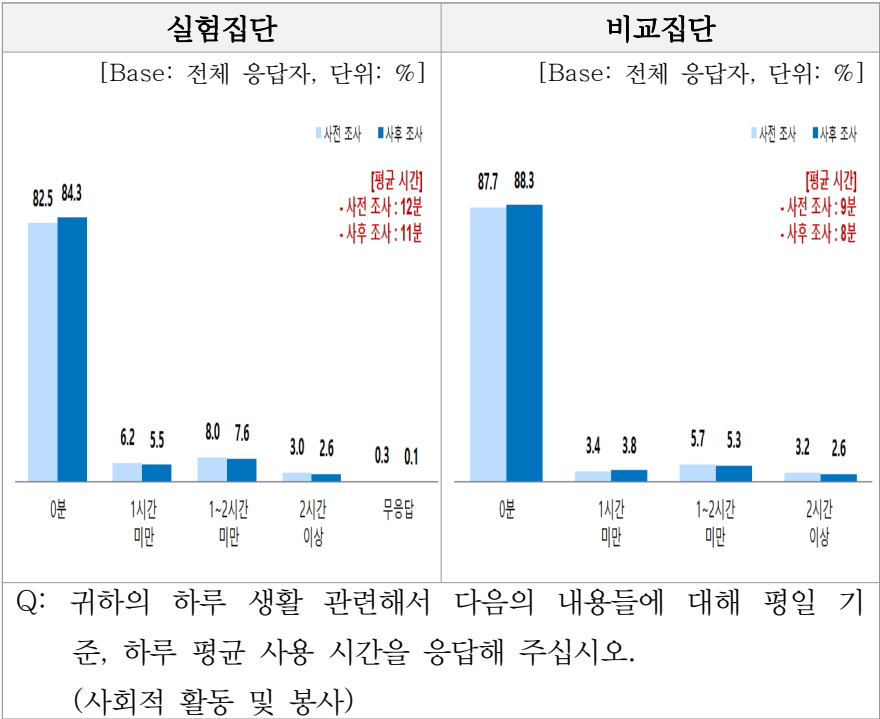
<그림45> 하루 평균 사용 시간_휴식 시간



10) 사회적 활동 및 봉사 활동 시간

○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중 [사회적 활동 및 봉사 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1분, ‘비교집단’은 평균 8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46> 하루 평균 사용 시간_사회적 활동 및 봉사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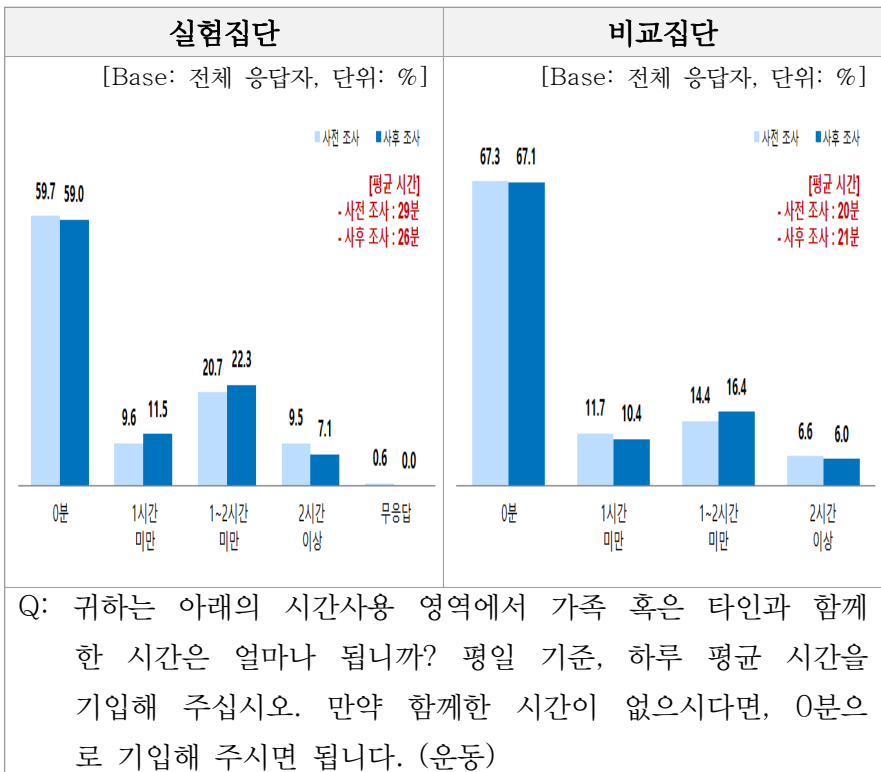


2.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1) 운동(건강)

○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중 [운동(건강)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26분, ‘비교집단’은 평균 21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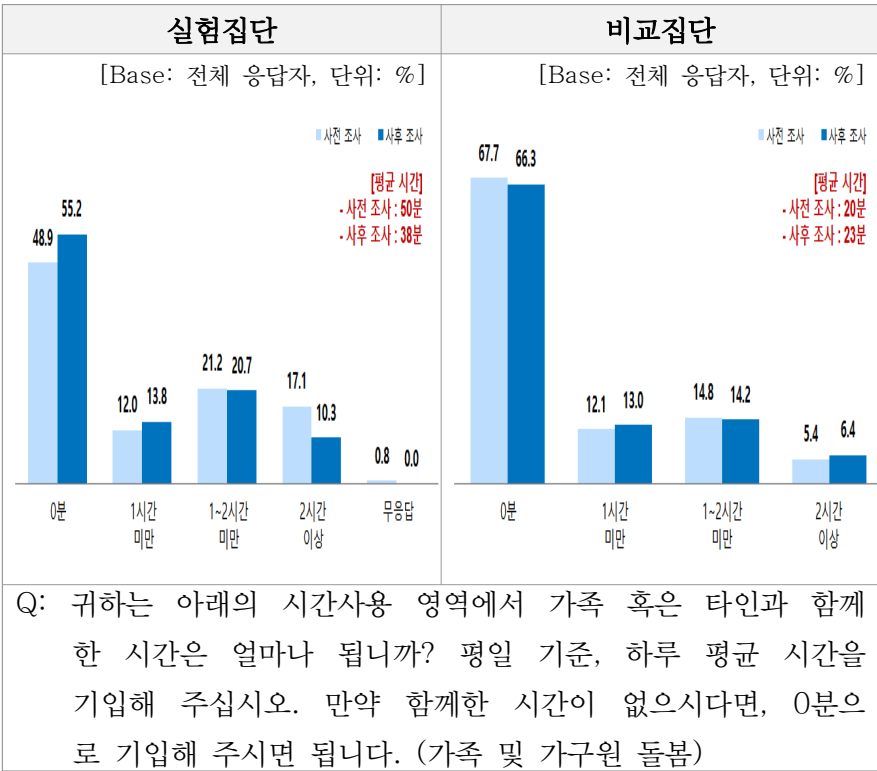
<그림47>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_운동(건강)



2) 가족 및 가구원 돌봄

-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중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38분, ‘비교집단’은 평균 23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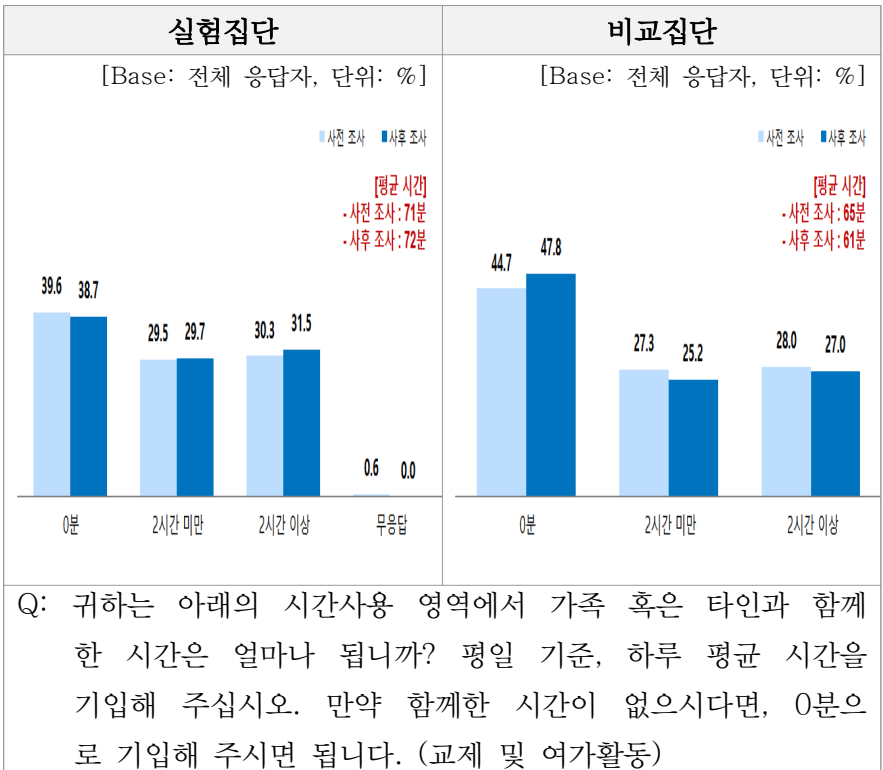
<그림48>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_가족 및 가구원 돌봄



3) 교제 및 여가활동

○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72분, ‘비교집단’은 평균 61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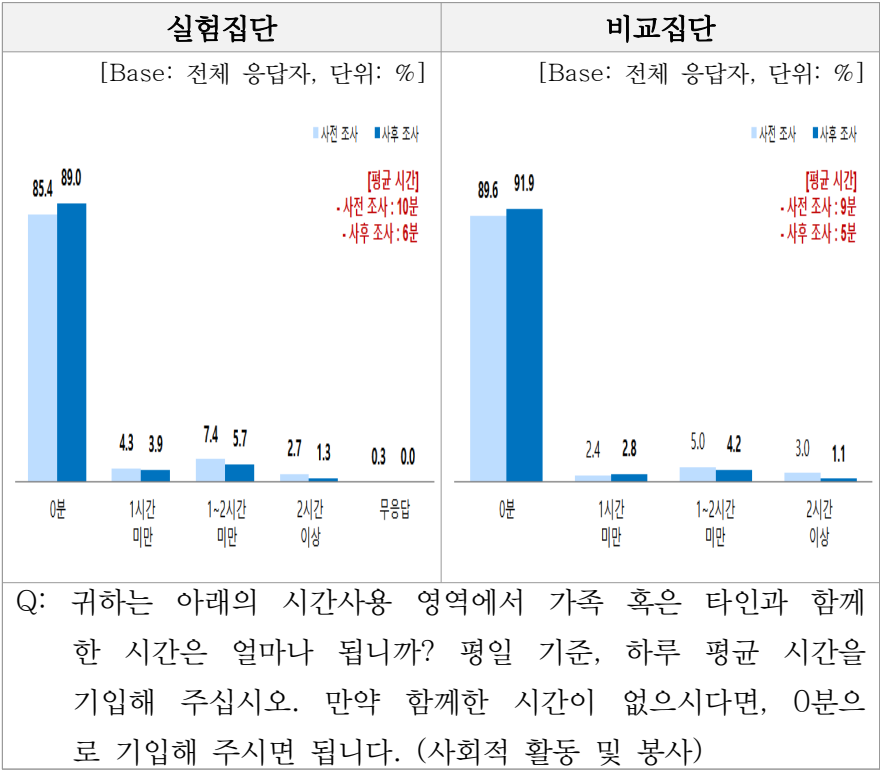
<그림49>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_교제 및 여가활동



4) 사회적 활동 및 봉사

-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 중 [사회적 활동 및 봉사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6분, ‘비교집단’은 평균 5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50> 가족 혹은 타인과 함께한 시간_사회적 활동 및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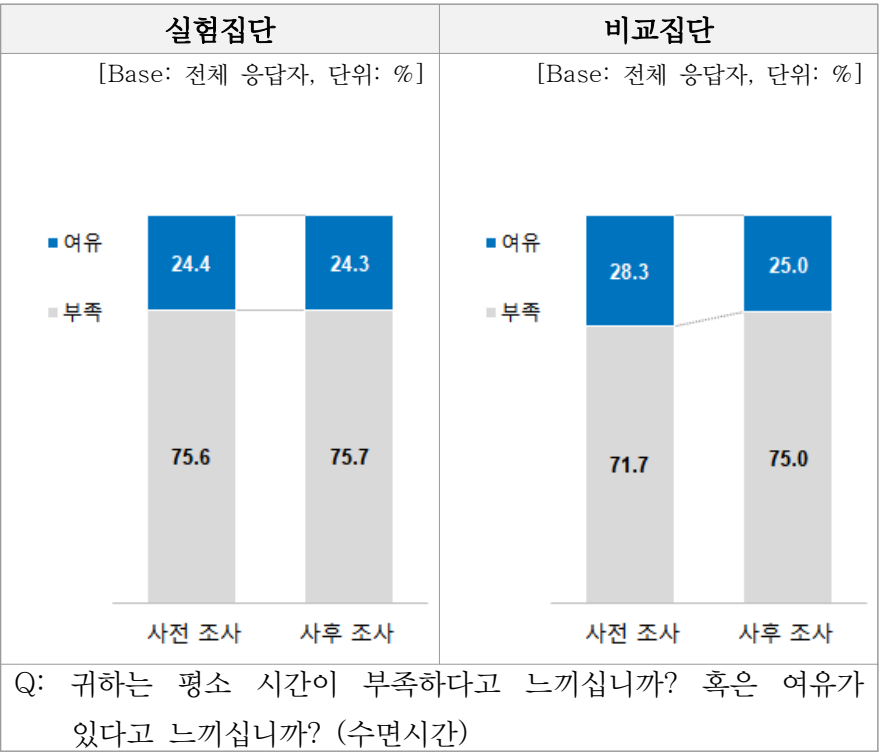


3.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

1) 수면 시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수면 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부족하다’(각각 75.7%, 75.0%)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28.3% → 25.0%) 하락 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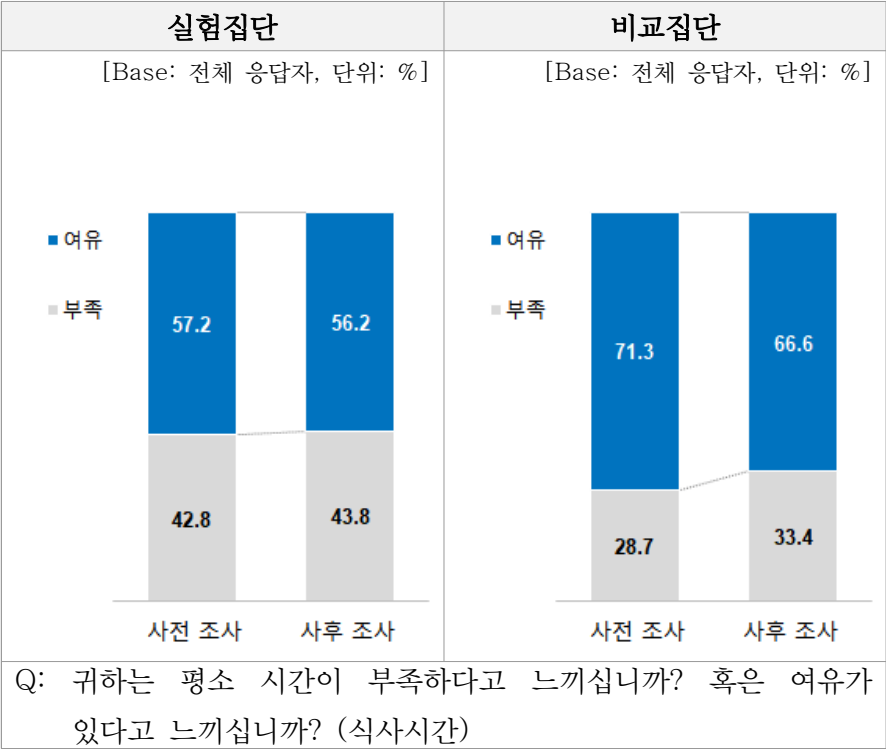
<그림51>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수면 시간



2) 식사 시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식사 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여유 있다'(각각 56.2%, 66.6%)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71.3% → 66.6%) 하락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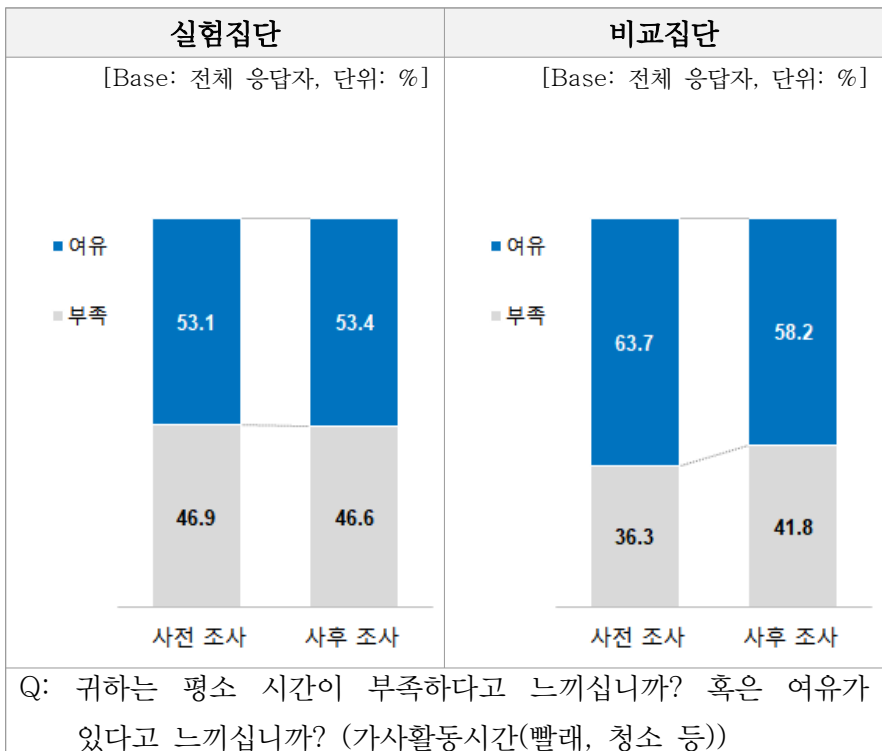
<그림52>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식사 시간



3) 가사활동 시간(빨래, 청소 등)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가사활동 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여유 있다'(각각 53.4%, 58.2%)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여유 있다'(53.1% → 53.4%)는 소폭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63.7% → 58.2%) 하락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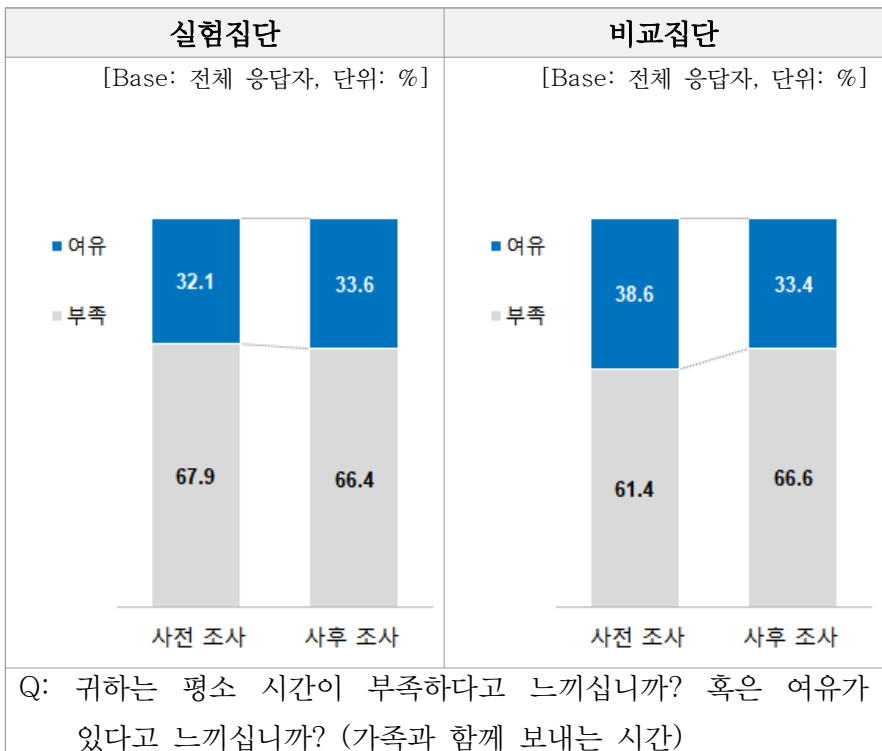
<그림53>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가사활동 시간(빨래, 청소 등)



4)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부족 하다’(각각 66.4%, 66.6%)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여유 있다’(32.1% → 33.6%)는 소폭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 (38.6% → 33.4%) 하락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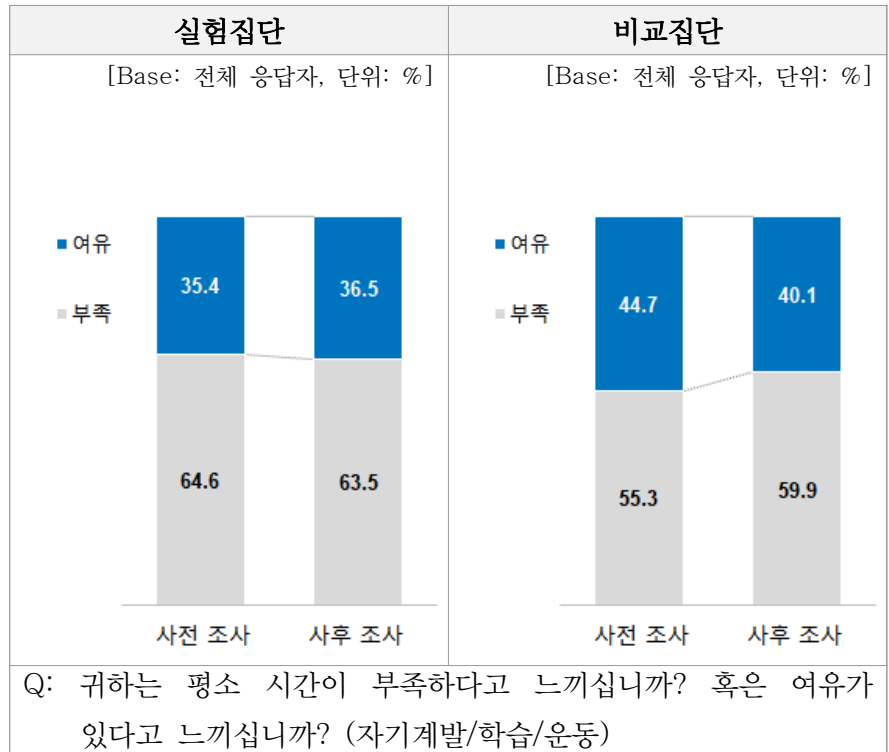
<그림54>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5) 자기계발/학습/운동 시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부족 하다’(각각 63.5%, 59.9%)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여유 있다’(35.4% → 36.5%)는 소폭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44.7% → 40.1%) 하락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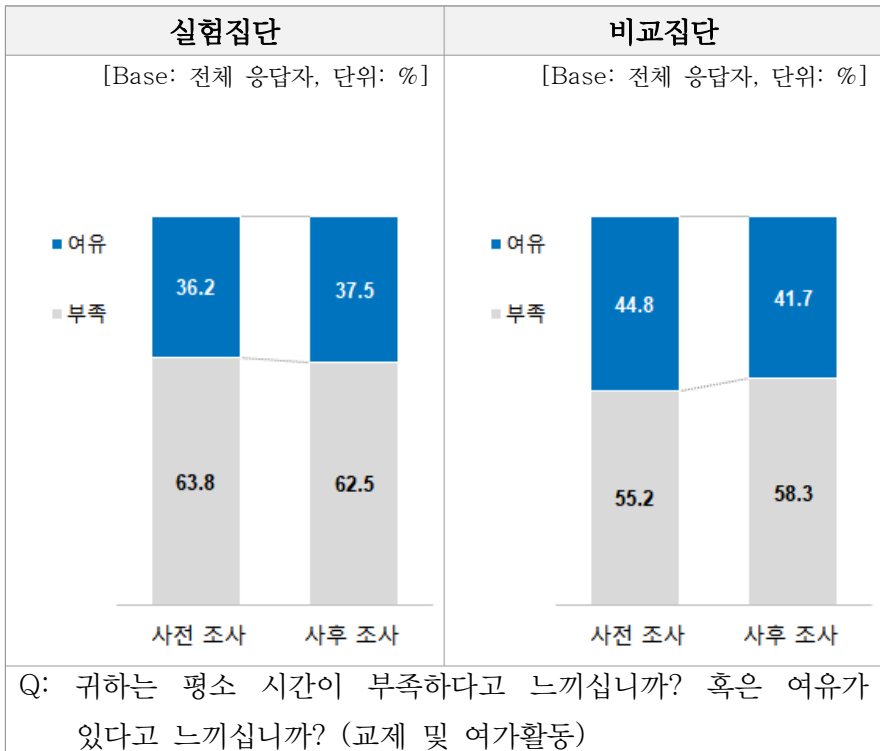
<그림55>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자기계발/학습/운동 시간



6)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부족 하다’(각각 62.5%, 58.3%)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여유 있다’(36.2% → 37.5%)는 소폭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44.8% → 41.7%)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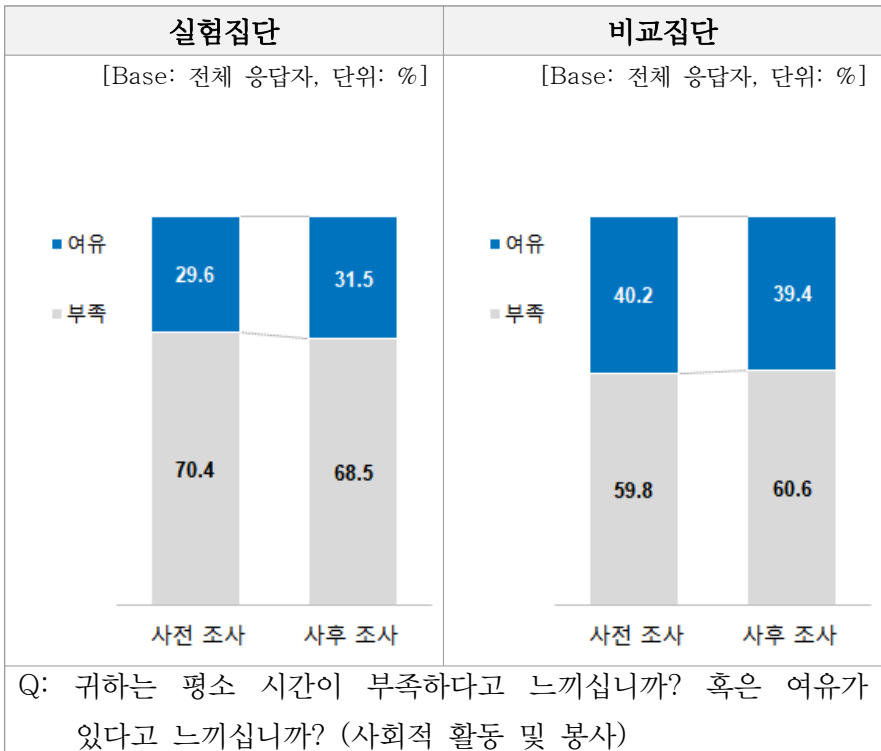
<그림56>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7) 사회적 활동 및 봉사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 중 [사회적 활동 및 봉사]에 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부족 하다'(각각 68.5%, 60.6%)가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여유 있다'(29.6% → 31.5%)는 소폭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의 '여유 있다' (40.2% → 39.4%)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7>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_사회적 활동 및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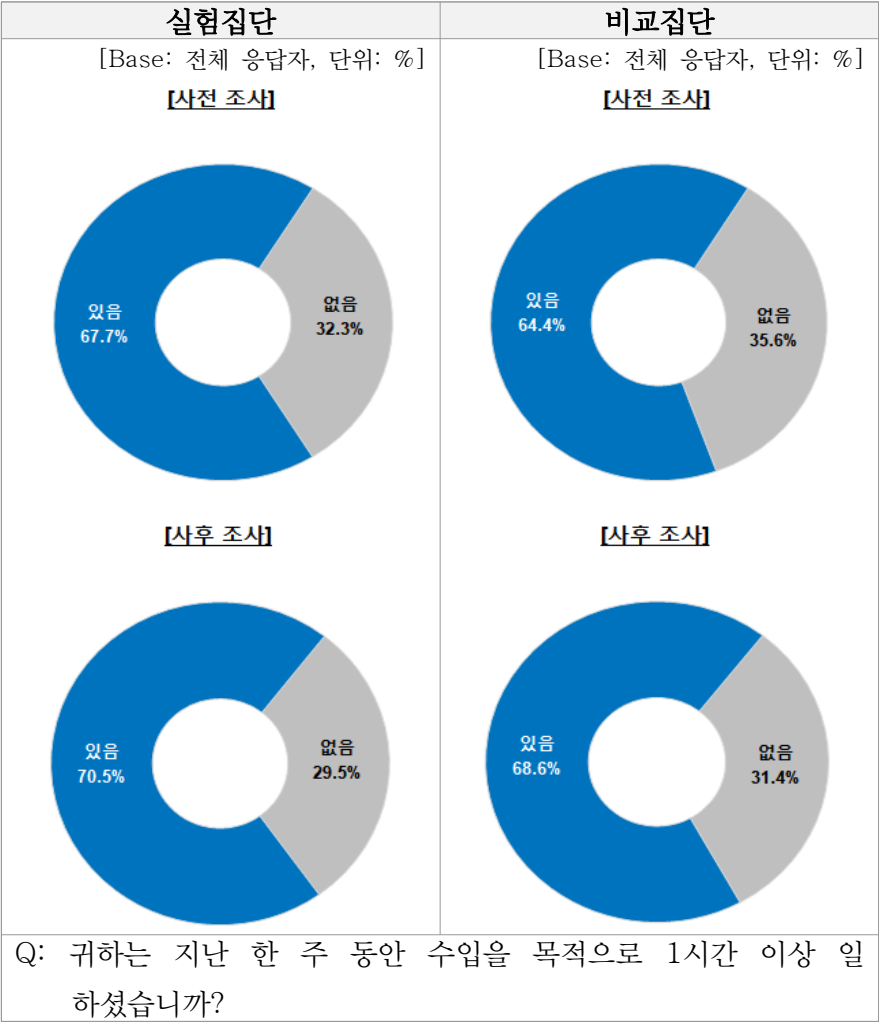


V. 경제활동 상태

1.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여부

○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 ‘있음’(70.5%), 비교집단 ‘있음’ (68.6%)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58>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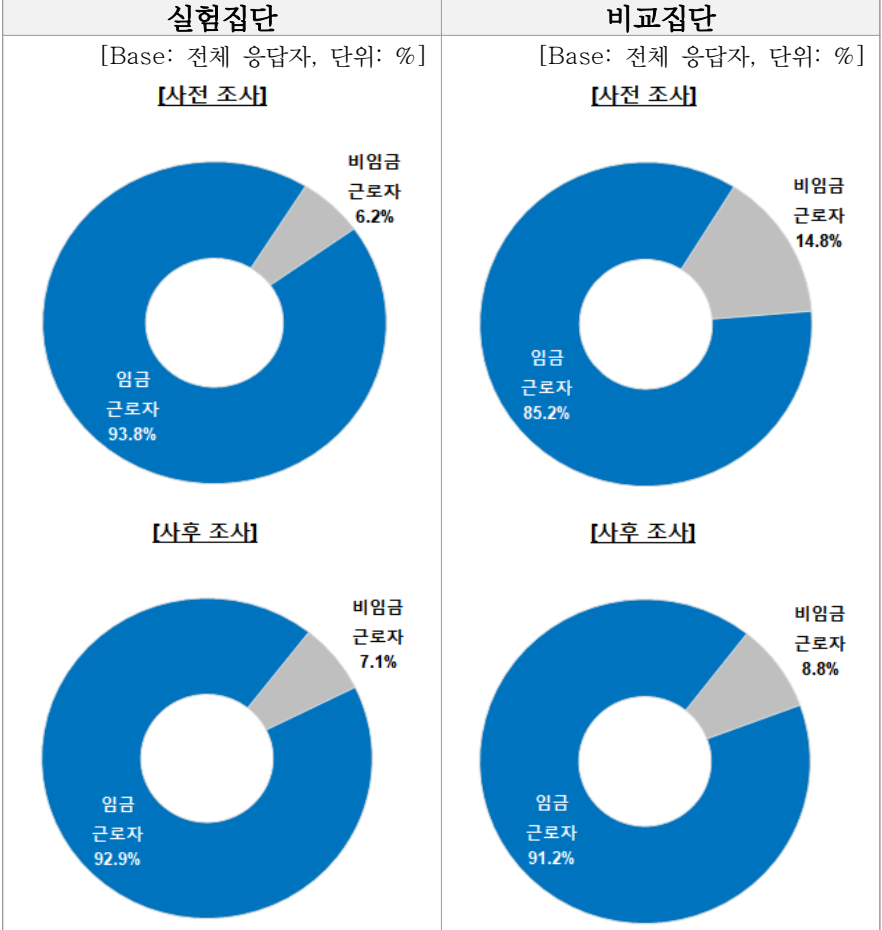


2.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 경제활동 상태

1)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 ‘임금노동자’(92.9%), 비교집단 ‘임금 노동자’(91.2%)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59>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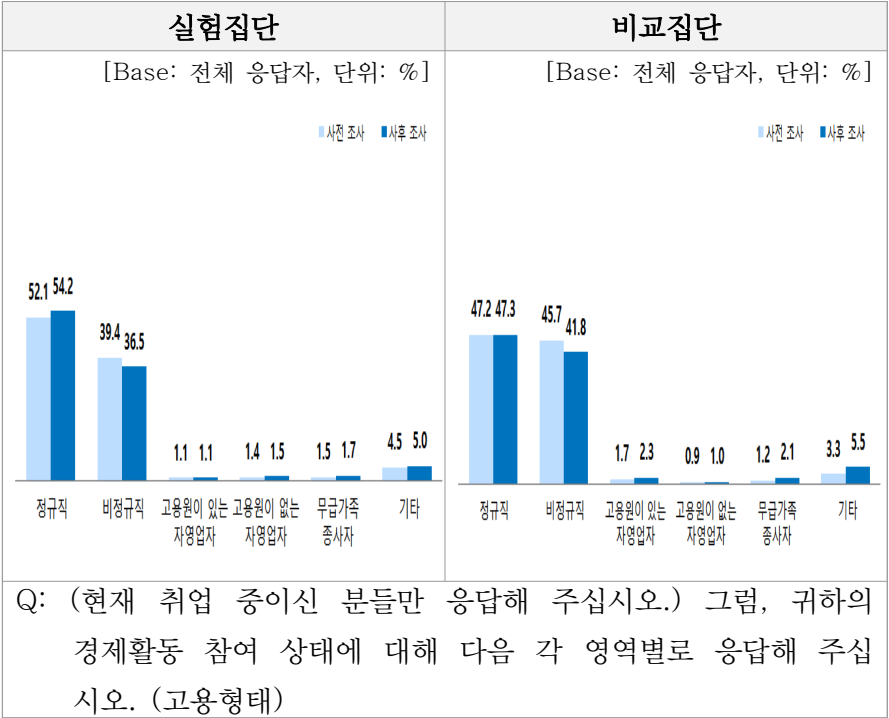


Q: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하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다음 각 영역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종사상 지위)

2) 고용 형태

-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의 고용 형태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정규직’(각각 54.2%, 47.3%)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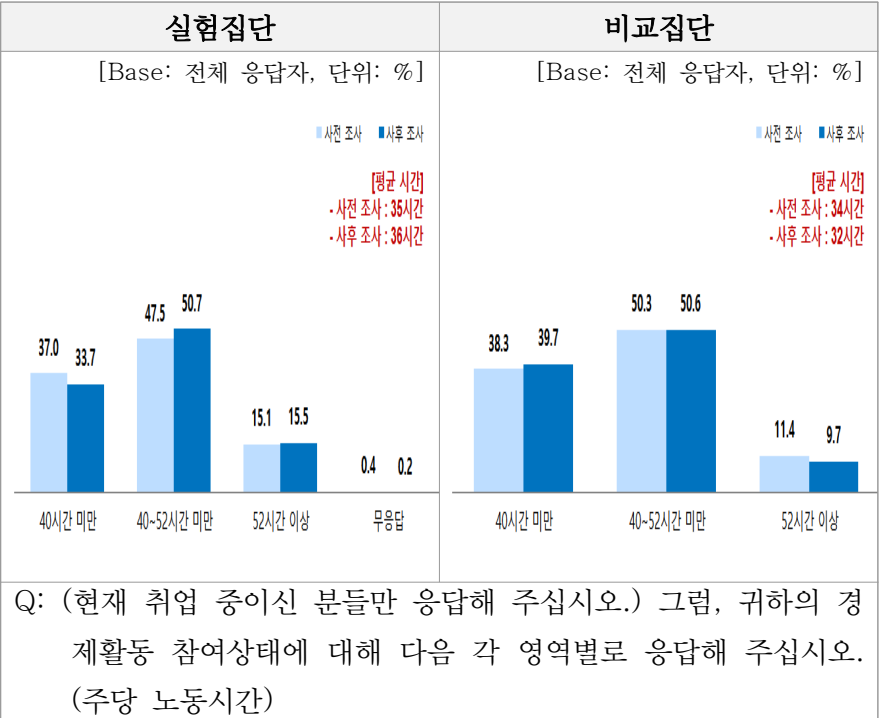
<그림60>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 고용 형태



3) 주당 노동시간

○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36시간, ‘비교 집단’은 평균 32시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61> [경제활동 참여 응답자]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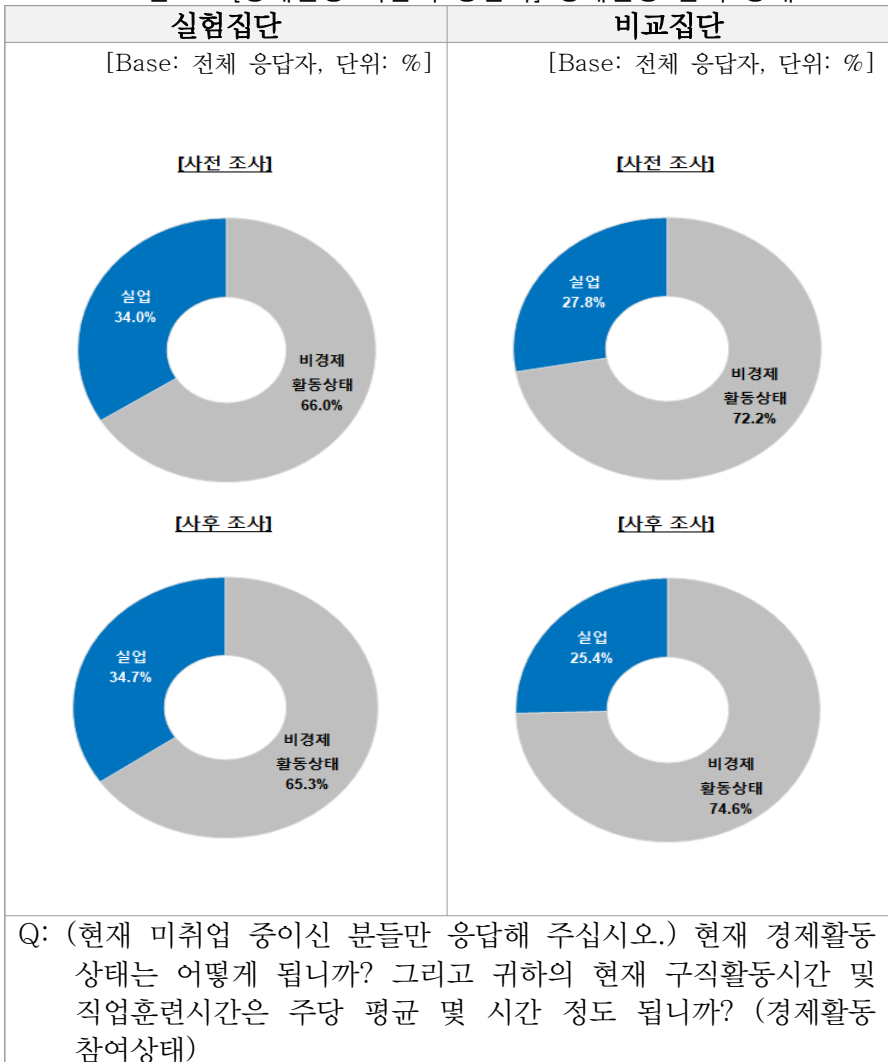


3.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 경제활동 상태

1)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 ‘실업’(34.7%), 비교집단 ‘실업’(25.4%)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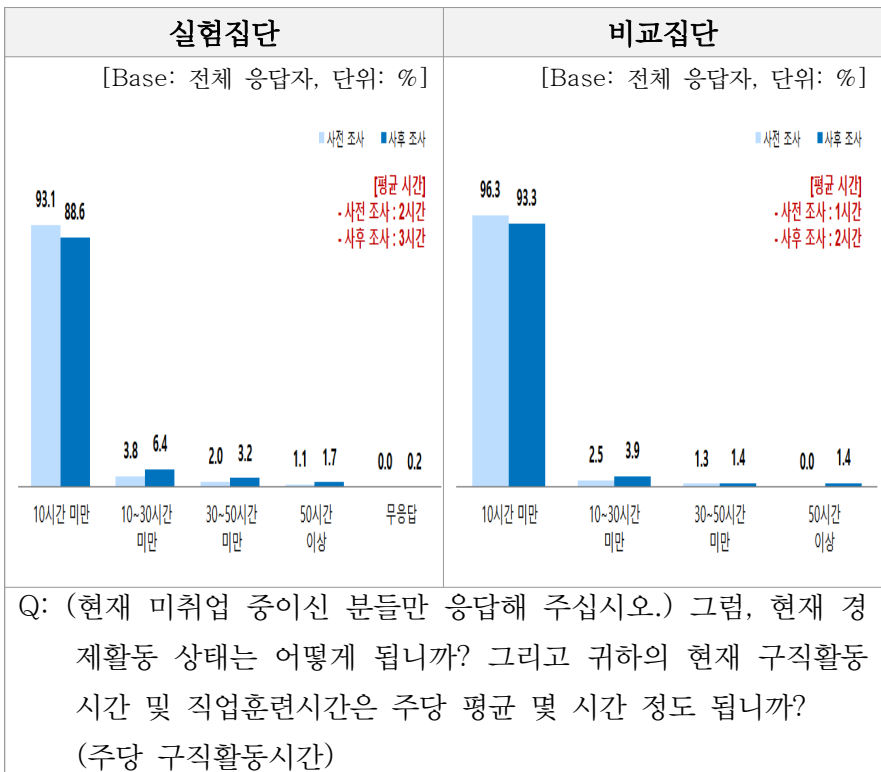
<그림62>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 상태



2) 주당 구직활동 시간

○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의 주당 구직활동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3시간, ‘비교집단’은 평균 2시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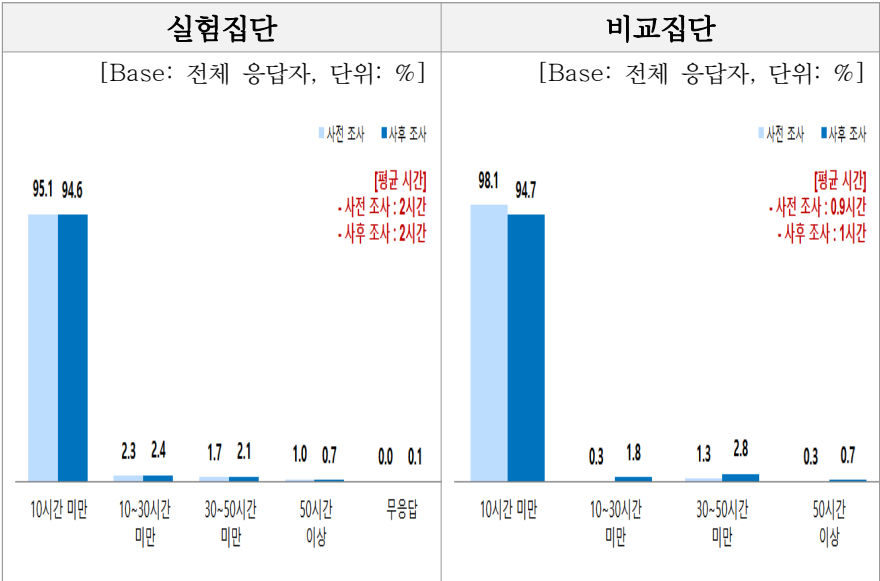
<그림63>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 주당 구직활동 시간



3) 주당 직업훈련 시간

-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의 주당 직업훈련 시간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2시간, ‘비교집단’은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64>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 주당 직업훈련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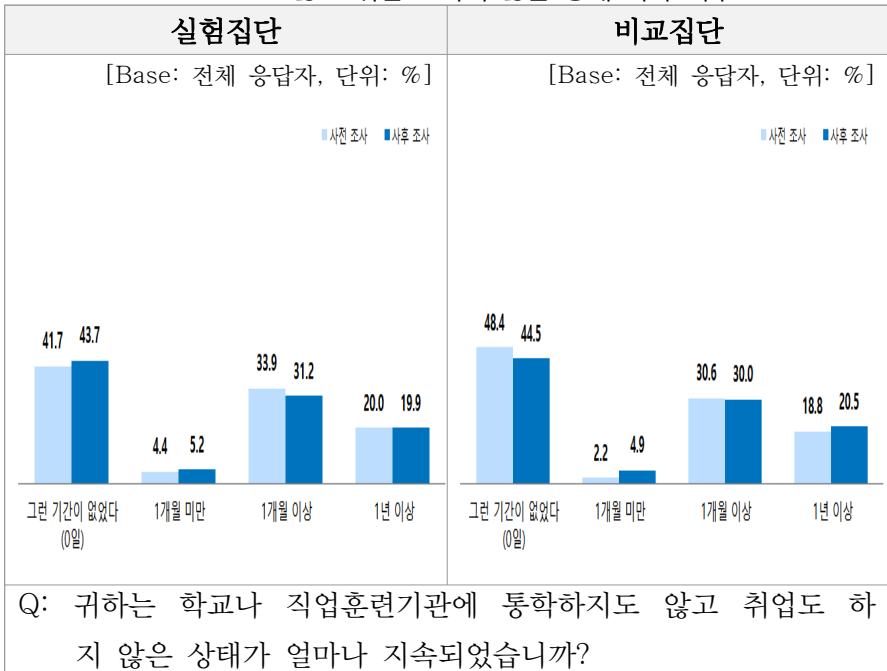


Q: (현재 미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귀하의 현재 구직활동 시간 및 직업훈련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주당 직업훈련시간)

4)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여부

○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의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그런 기간이 없었다(0일)’ (각각 43.7%, 44.5%)가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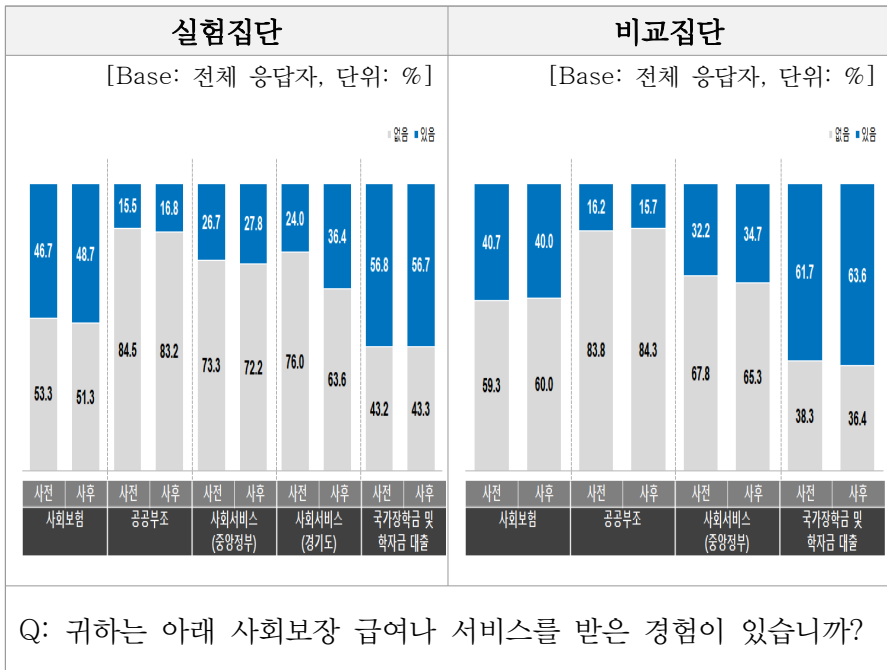
<그림65> [경제활동 미참여 응답자]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여부



4.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경험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경험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각각 66.7%, 63.6%)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66>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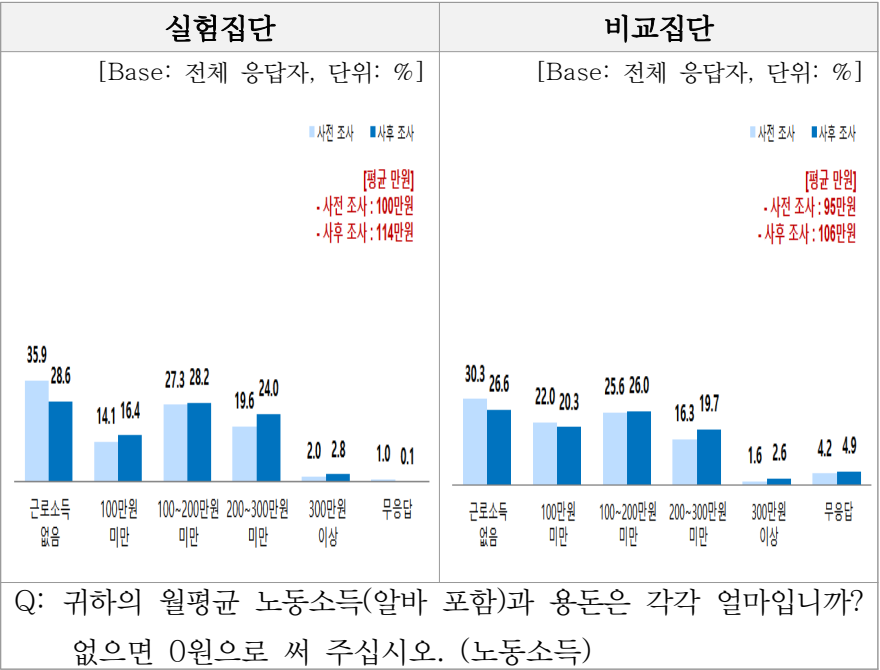


5. 월 평균 소득

1) 노동소득

- 월 평균 노동소득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14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106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월 평균 노동소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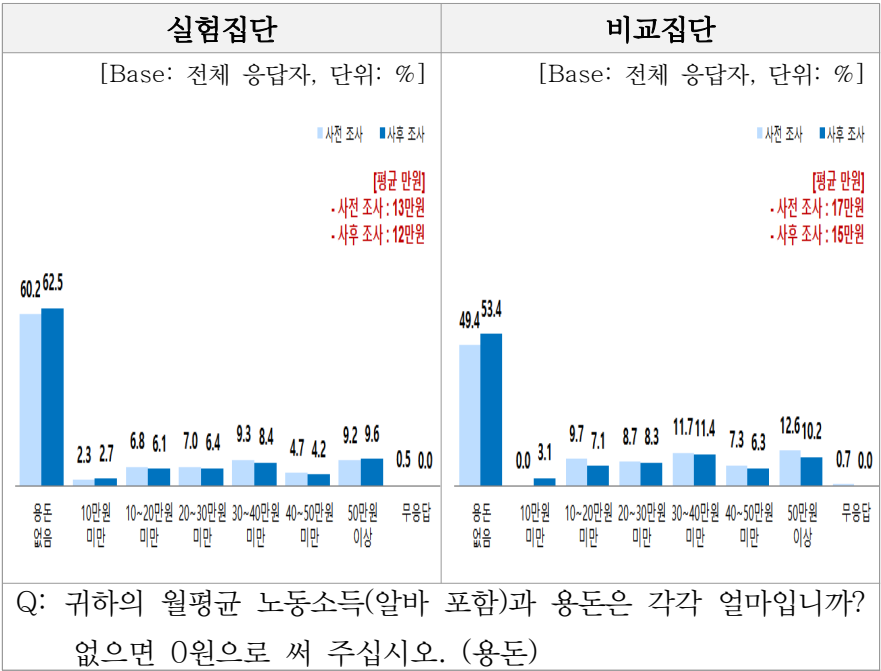
<그림67> 월 평균 소득_노동소득



2) 용돈

- 월 평균 용돈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2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15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월 평균 용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68> 월 평균 소득_용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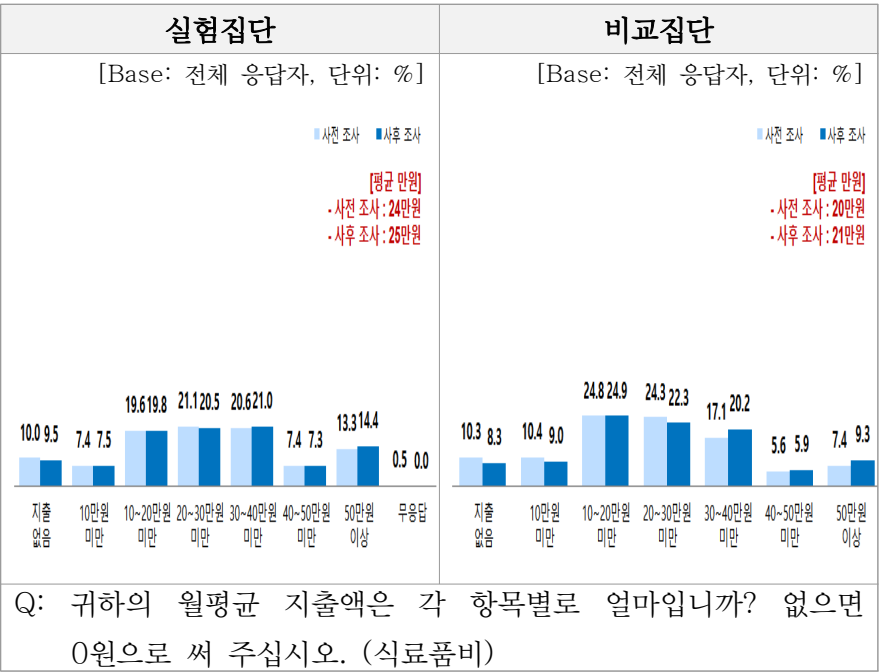


6. 월 평균 지출액

1) 식료품비

- 월 평균 지출액 중 [식품소비]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25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월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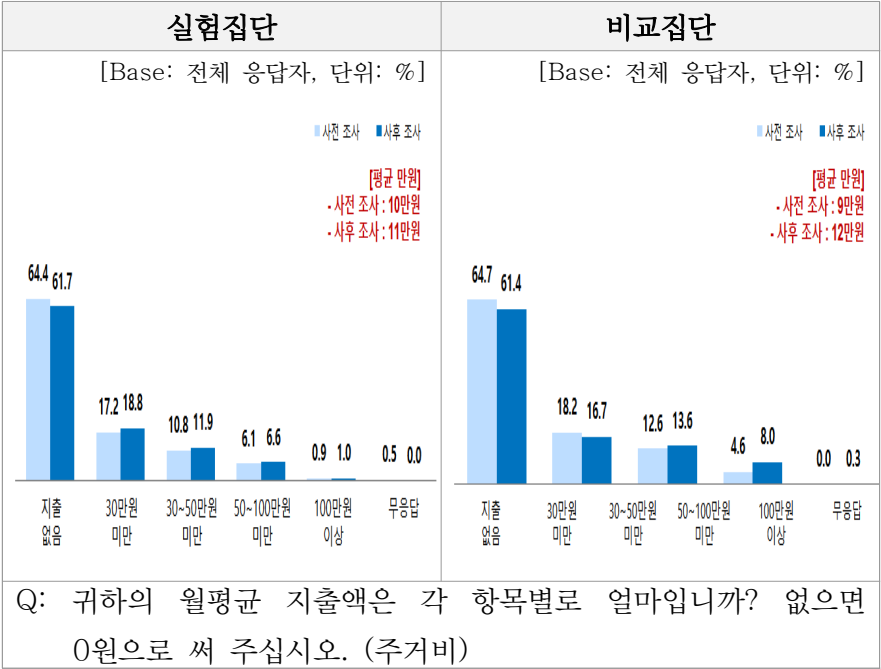
<그림69> 월 평균 지출액_식료품비



2) 주거비

- 월 평균 지출액 중 [주거비]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1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12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월 평균 주거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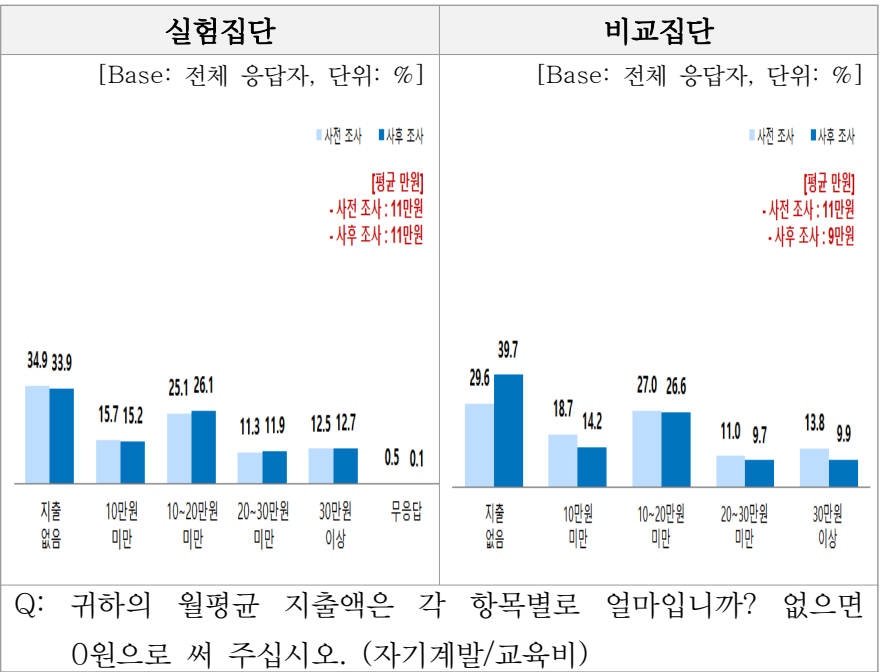
<그림70> 월 평균 지출액_주거비



3) 자기계발 및 교육비

- 월 평균 지출액 중 [자기계발 및 교육비]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1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9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비교집단’의 월 평균 자기계발 및 교육비 지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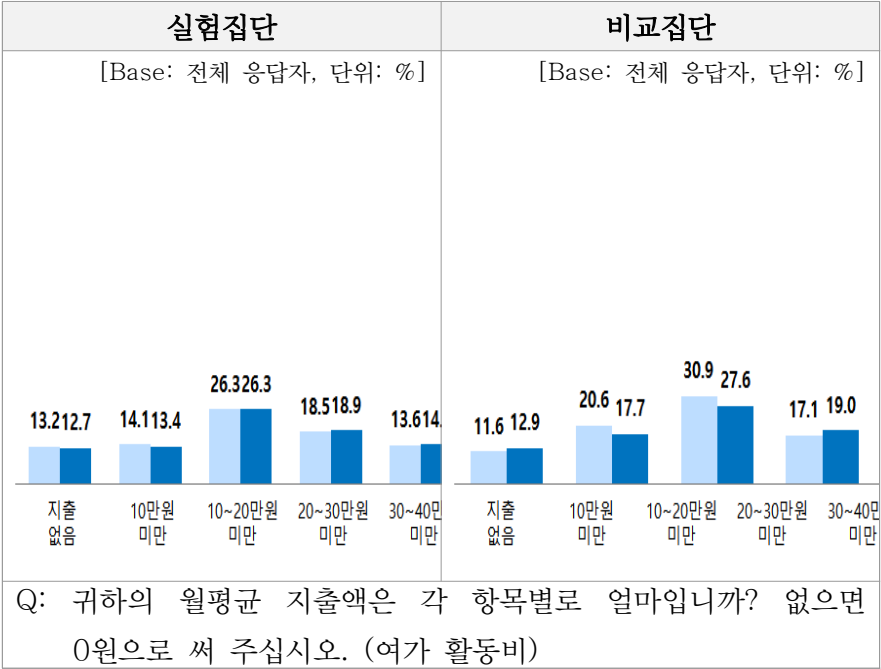
<그림71> 월 평균 지출액_자기계발 및 교육비



4) 여가 활동비

- 월 평균 지출액 중 [여가 활동비] 금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19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16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비교집단'의 월 평균 여가 활동비 지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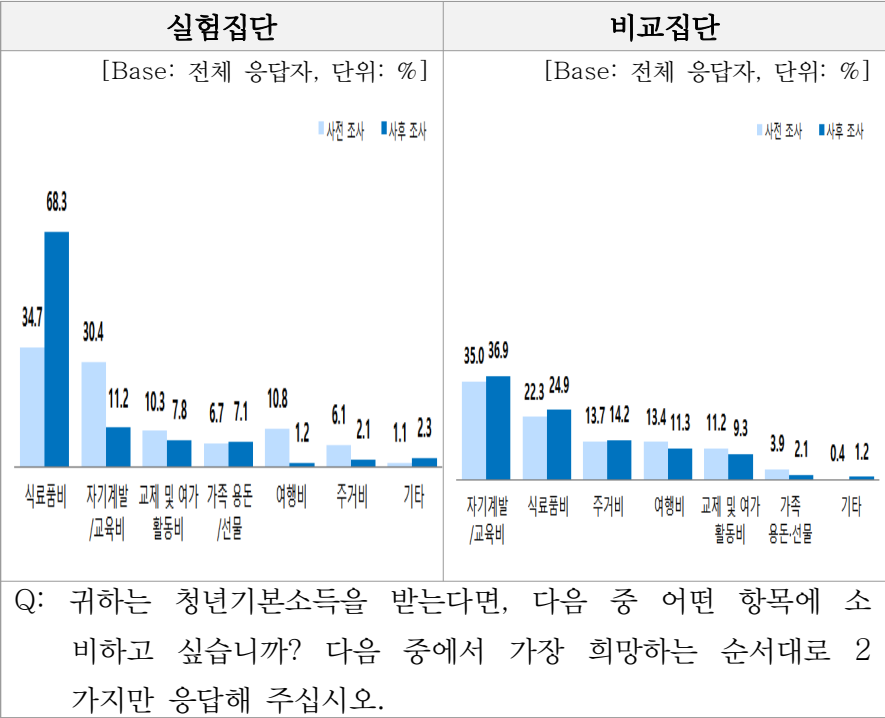
<그림72> 월 평균 지출액_여가 활동비



7.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소비하고 싶은 항목(1순위 기준)

○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소비하고 싶은 항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식료품비’가 68.3%로 가장 높고, 비교집단은 ‘자기계발/교육비’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73>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소비하고 싶은 항목(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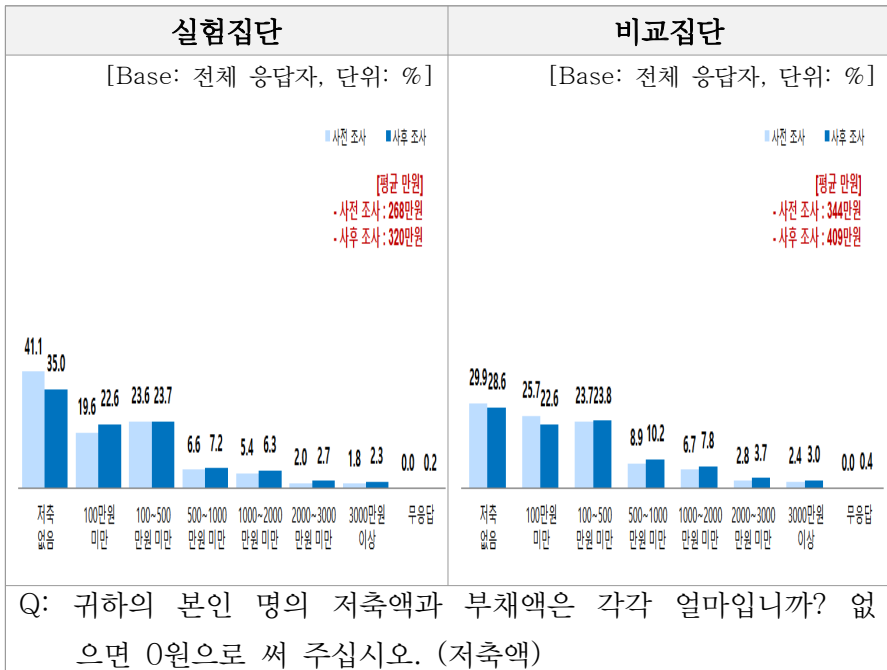


8. 본인 명의 저축액 및 부채액

1) 저축액

- 본인 명의 저축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320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409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본인 명의 저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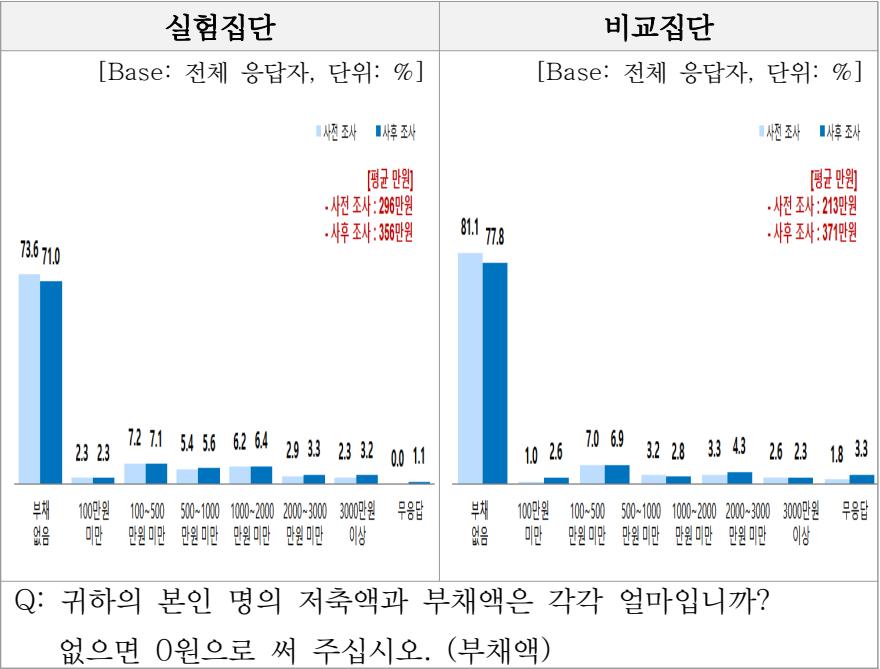
<그림74> 본인 명의 저축액 및 부채액_저축액



2) 부채액

- 본인 명의 부채액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은 평균 356만원, ‘비교집단’은 평균 371만원으로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본인 명의 부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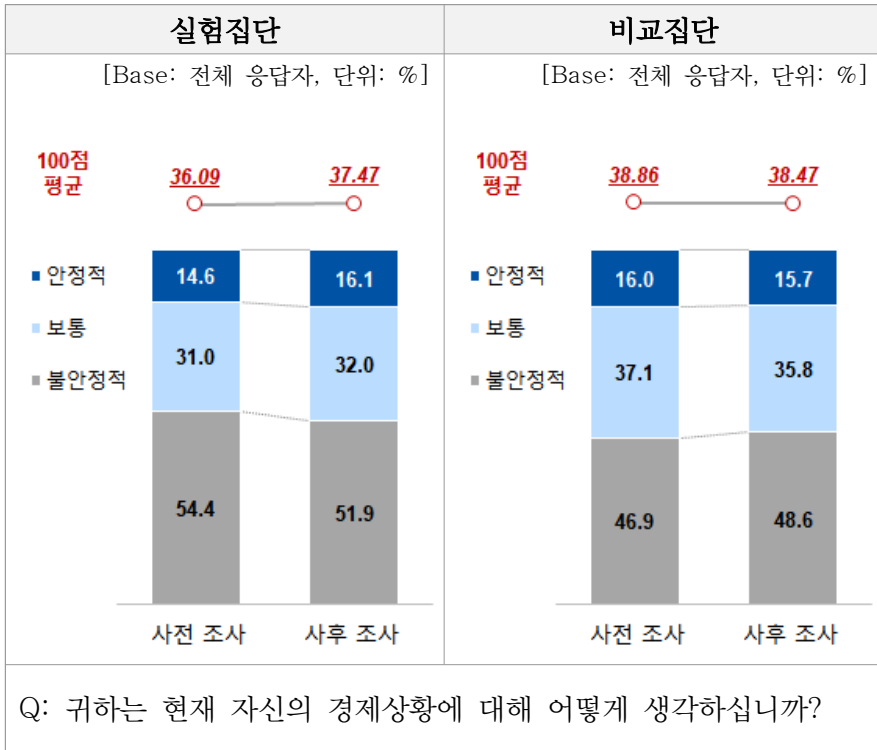
<그림75> 본인 명의 저축액 및 부채액_부채액



9.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7.47점으로 ‘비교집단’ (38.47점) 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6.09점 → 37.47점(+1.38점)
 - 비교집단 : 38.86점 → 38.47점(-0.3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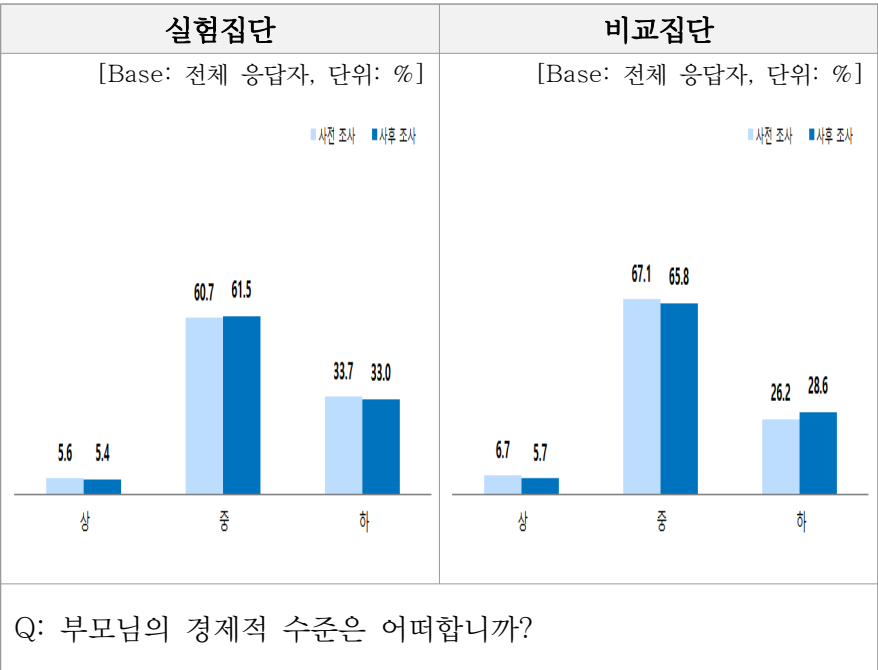
<그림76>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10.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중’(각각 61.5%, 65.8%)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그림77>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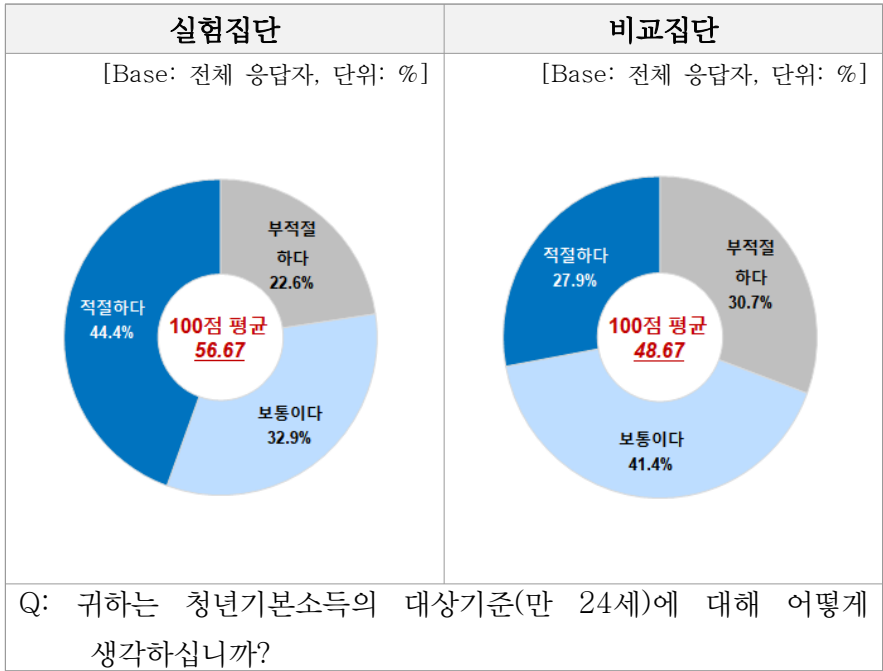


VI.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1.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 청년기본소득의 대상기준(만24세)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의 ‘적절하다’가 44.4%로 ‘비교집단’(27.9%)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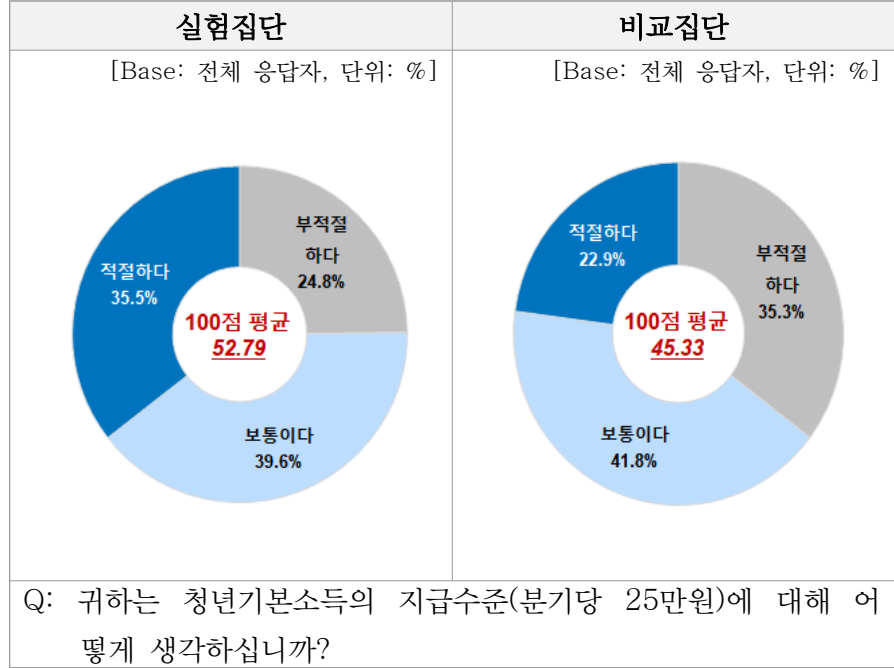
<그림78>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2.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준에 대한 인식

-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준(분기당 25만원)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의 ‘적절하다’가 35.5%로 ‘비교집단’(22.9%)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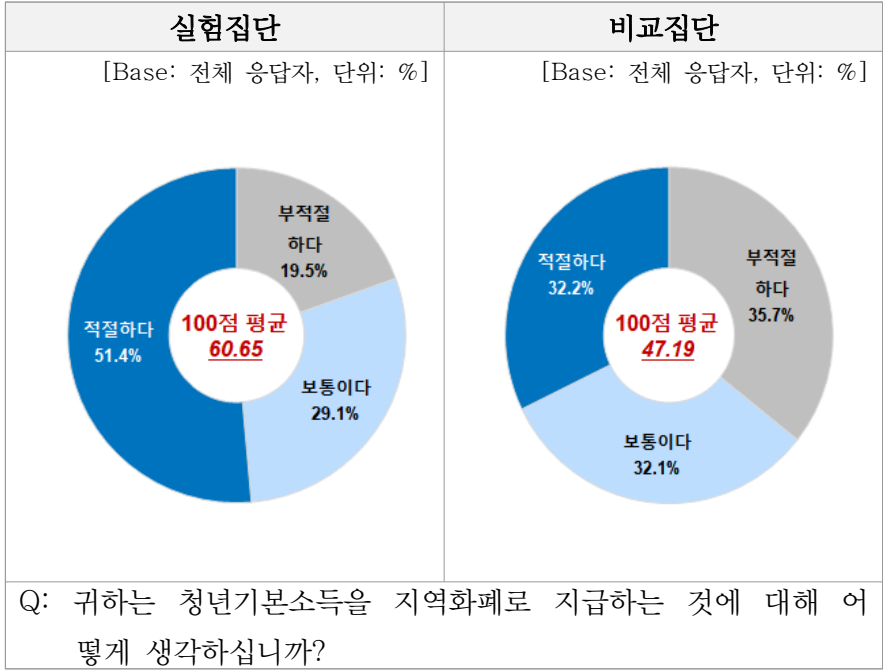
<그림79>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준에 대한 인식



3.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의 ‘적절하다’가 51.4%로 ‘비교집단’(32.2%)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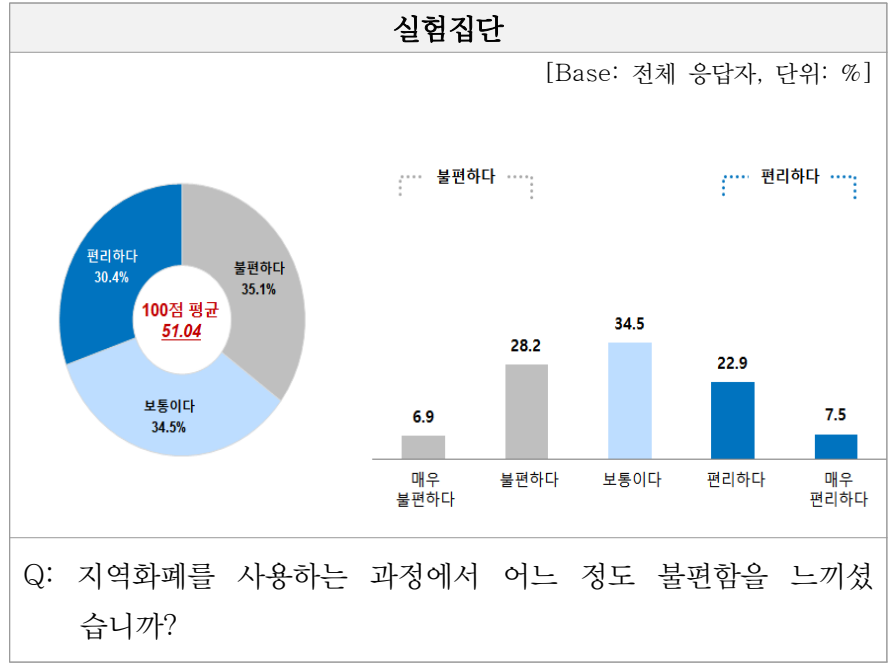
<그림80>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4. 지역화폐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 정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 정도에 대해 ‘편리하다’(매우 편리하다 : 7.5% + 편리하다 : 22.9%) 30.4%로 ‘불편하다’(불편하다 : 28.2% + 매우 불편하다 : 6.9%) 35.1%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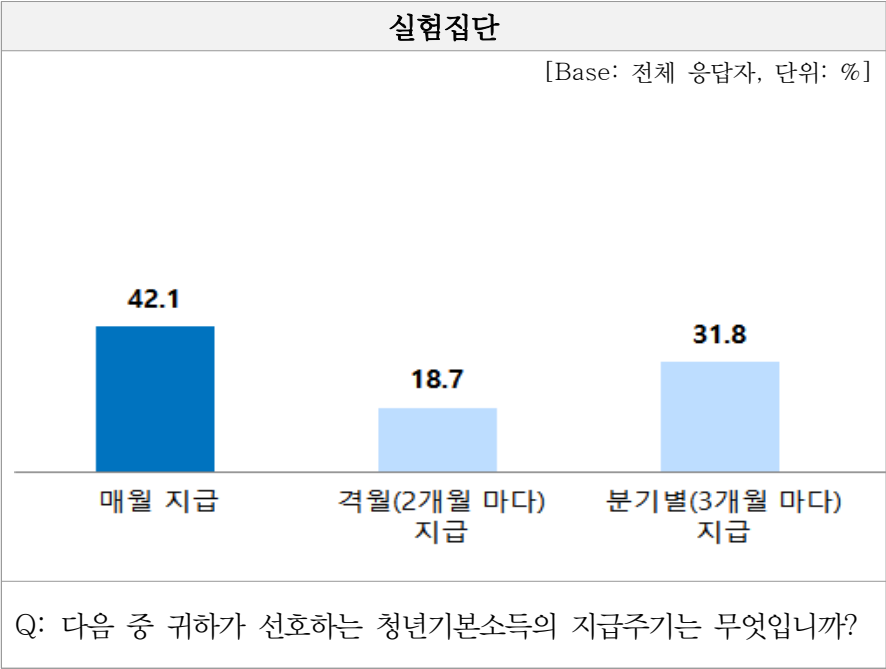
<그림81> 지역화폐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 정도



5. 선호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주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주기로 ‘매월 지급’이 4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기별(3개월 마다)지급’(31.8%), ‘격월(2개월 마다)지급’(18.7%), ‘반기별(6개월 마다)지급’(7.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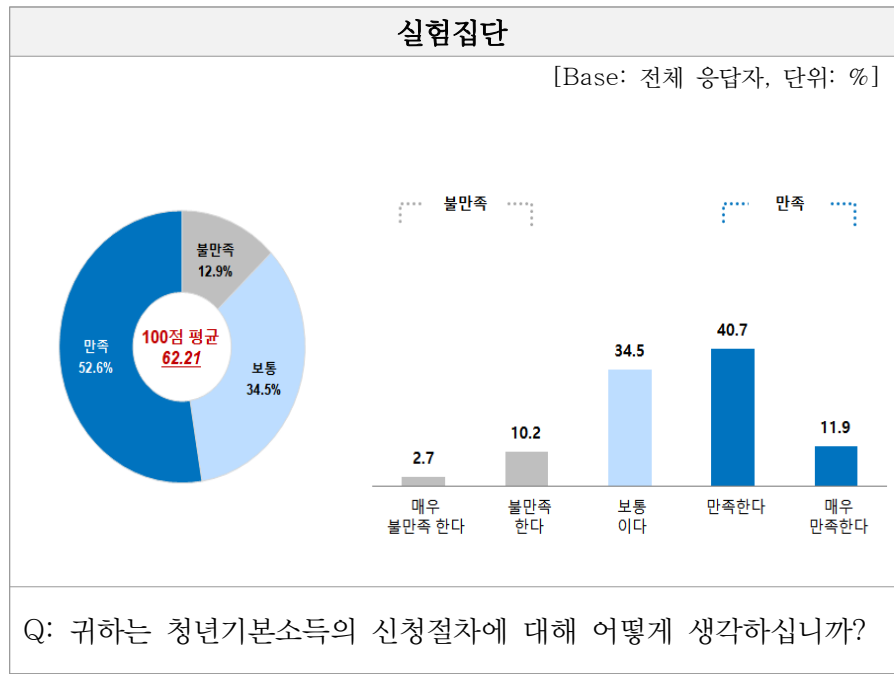
<그림82> 선호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주기



6.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만족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만족도는 100점 평균 62.21점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만족’(매우 만족한다 : 11.9% + 만족한다 : 40.7%) 52.6%로 ‘불만족’(불만족 한다 : 10.2% + 매우 불만족한다 : 2.7%) 12.9%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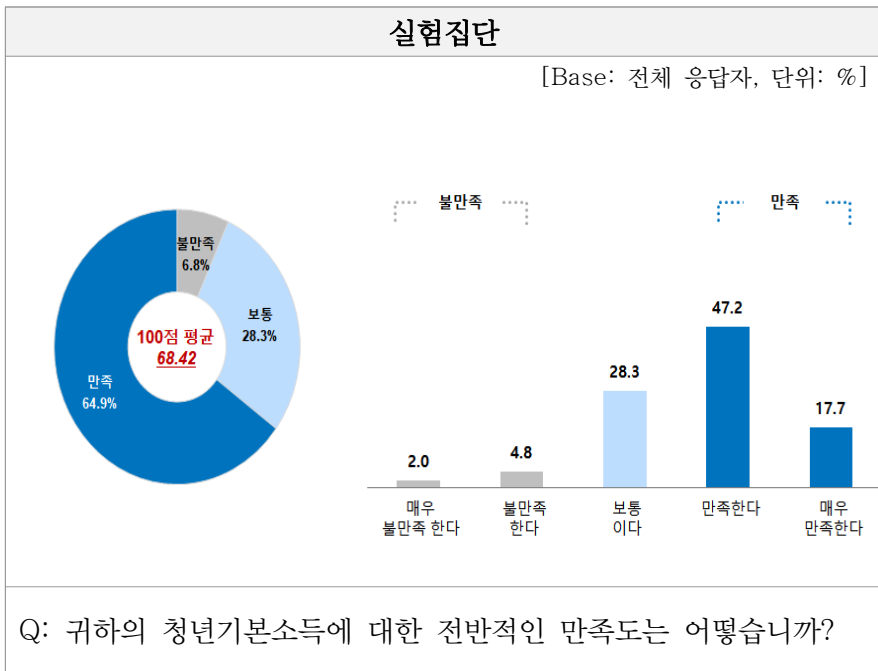
<그림83>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만족도



7. 청년기본소득 전반적 만족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의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평균 68.42점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만족’(매우 만족한다 : 17.7% + 만족한다 : 47.2%) 64.9%로 ‘불만족’(불만족 한다 : 4.8% + 매우 불만족한다 : 2.0%) 6.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84> 청년기본소득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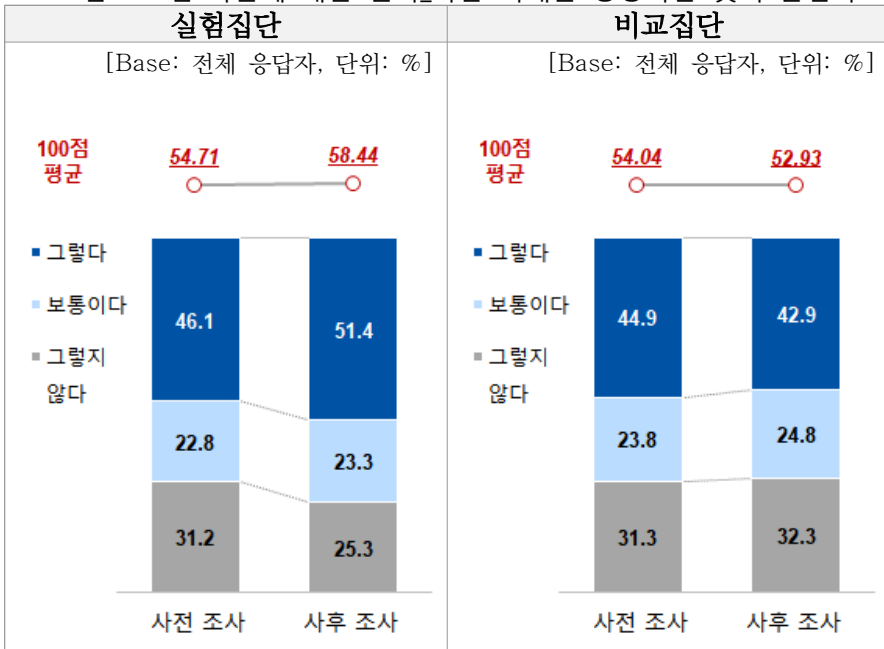


Ⅶ. 꿈-자본에 대한 인식

1.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8.44점으로 ‘비교집단’(52.93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4.71점 → 58.44점(+3.73점)
 - 비교집단 : 54.04점 → 52.93점(-1.11점)

<그림85>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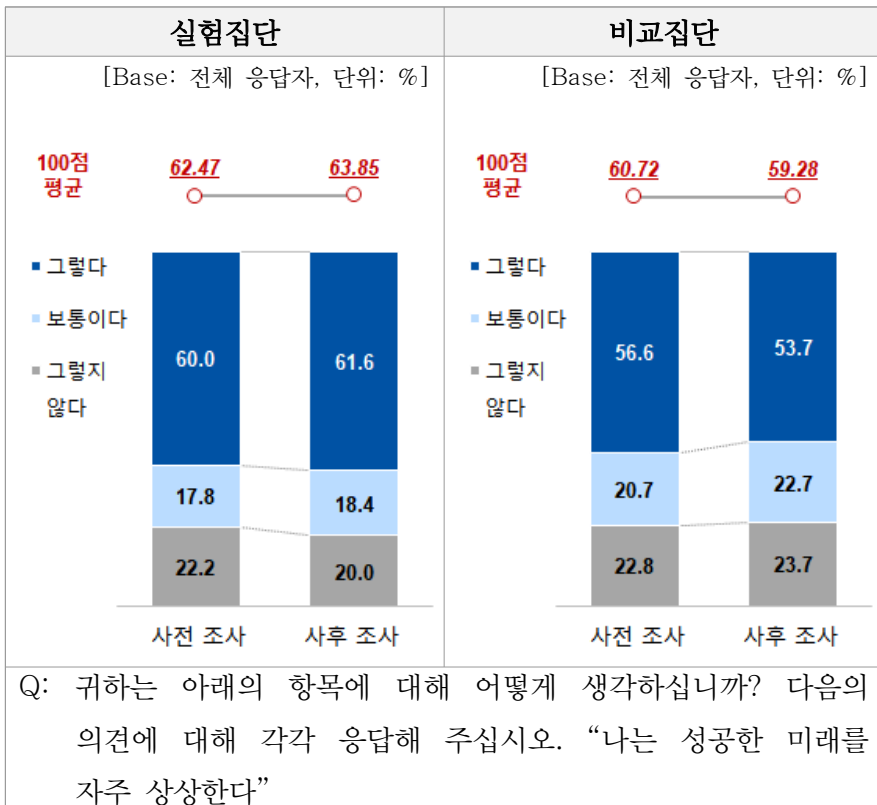


Q: 귀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의견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2.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3.85점으로 ‘비교집단’(59.28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2.47점 → 63.86점(+1.39점)
 - 비교집단 : 60.72점 → 59.28점(-1.44점)

<그림86>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성공한 미래를 자주 상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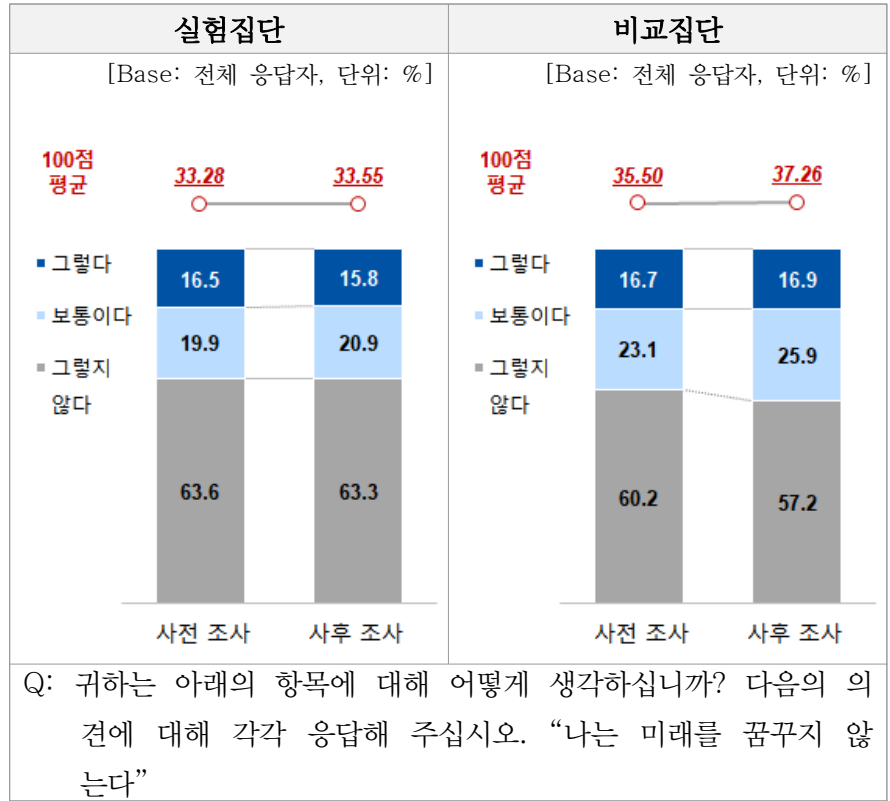
3.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3.55점으로 ‘비교집단’(37.26점) 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3.28점 → 33.55점(+0.27점)
- 비교집단 : 35.50점 → 37.26점(+1.7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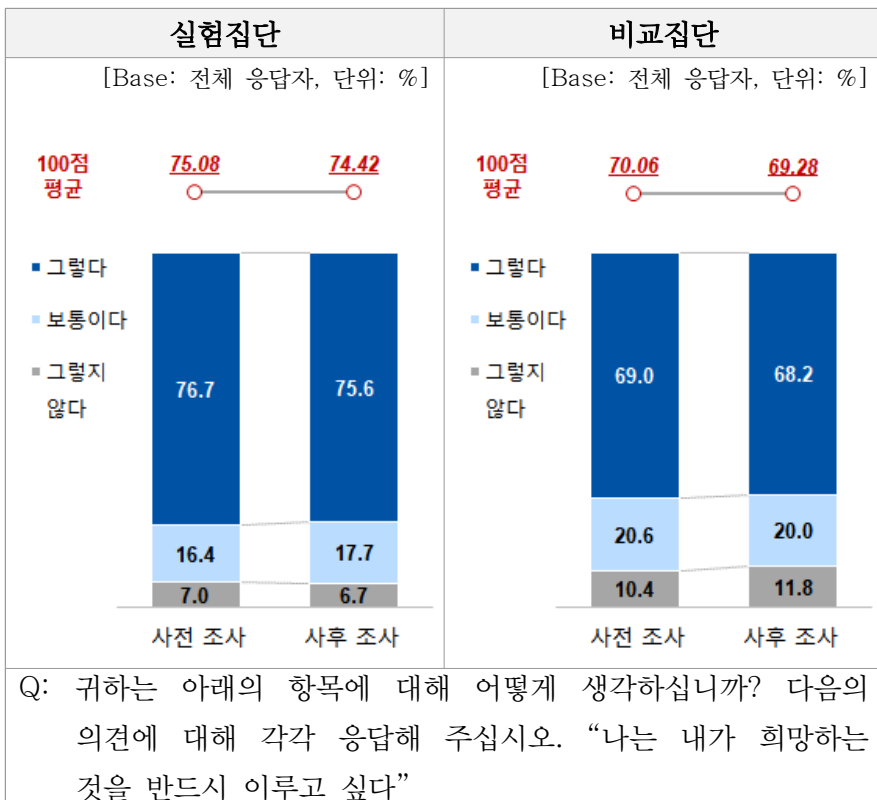
<그림87>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4.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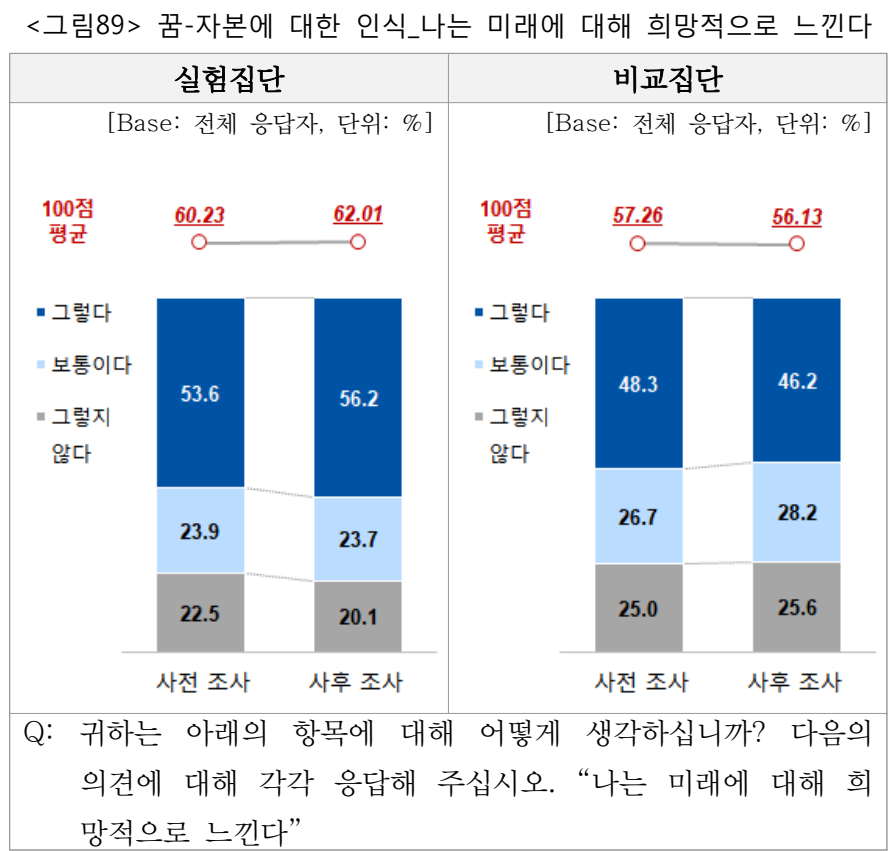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74.42점으로 ‘비교집단’(69.28점) 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75.08점 → 74.42점(-0.66점)
 - 비교집단 : 70.06점 → 69.28점(-0.78점)

<그림88> 꿈-자본에 대한 인식-나는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5.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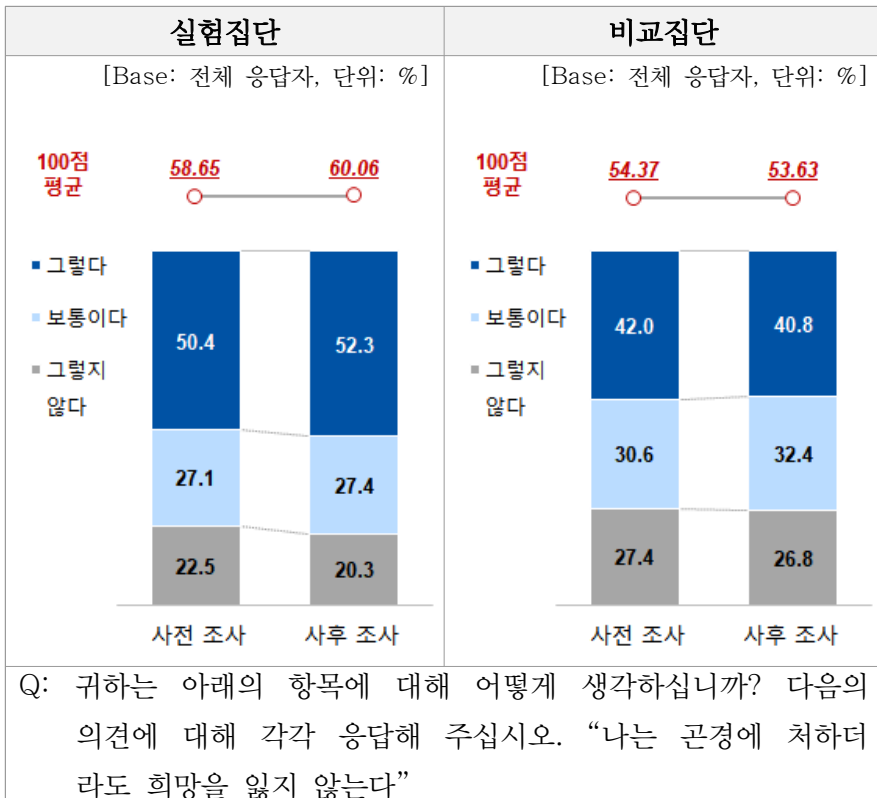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2.01점으로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0.23점 → 62.01점(+1.78점)
 - 비교집단 : 57.26점 → 56.13점(-1.13점)



6.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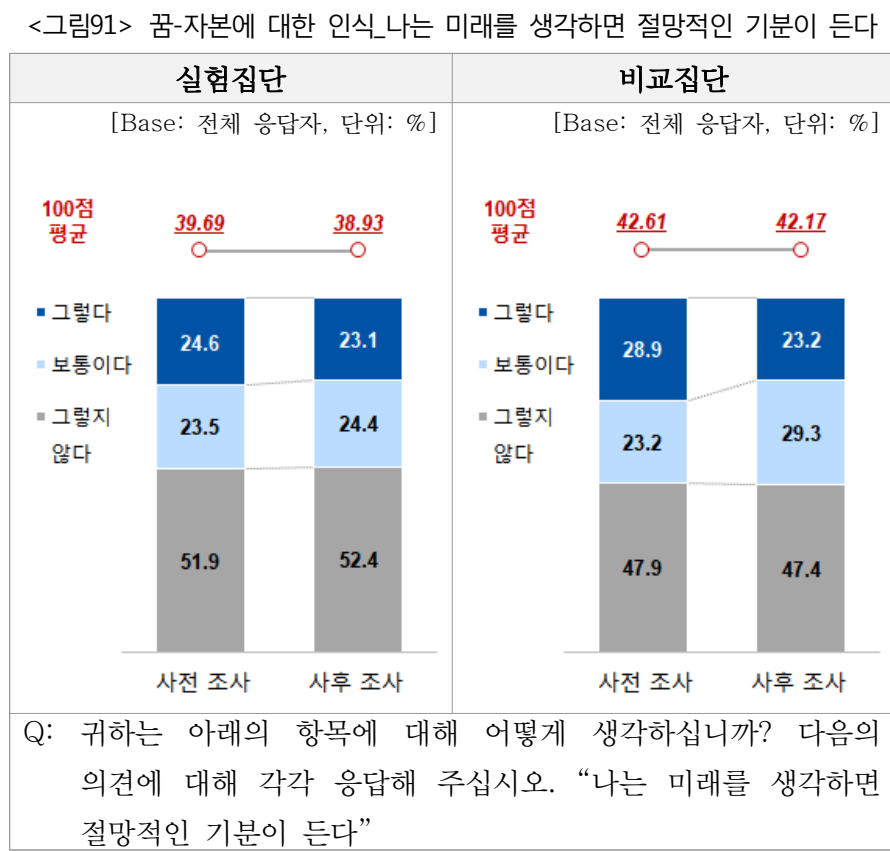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0.06점으로 ‘비교집단’(53.63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8.65점 → 60.06점(+1.41점)
 - 비교집단 : 54.37점 → 53.63점(-0.74점)

<그림90> 꿈-자본에 대한 인식-나는 곤경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7.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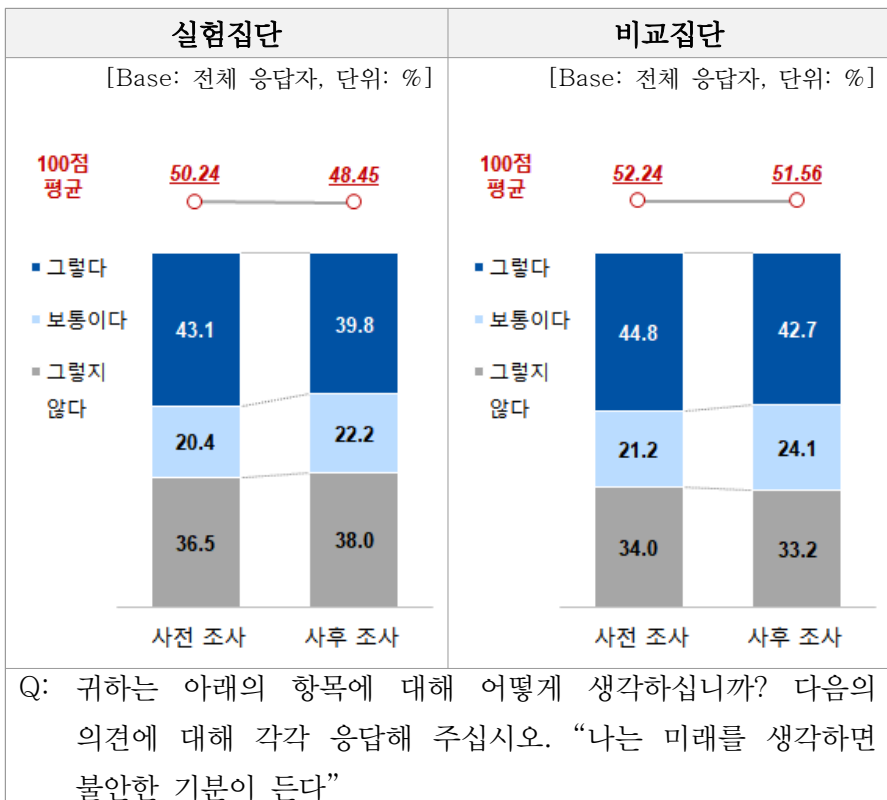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생각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8.93점으로 ‘비교집단’(42.17점) 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9.69점 → 38.93점(-0.76점)
 - 비교집단 : 42.61점 → 42.17점(-0.44점)



8.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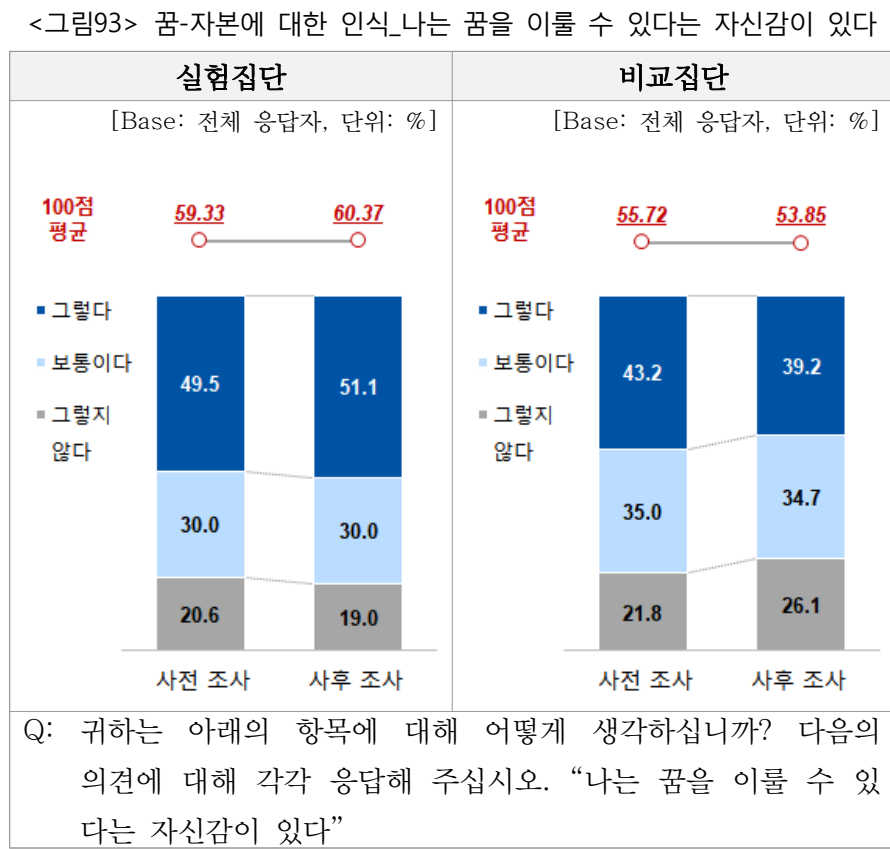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48.45점으로 ‘비교집단’(51.56점) 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0.24점 → 48.45점(-1.79점)
 - 비교집단 : 52.24점 → 51.56점(-0.68점)

<그림92>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기분이 든다



9.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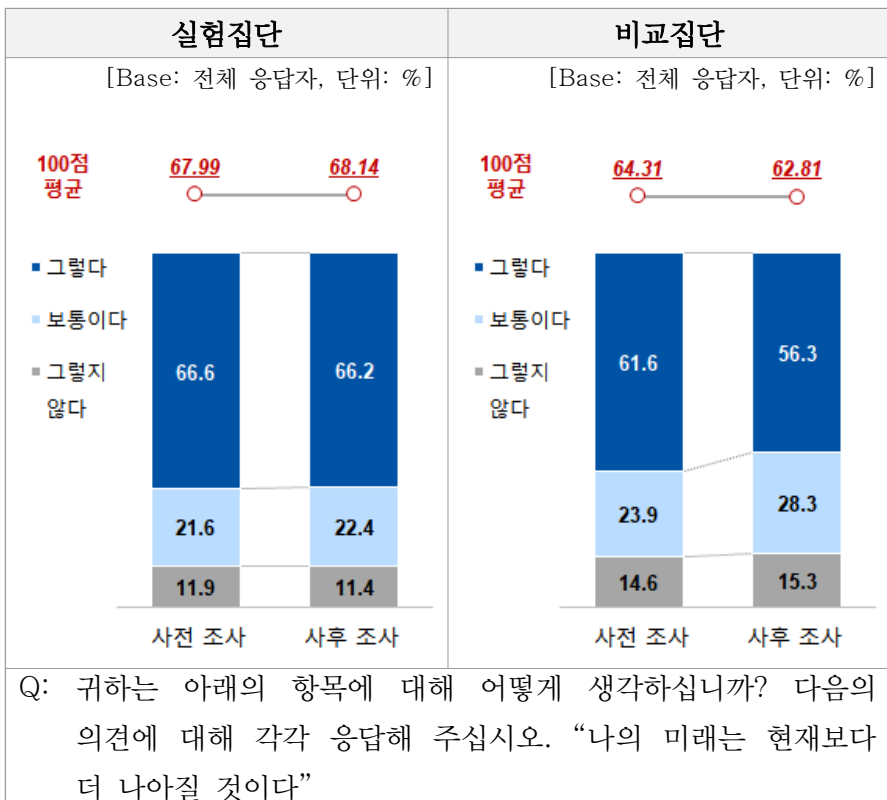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0.37점으로 ‘비교집단’(53.85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9.33점 → 60.37점(+1.04점)
 - 비교집단 : 55.72점 → 53.85점(-1.87점)



10.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8.14점으로 ‘비교집단’(62.8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7.99점 → 68.14점(+0.15점)
 - 비교집단 : 64.31점 → 62.81점(-1.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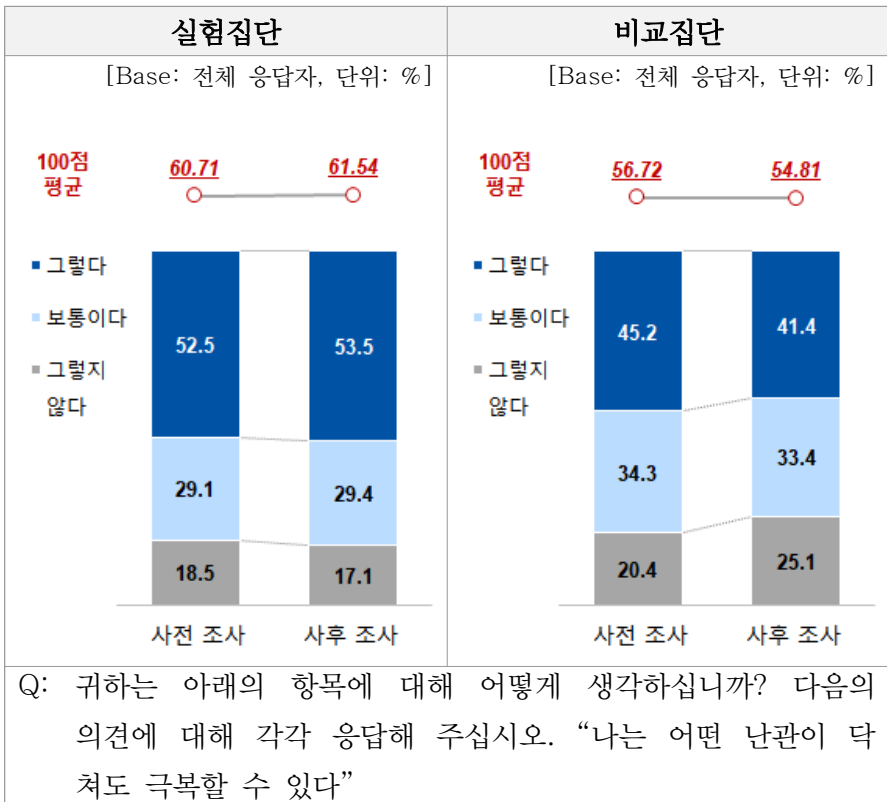
<그림94>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11.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1.54점으로 ‘비교집단’(54.81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0.71점 → 61.54점(+0.83점)
 - 비교집단 : 56.72점 → 54.81점(-1.9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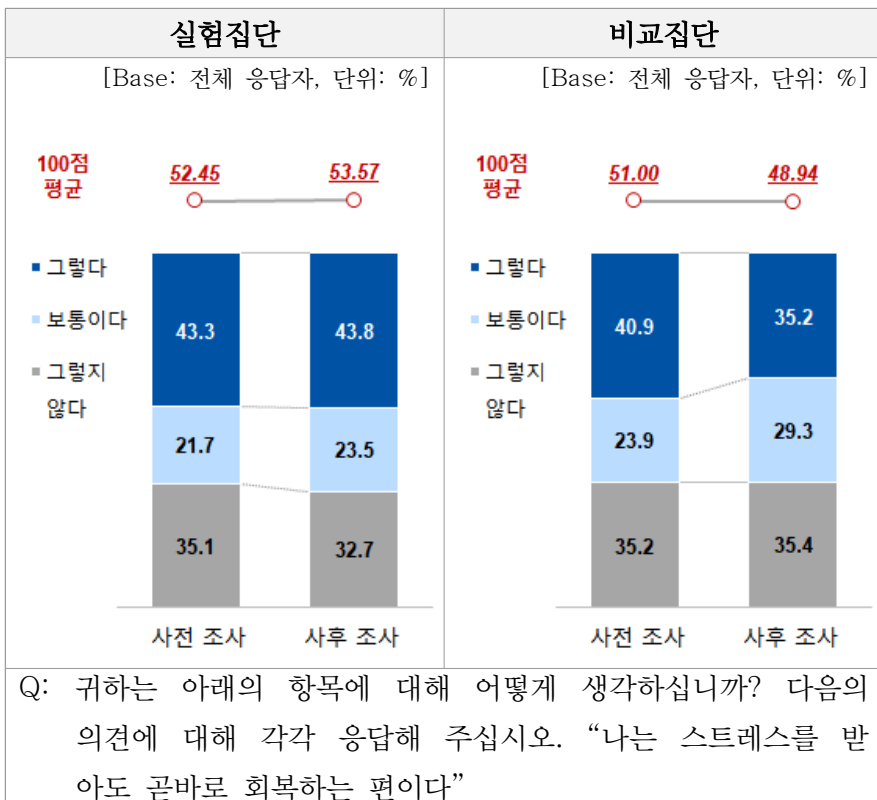
<그림95>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어떤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12.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53.57점으로 ‘비교집단’(48.94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2.45점 → 53.57점(+1.12점)
 - 비교집단 : 51.00점 → 48.94점(-2.06점)

<그림96> 꿈-자본에 대한 인식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바로 회복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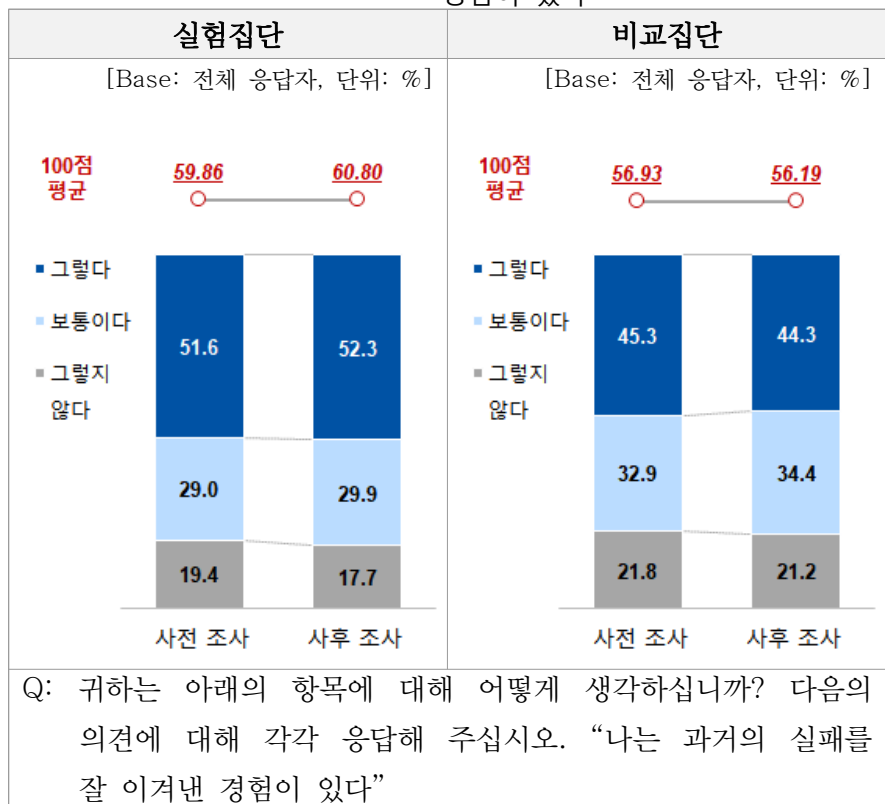
13.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0.80점으로 ‘비교집단’(56.19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59.86점 → 60.80점(+0.94점)
- 비교집단 : 56.93점 → 56.19점(-0.7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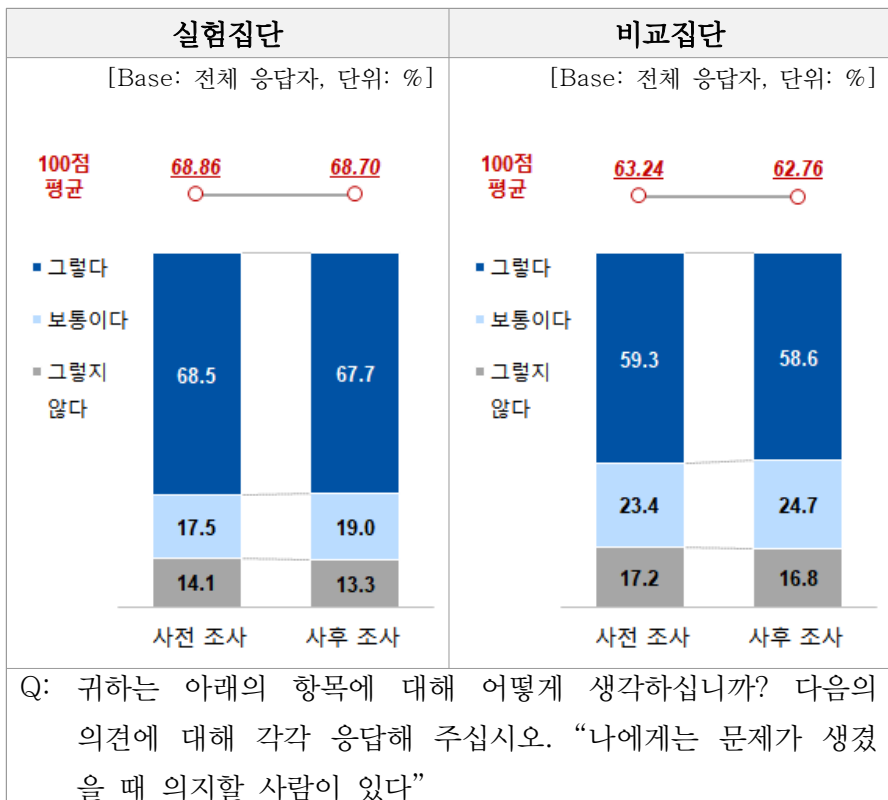
<그림97> 꿈-자본에 대한 인식_나는 과거의 실패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다



14. 나에게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68.70점으로 '비교집단'(62.76점)보다 높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68.86점 → 68.70점(-0.16점)
 - 비교집단 : 63.24점 → 62.76점(-0.48점)

<그림98> 꿈-자본에 대한 인식 나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



15.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실험집단’이 39.98점으로 ‘비교집단’(43.46점)보다 낮게 나타남. (사후조사 기준)
-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 : 39.93점 → 39.98점(+0.05점)
- 비교집단 : 43.56점 → 43.46점(-0.10점)

<그림99> 꿈자본에 대한 인식 나는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